

## 목 차

陶山書院 板刻活動 研究	
배현숙	3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임근실	69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16~18세기) 경향	
한재훈	109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	
羅琴	133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이광우	151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채광수	187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이병훈	223
晚淸書院藏書制度研究	
鄧洪波·張曉新	265
베트남 복강서원(福江書院)의 장서(藏書)와 그 의의	
이우진	287
일본서원의 장서구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야규 마코토	301



# 陶山書院 板刻活動 研究

裴賢淑\*

- I. 緒言
- II. 陶山書院의 來歷
- III. 陶山書院 板刻 書籍
- IV. 陶山書院 書籍의 板刻 過程의 記錄
- V. 陶山書院 板刻 書籍의 特徵과 意義
- VI. 結言

## I. 緒言

조선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의 鼻祖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세종 연간에 이미 사사로이 설립한 서원이 있었다. 세종 즉위(1418)년 11월에 사사로이 서원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치면 포상할 것이라는 유시를 반포하자, 사재로 서원을 설치하고 생도를 교육하는 서원이 생겨났다. 세종 2(1420)년 1월 金堤에서 전 敎授官 鄭坤과 光州에서 생원 崔保民, 9월에는 평안도에서 생원 姜友諒이 서원을 설립하고 생도를 교수하였다.<sup>1</sup> 이로서 조선 최초로 서원이 설립된 것은 국왕 세종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계명문화대학교 명예교수(hspae7714@nate.com)

1 『世宗實錄』, 권2. 즉위(1418)년 11월3일 기유; 권7. 2(1420)년 1월21일 庚申; 권9. 2(1420)년 9월24일 己丑; 鄭洪波, 趙偉,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서원학보』 9, 2019, 210.

그러나 당시의 서원에서 강학한 내용과 자세한 활동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였으므로, 백운동서원을 우리나라 서원의 시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원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 祠宇를 들 수 있다. 사우는 여말 鄭夢周 등이 제창하여 설치한 家廟에서 발전하였고, 이후 조선 건국 후 충의를 다한 공신과 명현들을 적극 추존한 것이 전국 각지의 사우 건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別廟·世德祠·影堂·里祠·遺愛祠·鄉祠·鄉賢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사우를 설치한 목적은 공이 많은 공신과 명현에 대한 예우와 祀賢을 통해 향촌민의 교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우는 공신과 명현을 봉사하는 기능이 위주였다. 향촌민의 교화한다는 점에서 서원과 사우는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나 서원은 先賢祭享의 기능 외에 講學과 藏修의 기능도 증시되었다. 따라서 서원은 선현과 선사를 봉사하는 祠와 강학과 장수하는 齋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점에 있어 서원은 준립 목적과 기능에 있어 사우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우를 건립한 후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여 점차 두 개념은 혼용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원은 강학과 장수하는데 있어 타고난 본성을 밝히는 인격 도야가 핵심이었다. 조선의 서원교육은 과거시험을 벗어나 참다운 학문인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시하였다. 이에 서원의 교육은 개별학습인 讀書과 공동학습인 講學을 병행시켰다. 독서는 '소학'부터 시작해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더 심오하게 발전시켰다. 강학과 장수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가 서적이다.

서원은 지역사회의 지식 중심의 중추로서 강학·출판·장서를 통해 성리학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식 확산과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원 설립 초기에는 기증이나 구매로 서적을 마련하다가, 후기에는 서원이 직접 서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원이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서 출판문화를 발전시켰고, 나아가 이를 수장하여 교육 문고로서의 기능도 하였기 때문이다. 서원은 장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장서목록도 비치하고, 서책을 서원 밖으로 유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다.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서원은 급속도로 파급되어 전국 도처에 서원이 없는 지역이 없

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철종 연간까지 무려 900여 서원이 건립되었고, 그 중 265여 서원이 사액되었다. 서원이 보급되면서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서적을 판각하는 서원도 생겨났다. 종래 최초의 서원판은 中和의 淸涼書院板으로 알려졌으나,<sup>2</sup> 실은 書院藏板本이었다. 명실상부한 서원판의 효시는 성주의 川谷書院板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서원판은 천곡서원의 원장 鄭述(1543-1620)가 선조 7(1574)년 간행한 『薛文淸公讀書錄(要語)』이고, 이어 선조 8(1575)년 간행한 『夙興夜寐箴』과 『朱子書節要』이 뒤를 이었다.<sup>3</sup>

이후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고 자체에서 필요한 서적을 많이 간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정조 20(1796)년 徐有渠가 편찬한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장판은 84개 서원의 184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설립된 서원수에 비해 활발하게 서적을 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서적이 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상기는 경남지방의 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한 논문<sup>4</sup>을 위시하여, 산청·진주·함안·함양의 서원 간본과 禮林書院·德川書院의 간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sup>5</sup>한 바 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옥산서원 판각의 서적에 대해서도 여러 편 발표하였고,<sup>6</sup> 소수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 대한 논문도 발표<sup>7</sup>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원에서 빠질 수 없는 서원이 도산서원이다. 퇴계 이황은 도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고, 퇴계의 학맥은 성리학으로 이어져 영남학파를 이룩하고 신유학을 중흥시켰다. 이 영향으로 서원문화를 발달시켜 유교문화권의 중심권 형

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27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180.

3 裴賢淑, 「書院 板刻本の 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12. 219-250.

4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書誌學研究』 50. 2011.12. 187-230.;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12. 5-35.

5 윤상기,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52. 2012.09. 101-136.;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40. 2008.09. 295-322.;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44. 2009.12. 301-330.;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32. 2005.12. 237-271.;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 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동의대)』 9-2. 2004. 1-20.;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 版本考」, 『東義論集:인문사회 I』 40. 2004.2. 423-443.

6 朴章承, 「慶州 소재 書院·祠에서 刊行한 典籍考」, 『신라사학』 19. 2001. 227-268.; 윤상기, 「慶州 玉山書院版本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인문·사회과학편』 38. 2003.2. 77-95.; 南權熙, 「朝鮮時代 慶州 刊行의 書籍」, 『新羅文化』 33. 2009. 1-58.;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2. 423-480.

7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263-296.

성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의 개별 연구는 이루어졌지만,<sup>8</sup> 판각한 서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망라적인 연구는 극히 드물어<sup>9</sup>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그 성격을 살펴서 후속 연구의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

## II. 陶山書院의 來歷

도산서원은 退溪 李滉(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예안에 세운 서원이다. 퇴계는 理動說·理氣互發說 등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하여 주자성리학을 심화·발전시켰으며,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학자였다. 중종 29(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을사사화(1545)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명종 1(1546)년 고향인 낙동강 상류 兎溪의 東巖에 養眞庵을 짓고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자 부패하고 문란한 중앙의 관계에서 떠나고 싶어서 외직을 지망하여, 명종 3(1548)년 충청도 단양군수가 되었다. 그러나 형이 충청감사가 되어 옴을 피해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을 청하였다.

풍기군수 재임 중 주자가 白鹿洞書院을 부흥시킨 선례를 따라, 고려 말 주자학의 선구자 安珦이 공부하던 땅에 전임 군수 周世鵬이 창설한 白雲洞書院에 扁額·書籍·學田을 하사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시켰다. 1년 후 퇴임하고 어지러운 정계를 피해 퇴계의 서쪽에 寒棲庵을 지어 다시금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명종 7(1552)년 성균

8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1-20.;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北岳史論』 3, 1993, 215-265.;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 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65-98.;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65-72.;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9 이병훈, 「도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2012), 125-137.;

[http://k-seowon.or.kr/?act=board&bbs\\_code=sub6\\_2&page=5&bbs\\_mode=view&bbs\\_seq=210](http://k-seowon.or.kr/?act=board&bbs_code=sub6_2&page=5&bbs_mode=view&bbs_seq=210)

관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명종 15(1560)년에는 陶山書堂을 짓고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저술·강학에 전념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현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임관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퇴하기도 어려워 명종 21(1566)년에는 공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지냈다. 선조 원(1567)년에는 우찬성을 거쳐, 선조 1(1568)년 양관 대제학과 지경연의 중임을 맡았다. 이때 「戊辰六條疏」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노환 때문에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어린 선조에게 바쳤다. 이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것이며, 유학의 핵심을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 해석한 것이다. 명종에 이어 즉위한 17세의 어린 선조를 보필하기 위해 조정에 나아갔으나 포부를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환향의 허락을 받아 귀향한 후, 선조 3(1570)년에 사망하였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예안에 세운 도산서당에서 비롯되었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만년에 도산 남쪽 기슭 완만한 곳에 세운 서당이다. 풍기군수를 그만둔 후 명종 5(1550)년 2월 퇴계의 서쪽 상계로 들어와 집을 짓고, ‘빈한한 처지로 물러나 숨어 사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한서암’이라 이름지었다. 퇴계가 한서암에 칩거하자 학생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였다. 약 1년이 지난 후 한서암이 무너졌으므로, 서당을 옮기니 곧 溪上書堂이다.

서쪽 한서암에서 약 1년, 북쪽 溪上書堂에서 약 9년 등 10년 동안 초기의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퇴계는 강학하면서 경전과 성리서를 강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현의 글을 선별해 편집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가한 교재를 편찬하였다. 계상서당이 퇴락하여 다시 옮길 처지가 되자, 퇴계는 본격적으로 강학하기 위해 더욱 넓은 강학 터를 찾아 나섰다. 이리하여 명종 13(1558)년 陶山書堂을 짓기 시작하여, 명종 15(1560)년 11월에 완공하였다. 명종 16(1561)년에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는 건물인 隴雲精舍를 완공하였다. 퇴계는 이곳 도산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 저술, 교육에 전념하였다.

사후 유럽에서는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서당을 서원으로 개편하여 사당을 짓고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설계한 건물로서 현재의 서원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선조 7(1574)년 강학소인 典教堂과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를 완성하였다. 선조 8(1575)년 서원이 낙성되자 石峯 韓濩가 쓴 편액 ‘陶山書院’이 하사되었다. 선조 9(1576)년 서원이 완공되어 사당인 尙德祠에 위패

를 봉안하였다. 이로서 도산서원은 조선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퇴계는 서원의 건립, 체제정립, 학풍의 조성, 장서의 기반 조성 등 서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퇴계 생전에 건립된 서원은 전국에 모두 18개소가 확인되며, 이 가운데 퇴계 본인 및 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한 서원은 13개소이다. 이후에도 퇴계 문인 56명은 43개 서원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sup>10</sup> 이들 서원을 통해 배출된 인제는 퇴계학풍을 진작하는 동량이 된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은 신재 주세붕이 건립하였지만, 사액서원이 되게 해 조정의 지원을 받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퇴계였다. 고향 예안에서도 향촌사림과 제자를 동원해 직접 서원 건립을 주도하고, 원규를 제정하여 서원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퇴계였다. 또한 퇴계는 유생들의 학문을 위해 서적을 기증하여 강학의 토대가 되게 하였다.<sup>11</sup> 易東書院은 禹倬의 충의대절과 역학을 존모하는 퇴계가 그의 행적을 현양하기 위해 건립을 주도해, 명종 22(1567)년 2월에 착공, 동년 선조 원(1567)년 가을에 사당과 당채를 완공하였다.<sup>12</sup> 퇴계는 역동서원을 건립한 후 24종 30질 191책의 서적과 편역을 보냈다.<sup>13</sup> 명종 13(1558)년에는 星州 迎鳳書院(川谷書院)의 건립에도 후원하였다. 명종 9(1554)년 永川의 臨臯書院에서 널리 서적을 구하자, 기증할 다른 서적이 없었으므로 內賜本 『性理群書』 1질을 기증하였다. 임금이 하사한 서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은 의아한 일이지만, 서원에 수장된 책은 한 편으로는 선현을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후학을 위한 것이므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識文을 써서 기증하였다.<sup>14</sup>

퇴계 59세인 명종 14(1559)년에 『伊山書院記』와 동시에 『院規』를 작성하였는데,<sup>15</sup> 서적과 관계있는 원규의 조항은 1조와 6조이다. 1조에는 독서에 대하여 규정하여 四書

10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6. 12-13.

11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10, 1994.12. 135-169.

12 李滉, 『退溪學文獻全集』, (大邱: 啓明漢文學研究會, 1992), 卷42. 記. 易東書院記. 張45-49. 선조 원(1567)년 가을에 완공한 부분은 사당과 당채였고, 서원 건물 전체를 낙성한 것은 선조 3(1570)년 8월이다.

13 『易東書院記』, 寫本. [年紀末詳] 張19-21. 이 寫本에는 易東書院記, 易東書院事實, 書冊으로 構成되어 있다. ; 『丁丑八月十六日書冊改置簿』, 寫本. 易東書院, 丁丑.

14 李滉, 『退溪先生文集』, 影印本. (大田: 學民文化社, 1990), 卷43. 內賜性理群書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 3642.

15 李滉, 『退溪學文獻全集』, (大邱: 啓明漢文學研究會, 1992), 卷1. 10068.



五經을 本原으로 삼고 『小學』과 『家禮』로 門戶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내용이 程朱學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원에서는 정주학 이외의 서적은 열독하지 말 것을 권유한 것이다. 제6조는 서원 수장의 서적 관리와 열독에 관한 규정이다. “書不得出門”이라 하여 서원의 서책은 서원의 대문 밖으로 지참하고 나갈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서원서책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정을 잘 지킨 서원의 서적은 지금껏 전래되지만, 이를 잘 지키지 못한 서원의 서적은 태반이 산일되었다.

### Ⅲ. 陶山書院 板刻 書籍

조선시대 예안은 그리 크지 않은 지방이지만 건립된 서원은 4곳의 서원이 알려져 있다. 『俎豆錄』에는 易東書院과 陶山書院만 수록되어 있으나,<sup>17</sup> 『東國文獻院宇錄』<sup>18</sup> · 『增補文獻備考』<sup>19</sup> · 『慶尙道誌』<sup>20</sup> · 『嶠南誌』<sup>21</sup> · 『東儒書院總錄』<sup>22</sup>에는 두 서원 외에 淸溪書院과 汾江書院도 수록되어 있다.

역동서원은 고려시대에 채주를 지낸 바 있는 文僖公 禹倬을 제향하기 위해 퇴계가 창건하였다. 후에 고려 判三司咸陽府院君인 文齊公 朴忠佐를 배향하였다. 도산서원에는 좌찬성을 지냈고 영의정으로 추증된 文純公 李滉을 제향하고, 공조참판에 제수된 바의 趙穆을 광해 7(1615)년에 추배하였다. 淸溪書院에는 퇴계의 조부 李繼陽의 아들로 좌찬성에 추증된 李埴 곧 퇴계의 부친을 제향하고, 李埴의 동생 형조참판을 지낸 李堦(퇴계의 숙부),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李埴의 아들 貞愍公 李滢(퇴계의 형)를 배향하였다. 汾江書院에는 지중추를 지낸 孝節公 李賢輔를 제향하였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16 李滉, 『退溪先生文集』. 影印本. (大田: 學民文化社, 1990). 卷41. 伊山院規. 3517-3521.

17 『俎豆錄』, 木版本. [刊年未詳] 張22.

18 金性澂, 『東國文獻院宇錄』, 木版本 [刊寫地未詳] 張26.

19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卷213 禮安. 張18.

20 李鉉式, 『慶尙道誌』, 鉛活字本. (金海: 具翰會方, 1936). 卷9 祠院一覽. 張60.

21 鄭源鎬, 『嶠南誌』, 鉛活字本. (大邱: 李根泳房, 1940). 卷12 禮安郡. 張4.

22 『東儒書院總錄』, 筆寫本. [刊寫地未詳] 慶尙道 禮安. 張39.

<표 1> 예안의 서원

서원명	창건연대	사액연대	배향인	備考	훼손연대
易東	선조 3(1570)	숙종 10(1684)	禹倬 朴忠佐	이항 창건 선조 즉위(1567)년 창건	고종 5(1868). 1969년 복원
陶山	선조 7(1574)	선조 8(1575)	李滉 趙穆 李埴	趙穆, 광해군 7(1615) 從享	
淸溪	현종 8(1667)		李埴 李堦 李濯		고종 5(1868). 미복원
汾江	숙종 28(1702)		李賢輔	광해군 5(1613)년 향현 사로 창건. 숙종 28년 서 원으로 전환시킴.	고종 5(1868). 1967년 복원 2007년 이건

4곳 서원 가운데 고종 5(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당시에 훼손되지 않고 존속된 서원은 도산서원이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동시에 영남유림의 정신적 중추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곳 서원은 서적을 간행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서원은 도산서원뿐이었다.

도산서원의 판목은 정조연간 편찬된 『鏤板考』에 17종이 수록되어 있다.<sup>23</sup> 憲宗 13(1846)년에 편찬한 『禮安縣邑誌』에는 17종이 수록되어 있지만 31종의 판목이 현내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중 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小學諺解』 뿐이고, 나머지 30종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sup>24</sup>고 하였다. 邑誌에는 『經書釋義』가 『三經釋義』와 『四書釋義』로 나누어져 있다. 『鏤板考』에 수록되어 있는 『嶠南賓興錄』은 누락되어 있다. 그 30종 가운데 『退溪遺墨(梅花詩·大寶箴·陶山記·四勿箴·屏銘·四時吟·丹

23 徐有渠,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1941); 『經書釋義』, 『啓蒙傳疑』, 『溪巖文集』, 『古鏡重磨方』, 『嶠南賓興錄』, 『近始齋文集』, 『聾巖文集』, 『宋季元明理學通錄』, 『松齋集』, 『溫溪逸稿』, 『雲巖逸稿』, 『月川文集』, 『朱子書節要』, 『耻齋遺稿』,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言行錄』, 『退溪自省錄』의 17종이다.

24 『禮安縣邑誌』. 寫本. [憲宗 13(1846)] 張36.; 『嶠南邑誌』. 寫本. [高宗 8(1871)] 冊10. 禮安縣. 冊板. 張34-35. 두 읍지에는 『啓蒙傳疑』, 『溪巖文集』, 『古鏡重磨方』, 『近始齋文集』, 『聾巖文集』, 『梅花詩大寶箴』, 『四書釋義』, 『三經釋義』, 『宋季元明理學通錄』, 『松齋集』, 『溫溪逸稿』, 『雲巖逸稿』, 『月川文集』, 『朱子書節要』, 『耻齋遺稿』,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文集續集』, 『退溪先生言行錄』, 『退溪先生年譜』, 『退溪自省錄』과 陶山記, 四勿箴, 屏銘, 四時吟, 丹砂八詠, 元朝五箴,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의 退溪遺墨과 漁父辭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嶠南賓興錄』, 『陶山及門諸賢錄』, 『誣書辨破錄』,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는 누락된 상태이다.

砂八詠)』, 『元朝五箴』,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 『漁父辭』는 문학작품과 잠명으로서 서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하겠다. 이들을 모두 인출해서 하나의 책자로 장책한 것은 별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간행한 서적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의 목록을 작성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2006년도에 발간된 목록에 의하면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판목은 59종 4,014판이다.<sup>25</sup> 이는 책판, 시판, 서판, 현판을 망라한 것이다. 이 가운데 책판은 28종 3,928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기탁된 책판에는 『鏤板考』에 수록되어 있던 『經書釋義』·『溪巖文集』·『近始齋文集』·『聾巖文集』가 누락되었고, 『溪山世稿』·『陶山及門諸賢錄』·『梅花詩板』·『蒙齋先生遺稿』·『誣書辨破錄』·『吾家山誌』·『後溪集』이 더 수록되어 있다.

한편 순조 19(1819)년 2월 청송향교에서 도산서원에 보낸 통문에 따르면, 청송향교 인사들은 퇴계의 위패가 모셔진 도산서원에서 『心經』을 판각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축하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문서가 남아있는데,<sup>26</sup> 다른 기록이나 판목이 전래되지 않아 『心經』의 각판은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鏤板考』, 『禮安縣邑誌』, 『陶山書院 古典籍』와 현전하는 판목을 망라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도산서원 판각의 책판과 전래본

	書名	鏤板考	邑誌	冊板	現板數	傳來本	備考
01	經書釋義	●	●			●	四書釋義, 三經釋義, 識記
02	溪山世稿			●	56	●	
03	溪巖先生文集	●	●	●	106	●	藏書記, 光山金氏 雪月堂宗宅
04	古鏡重磨方	●	●	●	26	●	
05	嶠南賓興錄	●		●	24	●	
06	近始齋文集	●	●	●		●	光山金氏 後彫堂宗宅
07	聾巖先生文集	●	●	●	83	●	汾川李氏聾巖宗宅
08	陶山及門諸賢錄			●	102	●	增補版, 刊記

25 『陶山書院 古典籍』,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6) 303-306.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426.

26 [1819년 徐古 등 15명이 도산서원으로 心經 판본의 간행사업을 축하할 알린 통문] 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고문서, 書簡·通告類, 通文.

09	梅花詩·大寶箴		●	●	24	●	退溪遺墨. <sup>27</sup> 刊記
10	蒙齋先生文集			●	49		刊記, 石印本
11	誣書辨破錄			●	1	●	刊記
12	文純公退陶李先生墓 碣銘			●	2	●	刊記
13	少微家塾點校附音通 鑑節要					●	刊記
14	宋季元明理學通錄	●	●	●	300	●	重刊, 刊記
	松齋先生詩集	●	●	●	55		
15	松齋先生續集				21		
	松齋先生別集				40		
16	易學啓蒙傳疑	●	●	●	42	●	重刊.
17	吾家山誌			●	37	●	
18	溫溪先生逸稿	●	●	●	119	●	
19	雲巖逸稿	●	●	●	6	●	光山金氏 後彫堂宗宅
20	月川先生文集	●	●	●	109	●	
21	朱子書節要	●	●	●	462	●	重刊.
22	眞城李氏族譜			●	10	●	
23	耻齋先生遺稿, 附錄	●	●	●	70	●	
24	退溪先生文集(庚子)	●		●	737	●	邑誌에는 版次の 구별 없음
25	退溪先生年譜	●		●	66	●	관목은 중간 이후로 추정
26	退溪先生文集(甲辰)					●	重刊, 癸卯本과 결합
27	退溪先生文集續集	●	●	●	150	●	
28	退溪先生文集(癸卯)		●	●	1,143	●	三刊.
29	退溪先生言行錄	●	●	●	102	●	.
30	退溪先生言行錄			●	100	●	重刊
31	退溪先生自省錄	●	●	●	42	●	
32	後溪集			●	2	●	
33	漁父辭		●				

『鏤板考』, 『嶺南邑誌』, 『陶山書院 古典籍』에 수록된 도산서원 판각의 판목을 종합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래되고 있는 서적의 간기에서 도산서원 판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漁父辭』는 『鏤板考』에도 저록되지 않았고, 판목도 전래되지 않는다. 명칭만으로는 『聾巖先生文集』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은 27종이다. 해당 서적의 책판 전수가 다 전래되지 않아도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그

27 『嶺南邑誌』에는 退溪遺墨은 大寶箴, 陶山記, 四勿箴, 屏銘, 四時吟, 丹砂八詠, 梅花詩, 元朝五箴,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이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상 한글 자모순으로 판목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經書釋義』

琴應璫(1540-1616)이 퇴계의 『經書釋義』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광해군 원(1609)년에 간행한 유학 경서의 주석서이다. 퇴계는 평소 삼경과 사서에서 어려운 구절을 뽑아 선학의 주석을 종합하고, 제자와 토론한 내용도 정리해두었었다. 퇴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있었다. 이 원고를 제자들이 필사해서 돌려 읽었는데, 퇴계와도 이산서원에서 인연이 있는 中和郡守 安瑋이 그 원고를 입수했고, 이 가운데 『大學』과 『中庸』부분을 각판하였다. 퇴계는 중화군에서 『庸學釋義』를 간행했다는 것을 알고, 원접사의 막료로서 관서를 지나는 奇大升에게 이 책판을 거두어 불살라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經書釋義』 중 『庸學釋義』 초간본의 판목은 불살라졌고,<sup>28</sup> 중화판의 인본의 전래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퇴계가 소장하고 있던 원고도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전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제자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던 전사본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교정한 뒤 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침 선조 41(1608)년 겨울 경상감사 崔瓘이 도산서원에 와서 참배하고, 『經書釋義』의 간행비를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판각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광해군 원(1609)년 윤3월에 간행되었다. 제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전사본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經書釋義』는 이황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 금응훈이 편찬했다”고 보는 견해<sup>29</sup>도 있다. 어쨌든 퇴계의 초편이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琴應璫의 발문에는 서명이 “經書釋義”라 표현되어 있고, 『누판고』에는 『經書釋義』의 판목이 도산서원에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판각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禮安縣邑誌』에는 『三經釋義』와 『四書釋義』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經書釋義』의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28 李滉, 『退溪先生文集』, 木板本, [刊年未詳] 卷17. 與奇明彦 丁卯. 張32-33.; 裴賢淑, 「書院 板刻本の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12. 234-235.

29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2014.12. 177.

되지 않았다. 혹 경상감영에서 판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규장각에 이관된 嶺營藏板의 목록을 조사해도 순조년간의 판목<sup>30</sup>만 이관되어 있을 뿐이다. 교서관과 영영에서 사서와 삼경의 언해를 간행한 후 수요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전래본 가운데 삼경과 사서가 합질된 경우도 있고, 분질된 경우도 있다. 초간 후 부분적으로 보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四書釋義』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三經釋義』는 서울대 소장본이 가장 이른 판본으로 보인다.<sup>31</sup> 양자를 다 수장한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 2. 『溪山世稿』

퇴계 후손 3인의 시문집이다. 권1/2는 『蒙齋逸稿』, 권3/4는 『靑壁逸稿』, 권5/6은 『晚湖逸稿』로 구성되어 있다. 李頤淳(1754-1832)은 발문에서 퇴계의 家學이 李安道, 李守淵, 李世靖에 이르렀으나, 그 遺文이 산일되어 그들의 글을 모아 『계산세고』를 편찬했다고 하였다.<sup>32</sup>

『蒙齋逸稿』는 퇴계의 장손 李安道(1541-1584)의 문집이다. 자는 逢原, 호는 蒙齋이다. 조부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명종 16(156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7(1574)년 음서로 관직에 나가 穆淸殿參奉·儲倉副奉事·尙書院副直長·司醢署直長을 지냈다. 예안의 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靑壁逸稿』는 퇴계의 6세손 李守淵(1693-1748)의 문집이다. 자는 希顔, 호는 靑壁이다. 가학을 이어 경종 3(1723)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영조 3(1727)년 음직으로 厚陵參奉을 제수받았고 이어 童蒙敎官을 지냈다. 禮學과 理氣說에 밝았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사후 『國朝名臣錄』에 저록되었다. 그는 『退溪先生續集』, 『陶山及門諸賢錄』, 『陶山誌』 등을 편찬하였다. 『晚湖逸稿』는 李守淵의 아들인 李世靖(1730-1767)의 문집이다. 자는 敬美, 호는 晚湖이다. 16-18세기에 걸치는 한 집안 주요 인물의 글을 모아 가학의 전승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시문집이다.

이 책은 헌종 1(1835)년경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3</sup> 조선말에 판각되었으

30 김남기,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 『嶺南學』 61, 2017.06. 7-33.

31 서종학, 「경서석의 의 서지 및 국어학적 고찰」, 『人文研究』 17, 1989.8. 23.

32 李頤淳編, 溪山世稿. 木板本. [헌종 1(1835)] 李頤淳跋.

3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계산세고.

므로 정조연간에 편찬된 『누판고』에 실릴 수 없다. 도산서원에서 간행했다는 명확한 간기는 없다.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국학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 3. 『溪巖先生文集』

조선 중기의 문신 겸 학자인 金垕(1577-1641)의 문집이다. 광산김씨이며, 자는 子峻, 호는 溪巖이다. 김령은 광해군 4(1612)년 문과에 급제하여 權知承文正字가 되고, 광해군 7(1615)년 承政院注書로 승진했으나 대북이 집권하자 즉시 낙향하였다. 광해군 10(1618)년 인목대비가 폐위된 후 17~18년을 病廢人을 자처하여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숙종 15(1689)년 都承旨에 추증되었다.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유고를 영조 48(1772)년 현손 金紘 등이 편집하고 간역 작업을 해서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권두에 李象靖의 서문, 권말에 李世澤과 金紘의 발문이 있다.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으나, 당해 서적에는 간기가 없다. 봉화 沖齋宗宅 소장본에 ‘壬辰(1772)七月日自陶山書院印送于靑巖亭’이란 장서기<sup>34</sup>가 있어, 도산서원에서 영조 48(1772)년 간행했을 알 수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판목은 光山金氏 雪月堂宗宅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판목이 있다.<sup>35</sup>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판목을 서원에서 기탁하지 않고 종택에서 기탁한 것은 金垕의 『近始齋文集』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4. 『古鏡重磨方』

‘고경중마’란 ‘옛 거울을 다시 닦다’는 의미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화두로 수양한다는 뜻이다. 퇴계가 기원전 11세기 殷나라 湯王의 ‘盤銘’, 周나라 武王의 ‘席四端銘’부터 14세기 원나라 吳澄에 이르기까지 모두 25명 78편의 명과 잠을 뽑아 편찬한 것이다. 선조 40(1607)년 간행한 9행14자 도산서원 초간본은 安東大都護府使로 재직 중이던 寒岡 鄭述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판각한 것이다. 이 판목은 『누판고』에 저록되어 있다.

34 『2005년 일반도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2)』. (문화재청·경상북도, 2006). 종재종택(봉화).

35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07-309.

이후 숙종 11(1685)년 10행20자 寧邊府 간본, 영조 20(1744)년 8행16자의 校書館 간본, 고종 8(1904)년 10행20자 密陽 蘆谷 간본 등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sup>36</sup>

도산서원 후대의 인출본에는 형태·크기·어미가 다른 인면이 있는데, 補刻板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서 보관해오던 초간본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등에 초간본에 가까운 판본이 소장되어 있으나, 각각 일부 보각본 또는 보사가 있다.

## 5. 『嶠南賓興錄』

정조는 윤지충의 진산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邪學을 금지하고 正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경상도와 황해도가 사학에 물들지 않은 이유는 先正인 퇴계·회재·율곡의 유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정학을 진작시키기 위해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도산서원에서는 영남 유생을 대상으로 별시를 행하게 하였다.<sup>37</sup> 이후 관동, 탐라, 풍패, 관북, 관서 지방의 빈흥록도 간행하였다.

『嶠南賓興錄』에는 규장각신 李晩秀가 왕명으로 도산서원에서 영남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陶山別科를 실시한 기록과 우수한 科作이 수록되어 있다. 정조 16(1792)년 경상감영이 주관해 판각하고, 책판은 도산서원에 보관하였다. 이 책판은 『누관고』에 저록되어 있고, 『群書標記』에는 ‘刊印以進藏其板于陶山/壬子編’이라 기록되어 있다.<sup>38</sup> 간본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조 20(1796)년에는 퇴계를 성균관에서 致祭한 때의 전말을 담은 『鰲村致祭時日記』를 증보해 초각판에 합쳐 간행하였다. 이 판본도 계명대와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다. 1922년 도산서원에서 중간했는데, 이 판본은 각급 도서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정조 연간 판각한 판목과 1922년 보각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 6. 『近始齋文集』

金垓(1555-1593)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숙종 34(1708)년 그의 증손 金錫胤이 편집해

36 임기영, 「古鏡重磨方의 간행과 판본」, 『書誌學研究』 56, 2013.12. 213-247.

37 奎章閣·李忠鎬 編, 『嶠南賓興錄』木板本, [安東: 陶山書院, 1922] 卷1. 傳教. 張1-2.

38 正祖, 『弘齋全書』, 整理字本, [純祖 14(1814)] 卷184. 羣書標記. 張4-5.



서 정조 7(1783)년에 간행하였다. 김해의 자는 達遠, 호는 近始齋·始齋이다. 선조 21(1588)년 社稷署參奉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선조 22(1589)년 延恩殿參奉으로 증 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해서 승문원정자를 지냈고, 翰林에 선발되어 예문관검열에 제수되었다. 그해 10월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1월 史局에서 史草를 태운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 예안에서 영남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안동·군위·상주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으며, 5월에는 양산을 거쳐 경주에서 李光輝와 합세하여 싸우다가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고종 30(1893)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누판고』에는 도산서원 판각이라 저록되어 있다.<sup>39</sup> 당해 서적에서는 간행지를 확인할 수 없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책판은 안동 군자마을의 광산김씨 後彫堂宗宅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sup>40</sup> 순조연간 후기에 후조당의 시호와 관련한 문제로 종가에서 책판을 가져갔기 때문에 후조당 종택에서 기탁한 것이다.

後彫堂 金富弼은 雲巖 金緣의 아들이며, 近始齋 金垓의 백부이다. 순조 25(1825)년 金富弼에게 이조판서가 추증되고, 文純의 시호가 내려졌다. 조정에서 후조당의 시호를 퇴계와 같은 文純으로 내린 데 대해 퇴계의 후손 측에서 師門同諡라 하여 불만을 표하였고,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향리·도내·한양의 태학을 통해 후조당의 改諡 내지 破諡를 도모하였다.<sup>41</sup> 그러나 改諡 내지 破諡는 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후손들이 도산서원에 있는 조상의 문집 책판을 구해 내온 것이다.

## 7. 『聾巖先生文集』

聾巖 李賢輔(1467-1555)의 시문집이다. 永川李氏이며, 이현보의 자는 斐仲, 호는 聾巖 또는 雪鬢翁이다. 시호는 孝節이다. 虛白堂 洪貴達에게 수학하였다. 연산군 4(1498)년

39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鑲板考」 1125.

40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10-311.

41 先祖延諡後辨諡錄 筆寫本. 국학진흥원 251407.; 彫堂先生延諡後卞諡錄 筆寫本. 국학진흥원 251714. 순조 26(1826)년 기록인 先祖延諡後辨諡錄은 烏川答李氏單子(7월), 烏川牌旨(8월20일), 烏川與鄉員單子(9월), 鄉員答烏川單子(10월23일), 烏川呈陶山單子(10월30일), 烏川答鄉員單子(11월), 鄉員與鄉中單子, 鄉員與烏川單子, 李氏通洛川文, 烏川呈陶山單子, 洛川呈英陽兼官初狀(12월4일), 題辭, 再呈兼官狀(12월7일), 題辭, 三呈兼官狀(12월17일), 題辭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에는 겸임이 처결할 일이 아니므로 본관을 기다려 소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처분되어 있다.

문과에 급제, 동부승지, 부제학, 대구부사, 경상관찰사,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대체로 외직을 선호하였으며, 중종 37(1542)년 치사하였다. 연하의 퇴계와도 각별하게 교유하였다. 예안에 퇴거하여 歸去來圖를 벽에 그려 붙이고, 부모의 봉양과 시문의 창작에 힘썼다. 농암은 늘 자연과 교감하며 소박하게 자연을 노래한 시와 시조를 많이 남겼다.

문집은 농암의 시문을 모은 5권본으로, 초간은 현종 6(1665)년 외손 金啓光이 중심이 되어 간행하였다. 간역은 현종 4(1663)년 겨울부터 전란으로 산란된 원고를 수습하고, 김계광이 편차를 고증하고, 6대손 李彥弼이 登梓本을 繕寫하고, 退溪가 지은 行狀과 龍洲 趙綱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1911년에는 속집을 판각하였다. 『누판고』에는 도산서원에 『龔巖先生文集』의 책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종 6(1665)년 초간본의 책판, 1911년 續集의 책판, 補刻板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것이 아니고, 汾川李氏龔巖宗宅에서 기탁한 것이다. 이는 1931년 퇴계와 농암의 학문적 전수관계를 두고 진성이씨와 영천이씨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汾川에 사는 龔巖의 후손들이 『龔巖續集』을 간행하면서 「授受錄」에서 ‘退溪李先生’이라고 한 대목을 ‘退溪李滉’이라 고친 것에 대해 퇴계의 후손이 ‘諱’해야 한다면서 반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의 후손이 영남의 서원, 문중, 향교, 서당 등지로 보낸 통문과 입장을 밝힌 답서를 받고 도산서원에서 재회를 열고 분천이씨를 도산서원 儒案에서 영구히 삭제<sup>42</sup>시킨 일로 해서 판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漁父辭」의 판목도 농암종택에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龔巖先生文集』의 간본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8. 『陶山及門諸賢錄』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은 5권본 문인록이다. 퇴계선생의 제자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약 260여 명의 諸賢을 주려 『溪門諸子錄』을 편찬하였다. 이후 퇴계의 후손 靑壁 李守淵(1693-1748)이 60여 명을 追錄해 『陶山及門諸賢錄』을 편찬하였고, 이후 山後齋 李守恒(1695-1768)이 10여 인을 추록하였고, 廣瀨 李野淳(1755-1831)이

42 『汾李誣錄事變日記』. 寫本. [1931] 張1. ; 이수환, 「경북지역 서원의 사회적 특성과 교육활동」, 『慶北書院誌』. 개정판. (대구:경상북도, 2009) 56.

다시 10여 인을 첨부하면서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 완성하였다. 李守恒이 추가한 문인의 수는 적었지만, 『理學通錄』의 체제를 적용한 것이어서 관각할 등재본의 편집 기준이 되었다. 초간본의 권1-4까지는 본집이고, 권5는 속록이다. 수록된 인물은 총 309명이다. 인명마다 성명, 字號, 生歿年, 本貫, 居住地, 퇴계와의 관계, 官歷, 사제관계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초간은 1913년 4월말 역원을 정한 후 간역에 들어가 1914년 완성하였다. 초간시 역원의 명단이 『陶山諸子錄刊役時爬錄』이다. 도도감은 幼學 金基洛이며 도감은 李晷淵 등 8인이며, 교정도감, 교정유사, 사본, 판교도감, 감각도감, 감인도감, 都辦, 時到, 直日을 두었으며, 마지막에 “癸丑四月二十四日”이라 기록되어 있다.

초간 후 서애 류성룡과 그의 형인 겸암 류운룡의 서술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서애 후손들이 비판하였다. 그 내용은 사람의 공론보다는 퇴계의 몇몇 후손들이 좌지우지해서 공론에 부합하지 않고, 『理學通錄』의 체제를 따른다고 했지만 『孔子家語』나 『理學通錄』의 체제와도 멀어졌으며, 배열순서·교정상의 오류·용어와 호칭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을 비판하였고, 개정판 간행 후에도 문인의 수록 범위 또는 문인들의 행적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아울러 柳成龍과 柳雲龍의 행적에 대한 기술에 강한 불만도 제기하였다.<sup>43</sup>

이를 반영해 1916년 개정하였다. 그 개정판 권말에는 “甲寅(1914)五月日陶山書院刊行”이란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간기는 초간본에 없었는데, 오히려 개정판에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보관하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1916년 개정판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결국 1919년 병산서원에서 다시 간행한 바 이 간본은 계명대에 수장되어 있다. 또 『陶山及門諸賢錄辨訂』도 간행했는데, 국립도서관·계명대·영남대에 수장되어 있다.

## 9. 『梅花詩·大寶箴』

梅花詩는 퇴계가 지은 매화에 관한 시와 글을 목판으로 새겨 인쇄한 것이다. 퇴계는

43 『單子(安東 眞城李氏 宗宅 慶流亭 소장)』, 筆寫本, [1914] (한중언 기탁 MF No.35-007488 單子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陶山及門諸賢錄;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16.

매화를 끄적이도 사랑해 매화를 노래한 시가 100수가 넘는다. 그 가운데 중종 37(1542)년부터 선조 3(1570)년까지 28년 동안 지은 매화시 62수를 모은 것이다. ‘戊寅(?)冬陶山書院刊’이란 간기가 있으나, 선조 11(1573)년, 인조 16(1638) 등등의 무인년이라 연도를 특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 詩板 13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臨東面 柳鍾駿,<sup>44</sup> 성균관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大寶’는 천자의 자리이며, ‘箴’은 문체의 하나로서 풍자하고 훈계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 대보잠은 張蘊古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 태종에게 올린 글이다. 태종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비단 300필을 하사하고, 그를 大理寺丞으로 임명하였다. 퇴계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명종 9(1554)년 10월 大寶箴을 써서 왕에게 올렸다고 한다. 이 書板에는 더구나 간기도 없어 연도를 특정하기에 어렵다. 이 서판 11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판각년도는 알기 어려우며, 조선말에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성균관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두 판목은 『누판고』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고종 8(1871)년 『영남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미루어 순조 18(1818)년 무인년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판과 서판이 합철된 서적은 울진의 黃壽錫가에 소장되어 있다.<sup>45</sup> 이외 陶山記, 屏銘, 四勿箴, 四時吟, 惺惺齋八詠, 心箴의 서판은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판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蒙齋先生文集』

퇴계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의 유고집 3권이다. 그의 자는 逢原, 호는 蒙齋이다. 조부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으며, 퇴계 문하의 여러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명종 16(156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7(1574)년 음서로 관직에 나가 穆淸殿參奉·儲倉副奉事·尙書院副直長·司醞直長을 지냈다. 예안의 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조선말에 간행되어 『누판고』에 수록될 수 없다.

당해 문집에는 간기가 수록되지 않았으나, 융희 3(1909)년 이전 도산서원에서 판각<sup>46</sup>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완판이 전래되고

44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5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6). 1026.

45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1 ; 大邱,慶北』 (文化財管理局, 1986). 692.

46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즈.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蒙齋先生文集.

있다. 판목의 권두서명은 『蒙齋先生遺稿』인데, 전래하는 목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융희 3(1909)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몽재선생문집』 석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도산서원·의성 김창회·청도 김형수·구미 노진환택에 전래되고 있으나, 목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도서도 모두 석판본이다. 판목이 전래되는데도 목판본의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하겠다.

## 11. 『誣書辨破錄』

晦齋 李彦迪이 강계에서 7년간 유배생활을 할 때 그의 아들 李全仁이 시봉하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어록과 학문에 대한 문답을 수록한 『關西問答錄』을 현종 6(1665)년 이전인의 손자 李弘炆가 간행하였다. 이후 회재 후손간에 갈등이 생겨 嫡派가 초각판을 숙종 23(1697)년 휘판하였다. 재기를 노린 玉山派에서 숙종 46(1720)년 李弘炆의 손자 李後聃과 李鶴年이 경주부의 지원을 받아 중간하고, 휘판을 방지하기 위해 그 판목은 경주부에 보관시켰다. 이후 순조 11(1811)년 이학년의 손자 李暉이 삼간하였다.

후손 간의 갈등과는 별도로 『關西問答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 가운데 퇴계를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영조 43(1767)년 도산서원에서 반발하였다. 도산서원 측에서는 李道顯(1726-1776)을 중심으로 『關西問答錄』을 휘판할 것을 주장하면서, 영조 44(1768)년 간행한 책이 『誣書辨破錄』이다. 도산서원에서 『關西問答錄』의 휘판을 주장한 이유의 첫째는 퇴계가 이전인에게 潛溪란 호를 준 적이 없다는 점, 둘째는 이언적의 伸冤과 復官은 이전인의 노력이 아니라 선조초 李浚慶 등 대신들의 계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는 『關西問答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李浚 형제가 盧守愼에게 보낸 편지는 허위로 날조해서 퇴계를 무함했다는 점이다. 이로서 전국 각지의 서원에 통문을 보냈음은 물론 조정에게까지 보고되었으나, 결국 도산서원은 『關西問答錄』을 휘판시키지 못하였고, 옥산과도 『誣書辨破錄』을 휘판시키지 못하였다.<sup>47</sup>

『누판고』에 『關西問答錄』은 경주부 수장이라고 수록되었으나, 『誣書辨破錄』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판목 26장 가운데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1판만 전래되고 있다. 간본은 계명대, 연세대, 일본 경도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정조 16(1792)년 간본인 연세대 수장본 『嶠南賓興錄』에는 『誣書辨破錄』이 합철되어 있다.

47 金建佑, 「이언적 관서문답록 휘판시비」, 『藏書閣』 14. 2005.12. 23.

## 12.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高峯 奇大升(1527-1572)이 쓴 퇴계의 묘갈명이다. 기대승은 32세부터 12년 동안 퇴계와 서한을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8년 동안 四端七情을 주제로 주고받은 편지는 유학 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은 『高峯集』 권2에 「退陶先生墓碣銘先生自銘并書」로 수록되어 있다. 『眞城李氏族譜』 초간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10행20자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피휘에 있어 개행하거나 대두한 곳과 공격을 둔 곳에 상이한 점이 있다.<sup>48</sup> 도산서원에서 1916년 간행한 개정판 『陶山及門諸賢錄』과 판식이 매우 흡사하여 동시에 판각된 것이며,<sup>49</sup> 『陶山及門諸賢錄』의 일부로 추정된다. 판본에 따라서는 『陶山及門諸賢錄』에 이 묘갈명이 수록되기도 하였으나, 한국국학진흥원에는 별도의 판목으로 2판이 기탁되어 있다. 전체는 4판이다. 별도로 묘갈명만으로 장책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묘갈명이 수록된 『陶山及門諸賢錄』의 수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안동대, 영남대 등이다. 책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계산하지는 않았다.

## 13. 『宋季元明理學通錄』

대개 『理學通錄』으로 약칭되고 있다. 이 책은 주자 문인의 계보를 정리하고, 도학의 요체를 규명하며, 주자의 학문을 현창한 이들을 기려 도통 계승을 확립한 책이다. 퇴계는 명종 19(1564)년 『伊洛淵源錄』의 체제를 따라 주희와 그 문인 및 私淑諸子 등 송·명대의 정통 주자학과만을 가려 뽑아 본집 『宋元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비정통 주자학과를 수록할 외집을 준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월천 등 문인들이 정리하여 선조 8(1575)년 안동부에서 『宋季元明理學通錄』으로 개명해 간행하였다.<sup>50</sup> 이 판본에는 ‘乙亥(1575)刊刻于安東府’란 간기가 있다. 원광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편집과 교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수정한 후 선조 9(1576)년 도산서원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 도산서원 중간본이다. 이 중간본에 대한 수정 논의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이런 이유로 안동부 간본과 도산서원 중간본은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8 李詠道, 『眞城李氏族譜』. 木版本. [禮安: 陶山書院, 宣祖 33(1600)]. 墓碣銘.

49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50 李楨 等, 『宋季元明理學通錄』. 木版本. [陶山書院, 英祖 19(1743)]. 跋(趙穆).

51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2. 496-498.

결국 영조 19(1743)년 도산서원에서 삼간하였는데, ‘上之十九年癸亥(1743)冬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이것이 통행본이다. 이후 마멸된 책판이 있어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누판고』에 수록되었고,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삼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성균관대, 안동대, 영남대, 충남대 등 공사의 기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 14. 『松齋先生文集』

퇴계의 숙부 松齋 李堉(1469-1517)의 시문집이다. 자는 明仲이며, 호는 松齋이다. 송재는 연산군 4(1498)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간원정언, 이조좌랑, 사헌부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연산군 12(1506)년 동부승지로 입직하는 날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협력하여 靖國功臣 4등에 녹훈, 靑海君에 봉해지고 우부승지가 되었다. 중종 9(1514)년에 입직 승지로서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비난을 받아 삭훈되었다가, 이듬해 안동부사로 서용되었다.

송재 사후 조카인 퇴계가 편집해 시집 3권과 습유를 필사해두었는데, 송재의 외증손 竹牖 吳漣이 충주목사로 있던 선조 17(1584)년 4월 퇴계의 필사본을 등재본으로 해서 간행했다.<sup>52</sup> 이후 도산서원으로 移板하여 관리해 왔으므로 도산서원 판각본이 아니고 장판본이라 하겠다. 『누판고』에도 도산서원 장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20(1796)년 이전에 이관된 것이다. 죽유는 판각한 그해 겨울 충주를 떠났으므로, 이르면 선조 17(1584)년 겨울에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연세대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광무 4(1900)년 12대손 李中麟과 李元魯가 속집과 부록을 간행하였다. 간본은 계명대, 단국대, 전남대에 소장되어 있다. 1937년 李元魯의 손자 李鍾洙가 별집을 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sup>53</sup>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대, 고려대, 전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52 李堉, 『松齋先生文集』, 木版本. [1937] 跋; 吳漣, 李元魯. 識: 李中麟; 김순희, 「李堉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06. 215-233.

53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筆寫本. [年紀未詳]. 1冊. 한국국학진흥원 369142. (실사하지 못함.)

## 15. 『易學啓蒙傳疑』

명종 12(1557)년 퇴계가 주자의 『易學啓蒙』에 명대 韓邦奇(1479-1556)의 『易學啓蒙意見』의 해석에서 요점을 뽑고, 자기 의견을 덧붙여 편찬한 『易學啓蒙』의 대표적인 주석서이다.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후대 주석에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 후학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인용문의 출처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자가 다른 주제와 후대 주석에서 쟁점이 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자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sup>54</sup> 이에 『易學啓蒙傳疑』는 조선의 『易學啓蒙』 관련 저작 가운데 최초의 본격적 저술이어서 후대 퇴계학파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은 河圖洛書의 數理, 八卦의 구성 원리, 占書와 관련된 수리, 팔괘를 중심으로 占의 변동을 설명한 4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朱子の 『역학계몽』을 본받아 占書로 보아 술수를 중시하는 象數易學과 철학서로 보아 사상적 의미를 중시하는 義理易學을 동일선상에 놓고, 象數易學에 관해 初學者들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술한 것이다.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초학자들도 쉽게 역학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선조 33(1600)년에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고, 『누판고』에도 수록되었다. 충남대에 수장된 간본 중 한 판본이 초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인다. 고종 31(1894)년 3월에 도산서원에서 작성한 『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任 附 啓蒙傳疑 重刊』이 전래되고 있어,<sup>55</sup> 고종 31(1894)년에도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감은 柳寅睦이었는데, 그는 당시 도산서원 원장이었으며 상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 중간했다기보다는 전에 판각해둔 판목을 이용해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출하면서 부분적으로 매목하거나 보각했을 것이다. 1915년 重刊한 판본에는 ‘乙卯(1915) 六月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중간본의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중간본은 계명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54 李滉, 『啓蒙傳疑』. 木版本. 重刊. [陶山書院, 1915] 序 張1.

55 『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任 附 啓蒙傳疑 重刊』. 筆寫本. [陶山書院, 1894]. ; 『甲午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任』. 筆寫本. [陶山書院, 1894]. 70986. 座目0012.



## 16. 『吾家山誌』

일명 『淸涼山誌』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오가산 즉 ‘우리 산’은 봉화군 명호면·재산면과 안동시 도산면·예안면에 위치한 청량산을 말한다. 집에서 가까워 퇴계는 제자들과 자주 청량산을 왕래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고, 청량산 산수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 ‘오가산’ 즉 ‘우리 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범례에도 발문에 퇴계가 오가산이라 한 바, 이를 서명으로 삼은 것<sup>56</sup>이라 하였다.

청량산을 읊은 퇴계의 시문을 모아 퇴계의 11세손인 鳳岡 李晩興(1861-1904)가 朱熹가 편찬한 『武夷誌』의 편차를 모방하여 편집한 것이다. 1924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2권본이다. 20세기에 판각되었으므로 『누판고』에 수록될 수 없다.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판목이 있다.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 17. 『溫溪先生逸稿』

조선 중기 학자이며 관료인 溫溪 李滢(1496-1550)의 유고 4권본이다. 퇴계의 형인 이해의 자는 景明, 호는 溫溪이고, 시호는 貞愍이다. 숙부 李堉에게 글을 배워 중종 23(152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좌승지·도승지·대사헌·대사간·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명종이 즉위한 후 강원도관찰사·황해도관찰사·청흥도관찰사·한성부우윤 등을 지내다가 李芾의 심복인 李無彊의 탄핵으로 甲山으로 귀양가다가 楊州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숙종 17(1691)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정조 8(1784)년 貞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영주의 三峰書院과 예안의 淸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은 6세손 李見龍과 7세손 李世澤 등이 편집하고, 7세손 李級의 後識와 영조 48(1772)년 李象靖의 서문을 받아, 도산서원에서 판각하였다.<sup>57</sup> 『누판고』에도 수록되어 있다.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18. 『雲巖逸稿』

56 李滢, 『吾家山誌』. 木版本. [陶山書院, 1924] 凡例, 卷1 張36.

57 李滢, 『溫溪先生逸稿』. 木版本. [陶山書院, 英祖 48(1772)] 跋文(李世澤).

조선 중기 관료이며 학자인 雲巖 金緣(1487-1544)의 2권본 시문집이다. 자는 子裕이며, 호는 雲巖이다. 중종 14(151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중종 19(1524)년 사간원 정언으로 재직할 때 권신 金安老의 비행을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중종 26(1531)년 김안로가 다시 실권을 잡자 鏡城通判으로 좌천되었고, 중종 32(1537)년 김안로가 주살된 후 사간원사간으로 다시 발탁되었다. 이후 동부승지·우부승지·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중종 39(1544)년 경주부윤으로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문집은 정조 7(1783)년에 8대손 金瑩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sup>58</sup>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누판고』에 판목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판목 6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고, 더 많은 30판을 안동 군자마을의 後彫堂宗宅에서 기탁하였다.<sup>59</sup> 후조당종택에서 책판을 기탁한 연유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책판이 두 곳에 분산된 것은 『近始齋文集』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雲巖의 아들인 後彫堂의 시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택에서 판목을 급히 수습하다 보니 다 수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19. 『月川先生文集』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의 시문집 6권본이다. 자는 士敬이고, 호는 月川이다. 15세에 퇴계의 문하에 들어간 嫡傳弟子이다. 명종 7(1552)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곧 과거 공부가 道學이 아니라 하여 포기하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명종 21(1566)년 이후 수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부임하더라도 곧 사퇴하였다. 선조 40(1607)년 세상을 떠난 뒤 광해군 6(1614)년 11월 퇴계 제자 중 유일하게 도산서원의 상덕사에 모셔졌다. 다음해 예천의 鼎山書院·봉화의 昌海書院에 배향되었다.<sup>60</sup> 도산서원 중향이 성사되었으나 문집은 즉각 간행되지 못하였다. 현종 3(1662)년 예안현감 李碩寬의 도움을 받고 월천의 아들 趙錫朋의 주도로 『月川集』을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sup>61</sup> 이 초간본에는 許穆의 서문은

58 金緣, 『雲巖逸稿』. 木版本. [陶山書院, 正祖7(1783)]. 序(蔡濟恭),跋(丁範祖).

59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雲巖逸稿.;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12-313.

60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版本. [陶山書院, 顯宗 3(1662)] 卷1. 年譜. 張17.

61 薛錫圭,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月川先生文集」. 『국학연구』 5. 2004. 253-254.

수록되어 있으나, 金應祖의 발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월천의 문인 金澤龍이 지은 「月川言行錄」에 언급된 선조 30(1597)년 월천이 서애에게 보낸 편지와 생질인 琴蘭秀의 아들인 晚修齋 琴慄이 지은 「행장」으로 인해 현종 6(1665)년 서애계가 반발하였다. 현종 7(1666)년 간본은 문제를 제기했던 서애계 김응조의 발문이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월천계가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김응조의 발문을 추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목으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응조의 발문이 수록된 개간본은 계명대에 수장되어 있다. 국립도서관 수장본도 개간본 계열이나 낙장이 많아 보사된 부분이 많다.

삼간본의 간행연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연보를 목차 앞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부록에는 초간본에는 제외시켰던 전기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간본의 「연보」에 월천은 鼎山書院과 昌海書院에 배향되었다고 했으나, 삼간본에는 정산서원과 文巖書院에 배향되었다고 수록되어 있다.<sup>62</sup> 창해서원은 광해군 3(1611)년 건립되어, 숙종 20(1694)년 文巖書院으로 사액되었다.<sup>63</sup> 따라서 삼간본은 숙종 20년 이후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목은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고, 도산서원에서는 보존해오던 책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삼간본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20. 『朱子書節要』

퇴계가 처음 14권으로 편집한 초기 서명은 『晦菴書節要』였다.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은 『주자서절요』 20권본이다. 퇴계는 종종 말년부터 주자학에 심취하여, 『朱子大全』을 중시하였다. 퇴계는 『주자대전』에서 특히 書札에 감동한 바가 많아서, 서간 1,700여 편 가운데 학문과 관계되는 1,008편을 발췌하고 목록과 주해를 달아 입문서로 편찬하였다.<sup>64</sup> 『心經』에는 心學의 공부법과 敬의 공부론이 완비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자질과 병통에 따른 처방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서적이 『주자서절요』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주자서절요』는 남인계 서원

62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板本(改刊本). [刊年未詳]. 卷1. 年譜 張17.

63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卷213 奉化. 張22.

64 朱熹著, 李滉編, 『朱子書節要』 古活字本(丁酉字) [陶山書院, 正祖年間] 識(奇大升). ; 우정임, 「退溪 門徒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3.4. 246.

은 물론이고, 서인계 서원인 紫雲書院과 老江書院 등에서도 科業이 아닌 道學과 爲己之學의 교재로서 활용되었다.

黃俊良(1517-1563)이 명종 11(1556)년 新寧縣監(1551-1556)으로 있을 때,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이 판본이 초간본으로 보인다. 여기에 잘못된 곳이 있어 개정해 명종 16(1561)년 성주목사(1560-1563) 황준량이 임고서원의 목활자를 빌려 간행한 중간본의 서명은 『회암서절요』이고, 15권본이었다. 고려대 만송, 계명대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다. 이후 명종 20(1565)년경 해주에서 柳仲郢이 15권본을 목활자로 간행했고, 명종 21(1566)년경 평양에서는 鄭宗榮의 주도로 간행하였다.<sup>66</sup> 도산서원에는 『회암서절요』 완질본 목활자본이 수장되어 있는데, 정확한 간행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종 23(1567)년 定州牧使로 부임한 柳中郢이 난해한 문구를 해설하고, 목록 1권·지기·문인의 성명·사실을 수록하여 간행하였다. 이 定州本은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이때부터 서명은 『주자서절요』로 바뀌었다. 선조 8(1575)년 鄭述가 川谷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후대의 판본은 이 체제를 답습하게 된다. 이 판본에는 퇴계의 서문이 첨가되어 있다. 선조 19(1586)년 김성일이 나주목에서 간행했고,<sup>67</sup> 광해군 3(1611)년에는 전라도 관찰사 鄭經世가 전주부에서 간행했는데, 간기는 萬曆三十九(1611)年仲秋重刊于全州府이다. 고려대에 수장되어 있다. 정주본을 저본으로 영조 19(1743)년에 도산서원에서 다시 판각하였다.<sup>68</sup> 도산서원 간본에는 “上之十九年癸亥(1743)秋陶山書院刊”이란 간기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서울대·안동대·성균관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이 판목만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다. 영조말 이후 교서관에서 무신자로도 간행하였다.

광무 8(1904)년에는 마멸되거나 훼손된 판목을 보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때는 黥溪의 13명 각수를 동원해 판각하기로 했는데, 마침 南道에서도 『朱子語類』를 간행하게 되어 각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각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齋任 李晩始 등이 안동군

65 李滉編, 『退溪先生文集 續集』 木版本, [正祖年間] 卷4. 書. 答黃仲舉與黃仲舉. 張4-9.; 권차별로 인출되는 대로 장황할 것 없이 보내주면 오자를 고쳐 인출하면 된다고 함. 따라서 이때 소량일지라도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정임, 「退溪 門徒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3.4. 246.

66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173-176.

67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木版本, [純祖 3(1803)]. 附錄 권2. 張15.

68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164-192.

에 보낸 11월29일자 문서가 있다.<sup>69</sup> 이 판본에는 ‘元陵癸亥(1743)後百六十二年 今上四十一年甲辰(1904)冬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기탁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수장되어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안동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21. 『眞城李氏族譜』

眞城李氏 최초의 族譜는 선조 33(1600)년에 발간한 3권본 『眞城李氏族譜』이다. 이는 퇴계가 손수 기록한 譜系에 그 손자 蒙齋 李安道가 속찬한 譜略을 토대로 중증의 李庭檜와 李亨男 등이 자료를 보완하고 교정해 간행한 것이다. 程子和 朱子の 『世譜源流圖』를 모방해서 탐방과 검증을 거쳐 편집하고, 퇴계 문인 金功과 吳濤의 서문을 수록하였다. 간기는 없지만 吳濤의 서문을 통해 도산서원에서 간행<sup>70</sup>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退溪先生文集』 간행을 주관했던 월천과 퇴계의 손자 東巖 李詠道가 중심이 되어 문집판각에 동원되었던 각수와 남은 자재를 활용하여 선조 33(1600)년 발간하였다. 일명 ‘眞城李氏 陶山譜’ 또는 ‘眞城李氏 庚子譜’라 한다. 이 초간본은 한국국학진흥원, 계명대와 (구)성암박물관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쪽 표기는 천자문 순서인 ‘天地玄黃宇宙洪荒’의 순으로 ‘牽濱歸王 鳴鳳在樹’의 ‘鳴’까지 수록되어 있다. 代數는 一代, 二代로 표기되어 있다. 譜圖는 매면 5층의 횡간에 시조 李碩으로부터 12대손까지 각 세대마다 출생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자와 여(사위) 및 그 내외손의 계보를 남녀구별 없이 같은 비중으로 기재한 것이다.<sup>71</sup> 조선후기에 발간된 족보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판목의 일부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sup>72</sup>

이후 숙종 14(1688)년 『眞城李氏世譜』 戊辰譜를 중간했고, 영조 23(1747)년에 李允이 可倉齋舍에서 『眞城李氏族譜』를 간행했다. 정조 23(1798)년 戊午譜를 간행했고, 철종 11(1860)년 『眞寶李氏世譜』인 庚申譜를 간행했다. 진성이씨는 眞寶李氏라고도 하는데,

69 [갑진년 이만시와 이용호 등이 검성주에게 올린 서책 간행건에 대해 내린 제음]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고문서, 牒·關·通報類, 牒呈, 牒報, 17.

70 李詠道, 『眞城李氏族譜』, 木版本, [禮安: 陶山書院, 宣祖 33(1600)], 序(吳濤).

71 李東厚, 「眞城李氏 族譜의 概略」, 『東洋禮學』 12, 2004.2, 104-110.

72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68-369.

이는 진보현이라는 지명에서 온 말이다. 1912년에 壬子譜를 간행했다. 이후는 大同譜를 간행하지 못하고, 派譜만 간행해왔다. 1913년에 李忠鎬 등이 간행한 上溪派 세보인 『眞寶李氏上溪派世譜』에는 ‘歲癸丑(1913)六月陶山書院刊’이란 인장이 권말에 검인되어 있다. 이 세보는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므로 판목은 없다.

## 22. 『耻齋先生遺稿』

耻齋 洪仁祐(1515-1554)의 시문집 3권본이다. 자는 應吉이며, 호는 恥齋이다. 중종 32(1537)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대과에 응시하기보다는 학문에 전념하였다. 부친의 병환을 당했을 때 직접 연구하여 약을 처방할 정도로 의약에도 조예가 깊었다. 홍인우는 徐敬德의 제자인 許曄, 朴淳 등과 교유하여 서경덕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38세에 처음 퇴계를 만난 이후 서로 방문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한 인연으로 『陶山及門諸賢錄』에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그의 문집을 판각한 것은 이런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 沂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아들 洪進(1541-1616)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洪進은 임진왜란 때 호종한 공으로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唐興府院君에 봉해졌다.

퇴계로 시작하여 율곡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으로 더 유명한 홍인우의 문집은 두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아들 洪進이 관직을 사직한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許箴의 서문을 받아 선조 40(1607)년 간행하였다. 9行19字 초간본은 고려대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다. 중간본은 인조 17(1639)년 安東判官인 증손 洪有炯이 부록과 시 2제, 잡 1편, 서 6편을 증보하여 3권본을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누판고』에 기록되어 있다. 중간본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중간본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안동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23. 『退溪先生文集』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인데, 原集·外集·別集·年譜를 총칭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질의 서적이다. 『退溪先生文集』은 우리나라에 서의 문집 편성에서 도학적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퇴계가 직접 정리해둔 詩藁와 文藁를 적절하게 증산해서 간행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제자들의 입장에

서는 퇴계가 등한시켰던 서간이 시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고, 정치적·학술적인 내용이 담긴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에 서간을 수집, 정리, 편차하는데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주자의 서간을 중시한 퇴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수집과 편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퇴계집』의 판종은 복잡하게 되어 갈피를 잡기 어렵다. 전래하는 기록과 서적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문집은 판본에 따라 크게 사본과 목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사본은 6차례 정리되었다. 퇴계 자신이 정리한 自筆稿本, 初本이라고 하는 『退陶先生集』,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中本の 重校本, 中草本, 定稿本인 『退溪先生集』, 全書本인 『退溪先生全書』이다.<sup>73</sup>

親筆稿本: 퇴계는 자신의 시문을 산정하고 분류해서 詩藁와 文藁로 보관했다. 현재는 『文藁』 2책이 전래되고,<sup>74</sup> 詩藁는 일실되었다.

初草本: 최초로 정리된 원고로서 서명은 『退陶先生集』이다. 퇴계의 손자 李安道와 문도 趙穆·禹性傳 등이 퇴계 사후 이듬해인 선조 4(1571)년부터 유문을 정리하여 선조 12(1579)년경 완료하였다. 서애와 眉巖 柳希春의 건의로 선조 6(1573)년 9월 퇴계의 문집을 교서관에서 인출하란 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년에 李安道가 어느 정도 정리된 草稿를 가지고 서울로 갔었다. 월천이 정리한 초고는 퇴계의 모든 저작을 망라하고자 하여, 원집에 덧붙여 심지어 퇴계가 제외한 시까지 모아 별집·외집으로 편집하고, 서간도 수집한 것이었다. 선조 11(1578)년 교서관에서 인출하라는 선조의 명이 있는 후, 이안도가 집록한 원고를 수습해 가지고 갔을 때는 집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가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로 해서 갈등이 유발되었다. 당시 신진사람이 李芑·林百齡 등 을사사화의 주모자를 삭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퇴계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別紙 2폭이 문제가 되었다. 在京門徒들은 닥쳐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서애를 중심으로 乙覽을 위해 보내온 초고를 편집·교정·淨寫하였으나,

73 徐廷文, 「退溪集의 刊行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 3, 1993.;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 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65-98.; 문석윤, 「退溪文集의 정본 편성 과정에 대한 일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9-48.;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退溪集 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141-178.

74 鄭錫胎 外, 『退溪李滉圖版解説; 韓國書藝史特別展 21』, 修訂版. (서울: 예술의 전당, 2001). 42.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覽 계획도 무산되었다. 서애와 재경문도들은 대폭 산거해서 퇴계 학문의 정수만 선별해 간행하자고 주장하였고, 월천과 향촌의 문도들은 퇴계의 전체 원고를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원고는 일반 문집체제로 편집된 것은 아니며, 중복과 누락이 많은 상태였다.

전체는 100여 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도산서원에 20책이 전래되고 있다. 표지의 책차는 千字文順으로 기록되어 있고, 面紙에 士純校·安道校·而見校 등 교정자명이 기록되어 있고, 書眉 또는 부전지에 교정하고 산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서간문에는 작성연대가 기록되어 있다.<sup>75</sup>

中本: 퇴계의 시문 전체를 수록할 목표로 만든 문집 초고본이다. 李安道가 주관하여 『退陶先生集』을 저본으로 선조 13(1580)년부터 일반 문집 체제의 원고로 작성하다가, 선조 17(1584)년 이안도가 사망하였다. 월천이 뒤를 이어 편집을 담당해 선조 19(1586)년 완성한 원고가 中本 『退溪先生集』이다. 내집 시권 2책과 별집 1책은 이미 初本 편집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中本은 목록을 포함해 51책으로 편집되었다. 현재는 목록 3책과 중교 대상이 된 37책을 합한 40책이 전래되고 있다.<sup>76</sup> 퇴계 친필본을 제외하고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평이 있다.

中本の 重校本: 中本 『退溪先生集』 51책을 『朱子大全』의 체재를 따라 편차하고 중교한 원고이다. 월천과 서애의 편집방침이 달라 선조 19(1586)년 산절을 주장한 서애와 이를 반대하는 월천의 대립에서 학봉이 중재하여 산절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에 선조 20(1587)년 여강서원에서 서애와 학봉의 주도로 교정하기 시작해 선조 21(1588)년 초까지 산절해 重校하였고, 그 해 6월에 병산서원에서 교정 및 편집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中本 『退溪先生集』 40책 가운데 목록 3책을 제외한 37책이 중교본이다. 面紙의 교정자명을 통해 이안도, 김성일, 류운룡, 류성룡, 琴鳳瑞, 金垓, 金允安 등이 교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미 또는 부전지에 교정하고 산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中草本: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빠지 않고 전부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월천과 秋淵 禹性傳을 위시한 제자들이 선조 21(1588)년 중교가 끝난 후 다시 수정하고 보

75 鄭錫胎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2003. 243.

76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49.



완해 선조 22(1589)년 가을 정서를 마치고 교정한 원고가 중초본 『退溪先生文集』이다. 重校本을 정서하고 여기에 내집 詩卷 3책을 더한 원고이다. 이 과정에서 서간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체제와 편차가 정해졌다. 선조 25(1592)년 월천이 주관해서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려고 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 선조 25년 문집의 간행이 추진된 것으로 보아, 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를 재 활용하여 定稿本을 작성하였다. 정고본으로 유추하면 48권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7</sup>

定稿本 : 정유재란이 끝난 선조 31(1598)년 월천의 주도로 도산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선조 32(1599)년 완료하였다. 초간한 경자본 『退溪先生文集』 등재본의 저본이다. 전쟁 후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중초본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정고본은 내집 27책, 별집 1책, 외집 1책과 후에 서애가 편집한 연보 1책을 합한 30책이었지만, 번남본 필사 이후 3책 정도 유실된 듯하며 현재는 내집 27책만 전래되고 있다.<sup>78</sup>

全書本 : 간본도 선조 33(1600)년 초간본 이후, 현종 9(1843)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단되었다. 후손 痴翁 李彙溥(1809-1869)가 주도하여 퇴계의 모든 저작을 집대성하고자, 고종 6(1869)년 40여 명이 도산서원에 모여 『朱子大全』의 체제를 따라 광명실에 수장된 문집 초본을 바탕으로 전존 모든 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문집의 범위를 넘어 퇴계의 저작과 관련한 자료 전체를 모은 全書를 편성한 것이다. 전체는 내집 66권, 별집 2권, 외집 1권, 속집 8권, 유집 내편 10권, 외편 15권으로 모두 102권으로 편찬했으나 공간하지는 못하였다.

이 『退溪先生全書』는 樊南本 · 上溪本 · 下溪本の 3種 필사본이 있다. 樊南本은 李彙溥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수장한 97권의 원고본이다. 上溪本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樊南本을 저본으로 유집을 보충하고 재정리한 것이며, 上溪의 종택에 보관했기 때문에 上溪本이라고 한다. 목록 1권과 원집 66권, 속집 8권, 별집 1권, 외집 1권, 유집 20권을 합한 96권이다. 1950년 6·25전쟁 때 몇 책이 遺失되었다. 下溪本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sup>79</sup>

77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50.

78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50.

목판본은 세 차례 판각되었다. 선조 33(1600)년 간행한 庚子初刊本, 영조 즉위(1724)년의 甲辰重刊本, 헌종 9(1843)년에 癸卯三刊本이 있다. 초간본은 물론 중간본과 삼간본에도 보각본이 있다.<sup>80</sup>

庚子初刊本 :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2(1599)년 월천의 주도로 도산서원에서 퇴계의 문집간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선조 33(1600)년 월천은 서애가 산절한 中本の 重校本을 무시하고 산절되지 않은 정고본으로 도산서원에서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당시 북인은 서애가 君父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도 도리어 ‘和’자로서 국가의 대사를 그르쳤으니[誤國], 이는 송나라의 秦檜보다 더한 奸人이며, 특히 산림에 있는 鄭仁弘과 趙穆과 같은 인재의 등용을 막고 있다고 탄핵하였고, 결국 서애는 선조 31(1598)년 삭탈관작 되었다. 이로서 서애는 퇴계의 문집 간행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판각된 문집은 원집 49권, 별집 1권, 외집 1권 등 모두 51권본이다. 초간본에는 당시까지 수집된 퇴계 이항의 모든 저작이 수록되었다. 원집은 퇴계가 직접 편집한 작품을 수록한 것이고, 별집은 퇴계가 제외시킨 시를 모아 수록한 것이다. 초간본은 옥산서원 5책과 계명대 잔본 25책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완질이 된다. 단국대에도 잔본의 일부가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는 초간본 책판은 보물 18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경자본 책판에는 보각판도 포함되어 있다.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해 改刻한 판본이 庚子本補刻版이다. 이들 보각판을 擬庚子本 또는 庚子本覆刻本이라고도 한다. 경자본 간행 직후 서애를 중심으로 改刊이 논의되었다. 개간의 이유는 처음 합의한 것과 같이 원고를 산절하지 않고 문집을 간행했다는 것과, 경자본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애의 제자 鄭經世 등이 교정하였지만, 전면적인 改刻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오류만 改刻했고, 年譜 3권 · 世系圖 · 附錄 1권을 경자본에 추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각과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 단국대, 도산서원, 서울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수장되어 있다.

79 鄭錫胎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2003. 254-257.

80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說」, 『奎章閣』 2, 1978. 102-129.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研究』, 『嶠南漢文學』 1, 1988. 1-108.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과 退溪先生全書」, 『退溪學報』 62, 1989.6. 63-72. ;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

甲辰重刊本 : 전체를 다시 판각한 重刊本은 영조 즉위(1724)년의 甲辰重刊本이다. 이는 三嘉公<sup>81</sup>이 중심이 되어 판각한 것이다. 갑진중간본은 초간본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며, 처음으로 교감기록을 書眉에 添刻한 것이다. 갑진중간본은 외집과 별집을 포함해 51권이다. 초간본 경자본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차이점은 頭註가 添刻되었다는 점이다. 이때는 등재본을 새로 써서 간행했다기보다 상당부분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래본의 상당수는 갑진중간본이다. 속집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누판고』에 수록된 『퇴계집』은 甲辰重刊本으로 보인다. 중간본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 도산서원, 동국대, 서울대, 영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갑진중간본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가 대대적으로 보각한 것은 순조 17(1817)년 정축이다. 이 판본을 甲辰重刊丁丑補刻本이라 한다. 이때 남긴 기록이 『丁丑補刻本改刊日記』이다. 이때 보각한 전말은 『先生文集改刊日記』<sup>82</sup>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어람용을 인쇄해 보내라는 감영에서 전달한 홍문관의 관문을 받은 후 판목에 마멸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李頤淳(1754-1832)이 중심이 되어 보각한 것이다. 여기에는 보각한 배경, 진행 과정,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 廣瀨 李野淳(1755-1831)의 筭疑 100여 조를 舊板에 頭註로 첨각하였고, 10분의 1에 달하는 극히 불량한 200판 정도를 보각하였다. 이 책판에는 판면이나 마구리 등에 ‘丁丑改刊’이란 刻書 또는 墨書가 있다. 간본은 고려대, 성균관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판목 서미에 두주를 새겨 붙이려고 첩판 조각을 덧대어도 견고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고 하므로, 두주 탈락 정도로 정축보각본의 후인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癸卯三刊本 : 정축보각 이후 26년 만인 현종 9(1843)년에 전면적으로 새로 판각한 것이 癸卯三刊本이다. 李泰淳, 柳相祚와 柳台佐 등이 주동이 되어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한 것이다.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甲辰本처럼 頭註가 첨각되어 있다. 판식이 엄격하게 10행18자의 형식과 통일된 版心이고 자체도 해정한 편이다. 당시 간행 경위는 현종 9(1843)년 작성한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81 三嘉公은 퇴계의 5대손 李集(1672-1747)이다. 자는 伯生, 호는 洗心齋이다. 음관으로 의금부도사, 삼가현감 등을 지냈다. 저서는 『從心錄』, 『禮論』과 문집 『洗心齋集』이 있다.

82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生文集改刊日記.

판각장소는 鳳停寺였으며, 그 판목은 도산서원에 수장하였다. 보각판을 포함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계묘삼간본은 원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보에는 현종 5(1839)년에 내린 致祭文까지 수록되었다.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영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24. 『退溪先生續集』

『退溪先生文集』의 重刊과는 별도로 퇴계집의 전고를 수록하려는 시도가 2차례 있었다. 첫 번째가 속집의 편찬이다. 6세손 靑壁 李守淵(1693-1748)이 경자본에 수록되지 못한 拾遺를 수집해 영조 22(1746)년 속집 8권을 편찬하였다. 완전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중초본을 바탕으로 일고를 수집하고 교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내용이 완비되었음은 물론 전체적으로 板式이 嚴格하고 字體도 楷正한 편이다. 저본이 된 필사본도 전래되고 있다. 간본 발문에 ‘上之三十二年丙寅仲春上澣六代孫守淵謹跋’이란 문구가 있는데,<sup>83</sup> 사후에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아마도 영조 31년이 아닌 영조 22년 병인년의 誤刻으로 보인다. 『누판고』에는 『退溪先生文集』에 부기되어 있다. 정조 12(1788)년에 편찬된 『退溪先生文集攷證』에 속집이 포함되어 있고, 정조 20(1796)년 편찬된 『누판고』에도 수록되었으므로, 정조 12(1788)년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전북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 25. 『退溪先生言行錄』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숙종 33(1707)년에 『退陶先生言行通錄』 8권본을 편찬하였다. 퇴계의 언행을 學問·行實·出處·議論·雜記·考終記의 6類로 구분하고, 25門目으로 세분하였다. 초고를 가지고 스승인 李玄逸(1657-1730)과 상의하였고, 이현일의 아들 李栽(1657-1730)의 발문을 받아두었으나 생전에 출간하지 못하였다. 사후 경상도 관찰사 趙顯命(1690-1752)의 도움으로 영조 8(1732)년 안동에서 간행하였다. 세칭 花山本이라 하는 초간본이다. 계명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이 책이 출간되자 안동과 예안의 선비 사회에서 적지 않은 물의가 있었다. 『화산본』

83 李滉著·李守淵編, 『退溪先生續集』. 木板本. [安東: 陶山書院, 1922]. 跋(李守淵). 張 2.

에는 퇴계가 勿菴 金隆에게 강의한 古文前集講解 18조목은 孔孟程朱의 정맥을 이은 학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心統性情에 대한 명종의 물음에 대해 퇴계가 답한 『堂后日記』에서 몇대로 21자를 삭제하여 문맥이 통하지 않게 했다는 점, 명종 22(1567)년에 명나라 사신 許國과 魏時亮이 왔을 때 퇴계가 接伴官으로서 활동을 기록한 『回示天使錄』에서 퇴계는 의도적으로 尹祥(1373-1455)을 생몰연대와 다르게 뒤에 배치했는데, 권두경이 몇대로 연대순으로 고쳤다는 점, 권두경이 『화산본』에 자신의 서문을 실어 퇴계 후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한 점 등등이다.

마침 영조가 치제관 鄭亨復을 도산으로 보내어 賜祭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예안의 선비들이 『화산본』을 태워달라는 연명 정문을 올렸다. 영조는 이 문제는 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 사림에서 알아서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교를 내렸다. ‘按使金尙星啓辭’를 통해 저간의 사정을 볼 수 있다.<sup>84</sup>

이후 개간본은 3차례 간행되었다. 퇴계의 6세손 靑壁 李守淵(1693-1748)이 중심이 되어 권두경의 화산본을 대폭 수정하고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이 중간본이 영조 8(1732)년의 도산서원에서 改刊한 『退溪先生言行錄』 6권본이다. 권1에서 권5까지는 32 문목으로 나눈 類編이며, 권6은 김성일이 지은 實記, 鄭惟一이 지은 『言行通述』 등이 수록된 부록이다. 근래 연구에 김성일의 전언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조목이나 류성룡 등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sup>85</sup>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英廟八年壬子(1732)陶山書院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이 중간본의 판목은 『누판고』에 수록되었다. 이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중간본은 성균관대와 전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고종 4(1867)년의 삼간본에는 “英廟八年壬子陶山書院開刊, 今上四年丁卯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간본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광무 9(1905)년 사간본에는 “英廟八年壬子陶山書院開刊, 今上四年丁卯重刊, 四十二年乙巳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대, 동국대, 부산대, 안동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삼간본의 판목을 활용하고 일부 보각한 것으로 보이는 사간본의 판목이 한국국학진흥원에

84 李守淵, 『靑壁集』, 木活字本, [刊年未詳], 卷3. 按使金尙星啓辭. 張11.; 金彥鍾, 「退溪先生言行錄 小考」, 『淵民學志』 4. 1996. 69-98.

85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 2015.12. 215.

기탁되어 있다.

## 26. 『退溪先生自省錄』

퇴계가 59세에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 자신이 명종 10(1555)년부터 명종 15(1560)년까지 문인들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에서 수양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서한 22통을 직접 선택해 엮은 것이다. 『朱子書節要』가 완성된 후 명종 13(1558)년 5월 南彦經, 鄭惟一, 權好文, 金富倫, 李珥, 黃俊良, 奇大升, 盧守愼, 이들 8명에게 보낸 편지를 선별해 편찬하였다.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퇴계선생문집』에도 전부 수록되어 있다. 학문과 관련된 내용과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 등을 담은 글인데, 초학자들의 병통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요체인 거경궁리의 방법, 欺世盜名의 경계란 4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편지를 통해 퇴계는 미발 시 존양, 이발 시 성찰을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으로 제시했던 정자나 주자의 공부론을 계승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敬의 의미를 ‘엄격한 도덕성’이나 ‘자기통제’를 넘어 ‘예술과 자연에의 감응의 유연성’으로 확대해석한 경의 공부론을 확립한 것이다.<sup>86</sup>

선조 18(1585)년 가을 학봉이 나주목사 재임시 간행한 초판본에는 “萬曆十三年乙酉(1585)冬羅州牧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초판본은 도산서원에 수장되어 있었고,<sup>87</sup> 국립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전남대에 수장되어 있다. 이들의 서명은 『退陶先生自省錄』이고, 판심서명은 “自省錄”인데, 후쇄본으로 보일 정도로 마멸이 심한 판본도 있다.

나주판의 판목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나주목 초각판을 도산서원으로 移板했다<sup>88</sup>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봉이 나주목에서 판각은 마쳤으나 인출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임진왜란 때 각판을 약탈당했으며, 이후 일본에서 3차례 복각했고, 일본의 인본이 전해져 정조 17(1793)년에 판각하였다<sup>89</sup>고 하는 것이다.

86 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退溪學과 韓國文化』 32, 2003, 97-134.

87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關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現存書院藏書目錄」, 101. 이 목록에 의하면 간기와 “陶山書院上”이란 기증기가 있다. ; 『陶山書院 古典籍』,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6), 193, 305. 이 목록에는 서적은 수록되지 않았고, 木板類에는 『退溪先生自省錄』 42점이 수록되어 있다.

88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退溪先生自省錄.

89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68, 72. 나주에서는 판각한 후 인출

학봉은 선조 15(1582)년 8월에 나주목사로 부임하였고, 선조 19(1585)년 12월 면직되었다. 면직되기 전 가을에 『주자서절요』와 『퇴계선생자성록』을 간행하였다.<sup>90</sup> 또한 나주목 판각의 간기와 함께 난외에 “陶山書院上”이란 기증기가 있는 서적이 도산서원 수장본에 있다.<sup>91</sup> “陶山書院上”이란 기증기는 나주목에서 인출해서 도산서원에 기증할 책이란 의미로 나주목에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판각 후 임진년까지 7년간이란 시간이 있었고, 학봉이 판각 후 곧 체임되었으므로 체임시에 도산서원으로 移板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조 18(1585)년본 『고사촬요』 나주목에 『自省錄』이 수록되어 있고, 영조 16(1740)년경 편집된 『冊板置簿冊』에는 예안의 도산서원 장판으로 『自省錄』, 정조연간 편찬된 『누판고』에 『퇴계자성록』이 수록되어 있다.<sup>92</sup> 도산서원에서 보관하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따라서 판각 후 즉각 도산서원으로 이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나주목 인본이 임진왜란 중 전래되었고, 나주판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이다.

## 27. 『後溪集』

퇴계의 9세손 後溪 李頤淳(1754-1832)의 10권본 문집이다. 자는 穉養, 초자는 斐彦, 호는 後溪·晚窩·蕨齋·六友堂·六友軒·杞隱 등을 썼다. 정조 3(1779)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정조 23(1799)년 이후 효릉참봉, 선공감봉사, 군자감직장, 의금부도사, 군자감주부, 은진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은진현감 재직 때 竹林書院의 유생 중 균역을 기피하려는 양민을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문책을 받아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순조 11(1811)년에 後溪書堂을 짓고 독서와 예서 공부에 몰두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들 李彙炳과 宗姪 李彙寧 등이 後溪의 초고를 정리하고, 李晚淑이 지은 遺事와 姜

---

하지 못하였는데, 임진왜란 후 왜군이 환국할 때 나주본 각판을 짚어지고 갔다고 추정했는데, 나주에서 판각 후 6년간 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90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木版本. [純祖 3(1803)]. 附錄 卷1. 年譜. 張15.

91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101.

92 魚叔權, 『攷事撮要』. 木版本. [宣祖 18(1585)] 羅州牧. 103.; 徐有渠,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1941). 189.;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冊板置簿冊』. [(1740)年頃] 369.

必孝(1764-1848)의 묘갈명을 받아 증보하고 편차도 개편한 6권본을 철종 12(1861)년경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이 목활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단국대, 연세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그 후 저자의 아들 이휘병이 초간본을 바탕으로 초간본에서 빠진 내용을 증보하고 從孫 李晩淑이 지은 遺事を 비롯한 부록 문자를 추가하고 편차도 재편하여 철종말 또는 고종초에 목판으로 10권본을 간행하였다. 이 중간본은 서울대에 수장되어 있다.

융희 3(1909)년 간행한 판본이 삼간본이다. 융희 3(1909)년 간행하면서 쓴 『先祖文集刊役時日記』가 있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sup>93</sup> 정조 사후 판각되었으므로 『누판고』에 실릴 수 없다. 10권본의 256판목 가운데 극히 일부가 남아 도산서원에서 2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 28.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북송 휘종 때의 학자인 少微 江贇가 찬한 『少微通鑑節要』를 眉山 史炤가 음석하고, 鄱陽 王逢이 집의하였으며, 京兆 劉剡이 증교하여, 明의 선덕 3(1428)년 간행하였다. 북송 신종 원풍 7(1084)년에 강지가 司馬光이 편찬한 1,362년간의 편년체 통사 『資治通鑑』을 50권으로 요약해 『通鑑節要』를 저술하였다. 『通鑑節要』가 유통된 지가 오래되었으나 訓釋이 소략하고 의론이 간소하기 때문에 훈석을 자세하게 하고 구두를 명백히 한 것이 『少微通鑑節要』이다.

이 책의 도산서원 판각의 판목은 『누판고』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판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草澗 權文海의 종손인 醴泉 權榮基가에 ‘上之十九癸亥(1743)秋陶山書院’<sup>94</sup>이란 간기가 있는 서적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초간통택의 판본은 확인된 유일한 간본이다. 이 책은 매우 많이 유통되었는데, 전래본이 더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 혹 조사와 편목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93 『先祖文集刊役時日記；隆熙己酉正月日』. 筆寫本. [1909]；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祖文集刊役時日記.

94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 1；大邱,慶北』(文化財管理局, 1986). 628.



#### IV. 陶山書院 書籍의 板刻 過程의 記錄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의 종수에 있어서 기록마다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한 시기의 차이, 책판의 범위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예로 문집의 경우 原集·外集·別集·年譜·續集·附錄이 동시에 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각각 셈할 수 있고, 원각판에 보각판을 더한 경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도 일률적으로 셈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명상 27종에 달한다. 이는 조선시대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으로서는 가장 많은 종수의 서적을 간행한 것이다. 27종 가운데 판각 전말을 알 수 있는 서적은 4종이다. 즉 순조 17(1817)년 『퇴계선생문집』을 대대적으로 보각한 甲辰重刊丁丑補刻本の 판각 전말을 기록한 『先祖文集改刊日記』, 헌종 9(1843)년 癸卯三刊本을 판각할 때의 전말을 기록한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陶山及門諸賢錄』 간행 전말을 기록한 『及門錄營刊時日記』와 융희 3(1909)년 『後溪集』 간행시의 일기인 『先祖文集刊役時日記』이다. 광무 4(1900)년 또는 1937년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도 있으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들 5종 자료는 판각의 논의 과정·인적 구성·원고 교정·경비 규모와 마련·결산·판재마련·장인 동원·판각, 인출, 장황·간본의 반질 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에 4자료를 통해 도산서원에서 서적을 판각한 과정에 대해 일별해보기로 한다.

##### 1. 『先生文集改刊日記 丁丑』

이 일기는 순조 17(1817)년 甲辰重刊丁丑補刻本 판각시의 일기이다. 일기에는 순조 17년 1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퇴계의 문집을 보각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권말에 ‘題文集改刊日記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題後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李頤淳(1754-1832)의 『후계집』 권7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기의 1월5일, 5월22일, 6월17일, 18일, 22일자

등에 山長 이이순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작성자는 이이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題後는 이이순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일기는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있다.

순조 16(1816)년 겨울 국왕이 『퇴계집』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홍문관에 수장되지 않아, 도산서원에 상송할 것을 명한 것이 판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궁내에 『퇴계집』이 없었던지 국왕의 명을 받은 홍문관에서는 경상감영에 『퇴계집』을 인출해 올리라는 관문을 보낸 것이다. 막상 도산서원에서 『퇴계집』을 인출하려고 책판을 점검해 보니 마모되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대로 인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몇 차례 논의를 거쳐 2월13일 개각을 결정한 후, 6월30일 고유제를 하였고, 8월13일 완료하였다.

###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순조 17(1817)년 1월5일 신년을 맞아 세배를 하는 堂會에서 『退溪先生文集』을 인출해 상송해야 하는데 판목에 缺陷이 많아, 다시 판각하기로 논의하였다. 당시 도산서원의 원장 李頤淳<sup>95</sup>은 2월13일 향례 후 간역을 결정하였고, 20일 서원의 부속건물인 隴雲精舍에 모여 책판 제작의 실무책임자로 도도감(전 참의 李龜雲)과 도도감을 보좌하여 책판 제작의 실무를 지휘하는 도감(金星儒, 李龜恒)을 선출하였다. 전체를 개각할 물력을 감당할 수 없어 마멸이 심한 판목만 판각하기로 정하였다.<sup>96</sup>

### 2) 마모책판 조사와 등재본 필사

3월5일부터 원장, 별임 2명, 재임이 간본을 살펴 가장 마멸이 심한 책장을 뽑아내었다. 6일부터는 간본에서 자획이 바르고 깨끗한 부분을 잘라내 붙이고, 획에 작은 결함 있는 곳은 획만 보충하고, 심한 결함이 있는 책장은 새로 필사해서 등재본을 마련하였다. 즉 영조 즉위(1724)년의 甲辰重刊本の 판목에서 온전한 인면은 지면을 잘 배치하고, 마멸이나 훼손된 부분이 극소수이면 [埋木해] 보충하고, 많이 손상된 판은 등재본을

95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 117.; <19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연도별 명단>에 의하면 1816년의 상유사는 李頤淳이었고, 1817년은 金熙周였다. 연도만 밝혀져 있는데, 아마도 판각이 끝난 후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96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2月20日. 張1.;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生文集改刊日記.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 일은 李彙寧과 李晩受가 주관하고 인본을 검사하였다. 4월29일 많이 마모된 책판을 찾아내니 모두 100여 판이었다. 5월1일에는 책판을 직접 자세하게 조사해 또 70판을 더 찾아내었다. 전후 모두 180여판이고, 연보와 부록에도 여러 판을 개각해야 할 형편이었다. 인본에서 자획만 떼어내고 새겨 붙인 것은 자획의 모양을 잃어버려 조화가 되지 않아 등재본을 다시 쓰기로 정하니, 양이 많아 金永獻도 참여시켰다.<sup>97</sup>

### 3) 경비마련과 결산

3월6일 도도감은 도각수와 판각 품삯을 1판에 1兩1錢으로 결정하였다. 3월13일 관찰사 金魯敬이 지나는 길에 서원에 들렀다가 刊役都監望紙를 보고 감영에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서원에서는 마모가 심한 판목만 보각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관찰사가 돈 50페미와 종이 1同의 扶助單子를 써주고 갔다.<sup>98</sup> 5월6일 소요되는 물자는 淸安邑과 知禮邑에서 변통하기로 하고, 판재는 영양 注谷 趙氏門中에서 빌리기로 하였다. 21일 淸安에서 돈 10페미와 두어 근의 담배를 가져왔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듯하다. 이어 간행비용을 각처에 분정하였는데, 향교 3냥, 易東書院 5냥, 淸溪書院 5냥, 汾江書院 2냥, 東溪書院 10냥, 洛川書院 8냥, 磨谷書院 2냥이다. 6월 9일 교정이 거의 완료단계인데, 모금액이 부족하여 땅을 팔기로 결정하였다. 12일 약속한 부조와 종이를 보내달라고 감영에 독촉하였고, 13일 감영에서 50냥을 보내왔다.

6월21일 판각이 끝나 각수의 공임을 지불하였다. 도각수의 판각공임은 일반적으로 상공임의 2배를 지불하지만, 판각공임에 20냥만 별도로 지급하였다. 교정각수도 상공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원에서는 교정일수를 계산해 한 달 치 상공임에 그가 판각한 3판 공임을 합쳐 15냥을 지급하였다. 공임의 합계는 각수 246냥9전이 되었고, 목수는 15냥5전, 대장장이는 3냥이었다. 이외에 장인들의 식대, 연초, 기타 경비도 들었을 것이다. 7월1일 결산에 소요된 경비는 쌀 22석10두와 512냥이 소요되었다.<sup>99</sup> 8월9일 감영에서 종이 100속을 보내왔다. 간역에 가장 큰 부조는 경상감영에서 하였고, 다음은

97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5월1日, 張8.

98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5월1日, 張3.;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6-8. 문집에 수록된 題後에는 돈 五千文과 종이 百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9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7월1日, 張15.

각지 향교와 서원에 할당해 부조한 것이었다.

#### 4) 장인동원과 판재마련

앞서 素巖 金鎭東(1727-1800)이 원장이고 현 원장 이이순의 부친 李龜蒙(1733-1807)이 별임으로 있을 때,<sup>100</sup> 개간 논의가 있어 판재 100餘部를 일월산에서 사서 淸涼寺에 보관해 둔 바 있었다. 판재를 마련한 것은 정조 23(1799)년이었는데, 당시 마련해놓은 판재를 가지러 2월24일 도감 2명이 갔다. 그러나 십년 여 지나서 좀 먹고 썩은 것이 많아 48판은 쓸 수 있겠으나, 52판은 새로 마련해야 했다. 도각수 金應俊과 목수 南哥가 일주일 정도 걸려 이 판재를 도기로 깎고 소금물에 삶아 판각에 대비하였다. 5월9일 도각수와 刊任 李龜恒이 영양 注谷 趙氏門中에서 판재 100판을 가져왔다.

3월9일 객사일로 治板木手를 관아에서 붙잡아 가서 판목을 다듬는 일이 중단되었다. 17일에는 山訟으로 고지기도 감히게 되어 일에 차질이 생겼다. 목수와 고지기는 21일에야 풀려났고, 이 일로 감영에 소장을 보내고 하느라 간역이 중단되었다가 4월26일 간역이 재개되었다. 4월26일 간역을 재개한 후 책판을 점검하니, 治板하였으나 판각하지 않은 책판과 판각하였으나 미처 마구리를 하지 못한 책판은 갈라진 것이 많았다.

3월12일 안동에서 각수 2명이 왔고, 13일에는 영주에서 각수 2명이 왔고, 17일에는 龍潭寺 각수승 2명이 왔고, 29일 영주 각수 1명이 왔다. 목수가 잡혀가 판각이 중단되자 돌아갔던 4명의 각수가 4월26일 돌아왔다. 5월2일은 광흥사 각수승 1명이 왔는데, 판각에 능한 善刻이었다. 6일에도 각수 2명이 도착하였다. 5월28일 기록에 전후 모인 각수는 16명이라 기록되어 있다.<sup>101</sup> 판각이 끝나 6월11일부터 각수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각수의 품삯이 200여 금인데, 당시 80냥밖에 없어 다음 달 초에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21일에는 도각수와 교정각수도 돌아갔다.

#### 5) 판각작업과 교정작업

4월26일 간역을 재개한 후 5월8일 각수 元敏이 잘못된 판각을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100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 111-112. 이 논문에는 1799년에는 李鎭東이라 오기되어 있으나, 『陶山書院 前任案』, 『退溪學研究』 2,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88, 217.에는 金鎭東으로 기록되어 있다.

101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5月28日, 張11.

6월1일 산장 李頤淳과 李心淳이 인출본을 교정하였다. 12일 도각수와 교정각수가 뒷마 무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20일 각수가 교정을 완료하였는데, 책판은 모두 196판이었다. 8월9일 책판 4장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수 1명을 불러 구판 2부를 깎아내고 개각하게 하였다.<sup>102</sup>

이 일기에는 인출작업, 상황, 반질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고, 8월12일 인본 1부를 관찰사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끝나 있다. 관찰사에게 보낸 것은 상송용으로 보낸 것인지, 관찰사가 많은 부조를 했으므로 기증한 것인지는 분간되지 않는다. 아마 상송용을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출한 부수를 기록하지 않아 인출부수도 알 수 없으나, 경비를 부조한 곳에는 인본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 6) 간역 과정의 어려움

간역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공역은 크지만 재력이 미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이는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점이라 하겠다. 또 간역소 고지기가 산송일로 구급되어 지체되었고, 관찰사가 행차했을 때 각수에 대한 원문만 받아놓고, 목수는 언급하지 않아서 객사일로 목수가 잡혀가고, 관에서 나온 下吏가 행패를 부린 이후 4월14일까지 간역사업이 중단된 점이였다.<sup>103</sup> 또 5월부터 한 달에 넘게 장맛비가 쏟아져서 尙德祠 북쪽 담장이 무너졌고, 光明室에 물이 스며들어 서책이 젖을 정도였다. 뒤통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또 하나는 권차마다 장차마다 가려 뽑은 것에 따라서 판각하였기 때문에 수미가 이어지지 않고, 상하에 차례가 없으며, 冊張을 건별로 기록한 것이 하도 잡다하여 정밀하게 살피고 명심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어긋나기 쉬웠다는 것이다. 이는 인본에서 훼손된 부분을 기록하고, 판목을 조사하여 마모된 부분을 가려내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기록한 후 판각하였기 때문이다.<sup>104</sup> 권14 장35와 외집 장20은 개각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빠트렸고, 구판 권33 장19와 장20은 애당초 개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8월9일 다

102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純祖 17(1817)] 8月9日, 張15.

103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文集改刊日記後叙, 張15-16.;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7.

104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文集改刊日記後叙, 張15-16.;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7.

시 관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기를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당시 보각과 인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 2.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헌종 9(1843)년에 전면적으로 새로 관각한 『退溪先生文集』의 癸卯三刊本 간행의 전말은 통문관 주인이었던 李謙魯의 구장본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에서 볼 수 있다. 권말에 朴箕寧의 지문이 있다. 당시 『退溪先生文集』의 관목이 마멸되어 중간하기로 논의하게 되었다. 헌종 2(1836)년 10월부터 간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간행이 완료된 것은 7년이 지난 헌종 9(1843)년 윤7월임을 알 수 있다.

###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헌종 2(1836)년 10월 李泰淳(1759-1840)이 주관하여 본향의 사림과 퇴계의 문집 중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호계서원과 병산서원에서 호응하였으며, 도산별소에 간역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헌종 3(1837)년 정월에 경향 각지의 관원과 선비들이 慈山府使 李彦淳의 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都都監은 豐安君 柳相祚로 정하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영남 4鎭營에 통문을 보냈다. 9월에는 본부 향교에서 道會한 후 열읍에 통문을 보냈고, 10월에는 排錢에 기일이 지체되어 열읍에 다시 통문을 보냈다. 11월 도감 朴箕寧과 이하 소임을 정하였다. 헌종 5(1839)년 豐安君이 작고하여 도도감을 柳喆祚로 바꾸었다. 그러나 일은 지지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헌종 9(1843)년 4월5일 都所인 봉정사에서 道會하여 부서와 임원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간행작업이 시작되었다. 도도감은 李彦淳, 도감은 朴光錫을 위시한 8명, 교정도감은 鄭象晉을 위시한 18명, 교정유사는 李在嵩을 위시한 88명, 도청에는 柳廈祚를 위시한 4명, 運板은 金道壽를 위시해 7명, 出板은 朴聃寧을 위시해 8명, 監寫는 趙熙龍을 위시한 34명, 監刻은 金永獻을 위시한 89명, 監役은 權奎度を 위시해 52명, 監印은 崔雲錫을 위시한 86명, 直日은 鄭昌德을 위시한 30명을 정하였다.<sup>105</sup>

105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4月5日. 張9-12.

## 2) 원고교정과 등재본 필사

헌종 7(1841)년 3월 李家淳과 金永獻 등이 亦樂齋에서 한달간 교정하였다.<sup>106</sup> 헌종 8(1842)년 12월에도 李家淳 등이 도산서원과 각자의 집에서 간본을 考校하였다. 헌종 9(1843)년 2월 3일 간본과 구본 6책을 도산서원에서 보내왔으며,<sup>107</sup> 李彙寧 등이 刊本을 교정하였고, 사본 곧 등재본이 거칠어 改寫하였다. 3월에 木手 2명이 왔고, 鉅刀匠이 粧頭木을 만들었고, 3일에는 판각작업을 시작하였다. 4월에 초교본을 인출했다. 도산서원에 수장되었던 문집 초본 42책, 속집 간본 4책, 하회 양진당 수장의 검암(류운룡)의 수사본 5책이 왔다. 5월에 校本을 인출했다. 7월 오자와 탈자가 많아 구본에 근거해 여러 차례 교정하였다. 22일 초교를 마치고, 23일 재교 인출을 시작하고, 26일 교정을 마치고 정본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다.

## 3) 경비마련과 결산

헌종 3(1837)년 읍마다 분정할 금전액수를 논의하였다. 9월에는 향교에서 가진 道會에서 배정한 액수에 관한 통문을 읍마다 보냈다. 10월 배정한 금액이 모이지 않자 다시 통문을 보내고 임원에게 독려하게 하였다. 이즈음 收錢都廳을 두고 자금 확보에 주력하였다. 곧 이어 淸城 등지에서 돈을 보내왔고, 11월 후손인 개성유수 李彦淳 등이 부조를 보내왔다. 12월 하회문중에서 돈을 보내왔다. 헌종 5(1839)년에는 안동향교 등 각지에서 기부금이 도착하였다. 헌종 6(1840)년 3월 九潭 광산김씨문중에서 기부금 보내왔다. 헌종 7(1841)년 각지 문중전과 助錢 도착하였는데, 관찰사 尹聲大의 助錢도 도착하였다. 헌종 8(1842)년 11월에는 刊錢 1,259兩이 마련되었다. 12월 각읍에서 보낸 排錢 700량도 도착하였다. 헌종 9(1843)년 5월에 본손인 寧海府使 李孝淳이 돈과 해산물 보내왔고, 예안의 尹樂莘과 金載璿이 門助錢을 보내왔다. 7월 도도감 溪南公이 각수용 別供錢을 보내왔다. 교정유사 李師延이 三栢堂助錢을 가지고 왔다. 윤7월25일 비용을 계산하니 便息과 排入金 도합 3,940량7전8푼이고, 出板·烹板·運板에 462량7전5푼 지불했고, 간역과 인출에 3,220량3푼이 들고, 잔금은 258량이었다. 남은 판목 매각대금

106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7年 3月. 張3.

107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3月3日. 張5.

150량은 봉정사에 맡겨 이식을 늘려 이후 간행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잔금 258량은 廬江書院과 屏山書院에 나누어 보내 다른 서적 인출용으로 남겨두었다.<sup>108</sup> 결국 판각 경비는 각처 서원에 할당해 염출하고, 퇴계 후손·각 문중·감영·군현에서 협조하여 마련되었다.

#### 4) 판재마련과 판각작업

헌종 3(1837)년 10월 도각수 2명을 차출하였고, 11월 도각수가 赤城에서 出板하였다. 헌종 4(1838)년 봄에 烹板有司 金行源과 李彙璿이 판목을 점검하고 龍門寺와 天柱寺에 보관하였다. 헌종 6(1840)년 4월 구판을 가져와 봉정사에 장치하고, 등재본을 필사하기 시작하였고, 헌종 9(1843)년 5월 각수 4명이 왔고, 교본을 인출하였다. 6월 말경 연보의 사본과 구본이 왔다. 7월1일 연보의 초본을 돌려보냈고, 7월말에는 사본의 付板을 끝냈다. 부판했다는 것은 판각하기 위해 등재본을 판목에 부착한 것이다. 이 간본은 헌종 7(1841)년 시작하여 付板이 끝나는 날까지 등사할 때 생긴 많은 오자와 탈자 때문에 구본에 의거하여 여러 차례 考準하였다. 구본에도 오자가 있어서 도산서원에 있는 초본과 다시 고정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다. 2,500판을 판각했는데, 속집·습유·언행록도 판각하려 했으나 금전 부족으로 중단하였다.<sup>109</sup>

#### 5) 인출작업과 상황

헌종 9(1843)년 6월 22일 초교를 마쳤다. 23일 재교 인출을 시작하고, 25일 판각을 완료하였다. 26일 재교를 마치고 정본을 인출하였다. 28일 2명의 인출장이 왔고, 윤7월 3일 裝潢匠 4명도 왔다. 6일 도산서원 수장본인 초본 44책, 구본 31책, 연보 1책, 속집 간본 4책을 돌려보냈다. 12일에 인출장이 돌아갔다. 23일 상황을 마쳤다.<sup>110</sup> 2명의 인출장이 약 40일 걸려 인출을 완료한 것이다.

#### 6) 반질

108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25일. 張27.

109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7월16일. 張23.

110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23일. 張27.



경비가 충분하지 않아 11질만 인출하여 도산서원·호계서원·병산서원·溪上宗家에 보내고, 도도감·도청·간사 2명이 나누어 가졌다.<sup>111</sup> 거질이이었으므로 초인본은 11질만 인출할 수 있었다. 나머지 3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급한 대로 우선 인출한 부수였을 것이며, 이어 경비를 부조한 곳에 보낼 인본을 인출했을 것이다. 그 기증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는 紙墨을 가져와 지속적으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헌종 2(1836)년 10월에 임원을 정하고, 도각수도 정하고, 판목을 검사하고, 경비도 모금하고, 등재본을 교정하였다. 헌종 9(1843)년 정월 본격적으로 도감이 가동되어 윤7월 25일 장황을 마치면서 간행이 완료되었다. 그간 연인원 2,000명이 동원되어 校正有司 88명, 監印 86명, 監刻 88명, 監役 52명, 校正都監 18명, 監寫 34명이 동원되었다.<sup>112</sup> 이외 장인으로 각수(각수, 교정각수) 55명, 목수, 鋸刀匠(粧頭木匠), 인출장, 장황장이 참여하였다. 유럽에서 퇴계의 위상이 높았던 만큼 全道の인 협조로 문집을 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 3. 『及門錄營刊時日記』

이 일기는 1914년 『도산급문제현록』을 간행한 전말을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는 1913년 4월17일 기록되었으나, 6월13일까지의 기록이 있고,<sup>113</sup> 뒤는 탈락된 상태이다. 간행사업의 발의에서부터 교감 과정, 이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활동, 그리고 이 작업과 관련된 제자와 후손들의 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1913년 원장이면서 간행사업을 지휘한 李中轍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4</sup>

####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도산급문제현록』은 도산서원 또는 퇴계의 후손이 처음 발의해서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초 창설재가 처음 편집한 이래 3차의 증보와 개정을 거쳤으나,

111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25일. 張27.

112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說」, 『奎章閣』 2. 1978. 6.

113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及門錄營刊時日記.

114 이현장·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과주; 글항아리, 2012). 269.

200년이 될 때까지도 간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1913년 정월 艮齋 李德弘의 후손인 李運淵이 발간 의사를 밝힌 것에 자극을 받아 李忠鎬(1872-1951)를 비롯해 李麟鎬·李斗鎬 등 퇴계의 후손들이 나서서 文會를 열고 간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1913년 4월20일 隴雲精舍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급문록』 발간을 위한 당회를 열고, 24일 소임을 분담하고 후손가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이때의 「陶山諸子錄刊役時爬錄」에 따르면 도도감은 金基洛, 도감은 李昶淵을 위시해 8명, 교정도감은 李進和를 위시해 10명, 교정유사 2명, 사본 6명, 板校都監 6명, 監刻都監 6명, 監印都監 6명, 都辦 6명, 時到 10명, 直日 9명을 정했다.<sup>115</sup> 한편 『及門錄營刊時日記』에는 5월6일에 서원에서 교정을 담당할 인원으로 참봉 李中[轍], 李康鎬, 유학 金魯憲, 李中協, 李善求, 진사 李中均을 정하고, 원임에 李昌淵, 首席에 李中喆, 齋席에 李用鎬를 정하였다.<sup>116</sup> 두 기록에 합치되는 인물은 李中[轍], 李康鎬, 金魯憲, 李中協, 李善求, 李中均이고, 5명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분장에 있어 도도감은 대표자, 도감은 사업의 총괄, 교정도감은 교정 실무 담당, 교정유사는 교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람, 도관은 경제 책임자, 시도는 방문인 관리자, 직일은 사무 관리와 집행자로 보인다.<sup>117</sup> 교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되어 보이는데, 교정도감의 인원은 원고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는가를 살펴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고, 판교도감에서는 판각한 후 판목의 오자를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사본은 등재본의 필사를 담당하고, 감각도감은 판각사업 감독, 감인도감은 인출을 감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원고교정과 등재본 필사

5월7일 교정을 책임진 李中轍이 교감을 시작하면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4종 원고 즉 蒼雪齋本(權斗經), 靑壁本(李守淵), 山後齋本(李守恒), 廣瀨本(李野淳)에 상락에 차이가 있고, 『理學通錄』의 범례를 따른 산후재본은 체제가 달라 논란이 많아 진도가 빠르

115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기탁문증, 도산서원, 고문서. ;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 集成과 刊行」, 『韓國의 哲學』 28. 2000. 6. ;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과주; 글항아리, 2012). 282-283.

116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5月6日. 張1.

117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과주; 글항아리, 2012). 285.

지 않았다. 처음 사본을 담당할 인원은 李裕容, 金夏鎭, 李智淵, 金東植, 趙炳昱, 李中器였다. 그러나 14일자에는 抄寫儒生으로 李養淵, 李晩靖, 李性鎬, 李世鎬가 언급되어 있다. 베껴 쓰는 일은 19일 끝났고, 교감은 24일 마쳤다. 이후의 교감은 李中植, 李中轍, 李中喆, 李進和, 李晩燦, 李康鎬, 琴岱基, 李中協, 李善求, 李斗鎬, 李中均, 李秉鎬, 金輝瑠, 金魯憲 등이 모여 逐條로 교감하였다. 「爬錄」에 수록되지 않은 李中喆과 李斗鎬도 조력하였다. 6월13일 월천의 「言行總錄」과 고봉의 「墓碣銘 序文」을 『이학통록』의 범례에 따라 권두에 넣을 것을 정하였다.<sup>118</sup> 아울러 「범례」를 제정하였다. 문인들의 약력 등 각종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교감작업을 하였다. 간행 작업은 기초 자료의 校勘, 謄寫, 監寫, 板刻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비는 각 문중의 부조로 충당하였는데, 그 부조기가 남아 있다. 곧 『癸丑及門錄營刊時扶助記』이다. 여기에는 부조한 인물의 고을과 택호, 부조 금액, 부조금 수령자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125곳에서 3,951냥을 부조하였다. 부조한 지역으로 보면 퇴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안동권이 중심이었고, 멀리 경남 밀양, 전남 함평, 보성, 장흥에서도 부조가 있었다.<sup>119</sup>

이와는 별도로 급문록 간행시의 경비내역을 기록한 『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도 전래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된 액수와 용도가 기록되어 있다. 전체 소요된 경비는 4898兩9錢1分이었다.<sup>120</sup> 가장 많은 비용이 든 부문은 각수공임과 종이 값이었다. 각수공임이 23.0%, 종이값 19.2%, 인쇄와 장황경비가 9.5%였다.<sup>121</sup> 이들 비용이 51.7%이다. 경비의 절반이 넘는다.

대학자 퇴계의 문인록의 간행 과정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퇴계의 문인의 범위, 지역, 영향권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기에는 간행의 경비마련과 결산, 판재마련과 각수동원, 판각작업, 인쇄작업과 장황, 반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118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6月13日, 張4.

119 『癸丑及門錄營刊時扶助記』, 筆寫本, [1913]. 1913년 급문록을 영간할 때 후손들이 낸 발간 기금 내역을 기록한 부조기.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문서. 치부기류. 부조기. ;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과주; 글항아리, 2012). 318-319.

120 『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 ; 癸丑五月』, 筆寫本, [1913]. 張16. 계축년 陶山及門錄刊役時 지출된 경비 내역을 기록한 하기.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문서. 치부기류. 용하기.

121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과주; 글항아리, 2012). 305-6.

보이지 않는다. 간행한 때가 일제강점기라 5월25일에 일본군이 와서 판목을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26일 일본인이 다시 와서 유목을 인출해달라고 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도산급문제현록』은 한 문인의 문집을 간행한 서적이 아니었고, 과거시험 대비용의 서적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퇴계의 문인록이므로 안동문화권에서는 여기에 누락되었음은 지역사회에서 도태된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따라서 각 문중에서는 선조와 관련 있는 자료를 보내거나 경비를 부조하였다. 범 안동권의 서적 간행이었던 것이다. 여러 문중의 관심에서 간행된바 작성된 공식적인 통지문인 통문, 협의를 위한 편지와 패지, 간행 일기, 간행 조직을 기록한 파록, 간역소를 방문한 인사의 명단, 경비 부조한 부조기, 지출 경비를 기록한 도기와 하기 등을 기록한 문서도 도산서원에 전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 4. 『先祖文集刊役時日記』

『선조문집간역시일기』는 진성이씨 하계파 근재문고에 수장되었던 필사본 자료이다. 이 일기는 융희 3(1909) 1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중간한 경위와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서명에 언급된 ‘선조’는 後溪 李頤淳(1754-1832)이다. 이는 4월 그믐날 “碣銘의 考證 때문에 사람이 榮川 金寧洞과 李中麟(1838-1917)의 집으로 갔다” 하고, 그 주석에 “선조의 碣文은 雲山 李彙載(1795-1875)가 지었는데, 중린은 그의 胄孫이다”<sup>122</sup>라고 한 기록을 통해 先祖는 퇴계의 9세손 李頤淳이며, 문집은 『後溪集』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기의 편자는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다.

이 일기는 『후계집』 삼간본을 간행할 때의 일기이다. 『후계집』의 초간본은 철종 12(1861)년경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권본 목활자본이고, 이를 증보하고 편차도 개편하여 철종말 또는 고종초에 목판으로 간행한 10권본이 중간본이며, 이를 증보하고 개편해서 융희 3(1909)년에 간행한 판본이 삼간본이다.

122 『先祖文集刊役時日記』, 筆寫本, [1909] 4月晦日, 張1.;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祖文集刊役時日記.

### 1) 간행 준비

『후계집』은 서원의 중대사로 간행한 서적이 아니었고, 퇴계 후손가의 문집 간행이었다. 따라서 특별하게 당회를 열고, 소임을 분담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월24일에 연보 및 편차를 수정하였고, 2월3일 유고를 서울로 보낸 판서 金鶴鎭에게 발문을 청하였다. 3월15일 蘆谷에서 李梅巖의 유고를 찾아 고증하였고, 4월30일 榮川(영주) 雲山公의 胄孫인 李中麟의 집에 가서 운산공 李彙載가 지은 묘갈명의 고증을 받았다. 6월7일 相基가 발문을 받는 일 때문에 紫山에 갔다가, 山城 重洞 묘갈문 첩을 가지고 돌아왔다.

### 2) 경비마련

5월5일 追遠齋에서 부조 20페미, 7월25일 귀내[龜川] 全普鉉이 부조금 2페미, 8월13일 淵谷 金進海가 부조금 2페미, 8월14일 宋昌顯이 부조금 2페미, 8월16일 龔叟公 덕에서 부조금 2페미, 翼遠이 부조 5페미, 8월21일 吳鼎洛과 吳應鍾이 부조금 2페미, 東萊公 別廟에서 부조 3냥, 8월30일 翠巖덕에서 부조금 1냥을 보내왔다. 도합 35페미와 4냥이다. 순조 17(1817)년 『선생문집개간일기 정축』의 題後에 돈 50페미를 돈 五千文이라 한 바, 3,500문과 4냥이 마련된 것이다. 이 액수는 단순 비교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인척들이 보내온 부조이고, 실제 친척과 후손들이 부담한 경비에 대한 기록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3) 등재본 필사와 판각작업

3월1일 원고의 교열을 받기 위해 三山 柳必永에게 보냈다. 등재본을 필사하면서 동시에 판각에 들어가 4월6일 각수 崔致成와 판각비를 장당 4냥6전으로 정하였다. 이는 순조 17(1817)년 『퇴계선생문집』의 갑진중간정축보각본 판각시의 공임 1냥1전에 비해 상당히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4월15일 각수 집에 가서 먼저 판각한 것이 잘 되었는지를 살펴본바 체제가 알맞지 않아 4월20일에는 체제를 고쳐서 등재본을 東烈에게 쓰게 하였고, 이 일은 6월8일 마쳤다. 7월15일 각수 3인과 장정 3명이 새긴 판목을 운반하여 왔다. 각수 최치성은 교정본 한 질을 인출하여 갔다. 7월26일 각수 두 사람(최치성, 劉宗烈)이 교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 4) 인출과 상황

4월8일 종이 2同을 川城 시장에서 가져왔고, 7월23일 浮浦에서, 7월25일 佛亭에서 종이를 가져와, 7월25일 인출을 시작하였다. 8월3일 인출하는 일을 마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출을 감독한 사람은 基益 · 東烈 · 復圭 · 錫昌 · 龍圭 · 相基 · 昌基이다. 7일 장황을 시작해, 13일 장황을 끝마쳤다. 16일 東烈이 집으로 돌아가는 편에 반포할 문집 10질을 보냈다.

따라서 등재본 필사에 약 50일이 소요되었고, 판각에 약 100일이 소요되었다. 또 인출에는 약 10일, 장황에는 약 7일 걸렸다. 당시 인출한 부수를 알 수 없다. 이 기록에는 판목 마련, 인출부수와 반질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지 않았다. 앞의 3종 서적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집약된 영남 사람의 노력이 아닌 퇴계 후손가에서 판각했다 뿐이지 과정은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 5. 陶山書院 板刻 書籍의 特徵과 意義

#### 1) 배향자와의 관련성

이상으로 도산서원에서 판각하고 장판한 27종의 서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산서원에서 서원 간본의 중심은 서원의 주향자의 저작이고, 부차적으로 배향자의 저작이었다.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는 달리 제향 대상이 공자와 그의 제자가 아닌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선현으로서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인물의 유서가 깊은 곳이었다. 따라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인품과 학덕을 선양하고 추앙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 때 서원은 건립되었다. 그러므로 도산서원의 간본은 퇴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도산서원의 주향자인 퇴계의 저작은 『經書釋義』 · 『古鏡重磨方』 · 『梅花詩』 · 『宋季元明理學通錄』 · 『易學啓蒙傳疑』 · 『吾家山誌』 · 『朱子書節要』 · 『眞城李氏族譜』 · 『退溪先生文集(甲辰) · (庚子) · (癸卯)』 · 『退溪先生續集』 · 『退溪先生自省錄』인데, 27종 가운데 11종이다. 약 40%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퇴계집』은 전면적으로 3차례 판각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과반이라 하겠다.

퇴계 일문의 저작은 『溪山世稿』·『蒙齋先生文集』·『誣書辨破錄』·『松齋先生詩集』·『溫溪先生逸稿』·『退溪先生言行錄』·『後溪集』 도합 7종으로 25%이다. 퇴계의 제자와 그 학맥을 이은 영남학파의 저작은 『溪巖先生文集』·『近始齋文集』·『陶山及門諸賢錄』·『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雲巖逸稿』·『月川先生文集』·『耻齋先生遺稿』 7종 25%이다. 기타는 『嶠南賓興錄』·『聾巖先生文集』의 2종 7%이다. 배향자 퇴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파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퇴계학과와 관련이 있는 저작이다.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대개 당해 서적, 또는 『누판고』와 안동의 『읍지』에 도산서원에서 판각 또는 장판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溪山世稿』·『溪巖先生文集』·『蒙齋先生文集』·『誣書辨破錄』·『吾家山誌』·『眞城李氏族譜』·『後溪集』의 7종은 간기도 없고, 도산서원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판목이 남아있어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으므로 도산서원 간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증명되지만 판목이 전혀 전래되지 않은 경우는 『經書釋義』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다.

## 2) 판각시기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서적을 판각한 것은 16세기였으며, 최초로 판각한 서적은 선조 9(1576)년 판각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이다. 다음은 선조 17(1584)년 충주목에서 판각한 후 移板한 『송재선생문집』과 선조 18(1585)년 나주목에서 판각한 후 이관한 『퇴계선생자성록』이다. 16세기 판각은 3종이었다.

17세기에는 『경서석의』, 『고경중마방』, 『농암선생문집』, 『역학계몽전의』, 『치재선생유고』, 『퇴계선생문집(경자)』, 『퇴계선생연보』의 7종을 판각하였다. 18세기에는 『계암선생문집』, 『교남빈흥록』, 『근시재문집』, 『무서변과록』,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은계선생일고』, 『운암일고』, 『월천선생문집』, 『주자서절요』, 『진성이씨족보』, 『퇴계선생문집(갑진)』, 『퇴계선생속집』, 『퇴계선생언행록』의 12종을 판각하였다. 19세기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판은 『계산세고』, 『매화시·대보잠』, 『퇴계선생언행록』, 『퇴계선생문집(계묘)』, 『후계집』의 5종이다. 20세기초에는 『몽재선생문집』, 『문순공퇴도이선생묘』

갈명, 『도산급문제현록』의 3종을 판각하였고, 마지막으로 1924년 『오가산지』를 판각하였다.

퇴계 재세시 판각은 없었으며, 사후 16세기에 3종, 17세기 7종, 18세기 13종, 19세기 5종, 20세기 3종, 21세기에 1종을 판각하였다. 조선 후기 학술이 가장 발달했던 18세기에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현대에는 오히려 현대 인쇄술로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서적이 더 많이 간행되고 있다.

### 3) 주제

조선의 서원은 송대 서원의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송시대에는 몇 세대의 노력으로 서원의 판각이 국자감본과 어깨를 겨루게 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송대 서원간본의 주제는 유학 원전과 주해서, 주향자의 저작과 문집, 사학서적, 과학서적(의학), 문집과 家學書籍으로 크게 5방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sup>123</sup> 그러나 도산서원 간본의 주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주제로 분류하기에는 난해한 점도 있지만, 우선 경부는 『경서석의』·『역학계몽전의』의 2종으로 7%, 사부는 『도산급문제현록』·『무서변과록』·『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송계원명이학통록』·『진성이씨족보』·『퇴계선생연보』의 6종으로 22%, 자부는 『고경중마방』·『주자서절요』·『퇴계선생언행록』·『퇴계선생자성록』의 4종 14%, 집부에 『계산세고』·『계암선생문집』·『교남빈흥록』·『근시재문집』·『농암선생문집』·『매화시』·『몽재선생문집』·『송재선생집』·『오가산지』·『은계선생일고』·『운암일고』·『월천선생문집』·『치재선생유고』·『퇴계선생문집』·『퇴계선생속집』·『후계집』의 16종 59%로 볼 수 있다.

집부의 문집류가 가장 많아 과반수가 넘는다. 다음이 사부와 자부 순이다. 자부는 모두 유가 서적이다. 경부 서적은 겨우 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 송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두드러진 분야는 자부서적이다.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특히 의학서적도 상당히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도산서원 판각본은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사학서적의 간행도 성행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사조가

123 趙國權, 「『重文』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간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2017.12. 116-117.



그대로 반영되어 주자학 교조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실제 조선시대의 서원간본의 주제를 보면 경남지방은 판본순으로는 집부 52%, 사부 43%의순으로 간행되었다.<sup>124</sup> 따라서 조선의 서원에서는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 자부서적의 간행은 전무하고, 집부 별집류와 사부 전기류가 주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선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원에서 강학에 사용한 주된 교재는 『四書三經』·『小學』·『家禮』·『周禮』·『儀禮』·『孝經』·『近思錄』·『心經』·『性理大全』·『春秋三傳』·『資治綱目』·『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聖學輯要』<sup>125</sup> 등이었는데,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 가운데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은 『경서석의』·『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주자서절요』라 볼 수 있다. 강학과 관련있는 칠서 또는 경서, 예서, 사서류 서적은 유생들도 상당수 각자 소장하고 있을 수 있고, 상당수는 중앙기관과 감영에서 간행한 서적을 기증받는 기회가 많았으므로 굳이 판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은 강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서적이 주류였음을 볼 수 있다.

#### 4) 판종

활자본 간행에는 활자만 있으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처음 활자를 제작할 때 큰 비용이 들지만, 일단 활자가 제작된 이후에는 조판과 인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목판본을 제작할 때는 판각하기 위해 판목 마련과 판각 비용 등 무척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판각된 판목을 활용해서 거듭 인출할 때는 활자로 조판해서 인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절감되고 판목이 있는 한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小量多種 간행에는 활자가 적합하고, 多量小種 간행에는 판각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 까닭에 조선후기 조정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서적에는 활자를 많이 이용하였고, 민간에서는 간행할 서적의 종류가 많지 않으면서도 지역에서의 수요가 많으므로 판각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도산서원 간본의 절대다수는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전체 27종 모두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도산서원에 판목이 소장되었었다. 목판

124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12. 30-31.

125 朴鍾培, 「學規 조선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국민대) 33, 2010. 55-56.

외에도 『몽재선생문집』은 도산서원에서 거의 동시에 석판으로도 간행하였으며, 『후계집』은 3차례 간행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간행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목활자로 간행된 바 있고, 이후 헌종 6(1840)년에 판각하였고, 융희 3(1909)년 목판으로 다시 판각하였다.

대개 도산서원에서 주관해서 판각한 판목이다. 그 가운데 『교남빈홍록』은 경상감영이 주관해 판각하고, 책판은 도산서원에 보관하였다. 이때 판각장소는 감영이라기보다 도산서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재선생문집』은 충주목에서 판각해서 도산서원으로 이관하였고, 『퇴도선생자성록』은 나주목에서 판각해서 도산서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3종은 도산서원 장판본이다. 또 도산서원에서 판각해서 서원에 소장하다가 후에 종가로 반출된 판목은 『계암선생문집』,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운암일고』의 4종이다.

문집의 경우 대개 후손의 가문에서 판각하였으나, 드물게는 鴻儒가 남긴 거질의 서적을 판각하자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한 집안의 형편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간행하였다. 퇴계의 문집은 도내 여러 서원 또는 관련 문중 또는 저자의 문중과 문인들의 협조로 간행비를 조성하였다.

『누판고』와 『영남읍지』에 수록된 판목의 대다수는 전체 판목은 아니더라도 판목의 일부는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경서석의』의 판목은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남읍지』에 수록된 퇴계의 유목판으로 「陶山記」·「元朝五箴」·「林居十八詠」·「漁父辭」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판에서 「陶山十二曲」·「屏銘」·「四勿箴」·「四時吟」·「惺齋八詠」·「退溪雜詠」·「丹砂八詠」·「晦齋詩板」은 확인할 수 있다. 『누판고』와 『영남읍지』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책판이 전래되는 것은 20세기에 판각된 경우이다. 두 책판목록에 수록되지 않았고 책판도 전래되지 않는데, 전래본에서 도산서원 간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다.

조선은 중국과 달라 인구수 즉 문인과 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가나 지방 관청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되는 사찰, 서원, 서당, 대가에서 간행해 기증으로 유통시켰었다. 이 경우 사찰은 신도들의 시주로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서원은 당해 서원의 힘으로만 간행하기 버거워 여러 서원과 가문의

찬조를 받아야 했다.

도산서원의 원규에 크게 영향을 미친 퇴계 선생이 작성한 伊山書院의 院規에 제생들이 독서하는 데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으며, ... 여러 史書와 子書와 문집, 문장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여야 한다<sup>126</sup>고 하였다. 서원은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교육의 본원과 문호가 되는 서적을 필수적으로 간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는 이들 서적은 전혀 간행하지 않았다. 이는 서원에 입원한 제생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였으므로, 이들 서적은 모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서원도 이미 수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보다 수준 높은 서적을 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은 교육과 서적 생산을 통해 조선 지식사회의 지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 VI. 結言

도산서원은 조선 首院으로서 학문과 교육에 있어 단연 조선을 선도하였다. 서적의 판각에 있어서도 다른 서원을 선도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도산급문제현록』의 최종고인 이아순의 증보본에는 경향 각지의 260여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전국적이었다. 또 그에 걸맞은 판각활동도 하여 선조 9(1576)년 판각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을 위시하여 1924년 『오가산지』까지 27종의 서적을 판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원 간본의 중심은 서원의 주향자의 저작이다. 도산서원의 주향자인 퇴계의 저작은 11종 40%, 퇴계 일문의 저작은 7종 25%, 영남학파의 저작은 7종 25%, 기타 2종 7%이다. 배향자 퇴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파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퇴계학파와 관련이 있는 저작이다.

퇴계 재세시 판각은 없었으며,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판각한 서적은 선조 9(1576)년

---

126 李滉, 退溪先生文集. 影印本. (大田; 學民文化社, 1990) 卷41. 伊山院規. p.3517-3521.

판각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이고, 16세기 판각은 3종이었다. 17세기에는 7종, 18세기 12종, 19세기 5종, 20세기초 3종, 마지막으로 1924년 『오가산지』를 판각하였다. 조선 후기 학술이 가장 발달했던 18세기에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는 서원의 흥성이 조선 문예의 흥성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에 있어서는 경부서적 2종, 사부서적 6종, 자부서적 4종, 집부서적 16종 59%이다. 집부서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경남지방 서원에서 자부 별집류를 가장 많이 판각해 45%를 간행한 것과 동일선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자부서적에 있어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특히 의학서적도 상당히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도산서원 판각본은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당시의 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자학 교조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유가류 서적을 중심으로 판각했지만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은 『경서석의』·『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주자서절요』 밖에 없어 강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서적이 주류였음도 볼 수 있다.

마련해둔 활자가 없는 상태이고 당시 민간에서는 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27종 모두 판각하였다. 대개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판목이지만, 藏板한 판목도 3종이 있었다. 『교남빈흥록』은 경상감영이 주관해 판각했고, 『송재선생문집』은 충주목에서 판각했으며, 『퇴계선생자성록』은 나주목에서 판각한 것인데, 도산서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또 도산서원 판각본으로 서원에 수장되어 있던 판목이 후에 종가로 이관된 판목은 『계암선생문집』,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운암일고』의 4종이다. 대개의 판목은 저자의 후손이나 도산서원에 전승되고 있으나, 『경서석의』는 판목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

당시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은 『누판고』와 『영남읍지』에서 확인된다. 한편 『영남읍지』에 수록된 퇴계의 유목판으로 「陶山記」·「元朝五箴」·「林居十八詠」·「漁父辭」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판에서 「陶山十二曲」·「屏銘」·「四勿箴」·「四時吟」·「惺齋八詠」·「退溪雜詠」·「丹砂八詠」·「晦齋詩板」은 확인할 수 있다. 책판목록에 수록되지도 않았고 책판도 전래되지 않는데, 도산서원 간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다.

판목수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량이 전래되고 있는 판은 『무서변과록』 1판, 『후계집』의 2판이며, 가장 많은 수량이 전래된 경우는 『퇴계선생문집』 계묘판 1,143판이다. 낙

장 없이 전체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 것은 『교남빈홍록』, 『농암선생문집』, 『도산급문제현록』, 『몽재선생문집』,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 『송계원명리학통록』, 『송재선생집』, 『역학계몽전의』, 『오가산지』, 『운암일고』, 『퇴계선생속집』, 『퇴계선생자성록』이다. 『계암선생문집』, 『고경중마방』, 『온계선생일고』, 『주자서절요』은 1권이 부족하다. 상당수 완판이 전래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마멸도라고 하겠다. 반면 『경서석의』의 판목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또한 간행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도 편찬하였는바 『퇴계선생문집』의 보각과 중간시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선생문집개간일기』와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급문록영간시일기』, 이이순의 문집 『후계집』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선조문집간역시일기』까지 전래되고 있다. 이들 4종을 통해 책판의 간행논의 과정·인적인 구성·원고 교정·경비의 규모, 마련과 결산·판재마련·장인 동원·판각, 인출, 장황의 제작 과정·간본의 반질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간행과정과 당시의 경제사정까지 알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퇴계선생문집』과 같은 거질의 서적을 판각하자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한 집안의 형편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간행하였다. 퇴계의 문집은 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내 여러 서원 또는 관련 문중과 문인들의 협조와 특정 유지의 기부금으로 간행비를 조성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을 간행할 때는 퇴계의 제자들이 모두 대상이 되므로 역시 도감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간행했다. 일기에는 간행의 경비마련과 결산, 판재마련과 각수동원, 판각작업, 인출작업과 장황, 반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비를 부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扶助記』에 기록되어 있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下記』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바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도산서원에는 간행과 관련한 각종 필사본, 간본, 판목과 일기가 남아있어서 조선시대 서원에서의 서적간행의 과정과 내용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도산서원은 학문적인 면에서도 선도적인 서원으로 기능하였고, 서적 간행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기능을 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 【참고문헌】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金性澂, 『東國文獻院字錄』, 木板本 [刊行地未詳]  
陶山書院, 『藏書置簿』, 寫本, [光武 1(1897)].  
『東儒書院總錄』, 筆寫本, [刊寫地未詳]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汾李誣錄事變日記』, 寫本, [1931].  
『書冊目錄』, 寫本 [純祖 15(1815)]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先祖文集刊役時日記』, 筆寫本, [1909]  
魚叔權, 『攷事撮要』, 木版本, [宣祖 18(1585)]  
『嶺南邑誌』, 寫本, [高宗 8(1871)]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正祖, 『弘齋全書』. 整理字本. [純祖 14(1814)] 卷184. 羣書標記.  
『俎豆錄』. 木版本. [刊年未詳]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板本(初刊本). [刊年未詳].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徐有渠, 『鏤板考』, 大同出版社, 1941.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연구』, 景仁文化社, 1984.  
李鉉式, 『慶尙道誌』, 鉛活字本, 具翰會方, 1936.  
李滉, 『退溪學文獻全集』, 啓明漢文學研究會, 1992.  
정만조 등,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鄭源鎬, 『嶠南誌』, 鉛活字本, 李根泳房, 1940.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保景文化社, 1995.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2005.  
\_\_\_\_\_, 『陶山書院 古典籍』, 2006.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  
金建佑, 「이언적 관서문답록 쇄판시비」, 『藏書閣』 14, 2005.  
김남기,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 『嶺南學』 61, 2017.

- 김순석, 유교사회와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선생문집개간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 2014.
- 김순희, 「李堉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
- 金彦鍾, 「退溪先生言行錄 小考」, 『淵民學志』 4, 1996.
-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 邓洪波·赵偉,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書院學報』 9, 2019.
- 문석윤, 「退溪文集의 정본 편성 과정에 대한 일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
- 朴鍾培,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국민대) 33, 2010.
-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 \_\_\_\_\_, 「書院 板刻本の 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
-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北岳史論』 3, 1993.
- 서종학, 「경서석의 서지 및 국어학적 고찰」, 『人文研究』 17, 1989.
- 설석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月川先生文集」, 『국학연구』 5, 2004.
-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 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
- 우정임, 「退溪 門徒의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8.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인문학과 문화』, 동의대학교, 2004.
- \_\_\_\_\_,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 40, 인문사회과학편 I, 2004.
- \_\_\_\_\_,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
-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說」, 『奎章閣』 2, 1978.
- 李東厚, 「眞城李氏 族譜의 概略」, 『東洋禮學』 12, 2004.
- 이병훈, 「도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2012.
- \_\_\_\_\_,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 \_\_\_\_\_,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研究」, 『嶠南漢文學』 1, 1988.

- \_\_\_\_\_, 「退溪先生文集과 退溪先生全書」, 『退溪學報』 62, 1989.
- 임기영, 「古鏡重磨方の 刊行과 版本」, 『書誌學研究』 56, 2013.
-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 鄭錫胎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2003.
-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退溪集 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
- \_\_\_\_\_,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 鄭羽洛,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退溪學論集』 17. 2015.
- 趙國權, 「重文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관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2017.
-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 <도산서원 판각활동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손 계 영(대구가톨릭대학교)

1.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배현숙 선생님의 ‘도산서원 판각활동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이 연구는 도산서원의 출판·장서의 현황, 도산서원 판각활동을 기록한 일기 등을 분석하여 도산서원의 출판과 지식의 생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도산서원에서 출판된 특정 서적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도산서원 출판 서적을 전반적으로 망라한 연구는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도산서원 서적과 판각활동에 대한 종합적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발표자께서는 그동안 소수서원, 청량서원, 천곡서원 등 서원의 간행본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이번 연구에서는 도산서원에서의 판각 서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중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도산서원 소장 책판의 목록, 실제 판각·관리하였던 책판의 실물, 해당 책판으로 인쇄한 전래본까지 함께 비교하여 도산서원 판각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도산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하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간행시 일기 4종을 중심으로 판각 과정을 비중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이 두가지 내용 가운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3. 책판 관련 기록과 책판·서책 실물을 통해 도산서원 판각본에 대한 전체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이고,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또한 <표 2>와 함께 판각본 27종 서책을 각각 별도로 설명하셨습니다. <표 2>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는 33종으로 언급하였고, 『어부사』를 제외하더라도 32종인 반면, 각 서책에 대한 설명에서는 동일 서명의 서책을 1종으로 산정하여 27종으로 보았습니다. 표의 순서 및 번호를 수정한다면, 표의 내용과 본문 내용이 맞아떨어지게 전개될 수 있고, 논문을 이해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표 2>를 누판고, 읍지, 책판, 현판수, 전래본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판각본의 현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책판’ 항목은 현존하는 책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판목록’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존 책판은 있지만 인출본은 없는 사례가 2종 보이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몽재선생문집』 책판 49판은 남아있지만, 목판본 서책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목판본 『溪山世稿』의 제1책에 해당되는 「蒙齋逸稿」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이번 발표에서 비중있게 다룬 내용이 ‘刊役日記’입니다. 일기 4종을 분석하여 도산서원에서의 서책 판각 과정을 항목별로 다루었습니다. 일기 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특히 간역일기는 간행의 전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고, 제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자료입니다. 저의 연구주제가 출판문화사와 생활사를 접목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하는 주요 자료들이 간역일기, 간행 과정에서 작성된 통문·매매명문 등의 고문서, 用下記·扶助記·都錄·契案·俸錢記 등의 장부류입니다. 때문에 간역일기 분석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신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번 발표가 ‘후속 연구의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4종의 간역일기 자료를 통해 (각 분야 또는 출판문화사 영역에서) 앞으로 진행이 필요한 연구주제, 진행이 가능한 연구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논문의 마지막에는 ‘도산서원 판각 서적의 특징과 의의’를 주요 특징별로 정리해주셨습니다. 문헌기록과 실물을 분석한 명확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경부류·강학용 서책 간행이 적었던 현상과 이유에 대해서는 한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강학용 서책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강학과 관련있는 칠서 또는 경서, 예서, 사서류 서적은 유생들도 상당수 각자 소장하고 있을 수 있고, 상당수는 중앙기관과 감영에서 간행한 서적을 기증받는 기회가 많았으므로 굳이 판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도산서원에 입원한 제생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였으므로 이들 서적은 모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제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과 대부분 소장하고 있던 서책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들은 배향자 및 문중·학과 관련 인물의 편서·저서 또는 그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부류의 강학을 위한 교육용 서책 간행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도산서원의 문제만은 아니며, 도산서원 제생들의 교육 수준과도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6. 2020년 『한국서원학보』에 게재된 발표자의 논문 제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명이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원 판각본의 연원 연구 → 조선시대 서원 각판본의 연원 연구) 이번 토론을 통해 서원 간행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와 결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출판문화사, 지식문화사 영역에서 더 많은 결과를 공유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임 근 실(한국국학진흥원)

- I. 서론
- II. 서원지의 출현과 그 체제
- III. 서원지에 나타나는 지식의 양상
- IV. 결론

## I. 서론

16세기 한중 지식인이 운영한 공통적인 지식기관은 書院이었다.<sup>1</sup> 이 시기 明과 朝鮮의 지식인들은 지방 사회에서 서원을 운영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지식집단인 學派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의 지식인들은 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식화하여 서원지를 편찬하였다. 그런 점에서 ‘書院志’란 해당 서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놓은 기초 자료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그렇기에 서원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료 중에 하나가 서원지이다. 특히 16세기의 한중 서원지는 양국 모두에서 현전하는 最古의 서원지라는 점에서 한중의 서원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의 지식인들이 서원지를 편찬하여

---

1 베트남의 지식인도 書院을 설립하였으나 주로 17세기 이후부터 단속적으로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서원지도 현존하지 않는 상황이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韓國學論叢』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371쪽.

서원의 정보를 체계화·지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서원지는 서원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서원지에 수록된 각 서원의 장서는 서원에서 보유한 지식의 규모를 알게 해 준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원지는 주로 정치·사상·사회사에 대한 연구에서 사료로 활용되었을 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사적 분석은 미진한 편이다.

선행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16세기 한·중 서원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지학계에서는 조선 최초의 서원지인 『죽계지』의 편찬과정과 판본을 분석하고, 이후 중간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sup>3</sup> 역사학계에서 정만조는 중국의 서원지 편찬과 목적, 명칭과 體例를 분석하였다.<sup>4</sup> 정만조의 연구는 중국 서원지의 체제를 3종(正德本, 天啓本, 康熙本)의 白鹿洞書院志와 『東林書院志』를 예시로 들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16세기 조선의 서원지 3종을 소개하며 초창기 서원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연구,<sup>5</sup> 迎鳳書院의 다각적인 특징을 확인하면서 『迎鳳志』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6</sup>

그 동안 한·중 서원의 장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7</sup> 이 연구들은 16세기 최초로 설립된 백운동서원의 장서를 분석한 경우, 조선시대 서원 장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개론적인 연구이거나, 특정 서원의 장서를 전시대적으로 다룬 연구, 일정 시기를 중심으로 개별 서원의 장서를 분석한 사례 연구였다. 2010년 후반에 진행된 연구들에서 점차 서원지에 수록된 서원 문고간의 비교 또는 지식사적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sup>8</sup> 조선시대 서원 장서에 본격적인 연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3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31, 韓國書誌學會, 2005.

4 정만조는 이 연구의 후속으로 次號에서 조선시대 서원지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정만조, 위의 논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5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 『韓國學論叢』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6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7 이춘희,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배현숙,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한국서지학회, 2005; 윤희만,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186, 역사학회,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書誌學研究』 41, 한국서지학회, 2008;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보, 2013;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8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46,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研究」, 『韓國書院學報』 4, 한국서원학회, 2017.

중국 서원의 장서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sup>9</sup>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해당 시기 한중 양국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졌던 서원지의 편찬, 서적의 수장이라는 보편적 현상에 대한 상호 비교사적 연구는 미진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유입된 서원제도가 어떠한 지식 매체를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은 서원지가 출현한 16세기 한중의 사례를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지식 사적 의미를 찾고자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대상자료는 16세기 明에서 편찬된 10종의 서원지와 조선에서 편찬된 3종의 서원지이다. 먼저, 당대 양국의 지식인들이 서원에 관한 정보를 지식화하기 위하여 편찬한 서원지와 그 체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식인의 지식계보가 서원지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서원의 장서를 통해 지식인들이 서원에서 보유한 지식의 규모를 주로 살펴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서원지의 출현과 그 체제

### 1. 明 서원지의 편찬과 체제

중국의 지식인이 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모아 서원지를 편찬한 시기는 13세기부터였다. 중국의 서원지는 南宋의 歐陽守道(1208~1272)가 편찬한 『萊山書院志』가 최초로 알려졌으나 현존하지 않는다.<sup>10</sup> 또한 15세기 『白鹿洞志』도 간행되었던 기록이 있으나, 失傳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 서원지는 16세기 명의 서원지에서부터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9 중국 서원의 장서에 대한 연구는 宋代 서원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조국권, 「중문」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관행에 대한 고찰, 『韓國書院學報』 5, 한국서원학회, 2017; 이근명, 「12세기 兩浙 일대의 書院과 讀書人」, 『中國史研究』 119, 중국사학회, 2019). 중국 학계에서는 백록동서원지와 백록동서원의 장서목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5쪽의 분량으로 대략적인 특징을 언급하였을 뿐이다(李才栋, 「白鹿洞书院志考述」, 『江西社会科学』 9, 1999; 王雁杰, 「白鹿洞书院的藏书事业初探」, 『书史馆志』 34-4, 2004; 郑连聪, 「白鹿洞书院藏书目录研究」, 『兰台世界』 31, 2011).

10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社, 2004, 343쪽.

중국 서원지 편찬의 동기와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서원의 역사, 유래와 자료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 ② 孔子나 先賢에서 비롯되는 道脈의 전승을 표방하기 위해서, ③ 성인 선현의 학설을 담은 강학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배우는 자의 흥기를 도모하기 위한 것, ④ 서원재정과 관련되는 書院田·山塘 등의 문서 획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이다. 『중국역대서원지』의 편찬자들은 서원지를 크게 課藝와 志書로 구분하고 있으나, 정만조는 기능과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3종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서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록한 「書院志」 형태이다. 두 번째, 서원의 강학 학습내용을 증점적으로 실은 「講學錄」 형태이다. 세 번째, 月課나 季課에 응하여 제출된 諸生의 답안지[課卷]를 선정해 놓은 「課藝」의 형태이다.<sup>11</sup> 이 중에서 서원의 운영과 서원지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첫 번째이며, 이 형태로 구성된 明의 서원지는 모두 10종이 남아있다.

16세기 明의 서원지 중 서원의 운영과 서원지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종류는 10종이 현존한다.<sup>12</sup> 明代 서원지 10종의 편찬연대와 편찬자, 권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弘道書院志』는 1505년(明 弘治 18)에 來時熙가 輯錄한 홍도서원의 서원지로 卷이 구별되지 않는 형태이다. ② 『白鹿洞書院新志』는 1524년(明 嘉靖 3)에 李夢陽이 편찬한 백록동서원의 서원지로 8卷으로 구성되었다. ③ 『石鼓書院志』는 1533년(明 嘉靖 12)에 편찬된 衡州府 석고서원의 서원지로 1589년(明 萬曆 17)에 李安仁이 重修하고 王大韶가 重校하였다. 『석고서원지』는 上部和 下部로 구성되어 있다. ④ 『白鹿洞志』는 1544년(明 嘉靖 33)에 鄭廷鵠이 편찬한 백록동서원의 서원지로 19卷이다. ⑤ 『百泉書院志』는 1578년(明 萬曆 6)에 聶良杞가 輯錄한 百泉書院의 서원지로 3卷이다. ⑥ 『白鹿洞書院志』는 1592년(明 萬曆 20)에 周偉와 戴獻策이 편찬한 백록동서원의 서원지로 12卷이다. ⑦ 『東林書院志』는 萬曆(1573~1619)에 嚴穀 등이 편찬한 東林書院의 서원지로 上下卷과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⑧ 『虞山書院志』는 만력연간에 張鼎 등이 편찬한 蘇州府

11 鄭萬祚, 앞의 논문, 200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93~395쪽.

12 16세기 明代 書院志 10종의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中國歷代書院志』에 수록된 明代 서원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趙所生·薛正興主編, 『中國歷代書院志』 1~16, 江蘇教育出版社, 1995; 白鹿洞書院古志整理委員會,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出版, 1995.). 『中國歷代書院志』는 총 16권으로 이루어진 중국 서원지들을 모은 영인본 서적이다. 이 서적에서는 11종의 明代 서원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백록동서원지 1본은 1622년 간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16세기 명대 서원지에서 제외하였다. 항목에 제목을 표기하고 다음에 卷數의 순서를 기록하였다.



虞山書院[學道書院]의 서원지로 10卷으로 이루어져있다. ⑨『仁文書院志』는 만력연간에 岳元聲이 편찬하고 岳和聲이 교정을 본 江西 吉水 仁文書院[文江書院]의 서원지로 11권이다. ⑩『共學書院志』는 萬曆에 岳和聲 등이 편찬하고 교정한 共學書院의 서원지로 上·中·下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⑦~⑩의 서원지는 편찬한 연대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만력 연간에 간행되었기에 함께 비교하였다. 그리고 ①『弘道書院志』가 가장 시기가 앞서지만 그 내용이 다소 소략하여 체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②『白鹿洞書院新志』를 기준으로 항목을 정리하였다. 10종의 명대 서원지의 체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弘道書院志	白鹿洞書院新志	石鼓書院志	白鹿洞志	百泉書院志	白鹿洞書院志	東林書院志	虞山書院志	仁文書院志	共學書院志
歷史	建弘道書院記(附錄1)	沿革志(1-1)	地理志(上-1)	書院沿革(2)	建革志(1-1)	沿革志(1)	沿革(上-1)			沿革(上-2)
景觀		形勢志(1-2)				形勝志(2)		地勝志(1-1)	形勝(1)	形勝(上-1)
建物		建造志(1-3)	室宇志(上-2)				建置(上-2)	古蹟志(1-2)	建置(2)	
		石齋志(1-4)						建置志(1-3)		
		山志(2-1)		山川(1)						
田租		田地塘志(2-2)		洞學田上(17) 洞學田下(18)		田地山塘志(11)		校藝志(6-3) 院田志(6-4)	院田(10)	田賦(上-8)
出身	出身題名(附錄2)	姓氏志(3)	人物志(上-3)	名賢(3)	名賢志(1-3)	人物志【附經史子集】(3)	先賢(上-3)	先賢志(2) 官師志(5-2)	先儒(3) 官師(5)	先儒(上-4) 宦績(上-5)
院規	學規(1) 類定小學規(2)	文志(4)	誦翰志(上-4)	洞規上(5) 文翰四(12)	學約志【書籍附】(1-1)	文志(5)	公移(上-5) 院規(下-2)	院規志(4) 文移志(5-1)	院規(4) 公移(9)	規制(上-3) 會規(上-7) 公牘(下-1)
	文(附錄5)	文志(5)		洞規下(6)	文志(2)	文志(6) 文志(7)			講義(11)	
文翰	銘(附錄4) 記(附錄6)	文志(6)		文翰一(9) 文翰二(10) 文翰三(11) 文翰五(13)		文志(8)	文翰下-1	藝文志(9)	藝文(6)	藝文(中)
	詩(附錄3)	文志(7)	詩(下部)	文翰六(14) 文翰七(15)	詩志(3)	文志(9) 文志(10)		藝文志(10)		
藏書		書籍志(8-1)		經籍器皿附(16)	學約志【書籍附】(1-1)	人物志【附經史子集】		書籍志(6-1)	書籍(8)	典籍(上-9)

					(3)				
器		器皿志(8-2)				典守(下-4)	什器志(6-2)		器用(下-4)
儀禮			洞祠(4)	祀典志【祭田附】(1-2)	祀典志(4)	祀典(上-4)	祀典志(3-1) 宗像志(3-2)	祀典(7)	祀典(上-6)
기타			洞牒上(7) 洞牒下(8) 外志(19)		外志(12)	災祥(下-3) 義輪(下-5) 帙事(下-6) 兩東林辨(附) 東林或問(附)	會語志(7)會語志(8)		善後(下-2) 題名(下-3)

**<표 1> 16세기 명 서원지 체제표**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16세기 明代 書院志에서는 8가지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서원의 역사와 주변 경관, 건물의 위치를 기록한 항목이다. 沿革·形勢 등 서원의 역사와 주변 形勝을 다룬 부분이 서원지의 앞부분에 배치되었다. 또 建造·室宇·建置 등 건물의 위치와 명칭을 다룬 부분도 서원지의 앞부분에 배치되었다.

두 번째로, 서원의 경제기반인 田租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항목이다. 山·田地·塘, 學田·院田, 樹藝, 田賦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항목의 순서는 서원지마다 상이하다. 弘道書院, 石鼓書院, 百泉書院에서는 田租를 기록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로, 해당 서원에서 배출한 학자나 관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항목이다. 出身題名, 姓氏·人物, 名賢·先賢·先儒, 官師·宦績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원의 건립에 관여한 先賢이나 名賢, 서원 출신으로 명성을 날린 인물 또는 관리를 기록한 항목이다. 이 항목을 10종의 서원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서원과 관련한 역사인물을 찾을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만 하는 부분으로, 각 서원지에서 출신 인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네 번째로, 서원의 규정을 수록한 항목이다. 學規·洞規·學約·院規·規制·會規 등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한 경우와 文志·詞翰, 公移·公牘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 항목도 10종의 서원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서원의 운영방침과 원생의 강학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다섯 번째로, 서원과 관련한 글을 모아놓은 항목이다. 志의 명칭을 文·文翰·藝文 등

의 대표적 명칭으로 기록한 후 권을 분리하는 경우와 文·銘·記·詩·講義 등 문체별로 기록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항목도 10종의 서원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서원의 藏書를 기록한 항목이다. 書籍·經籍·典籍로 기록된 경우와 人物에 附記된 경우, 아예 수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7종의 서원지에서 보이는 항목으로 16세기 서원의 장서와 그로 인한 서원 지식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곱 번째로, 서원의 祭器와 供器 등 기물을 수록한 항목이다. 器皿·什器·器用로 기록된 경우와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10종 가운데 4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서원에서 사용했던 제기와 기물 등의 개수를 표기하여, 당시 서원에서 관련 기물을 중시했던 상황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여덟 번째로, 서원의 제향인물과 향사의례를 기록한 항목이다. 祀典·洞祠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祭田이 부록된 경우도 있다. 7종의 서원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해당서원의 제향인물의 성격과 享祀禮의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한 부분이다.

기타 항목으로 洞牒, 外志, 災祥·義輪·帙事, 會語, 善後·題名 등 특정 서원지에서만 보이는 항목들이다.

이상을 보면, 明代 서원지에서는 각 서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역사경관 건물, 서원 출신의 인물, 서원에 관한 글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서원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서원지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서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원에서 보관했던 藏書를 기록한 항목과 제향인물, 의례 등도 서원지를 편찬하는데 중요한 항목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2. 조선 서원지의 편찬과 체제

16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서원지는 『竹溪志』, 『迎鳳志』, 『吳山志』 등 3종이다. 周世鵬은 白雲洞書院의 설립과 함께, 조선 최초의 서원지인 『죽계지』를 편찬하였다. 그 후 1559년(명종 14)에 盧慶麟(1516~1568)이 편찬한 迎鳳書院[川谷書院]의 『영봉지』와 1588년(선조 21)에 柳雲龍(1539~1601)이 편찬한 吳山書院의 『오산지』가 있다.<sup>13</sup>

13 16세기 조선 서원지 3종의 편찬 목적과 각 항목의 특징은 선행연구에 자세하다(옥영정, 앞의 논문).

『竹溪志』의 구성은 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雜錄, 別錄 등 6卷이다. 『竹溪志』의 체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3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원 설립의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 서원제도와 관련한 소개를 위한 부분이며, 세 번째는 백운동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노경린은 迎鳳書院記, 書院錄, 李氏行錄, 學規錄, 藏書錄, 學田錄, 書院學田錄, 廟院定議錄, 春秋大享圖, 祭식의 10가지 내용으로 『迎鳳志』를 구성하였다. 『迎鳳志』의 체제를 바탕으로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봉서원을 건립한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세 번째는 서원의 제향인물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낸 부분이고, 네 번째는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류운룡은 『吳山志』를 4권 1책으로 편찬하면서 行錄, 享祀, 學規, 考證으로 구성하였다. 『오산지』는 제향인물을 추모하는 내용, 享祀儀禮와 관련한 내용, 오산서원의 운영규정, 서원의 연혁과 사적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16세기 조선 서원지 3종의 체제를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sup>14</sup>

『竹溪志』	『迎鳳志』	『吳山志』
권首, 白雲洞文成公廟記	① 迎鳳書院記	권4, 考證事跡(吳山書院記)
권1, 安氏行錄	③ 李氏行錄	권1, 行錄
권1, 行錄後春秋大享圖祭式	⑨ 春秋大享圖 ⑩ 祭式	권2, 享祀春秋大享圖祭式
권2, 尊賢錄	—	—
권3, 學田錄	⑥ 學田錄 ⑦ 書院學田錄	—
권4, 藏書錄	⑤ 藏書錄	—
권5, 雜錄	—	—
권5, 雜錄後院規	④ 學規錄	권3, 學規
권6, 別錄	—	—

2005;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임근실,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2013).

14 <표 2>은 『竹溪志』 目錄, 『迎鳳志』, 『吳山志』 目錄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迎鳳志』의 경우 권이 명확하지 않아 항목의 차례를 표시하였다.

-	② 書院錄	-
-	⑧ 廟院定議錄	-

<표 2> 16세기 조선 서원지 체제표

위를 보면 16세기 조선 서원지 3종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 먼저 3종의 서원지는 각자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고, 『오산지』에서 몇 가지 항목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류운룡은 『오산지』에서 서원의 제향인물에 대한 享祀儀禮를 다룬 「향사」와 강학 활동 및 운영방안을 기록한 「학규」의 비중을 키웠다. 주세붕은 서원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내용을 行錄後에 春秋大享圖와 祭式만을 수록하였고, 노경린도 春秋大享圖와 祭式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향사의례를 기록하면서, 春秋大享圖와 祭式만 수록하지 않고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卷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서원의 원규를 살펴보면, 주세붕은 『죽계지』에서 「雜錄後」에 별다른 명명 없이 수록하였으나, 노경린과 류운룡은 「錄」으로 분리하였다. 더욱이 류운룡은 이전의 두 서원지에 대하여 월등히 많은 분량의 원규를 수록하였다. 즉, 류운룡은 서원의 필수적 기능인 존현과 강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산지』에서 각각 하나의 권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다음으로 류운룡은 『오산지』에 學田錄과 藏書錄을 수록하지 않았다. 주세붕과 노경린은 「학전록」과 「장서록」을 공통적으로 수록하였지만, 류운룡은 『오산지』에서는 이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서원의 학전과 장서에 대한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류운룡은 이를 수록하지 않아서 학전과 장서의 수량을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류운룡은 왜 학전과 장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을까?

류운룡은 이황과 황준량의 의견을 수용하여 서원지에 학전과 장서를 수록하지 않았다. 노경린은 『영봉지』를 편찬하면서 이황과 황준량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황준량은 학전과 장서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그는 학전과 서적 등의 조목은 서원지의 뒤편에 부기하고, 有司가 지키게 하자는 의견이었다.<sup>15</sup> 이황도 『죽계지』의 조잡한 형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영봉지』는 그것을 본받지 않았으면 좋

15 『迎鳳志』「廟院定議錄·答四印堂書」.“……鄙意有感 復此稟請 錄中備載中原書院之所及藏書學田之類 似欲援據故事 以解齒頰 無奈利耶 竹溪雜志 方爲周武陵之尤 高明之見 何必踵成 只令寫取書帙學田之數 與凡施行之條目 錄付有司 俾善傳守…….”

졌다는 의견이었다.<sup>16</sup> 그러나 노경린은 『영봉지』에 학전록과 장서록을 수록하였다. 그렇지만 류운룡은 스승인 이황과 동학인 황준량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이 편찬한 『오산지』에는 학전과 장서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書院志의 체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죽계지』는 중국 서적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學田과 藏書를 서원지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竹溪志’라는 명칭에 맞게 朱熹의 글은 제외하고, 祭享人物과 운영에 대한 내용만 수록하라는 의견과 수량이 변하는 학전이나 장서를 별도로 처리하라는 요구가 존재하였다.

특히, 주세붕이 『죽계지』에서 중국 서적을 다수 인용한 것은 많은 반발을 받았다. 하지만 주세붕이 白雲洞書院을 설립하고 『죽계지』를 편찬하기 전에는 조선에서 書院과 書院志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서원과 관련한 부분은 중국의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중국 書院志는 유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세붕은 주희의 저술을 인용하여 중국 서원에 대한 사항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周世鵬]는 6세에 『소학(小學)』을 배워 이미 회암(晦菴, 朱熹) 선생이 공자를 계승하여 후학을 계몽한 것을 알았고, 10세에는 사서(四書)의 주해를 외고 오경(五經)을 읽고서 선생께서 평생 고심한 것을 더 잘 알았다. 『강목(綱目)』·『근사록(近思錄)』·『초사(楚辭)』 등 여러 서적을 보게 된 뒤에도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신축년(1541년, 中宗 36)에 비로소 친구로부터 『주자전서』를 빌려 보게 되었고, 금년에 또 다시 『어류(語類)』를 보게 되었다. 이에 늘 손을 씻고 정좌하여 책을 펼쳐 읽어 봄에 마치 선생을 옆에서 모시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하였다.”<sup>17</sup>

주세붕은 1541년(중종 36)에 『朱子全書』를 구해서 연구한 경험이 있었고, 이것이 『竹溪志』를 편찬할 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세붕이 『竹溪志』를 편찬할 때 인용한 주요 서적은 주희의 글일 수밖에 없었다. 주세붕은 주희의 글을 통해 서원관을

16 『迎鳳志』「廟院定議錄·答四印堂書」. “……迎鳳志 仲舉寄示 皆已見得 但滉常病竹溪志未免稍雜 今但取其意 而勿盡效其所爲 何如 其所抄爲學立教 亦多混紊無頭緒 如何如何…….”

17 『竹溪志』卷5, 「雜錄」. “某六歲時, 學小學, 已知晦菴先生, 紹孔子啓後蒙, 執其卷必肅, 讀其書必謹, 十歲, 誦四書註解, 仍讀五經, 益知先生平生之苦. 及觀綱目近思錄楚辭諸書, 猶以未見全書爲恨. 辛丑歲, 始借得友人全書, 今年, 又得語類. 每盥手跪閱, 洋洋乎如侍几案親承面教也.”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竹溪志』를 편찬하였다.

노경린도 『영봉지』를 편찬하면서 다량의 중국 서적을 인용하였다. 노경린은 주희의 記文을 『영봉지』의 書院錄, 藏書錄, 學田錄에 수록하였는데, 『죽계지』와 같은 구성 방식이었다. 또 노경린이 書院錄에 『大明一統志』의 서원목록을 수록한 것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노경린은 『영봉지』에서 이전에 간행된 『죽계지』를 인용하였다. 이는 점차 중국 서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서원에 대한 지식이 추적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류운룡은 『吳山志』에서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류운룡은 『오산지』를 편찬하면서, 현저하게 적은 수의 중국 서적을 활용하였다. 류운룡은 卷4 고증에서만 단 한 차례의 중국 서적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운룡은 서원의 學田과 藏書를 기록하지 않았다.

16세기 조선에 서원이 건립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는 ‘서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이는 서원에 대한 지식인의 다양한 사유는 서원지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기에 3종의 서원지 자체가 16세기 조선 지식인이 가졌던 서원 지식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 지식인은 중국의 서원지를 참고하여 조선의 서원지를 편찬하였을까? 16세기 조선 서원지에서는 『朱子全書』와 『大明一統志』 등을 인용하고, 중국 서원지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16세기 조선 지식인은 明代 서원지를 보지 못한 것일까? 앞서 살펴본 명 서원지 체제와 2절의 16세기 조선 서원지의 체제를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16세기 조선 서원지에서 논란이 되는 學田과 藏書와 관련한 부분 역시 明代 서원지에 수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 明代 서원지가 조선의 서원지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明代 서원지가 조선에 유입되었다면 조선 지식인들이 편찬한 서원지의 체제 역시 중국 서원지의 양식을 전범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16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원지 편찬과정은 조선 서원지가 독자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16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서원지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논쟁은 이후 조선 서원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상사적 탐구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 III. 서원지에 나타나는 지식의 양상

#### 1. 한중 서원의 공통 장서

16세기 조선에서 서원지에 장서가 기록된 경우는 2종이다.<sup>18</sup> 이는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이전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만이 도서관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sup>19</sup> 이 때문에 다수의 서원은 장서록을 남길만한 장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장서록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운동서원[紹修書院]의 『죽계지』 「藏書錄」, 영봉서원[川谷書院]의 『영봉지』 「장서록」이다.<sup>20</sup> 백운동서원과 영봉서원의 장서 현황을 <부표 1>, <부표 2>로 정리하였다. 조선 서원지에 기록된 장서와 비교 대조를 위해 중국 서원지에 기록된 장서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서원은 宋代부터 장서를 구비하였으며, 국가의 賜書로 국자감에서 인출한 經書를 보유하였다.<sup>21</sup> 이와 더불어 송대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 간행업이 발전하여 적어도 28개 서원이 도서를 간행하였다.<sup>22</sup> 하지만 당시 서원의 장서 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서원의 장서는 명대를 기점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특히 白鹿洞書院은 명·청대를 거치면서 총 11종의 서원지를 편찬하였고, 서원지마다 장서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 서원에서 여러 차례 서원지를 중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체로 한차례 서원지를 간행하는 일이 많았다.

18 참고를 위하여 <부표 6>은 백운동서원의 장서를, <부표 7>은 영봉서원의 장서를 부기하였다.

19 이병훈, 앞의 논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426쪽.

20 이외에도 16세기 조선에서는 서원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4종의 더 있다. 濼溪書院의 『書院哀寶錄』, 陶山書院의 『書冊秩』, 易東書院의 『易東書院記』 「書冊」, 玉山書院의 『書冊置簿』이다. 즉, 서원지에 수록된 장서록은 2종[백운동, 영봉]이고, 필사본 형태의 서책 목록은 3종[도산, 역동, 옥산]이며, 서원에 기증된 물품에 장서가 포함된 목록은 1종[남계]이다. 먼저 6개소의 서원과 『故事撮要』 「書冊市准」의 書種을 비교하여 약 240여 種의 서책을 확인하였다. 개별 서원의 장서 목록과 240종의 서목에 대한 정보는 앞서 진행한 연구를 참고할 것(임근실, 앞의 논문, 한국서원학회, 2017, 93~100쪽, 부록).

21 이근명, 앞의 논문, 중국사학회, 2019, 42~44쪽.

22 조국권, 앞의 논문, 한국서원학회, 2017, 105~106쪽.



명대 서원의 장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모두 6종이다. ①『白鹿洞書院新志』는 모두 八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卷8「書籍志」第13에 백록동서원에서 소장한 83종의 장서 서목있다. ②『白鹿洞志』는 모두 1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卷16「經籍」이 장서록으로 176종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百泉書院志』는 모두 3권이 며, 그 중 卷1「學約志」의 부록으로 27종의 장서를 기록하였다. ④『白鹿洞書院志』는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卷3「人物志」의 말미에 193종의 장서가 함께 수록되 었다. ⑤『虞山書院志』는 모두 10권 구성으로, 卷6「書籍志」에 256종의 장서가 기록되 었다. ⑥『共學書院志』는 上中下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卷上 典籍에 42종의 장 서가 수록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⑦『仁文書院志』는 11권의 구성인 데, 卷8「書籍」에 실제 장서의 목록과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卷題만 있다.

<표 3> 16세기 明 書院의 장서 현황

	편찬연도	서원지명	총 권수	장서 목록	種	비고
①	1524년	白鹿洞書院新志	八卷	卷8 書籍志 第13	83종	26종 全失
②	1554년	白鹿洞志	十九卷	卷16 經籍	176종	
③	1578년	百泉書院志	三卷	卷1 學約志 【書籍附】	27종	
④	1592년	白鹿洞書院志	十二卷	卷3 人物志 【附經史子籍】	193종	
⑤	萬曆年間 (1573~1619)	虞山書院志	十卷	卷6 書籍志	256종	
⑥		共學書院志	上中下卷	卷上 典籍	42종	
⑦		仁文書院志	十一卷	卷8 書籍	0종	

위 표에서 실제 장서를 확인할 수 없는 ⑦을 제외하고, 명대 서원 장서의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 ①~⑥의 장서목록 6종을 검토하였다. 이 중 명대 백록동서원의 장서가 가진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② 백록동서원의 『백록동지』와 ⑤ 우산서원의 『우산서원지』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2가지이다. 첫 번째, 『백록동지』는 1554년에 편찬되어 16세기 중엽의 장서 현황을 기록하였다. 16세기 중엽 조선 書院의 장서가 기록된 『죽계지』, 『영봉지』가 편찬되었다. 따라서 『백록동지』의 장서 목록은 16세기 조선 서원의 장서가 기록된 시기와 동일하다. 두 번째, 『백록동지』는 편찬자가 백록동서원의 장서를 4부[經史子集]로 나누어 기록하여 분류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렇기에 ②의 4부 분류를 기준으로 전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산서원지』는

4부보다 더욱 자세하게 장서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명대 지식인의 지식 분류법을 살펴 볼 수 있다. ② 백록동서원과 ⑤ 우산서원의 장서 현황을 <부표 3>, <부표 4>로 정리하였다.<sup>23</sup>

16세기 중엽 백록동서원은 모두 176종의 서적을 소장하였다. 鄭廷鵠은 『백록동지』 卷16 「經籍」에 「白鹿書院類分書目」을 수록하여 당시 백록동서원의 장서를 기록하였다. 정정작은 당시 백록동서원에 남아 있는 서적을 經史子集의 4部 분류로 나누어 수록하였다.<sup>24</sup> 백록동서원의 장서를 4부로 분류하여 각 부의 비중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聖製를 포함한 經部는 49種으로 28%, 史部는 28종으로 16%, 子部는 64종으로 36%, 集部는 34종으로 20%이다. 책수는 本으로 기록하였으나 불완전한 落帙本이 다수 있어서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 없다. 낙질본은 經部 성제의 『四書大全』, 史部の 『通鑑綱目』과 『通志畧』, 子部の 『王抑庵集』, 集部の 『文章正宗』와 『武經總要』, 『石鐘山集』 등이다.

16세기 중엽 우산서원은 256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우산서원은 장서를 총 11部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11부의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聖製는 11종으로 4.3%, 典故는 8종으로 3.1%, 經部는 25종으로 9.8%, 子部는 20종으로 7.8%, 史部는 36종으로 14.1%, 理學部는 54종으로 21.1%, 文部는 23종으로 8.9%, 詩部는 13종으로 5.1%, 經濟部 31종으로 12.1%, 雜部는 20종으로 7.8%, 類書部는 15종으로 5.9%이다. 『우산서원지』의 경우는 별도로 책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16세기 한·중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서적을 통해 당시 한·중 지식인의 공유하였던 지식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서원지가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과 명의 지식인이 운영한 서원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시기 양국의 서원에서 소장한 서적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16세기 한·중 서원지에 남아있는 장서를 비교·대조하여 18種의 공통 서목을 추출하였다. 16세기 한·중서원에서 각 나라별 1개소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서적을 백록동서원의 4부 분류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4>과 같다.

23 각각 176종과 256종의 장서목록은 가독성을 위해 부표로 작성하였다. 또한 <부표 3> 백록동서원과 <부표 4> 우산서원의 장서목록은 『백록동지』와 『우산서원지』의 분류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서적이 기록된 순서도 임의로 재조정하지 않고, 원자료의 순서를 반영하였다.

24 『白鹿洞志』 卷16 「經籍」·「白鹿書院類分書目」. “【原失者不載. 記其見在者.】”

<표 4> 한·중 서원 장서의 공통 서목

	서명	명		조선		비고
		白鹿洞	虞山	白雲洞	迎鳳	
聖製	性理大全	○	○	○	○	1종
經部	易經大全	○	○	○	○	7종
	書經大全	○		○	○	
	詩經大全	○		○	○	
	春秋胡傳	○		○	○	
	春秋左傳	○			○	
	(朱子)小學		理學部	○		
	韻府群玉		詩部	○	○	
史部	後漢書	○	○		○	2종
	(溫公)通鑑		○	○	○	
子部	朱子大全	○		○		5종
	陶靖節集	○	詩部		○	
	伊洛淵源	○	理學部	○	○	
	近思錄		理學部	○	○	
	朱子語類		理學部	○		
集部	(宋)名臣言行錄	○	經濟部	○		3종
	文選		文部	○		
	韓昌黎集		文部	○	○	
18종						

공통 서적 중 聖製와 경부는 8種으로 『性理大全』, 『易經大全』, 『書經大全』, 『詩經大全』, 『春秋胡傳』, 『春秋左傳』, 『小學』, 『韻府群玉』이다. 사부는 2종으로 『後漢書』, 『通鑑』이다. 자부는 5종으로 『朱子大全』, 『陶靖節集』, 『延平答問』, 『伊洛淵源』, 『近思錄』, 『朱子語類』이다. 집부는 4종으로 『文獻通考』, 『名臣言行錄』, 『文選』, 『韓昌黎集』이다. 이 서적들이 조선 서원에서 소장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성리대전』은 16세기 한·중의 4개소 서원에서 모두 소장하였다. 이 서적은 여러 宋代 성리학자의 저서에서 성리학적 내용을 분류하여 편집한 性理學의 大全이다. 이러한 서적의 성격으로 많은 한·중의 지식인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렇기에 『성리대전』은 16세기 한국과 중국의 서원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백록동서원의 경우 명·청대에 계속적으로 소장한 서적이었다.

25 16세기 명과 조선의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서적의 정보와 간행 사항은 다음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다(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87~134쪽).

『易經大全』, 『書經大全』, 『詩經大全』은 명의 백록동서원과 조선의 백운동서원과 영봉서원에서 소장하였다. 1415년(永樂 13) 9월에 명에서 『四書五經大全』과 『성리대전』을 함께 편찬하였다. 4년 후인 1419년(세종 1)에 조선은 중국본 『사서오경대전』을 수입하였다. 이 서적은 조선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간행되었고, 조선시대 전 기간에 유교경전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6</sup> 이 때문에 조선의 서원에서도 『역경대전』, 『서경대전』, 『시경대전』을 장서로 보유하고 있다.

『春秋胡傳』과 『春秋左傳』은 명의 백록동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춘추』에 胡安國이 傳한 『春秋胡傳』·『胡傳春秋』은 ‘『春秋胡傳』’으로 영봉서원에서 보유하고, ‘『胡傳春秋』’로 백운동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춘추』 三傳의 하나인 『춘추좌전』은 영봉서원에서, 『左傳大全』은 백운동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이 두 서적은 16세기 조선에서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 『춘추호전』은 경상도 慶州에서, 『左傳』은 경상도 星州에서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16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攷事撮要』의 『書冊市准』에서도 『호전춘추』와 『좌전』의 값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유통되었던 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後漢書』는 명의 서원들과 조선의 영봉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後漢書』는 남북조시대 宋의 范曄이 저술한 중국 後漢의 正史이다. 『후한서』보다 먼저 편찬되었던 역사서 중 『사기』는 儒家로 보기 어려우며, 『前漢書』도 반역이라는 오명이 있었다. 따라서 『후한서』는 유교적 인식을 기반으로 서술된 正史의 최초였다. 이러한 서적의 성격으로 조선의 서원에서 중국의 역대 正史 중 『晉書』와 『後漢書』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通鑑』은 명의 우산서원과 조선의 서원들에서 소장하였다. 이 책은 宋 司馬光이 B.C. 403年(周 威烈王 23)으로부터 959年(五代 後周 顯德 6)까지 1362년의 역사를 기록한 編年體 通史이다. 중국은 『通鑑』의 영향으로 唐·宋·元대의 역사를 강목체로 續編을 만들었다. 이후 조선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서거정 등이 『東國通鑑』을 편찬하였다.<sup>28</sup>

『朱子大全』은 명의 서원들과 조선의 백운동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주자대전』은 주희

26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29, 200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4~129쪽.

27 魚叔權, 『攷事撮要』 下, 「八道程途」.

28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2쪽.

의 문집으로, 조선에서는 1543년 국가에서 반사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분석한 權機(1478~1548)은 『朱子大全考疑』를 저술하였다.<sup>29</sup> 또한 『朱子大全』은 조선의 여러 서원에서 소장하였고 이에 대해 분석한 저작이 있으며, 기보유한 서원에서 재구매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는 서적이었다.

『伊洛淵源』은 한중의 모든 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이락연원』은 주희가撰한 『伊洛淵源錄』을 明 楊廉이 證入하여 만든 『伊洛淵源錄新增』과 謝鐸이 지은 『伊洛淵源續論』을 合本하여 高貴亨이 刊行한 冊<sup>30</sup>으로 이정이 조선에서 再刊行하였다. 『이락연원록』의 별칭은 『性理大全抄略』으로 정자와 주자의 理學으로 완성되는 성리학의 계보를 『성리대전』을 통해서 정리하려는 의도로 간행된 서적이었다. 즉, 백록동서원의 지식 계보인 주희의 도통론과 연결되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이정은 경주부윤으로 재직 시 『이락연원록』을 간행하였다. 이황도 성리학적 계보[道統]에 주목하여 『이락연원록』을 연구하였고, 그가 성리학의 계보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sup>31</sup> 이황은 1560년(명종 15)에 『宋季元明理學通錄』의 초고를 완성하였고,<sup>32</sup> 이 서적은 宋에서 明까지의 성리학의 계보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후 이황은 조선 도학의 계보[道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고, 나아가 그의 道統論은 퇴계학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지식 계보가 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락연원록』은 그 기저이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近思錄』은 명의 우산서원과 조선의 두 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이 책은 4賢[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節目을 뽑아 편찬한 서적이다. 조선에서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sup>33</sup> 신료들에게 頒賜되었던 서적이었다.<sup>34</sup> 조선본 중에서는 1581년(선조 14) 佔畢書院(禮林書院, 德城書院)에서 간인한 본이 있어 주목되었다.<sup>35</sup> 『近思錄』은 조선의 서원에서 여러 건을 보유했던 서적으로, 백운동서원에서 2건씩, 영봉서원

29 유승현·민관동, 「16세기 관료 權機의 朝鮮·明刊本 수집 경로 탐색」, 『동아시아고대학』 5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25쪽.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伊洛淵源錄新增』 해제.

31 李滉, 『退溪集』 續集 卷8, 「伊洛淵源錄跋」.

32 李滉, 『退溪集』 卷10, 「書」·「答盧伊齋」.

33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35~136쪽.

34 유승현·민관동, 앞의 논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25쪽.

35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板本考」,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15, 348~349쪽.

에서 1건씩을 소장하였다. 또한 16세기 조선의 지방본 『近思錄』의 책판은 5종이 있었다. 전라도 求禮, 경상도 義城·草溪·密陽, 평안도 中和에서 『近思錄』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의 지식인들의 수요가 많은 서적이었다.<sup>36</sup> 『近思錄』은 16세기 영남지역 서원의 성리학 학습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性理書이다. 黃俊良은 영봉서원의 원생에게 학문에 있어서 『近思錄』이 필수적인 서적이라 하였고,<sup>37</sup> 도산서원에서도 이를 강의한 기록이 있다.

『朱子語類』는 명의 우산서원과 조선의 백운동서원에서 소장하였다. 이 책은 宋의 黎靖德이 주희의 여러 語錄과 語類를 분류하고 교정하여 편찬한 서적이다.

『名臣言行錄』 명의 두 서원과 조선의 백운동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 책은 北宋과 南宋을 포함한 宋代 名臣과 儒學者들의 언행 등을 수록한 책이다. 원래의 서명은 『宋名臣言行錄』이며,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 등으로 불린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명과 조선의 서원에서 공통으로 소장한 서적을 살펴보았다. 이 서적들은 16세기 한·중 지식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졌는데, 특히 조선의 성리학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 서적들은 한·중의 지식인이 공유하였던 지식의 단면이자, 지식의 유입과 보급, 전파, 수용에 따른 여러 양상과 지식 계보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2. 한·중 서원의 지식계보[道統意識]

16세기 한·중의 지식인들은 서원지를 편찬하면서 그들의 지식계보인 道統, 學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한·중 지식인들이 정립한 지식계보는 서원지에 기록된 장서의 순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선 지식인의 지식계보가 서원지에서 발현되는 경우는 『오산지』이다. 16세기 후반 경상도 선산부 인동현에서 류운룡은 오산서원을 건립하고 『오산지』를 편찬하여 자신의 學統과 道統을 표출하였다. 류운룡이 서원지에 도통을 명시한 이유는 길재의

36 魚叔權, 『攷事撮要』 下, 「八道程途」.

37 黃俊良, 『錦溪集』 卷4 雜著, 「與迎鳳諸賢書」. “諸君小日, 雖已讀過, 必未會用力之地, 及今更加理會, 稽古人立教之本, 而參諸近思錄, 以博其義理之趣, 則學之本末, 庶乎其兼舉矣.”

고향인 선산부에 건립되어 있었던 金烏書院을 의식해서였다.

이 시기 영남지역 지식인들은 조선의 道統과 서원의 學統을 연결하였다. 도통론이 정립되어 가는 시대적 배경으로 길재의 고향인 선산부에서는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설립되었다. 1570년대 松堂學派는 금오서원을 건립하여 조선 道統과 자신들의 學統을 연결하면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鄭鵬(1467~1512)-朴英(1471~1540)’으로 이어지는 계보의식을 나타낸 것이다.<sup>38</sup> 송당학파가 길재를 제향한 서원을 건립한 이유는 길재가 위치한 도통에 박영의 학통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였다. 송당학파는 금오서원을 건립한 이후 길재의 文集인 『治隱集』, 선산의 지리지인 『一善志』, 박영의 문집인 『松堂集』 등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이는 송당학파가 자신들의 학통을 정비하여 도통론을 공유하는 과정이었다.<sup>39</sup> 이러한 상황에서 퇴계학파의 류운룡이 인동현감으로 선산지역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1560년대 이후 이황과 그의 문인들은 자신들의 學統을 정비하였다. 1560년대에 이황과 그의 문인들은 다수의 性理書를 편찬·저술·간행하였다. 퇴계학파가 간행한 성리서 중에서 『伊洛淵源錄』과 『宋季元明理學通錄』은 도학계보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서적이었다. 『伊洛淵源錄』은 주희가 周敦頤·程顥·程頤와 그 문인들의 언행을 정리한 서적으로, 宋代 성리학자의 계보가 나타나는 책이다. 이 책은 이황이 성리학자의 계보를 정리하는데 영향을 주었고,<sup>40</sup> 결과적으로 1560년에 이황은 『송계원명이학통록』의 초고를 완성하였다.<sup>41</sup>

이황은 『송계원명이학통록』에서 宋에서 明까지의 성리학자의 계보를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도학의 계보[道統]를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도통의식을 기반으로 이황은 조선 도학의 계보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이황은 중앙 정계에서 정비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의 계보를 수용하였다.<sup>42</sup> 이황은 1560년대부터 조광조의 신원운동을 주도하였다. 또 이황은 자신과 학문적 성격이 유사하였던 이언적을 文廟에 從祀함으로써 사림의 정치적 정당성과 학문적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sup>43</sup>

38 김성우,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歷史學報』 202, 역사학회, 2009, 20~25쪽.

39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40 『退溪集』 續集 卷8, 「伊洛淵源錄」.

41 『退溪集』 卷10, 「答盧伊齋」.

42 김영두, 앞의 논문, 2008, 347~354쪽.

이황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조광조-이언적’으로 계승되는 도학의 계보를 정립하려 하였다. 이황은 조광조와 이언적의 행장을 찬술하였고,<sup>44</sup> 四賢의 文廟從祀를 추진하였다. 또 이황의 문인인 이정도 문집이 없었던 김굉필을 위하여 『景賢錄』을 편찬하였고, 『彝尊錄』의 跋文을 작성하면서 이황과 같은 의견을 가졌다.

1570년(선조 3) 이황의 사망한 후 四賢의 문묘종사운동은 그를 포함한 五賢의 문묘종사운동으로 확장되었다.<sup>45</sup> 영남지역 사림은 五賢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였고, 조선 도통은 이황에게로 연결되었다. 이황의 문인들은 스승을 문묘에 종사하여 본인들의 학통을 조선의 도통과 연결시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580년대에 인동현감 류운룡은 선산부 인동현에 오산서원을 설립하였다. 류운룡이 인동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열의를 가졌던 사업은 길재의 추숭이었고, 이를 위해 3가지의 일을 추진하였다. 길재의 묘소를 수축하고 묘역을 정비하는 일, 墓標와 砥柱中流碑의 건립한 일, 그를 제향하는 吳山書院을 건립하고 서원지인 『吳山志』의 편찬하는 일이었다.<sup>46</sup>

특히 류운룡은 1588년에 묘소 옆에 吳山書院을 창건하였고, 『吳山志』를 편찬하여 추숭사업을 자세히 기록했다. 류운룡은 길재 묘역의 정비, 서원의 설립 과정, 서원의 위치와 명칭, 주도한 인물 등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류운룡은 『吳山志』에서 퇴계학과의 道統論을 강하게 내세웠다. 그 이유는 바로 길재와 송당학과의 학통이 연결된 금오서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류운룡이 오산서원을 건립하기 전, 길재를 주향으로 모신 금오서원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미 건립되어 사액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류운룡은 『吳山志』를 통해 자신이 길재의 묘소 옆에 서원을 세운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류운룡은 『吳山志』 「考證」에서 『大明一統志』를 인용하면서 서원을 건립하는 장소는 선현 묘소의 옆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즉, 길재의 묘소 옆에 건립한 오산서원이 정당성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다분히 선산부의 금오서원을 의

43 진상원,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韓國史研究』 128, 한국사연구회, 2005, 165~168쪽.

44 『退溪集』 卷48, 「靜庵趙先生行狀」; 『退溪集』 卷49, 「晦齋李先生行狀」.

45 『宣祖實錄』 卷7, 6年 8月 乙亥.

46 『謙庵集』 卷7, 「年譜」.

47 『吳山志』 卷4, 「考證」.



식한 것이라 추측된다. 거리도 서로 멀지도 않았으며, 이미 사액을 받은 서원의 주후인 길재를 제향하는 새로운 서원을 건립한 류운룡의 의도가 『吳山志』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류운룡은 『吳山志』의 여러 부분에서 퇴계학파의 도통론을 표출하였다. 류운룡은 『吳山志』에서 여러 성리학자들의 저술을 인용하면서 퇴계학파의 도통론을 피력하였다. 류운룡의 스승인 이황은 ‘길재의 지조가 고결하며, 학문이 순정하다.’<sup>48</sup> ‘吉公은 사람됨이 우뚝하였다.’ 등으로 평가하였다.<sup>49</sup> 그리고 이황은 詩에서도 ‘吉先生’이라고 표현하였는데,<sup>50</sup> 이황은 程子, 주희, 李賢輔, 趙光祖, 李彦迪만을 先生이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詩를 통해 볼 때 이황은 길재도 先生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류운룡과 류성룡은 길재를 ‘吉子’로 칭하였다. 류운룡 형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砥柱碑陰記』에서 길재를 ‘吉子’로 부르고 있었다.<sup>51</sup> 길재를 先生으로 불렀던 이황의 의견이 류운룡 형제에게도 계승되면서 극존칭인 ‘子’를 붙이며 추승하였던 것이다.

또한 류운룡 이정이 쓴 『彝尊錄』의 발문을 『吳山志』에 수록하여 지식계보를 보여주었다.

“포은 정선생[정몽주]은 도학(道學)을 강(講)하여 밝히고 고려에서 벼슬을 하여 오백년 강상(綱常)을 이루었다. 야은 길선생[길재]은 실제 포은의 문하에서 직접 배웠고, 사예공(司藝公, 김숙자)의 학문은 야은에게서 점필재[김종직]로 전승되었으니 그 연원이 점차 스스로 원류가 되었다.”<sup>52</sup>

위 글에서 이정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學統이 계승되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였다. 이처럼 정몽주에서 김종직까지 이어지는 도학의 계보는 퇴계학과와 송당학과가 공유하였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두 학파는 그 이후의 도통을 계승하는 인물을 서로

48 『吳山志』 卷1, 「行錄退溪對語使問」. “吉再慶尙道善山府人, 高麗末爲注書, 志操高潔, 學問醇正, 鄉人化之, 雖庸婦亦以貞烈自守, 國初屢召不屈卒於家.”

49 『吳山志』 卷1, 「行錄附問答一條」. “吉公爲人卓乎, 難及其行事必不苟焉.”

50 『退溪集』 卷1, 「過吉先生間」.

51 『吳山志』 卷1, 「行錄砥柱碑陰記」. “豐山柳侯雲龍, 宰仁同縣之三年, 大修吉子墓.”

52 『吳山志』 卷1, 「行錄李楨彝尊錄跋」. “圃隱鄭先生, 講明道學, 身仕高麗氏, 五百年綱常. 治隱吉先生, 實親炙圃隱之門, 司藝公學於治隱, 傳於佔畢, 其淵源所漸有自來矣.”

다르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류운룡은 『吳山志』에 기대승이 1569년에 조선의 道統을 언급한 장소[「請復職趙光祖疏」]를 수록하였다.

“광조는 김굉필에게 배웠고 굉필은 김종직에게 배웠고 종직의 학문은 그 아버지 숙자에게서 전승되었고 숙자의 학문은 길재에게서 전승되었고, 재의 학문은 정몽주에게서 얻었으니 몽주는 실로 우리 동방 理學의 원조가 된다.”<sup>53</sup>

위의 글에서는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學統이 명확히 언급되었다. 앞서 살펴본 「李楨彝尊錄跋」은 김종직까지만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김굉필과 조광조까지 계승되어 있어서 보다 진전된 도통론을 보여주었다. 이 도통론은 송당학파가 김종직의 이후에 ‘정봉-박영’으로 계승되는 도통론을 주장한 것과 차이를 가졌다. 퇴계학파의 학자들은 김종직 이후에 ‘김굉필-조광조’로 계승되는 도통론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퇴계학파는 김종직 이후 ‘김굉필-조광조’로 그 이후에는 이연적으로 연결되고, 이황의 사후에 그에게로 계승되는 도통론을 가지고 있었다. 류운룡은 퇴계학파의 도통론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자신이 오산서원을 건립한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류운룡은 이 작업을 통하여 정몽주에서 이황으로 이어지는 도통의식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즉, 류운룡은 『吳山志』에서 퇴계학파의 지식계보를 정립한 것이다.

두 번째, 明 서원의 지식 계보를 서원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백록동지」이다. 백록동서원의 도통의식은 서원지에 기록된 장서의 순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중의 지식인들은 서원을 건립하여 특정 先賢을 祭享하였고, 그의 학설을 중심으로 서원을 운영하여 학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조선 지식인들은 학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원에서 지식의 계보인 道學의 계보[道統]를 반영하였다. 16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함께 宋代 성리학자에서 이어지는 조선의 道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54</sup>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16세기 중국 백록동서원의 장서가 기록된 순서

53 『吳山志』 卷1, 「行錄請復職趙光祖疏」. “光祖學於金宏弼, 宏弼學於金宗直, 宗直之學傳於其父叔滋, 叔滋之學傳於吉再, 再之學, 得於鄭夢周, 而夢周實爲吾東方理學之祖.”

54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도통의식-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이경동, 「16세기 도통론의 전개와 포은 정몽주의 위상」, 『圃隱學研究』

는 의미심장하다.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서원에서 소장한 서적을 기록하는 순서를 통해 지식계보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4부로 서적은 분류하고, 각 部の 서적을 기록하면서 주희의 저작을 중시하였다. 먼저, 경부에서는 사서삼경에 해당하는 서적들 중에서 동일한 類의 경우는 本義와 集註를 1순위로, 註疏를 2순위로, 訓測을 3순위로 기록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희가 저술한 本意와 集註를 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漢唐註疏本 등을 참고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희는 『四書集註』의 大學序文에서 二程子[程頤(1033~1107)·程顥(1032~1085)]의 학문을 자신이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즉, 주희는 『사서집주』를 저술하여 도학의 계보가 공자부터 二程子로 이어지고, 그 맥을 본인이 계승하였다는 道統意識을 문헌화한 것이다.<sup>55</sup> 따라서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이 서적을 기록할 때 集註를 우선적으로 기록하는 양상은 주희의 도통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부에서는 『통감강목』을 가장 서두에 기록하였다. 주희는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綱과 目으로 재편집하여 『통감강목』을 편찬하였다. 따라서 『통감강목』은 주희의 학설인 성리학적 관점이 반영된 역사서로, 성리학을 중시하였던 조선에서도 중요시하였던 서적이다.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가장 앞서 주희의 『통감강목』을 기록하여 그들의 역사관도 주희를 계승한 사실을 표방하고 있다. 즉,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경부와 사부에서 주희의 학설을 최우선하였고, 이는 주희가 백록동서원에서 형성된 지식 계보의 중심임을 표출하는 부분이다.

자부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백록동서원의 지식 계보를 살펴볼 수 있다.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子部의 서적을 기록하면서 송대 성리학자인 이정자를 시작으로 張載(1020~1077), 楊時(1053~1135), 주희, 呂祖謙(1137~1181), 陸九淵(1139~1192)의 저작을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晉代 陶潛(365~427)의 서적을 수록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자부의 서적을 기록하면서 주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식 계보를 보여주었고, 이는 백록동서원의 제향인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釋奠을 지내는 文廟 이외에 宗儒祠, 忠節祠, 先賢祠에서 祭

』 17, 포은학회, 2016, 참조.

55 민병희, 「道統과 治統, 聖人과 帝王: 宋~淸中期の 道統論을 통해 본 士大夫社會에서의 君主權」,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166~171쪽.

享儀禮을 시행하였다. 이 중 중유사는 周敦頤(1017~1073), 주희, 육구연을 제향하였다.<sup>56</sup> 중유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록동서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儒’를 제향한 장소였다. 따라서 주돈이, 주희, 육구연은 백록동서원에서 표방한 도학의 계보이며, 주희를 중심으로 성리학과 양명학이 연결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백록동서원의 지식 계보는 이정자를 시작으로 하여 주희로 이어지며 이후 육구연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한중 서원의 서원지의 출현과 그로 인하여 지식이 전개되는 제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명에서 편찬한 서원지 10종의 체재를 확인하여 8가지 공통 항목(歷史景觀建物, 田租, 出身人物, 院規, 文翰, 藏書, 器物, 儀禮)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명 지식인들이 서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식이라 여긴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16세기 조선 서원지 3종의 편찬과정과 체제를 분석하여 지식인들의 체제 논란, 참고문헌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원지를 편찬할 때 명의 서원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원의 정보를 지식화하여 서원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독자적으로 사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 한중 서원지에 기록된 공통 서적을 통해 당시 한·중 지식인의 공유 지식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세기 명 백록동서원우산서원과 조선 백운동서원, 영봉서원의 장서를 비교하여 18종의 공통적인 서적을 확인하였다. 이 서적들은 한·중의 지식인이 공유하였던 지식의 단면이자,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성리학과 서원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전파한 매개체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지식을 보급하고 연구하였으며, 지식의 계보를 정립하였다. 네 번째, 서원지에 기록된 한중 서원의 지식계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조선의 『오산지』를 통해 퇴계학파의 지식계보가 서원지에 수록된 사

56 『白鹿洞志』卷4, 「洞祠」.

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6세기 明의 지식인이 서원을 중심으로 道學 계보를 정립하고, 이를 서원지에 기록하였던 상황과 유사하였다. 『백록동지』에 기록된 장서의 순서에서 백록동서원의 지식 계보를 확인하였다.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은 서적을 기록하는 순서를 통해 주희의 학설을 존숭하고, 이정자에서 주희로 그 이후 육구연로 연결되는 지식 계보를 표출하였다.

16세기는 한·중의 지식인이 서원이라는 공통적인 학술기관을 운영했던 시기였다. 물론 명과 조선의 서원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졌다. 하지만 지식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학파를 형성하여 지식의 계보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기저를 형성하는 정신은 공통되었다. 따라서 ‘16세기’와 ‘서원’이라는 동일한 시기와 기관에서 양국의 지식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을 통해 한·중 양국의 지식인이 서원과 서원지를 매개로 지식을 전개하는 모습의 단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16세기 한·중 서원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 각기 두 서원의 장서 목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사료적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여러 항목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그 지식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사료

#### 한국

盧慶麟(1516~1568), 『迎鳳志』  
柳雲龍(1539~1601), 『吳山志』  
魚叔權(생몰년 미상), 『攷事撮要』  
李滉(1501~1570), 『退溪集』  
周世鵬(1495~1554), 『竹溪志』  
黃俊良(1517~1563), 『錦溪集』

#### 중국

白鹿洞書院古志整理委員會,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出版, 1995.  
趙所生·薛正興主編, 『中國歷代書院志』 1~16, 江蘇教育出版社, 1995.

### 2. 연구 논저

#### 한국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김성우,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歷史學報』 202, 역사학회, 2009,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書誌學研究』 41, 韓國書誌學會, 2008.  
민병희, 「道統과 治統, 聖人과 帝王: 宋~清中期の 道統論을 통해 본 士大夫社會에서의 君主權」,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배현숙,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_\_\_\_\_,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46, 대동한문학회, 2016.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31, 韓國書誌學會, 2005.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 2009.
- 유승현·민관동, 「16세기 관료 權機의 朝鮮·明刊本 수집 경로 탐색」, 『동아시아고대학』 5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板本考」,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15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186, 역사학회, 2005.
- 이경동, 「16세기 도통론의 전개와 포은 정몽주의 위상」, 『圃隱學研究』 17, 포은학회, 2016.
- 이근명, 「12세기 兩浙 일대의 書院과 讀書人」, 『中國史研究』 119, 중국사학회, 2019.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_\_\_\_\_,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춘희, 『李朝書院文庫目錄』,國會圖書館, 1969.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研究」, 『韓國書院學報』 4, 한국서원학회, 2017.
- \_\_\_\_\_,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도통의식—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2015.
- \_\_\_\_\_,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_\_\_\_\_,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 \_\_\_\_\_,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韓國學論叢』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 조국권, 「중문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간행에 대한 고찰」, 『韓國書院學報』 5, 한국서원학회, 2017.
-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 『韓國學論叢』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진상원,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韓國史研究』 128, 한국사연구회, 2005.

## 중국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社, 2004.

李才栋, 「白鹿洞书院志考述」, 『江西社会科学』 9, 1999.

王雁杰, 「白鹿洞书院的藏书事业初探」, 『书史馆志』 34-4, 2004.

郑连聪, 「白鹿洞书院藏书目录研究」, 『兰台世界』 31, 2011.



<부록>

<부표 1> 조선 백운동서원의 장서 목록

區分	類別	書名		소계
經部	易類	周易大全14卷		22종, 2건 모 두 합 하면 195책
	詩類	詩大全9卷	詩大文2卷	
	書類	書大全14卷	書諺吐8卷	
		書大文1권		
	春秋類	春秋附錄大全17卷	左傳大全23卷	
		春秋胡傳大全7卷	春秋胡傳小全4卷	
	禮類	禮記大全16卷	禮記唐板小全10卷	
		周禮7卷		
	四書類	中庸1部	大學1部	
		中庸或問1部	論語大全2件各7卷	
		孟子大全2件各7卷	孟子大文2卷	
大學衍義12卷				
小學類	小學2件各4卷	韻府群玉10卷		
史部	編年類	宋鑑 16卷	通鑑15卷	5종, 78책
		東國通鑑29卷		
	傳記類	伊洛淵源錄 2卷	名臣言行錄16卷	
子部	儒家類	近思錄 2건 4卷	白警編7卷	8종, 2건 모 두 합 하면 184책
		眞西山心經2卷	朱子語類59卷	
		性理大全36卷	朱子大全70卷	
	類書類	博物志1卷	續博物志1卷	
集部	總集類	文選15卷	楚辭2卷	8 종 , 73책
		文章軌範2卷	儼語編錄20卷	
	別集類	韓昌黎集16卷	柳子厚集13卷	
		樊川集4卷	完陵集1卷	
合計		43種503 (500권+3부), 2건을 모두 합하면 525책		

<부표 2> 조선 영봉서원의 장서 목록

區分	類別	書名		소계
經部	易類	周易大全 14卷	(周易大全)大文 1卷	20종
	書類	書大全 3件 10卷	(書大全)大文 2卷	
	詩類	詩大全 10卷	(詩大全)大文 2卷	
	春秋類	春秋左傳 25卷	春秋附錄 17卷	
		春秋胡傳 2件 7卷	-	
	禮類	禮記大文 6卷	-	
	四書類	中庸 2部	大學 1部	
		或問大學 2部	論語大全 9卷	
		(論語大全)大文 1卷	孟子大全 7卷	
	小學類	小學集解 3卷	韻府群玉 11卷	
韻會 13卷		大廣益會 3卷		
史部	編年類	宋鑑 16卷	元史節要 2卷	7종
		後漢書 46卷	通鑑 14卷	
		十九史畧 8卷	-	
	傳記類	淵源錄 2卷	-	
	詔令 奏議類	陸宣公奏議 7卷	-	
子部	儒家類	近思錄 4卷	性理字義 1卷	10종
		自警編 5卷	理學類編 2卷	
		性理大全 2件 25卷	心經付註 1卷	
		三綱行實 1卷	續三綱 1卷	
	類書類	博物志 1卷	-	
	醫家類	活人心方 1卷	-	
集部	總集類	古文眞寶 7卷	東文選 46卷	18종
		古文選 17卷	文章軌範 2卷	
		文章歐治 1卷	三韓詩龜鑑 1卷	
		朝鮮賦 1卷	唐音詩集 3卷	
	別集類	東坡詩集 14卷	昌黎集15卷	
		柳文 13卷	晦庵詩集 2卷	
		樊川 4卷	蘇詩摘律 2卷	
		靖節先生集 1卷	訥齋集 2卷	
		遺山樂府 1卷	成廟御書 1卷	
合計	55종 464卷 5部			

<부표 3-1>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성제, 경부, 사부

區分	書名	소계
聖製	四書大全 10	17종
	易經大全 10	
	書經大全 5	
	詩經大全 8	
	春秋大全 12	
	禮記大全 10	
	性理大全 17	
	皇明政要 2	
	大明律 2	
	存心錄 5	
經部	洪武正韻 5	32종
	孝順事實 2	
	爲善陰騭 2	
	大明一統志 24	
	大明會典 50	
	古今列女傳 2	
	明倫大典 12	
	五經白文 6	
	四書集註 5	
	論語註疏 2	
	孟子註疏 3	
	四書訓測 7	
	易經本義 3	
	易經註疏 3	
	古易訓測 5	
	書經集註 2	
	書經註疏 4	
	詩經集註 3	
	詩經註疏 10	
史部	春秋胡傳 5	29종
	春秋註疏 12	
	春秋左傳 4	
	公羊註疏 4	
	穀梁註疏 12	
	禮記集說 8	
	禮記註疏 12	
	周禮註疏 8	
	儀禮註疏 6	
	儀禮集說 8	
	儀禮通解 40	
	二禮通解 10	
	孝經註疏 2	
	孔子家語 1	
	大戴禮 2	
	爾雅註疏 2	
	禮書 12	
	樂書 12	
	六經總圖 6	
	六經正誤 4	
	通鑑綱目 3部 42	29종
	史記 20	
	紀事本末 42	
	古史 6	
	呂氏春秋 5	
	前漢書 26	
	後漢書 24	
	三國志 15	
	晉書 40	
	南史 16	
	南齊書 12	
	梁書 10	
	北史 24	
	北齊書 8	
	周書 10	
	隋書 20	
	唐書 50	
	唐鑑 4	
	南唐書 2	29종
	宋史 100	
	宋元綱目 7	
	元史 50	
	管見 10	
	通志畧 120	
	江西通志 20	
	增城志 4	29종
	新泉精舍志 4	
	白鹿洞志 4	29종
	新增白鹿洞志 4	

<부표 3-2>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자부, 집부

子部	二程子全書 10	程氏遺書 4 (外書 1)	64종
	分類遺書 5 (外書 1)	橫渠理窟 1	
	張子語錄 1	龜山語錄 1	
	朱子大全 40	晦翁文集 40	
	大儒奏議 2	朱子語畧 4	
	大全私抄 6	朱子三書 3 (今失)	
	朱子語錄 4	東萊讀書記 2	
	象山文集 4	象山粹言 3	
	象山語錄 2	象山語要 2	
	陶靖節集 2	范文正公年譜 1	
	南豐文集 8	延平問答 1	
	豫章文集 2	蘇文忠公集 15	
	赤壁賦冊葉 1	李吁江集 6	
	道園學古錄 6	讀書叢說 2	
	誠意伯翊運錄 1	王抑庵集 17	
	胡敬齋集 2	居業錄 1	
	胡子粹言 1	吳康齋集 2部 各4	
	何椒丘集 4	陳白沙集 2	
	瓊臺會稿 6	甘泉文集 20 (壞本)	
	體認天理通 3	李空同集 6	
	張文忠公奏疏 5	陽明全集 24	
	東洲初稿 6	東湖文集 4	
	紀遇集 2部 各6	思問錄 2部 各1	
	南野文集 10	篁溪講義 1	
	張氏族約 2部 各1	李太白詩 7	
	黃山谷詩 4	東鄉集 2部 共4	
	存愚錄 2部 共2	春秋繁露 1	
	伊洛淵源 2	上蔡語錄 1	
	遵道錄 2	二業合一訓 1	
	致道錄 1	增補白鹿洞志 4	
	徐宗主太極圖測 2	定性書釋 2部 各1	
集部	文獻通考 60	玉海 80	34종
	國語 4	白虎通 3	
	說苑 4	論衡 6	
	西山讀書記 30	大學衍義補 40	
	文廟通考畧 1	宋名臣言行錄 10	
	皇明名臣錄 2	群忠事畧 1	
	青田三傳 1	今獻堂言 8	
	文章正宗 3部 16	續文章正宗 6	
	文翰大成 64	秦漢書疏 7	
	初學記 12	六書統 16	
	書學正韻 16	宛洛志樂 12	
	武經總要 16	皇明文衡 20	
	保齋策 2	皇明登科錄 4	
	臺遊記 1	冬遊記 1	
	白鹿洞士錄 7/ 13/ 1	唐律類抄 2	
	赤城詩 14	瀟洛風雅 2	
	石鐘山集 2	詩話總龜 10	
	合計	176종	

<부표 4-1> 명 우산서원의 장서 목록-성제, 전고, 경부, 자부

區分	書名	소계
聖製	存心錄 孝順事實	11종
	大明會典 大明律	
	皇明詔令 大明一統志	
	御製文集 明倫大典	
	洪武正韻 爲善陰贖	
	皇明制書	
典故	六部職掌 憲章錄	8종
	昭代典則 吾學編	
	皇明政要 皇明諸司職掌	
	諸司條例 徵吾錄	
經部	四書大全 易經大全	25종
	書經 詩經	
	春秋 禮記	
	四書集註 五經集註	
	五經全傳 孔聖全書	
	十三經注疏57) 孔子家語	
	國語 四書全傳	
	春秋胡傳 孝經	
	毛詩鄭箋 大戴禮	
	考工記 夏小正	
	伊川易傳 楊氏易說	
	大學衍義 大學衍義補	
	東坡易解	
子部	三子口義 六子全書	20종
	老莊翼 管韓全書	
	晏子春秋 廿子全書	
	子彙 呂氏春秋	
	賈太傳新書 陸賈新語	
	淮南子 劉向說苑	
	劉向新序 孔叢子	
	韓詩外傳 太玄經	
	元經 孫武子	
	桓譚新論 王玄論衡	

<부표 4-2> 명 우산서원의 장서 목록-사부, 이학부

史部	朱子綱目	宋元綱目	36종
	溫公通鑑	宋元通鑑	
	戰國策	史記	
	前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史	南齊書	
	梁書	北史	
	北齊書	後魏書	
	周書	隋書	
	陳書	唐書	
	新唐書	貞觀政要	
	南唐書	五代史	
	宋史	元史	
	路史	皇明通紀	
	通志	汲冢書	
	風俗通	南畿志	
	白虎通	吳地記	
	蘇州府志	常熟縣志	
理學部	性理大全	橫渠理窟	54종
	周張二子全書	邵子全書	
	二程全書	楊龜山語錄	
	上蔡語錄	延平答問	
	朱子全集	朱子語類	
	朱子學的	朱子當機錄	
	伊洛淵源	近思錄	
	朱子小學	文公家禮	
	象山全集	楊慈湖遺書	
	象山語錄	南軒語錄	
	白鹿洞講義	洞學啟蒙	
	傳習錄	張子韶格言	
	吳康齋集	胡敬齋集	
	閩南學道淵源錄	居業錄	
	陽明則言	方正學遜志齋集	
	陽明年譜	羅念庵集	
	薛文清讀書錄	識仁編	
	學道紀言	陳白沙文編	
	西齋日錄	聖學宗傳	
	薛文清要語	明儒經翼	
	程門微旨	王文成文錄	
	朱子節要	見羅書要	
	魏莊渠遺書	寓燕日課	
	宗聖譜	王龍谿文錄	
	經言枝指	王心齋語錄	
	羅念庵冬遊記	趙文肅集	
	?恭定集	陸砂證學記	

<부표 4-3> 명 우산서원의 장서 목록-문부, 시부

文部	文選	文章正宗	23종
	文粹	文苑英華	
	秦漢文抄	續文章正宗	
	名世文宗	韓昌黎集	
	陽明全集	柳柳州集	
	歐文忠集	蘇東坡全集	
	三蘇評林	荊川集	
	八大家文選	楊升菴集	
	續四部稿	弇州四部稿	
	弇州別集	左編	
	右編	文編	
	稗編		
詩部	陶靖節集	古詩類苑	13종
	杜工部全集	詩刪	
	唐詩品彙	李翰林全集	
	唐詩正聲	詩紀	
	白樂天全集	李空同集	
	李滄溟集	皇明十二家	
	韻府群玉		



<부표 4-4> 명 우산서원의 장서 목록-경제부, 잡부, 유서부

經濟部	皇明疏抄	朱子奏議	31종
	歷代名臣奏議	大儒奏議	
	鹽鐵論	陸宣公奏疏	
	虎鈴經	天文集要	
	包孝肅奏議	武經七書	
	經濟類編	宋名臣言行錄	
	右編	齊民要術	
	皇明名臣言行錄	皇輿圖考	
	九邊圖考	皇明經濟錄	
	修攘通考	籌海圖編	
	經世實用編	江南經略	
	紀效新書	海防一覽	
	經世格要	水利全書	
	荒政要覽	三關志	
	泉源考	經賦冊	
	潞水客談		
雜部	素問	醫統	20종
	本草	脉經	
	許氏說文	爾雅翼	
	稗雅	廣雅	
	小爾雅	焦氏易林	
	括地志	萬姓統譜	
	古今姓纂	顏氏家訓	
	藍田呂氏鄉約	鶴林玉露	
	文心雕龍	三才圖要	
	廣輿記	儒門事親	
類書部	初學記	太平御覽	15종
	唐類函	天中記	
	文獻通考	讀文獻通考	
	丹鉛總錄	丹鉛續錄	
	玉海	杜氏通典	
	北堂書鈔	冊府元龜	
	山堂考索	百川學海	
	焦氏類林		
合計	256종		



##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에 대한 토론

박 종 배(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명대(明代)의 서원지 10종과 동시기 조선의 서원지 3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지식인이 운영한 공통의 지식기관인 서원에 대한 지식사적(知識史的), 비교사적(比較史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16세기 명대의 10종의 서원지의 편찬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해 분석하였고, 16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3종의 서원지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조선의 서원지 작성 과정에서 당시 대부분의 중국의 서원지에 포함되어 있는 학전(學田)과 장서(藏書) 항목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류운룡이 찬한 『오산지』의 경우 두 항목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조선의 서원지가 중국 서원지의 모방이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서원지(명대 6종, 조선 2종)의 장서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여러 서원의 서적 소장 현황 및 한·중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서적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16세기 한·중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성리대전』 등 성제(聖製) 1종, 경부(經部) 7종, 사부(史部) 2종, 자부(子部) 5종, 집부(集部) 3종 등 총 18종의 서목을 추출한 것은 당시의 한·중 지식인이 공유하였던 지식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한·중 서원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대 양국 지식들의 지식 계보[학통, 도통]에 대한 인식도 보여주었다. 조선의 경우, 『오산지』의 행록(行錄) 등의 자료를 통해, 류운룡, 그리고 퇴계학과가 송당학과와 다른 학통·도통관[‘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평필-조광조’]이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백록동지』에 기록된 장서의 순서를 통해 백록동서원이 표방한 도학의 계보[도통]

를 확인시켜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명과 조선의 서원이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된 장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식을 공유하였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식의 계보[학통, 도통]를 정립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서원 연구의 필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서원지의 형식[體例, 體裁, 體制]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원지에 대한 지식사적, 비교사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이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한두 가지 질문 또는 의견의 제시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10종의 명대 서원지를 분석하며 제시한 <표1> “16세기 명 서원지 체제표” 중에서 정리의 기준으로 삼은 ‘항목’[歷史景觀建物, 田租, 出身學者官僚, 院規, 文翰, 藏書, 器物, 儀禮, 기타]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예를 들어, 田租의 경우 학전(學田), 出身學者官僚는 인물(人物), 文翰은 시문(詩文)[또는 예문(藝文)], 儀禮는 향사(享祀) 정도로 용어[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歷史景觀建物の 경우에도 연혁(沿革), 건축(建築)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이다.

다음으로는 <표4> “한·중 서원 장서의 공통 서목” 중의 ‘분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토론자는 『사고전서』의 문헌 분류 방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언뜻 보기에 운부군옥(韻府群玉)과 같은 운서[자서]가 경부(經部)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 도정절집(陶靖節集)이 자부(子部)에 속해 있는 것도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표1> “조선 백운동서원의 장서 목록”을 보면, 경부의 소학류(小學類)에 운부군옥 10권이 분류되어 있는데, 아마도 성리학의 기초 교재[수신서]인 『소학』 이외에 자서[운서, 자전]까지 ‘소학류’로 분류하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經)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서류(字書類)를 경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표2> “조선 영봉서원의 장서 목록” 중

경부-소학류에 들어 있는 운부군옥 11권과 운회 13권, 대광익회 3권도 마찬가지이다. 토론자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운부군옥은 자부(子部)의 유사류(類書類), 도정절집은 집부(集部)의 별집류(別集類)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부표2> “조선 영봉 서원의 장서 목록” 중 집부-별집류에 들어있는 ‘靖節先生集 1권’이 도정절집(陶靖節集)을 말하는 것이라면, 토론자의 생각처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부표 3-2>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자부, 집부”와 <부표 4-1> “명 우산 서원의 장서 목록-성제, 전고, 경부, 자부”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불일치하는 분류의 예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大學衍義補』가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에서는 집부에 분류되어 있는데, 우산서원의 경우 경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論衡』이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에서는 집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산서원의 경우에는 자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위에서 도정절집과 운부군옥이 각각 자부(子部)와 경부(經部)에 속해 있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부표 4-3> “명 우산 서원의 장서 목록-문부, 시부”를 보면 도정절집과 운부군옥이 둘 다 시부(詩部)에 들어 있다. 이러한 분류상의 불일치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원지에 대한 지식사적·비교사적 분석이라는 참신한 연구로 좋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임근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짧고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16~18세기) 경향

한 재 훈(연세대학교)

- I. 서론
- II. 16세기 학규의 경향
- III. 17세기 학규의 경향
- IV. 18세기 학규의 경향
- V. 결론

## I. 서론

대개 모든 서원은 그 존재 이유를 ‘講道(作人)’와 ‘尊賢(崇道)’ 두 가지에서 찾는다.<sup>1</sup> ‘강도’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문 학우들 간에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사상적 진리를 함께 익혀나가는 것이고, ‘존현’이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그들의 학문적 업적과 실천적 덕행을 기리며 본받는 것이다. 이때 ‘강도’는 서원의 강학(講學)을 통해 수행되고, ‘존현’은 향사(享祀)를 통해 표현된다. 서원의 학규<sup>2</sup>는 이와 같은 목적을 실제로 수행하

1 『退溪全書』卷12,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夫書院何爲而設也? 其不爲尊賢講道而設乎?

2 서원의 학규는 대체로 ‘학규’라고 통칭되지만 실제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즉, 學規, 學令, 院規, 齋規, 齋憲, 約束, 講規, 立約, 訓示文, 諭示文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박중배, 「조선시대의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2006, 224쪽.) 김해용은 이와 같은 명칭을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강학에 대한 규칙인 講規, 서원의 전체적인 활동을 규정한 規範, 서원의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한 院規, 居齋 유생을 위한 齋規, 교육에 대한 규정인 學規와 學令, 서원 교육에 대해 자문해주는 諭示文”으로 정리하였다.(김해용, 「학규(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쪽.)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명칭들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學規’로 통칭한다.

기 위해 서원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학규는 큰 틀에서는 朱子가 白鹿洞書院에서 揭示한 「白鹿洞規」를 모태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학규를 제정한 사람들의 학파적 지향이나 시대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내용에서는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퇴계 시대의 서원은 근본적으로 사문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학 위주의 기능을 지닌 반면, 17세기의 중기 서원은 강학 기능 대신에 제향을 위주로 기능하였다.<sup>3</sup> 그러자 18세기 이후 서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학교정책에 부응하여 巡題, 白日場 그리고 활발하게 전개된 講會 등을 통해 다시 講學을 중심으로 교육에 힘썼다.<sup>4</sup> 이러한 시대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16~17세기는 서원교육이 居齋讀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8~19세기는 講會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up>5</sup>

본 논문은 이처럼 시대적 상황의 추이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조정해갔던 조선시대 서원의 경향을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시기별로 대표적인 학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16세기는 「伊山院規」(退溪)·「隱屏精舍學規」(栗谷)를, 17세기는 「道東書院院規」(寒岡)·「竹林書院節目」(市南)·「魯岡書院學規」(明齋)·「文會書院院規」(南溪)를, 18세기는 「九峯書院院規」(儉齋)·「觀善齋學規」(克齋)·「深谷書院學規」(陶菴)·「三溪書院居齋節目」(訥隱)·「老江書院講學規目」(屏溪)·「石室書院學規」(溪湖)를 각각 검토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검토는 학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시기별로 학규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향을 읽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 II. 16세기 학규의 경향

조선시대 서원이 비로소 태동한 16세기는 그야말로 개척기나 다름없다. 서원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였기에 서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참고체계가 역시 있었을

3 丁淳睦,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인문연구』 8권 2호, 1987, 7쪽.

4 윤희면, 『조선시대의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347~389 참조.

5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참조.

리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제정된 학규는 학과별 또는 지역별로 서원 창건을 선도했던 인물들이 서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학문적 이상을 담아내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학규는 서원의 밑그림과 같은 성격이 짙다. 일반적으로 밑그림은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하지만 완성될 그림이 추구하는 방향과 전체적 윤곽을 이미 그 안에 담고 있다. 더 구체화 되어야 하고, 강조와 생략 등의 보완도 가해져야 하겠지만 방향과 윤곽은 이미 결정되어 제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16세기 학규는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에 작성된 서원의 학규는 9종에 이른다.<sup>6</sup>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退溪 李滉(1501-1570)의 「伊山院規」(1559)와 栗谷 李珣(1536-1584)의 「隱屏精舍學規」(1578)이다. 이 두 학규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전형으로서 이후 출현하는 여러 학규들에 밑그림을 제공하며 참고체계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7세기 영남지역에서 활동한 竹老 申活(1576-1643)은 丹山書院의 「원규」를 제정하면서 「이산원규」를 그대로 옮겨 싣고, “삼가 「易東書院院規」<sup>7</sup>를 살펴보니 선생(퇴계)이 제정하신 것으로 지극하고 극진하여 남은 온축이 없었다. 이제 새 서원이 마땅히 취해야 할 법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8</sup> 한편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存齋 魏伯珪(1728-1798)는 時弊에 대안을 제시한 자신의 저술 「政絃新譜」 가운데 「學校」에서 “「白鹿洞規」와 율곡의 「隱屏學規」를 준용하며, 모든 서원의 학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sup>9</sup> 「家塾學規」라는 글에서도 “學規는 「白鹿洞規」를 준용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절목은 『童蒙須知』를 사용하며, 堂長과 掌議에 관한 범절은 일체 율곡의 「隱屏規」를 따른다”고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6 임근실은 16세기에 제출된 9개의 학규(①「白雲洞紹修書院立規」·②「川谷書院院規」·③「伊山院規」·④「臨臯書院凡規」·⑤「文獻書院學規」·⑥「隱屏精舍學規」·⑦「隱屏精舍約束」·⑧「吳山書院學規」·⑨(臨臯書院)「書院規範」)의 내용을 다양한 주제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그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6호, 2018.)

7 「역동서원 원규」는 「이산원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8 『竹老集』卷2, 「院規」: 謹按易東院規, 出自先生之手, 至矣盡矣, 無復餘蘊. 今此新院之所當取法者, 不外乎斯. 「年譜」에 따르면 그는 1608년 경북 영덕에 禹倬을 모신 단산서원을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竹老集』卷4, 「年譜」: 三十六年戊申[公年三十三歲] 春, 上書方伯, 請于邑宰[盧景任], 創立祭酒禹先生書院, 院號丹山.) 1614에는 易東書院의 원규를 참고하여 단산서원의 원규를 제시하였다.(같은 책: 四十二年甲寅[公年三十九歲]. 就「易東書院院規」, 添十二條學令, 揭于丹院.)

9 『存齋集』卷19, 「政絃新譜·學校」: 學規用「白鹿洞規」及栗谷「隱屏學規」, 凡書院學規竝同.

10 『存齋集』卷18, 「家塾學規 甲戌」: 學規用「白鹿洞規」, 訓蒙節目用『童子須知』, 堂長掌議凡節一遵栗谷「隱

수 있는 것처럼 퇴계의 「이산원규」와 율곡의 「은병정사학규」는 각각 영남지역과 기호 지역의 학규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이산원규」에서 퇴계는 標題는 제시하지 않고 11개 항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1항에서 퇴계는 諸生들이 읽어야 할 책과 관련하여 “四書五經으로 본원을 삼고, 『小學』과 『家禮』로 문호를 삼는다”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史·子·集과 文章·科舉에 관한 공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內·外, 本·末, 輕·重, 緩·急의 차등을 둘 것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邪誕·妖異·淫僻한 서적들은 일체 접촉을 금하도록 했다. 2항과 3항에서는 諸生들의 학문하는 자세와 생활상의 규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4항에서는 成均館(明倫堂)의 사례를 참조하여 揭壁할 글들로 「四勿箴」(程子)·「白鹿洞規」·「十訓」(이상 朱子)·「夙興夜寐箴」(陳茂卿)을 지정하였다. 5항에서는 금기사항으로 서적의 반출, 여색의 출입, 술을 빚는 행위, 형벌을 가하는 행위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6항부터 11항까지는 서원의 인적 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6항은 有司와 上有司의 선정기준과 임기에 관해, 7항은 諸生과 有司 상호관계에 관해, 8항은 院屬 下人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9항은 지역 수령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항은 20세 이하 童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금하였고, 11항은 임시 수강생인 寓生은 성년과 미성년에 관계 없이, 또한 숫자의 제한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을 성취하면 정식 원생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sup>11</sup>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산원규」의 특징은 서원 운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학문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원에서 공부해야 할 책을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라든가, 제생들 상호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揭壁書를 제시한 것 그리고 서적의 반출과 여색의 출입 금지 등 학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들은 서원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서원에서 학규를 제정할 때 지역과 학파를 초월하여 중요한 참고체계로서 원용되었다.

퇴계의 「이산원규」에 비하면 율곡의 「은병정사학규」<sup>12</sup>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서원

屏規」.

11 『退溪集』 卷41, 「伊山院規」 참조.

12 이하 「은병정사학규」 관련 내용은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참.



운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은병정사학규」 역시 標題는 제시하지 않고 모두 22항에 이르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학규」에서는 먼저 인적 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항에서는 入齋할 諸生들의 자격 조건과 절차에 관해 언급하고, 2항에서는 堂長·掌議·有司·直月 등의 선정 조건과 임기 그리고 역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3항에서는 매월 삭망에 拜廟하는 절차에 관해 언급하였다. 4항부터 9항까지는 사제간 또는 선후배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청소와 정리 등 群居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0항에서는 언어를 조심할 것을 언급하면서 范沖의 좌우명에 제시된 七戒<sup>14</sup>를 揭壁할 것을 제시하였다. 11항에서는 읽어야 할 책을 제시하였는데, 특별히 책명을 제시하지는 않고 “聖賢의 글이나 性理에 관한 학설이 아니면 읽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예외적으로 史學에 관한 것은 괜찮지만 科擧를 위한 공부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적시하였다. 12항~18항는 다시 평소 공부할 때 유념해야 할 내용들, 예를 들면 “글씨를 반듯하게 쓰고, 벽이나 창문에 낙서하지 말라”(15항)거나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 글을 읽고, 밤이 늦은 뒤에 잠자리에 들라”(17항)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항에서는 혹시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지켰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20항에서는 直月이 제생들의 善惡籍을 관리하는 일에 관해 언급하였다. 21항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재적생 모두가 강론에 참석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22항에서는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養正齋<sup>15</sup>에서 居接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13 은병정사는 율곡이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1578년 妻鄉인 黃海道 海州 石潭에 건립한 곳이다. 이처럼 강학을 주된 목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비록 朱子와 靜庵·退溪를 모신 廟宇가 있다고는 해도 은병정사는 서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은병정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헌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제61집, 2019, 246~249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율곡이 제정한 「文憲書院學規」 역시 「은병정사학규」와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율곡의 후학들이 서원의 학규를 제정할 때 「은병정사학규」를 이론 없이 참고하는 것으로 볼 때 서원의 학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4 范沖의 座右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過惡,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15 養正齋에 관해 박균섭은 22항을 근거로 “土族보다 낮은 鄉族들을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양정재에 수용하고 인품이 취할 만한지 관찰했다”고 보았다.(박균섭, 「은병정사 연구: 학문과 학풍」, 『율곡학연구』 19권, 2009, 170쪽.) 하지만 「은병정사학규」 1항에도 養正齋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평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경우 곧바로 기존의 학생 그룹에 편입시키지 말고 그를 관찰할 수 있는 가까운 마을[또는 養正齋] 또는 山寺와 같은 유예 시설에 머물게 하여 편입시켜도 좋을지 관찰한 다음 입학을 허가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養正齋는 지원자를 관찰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은병정사학규」의 특징은 서원이 실질적 학문 공간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항과 2항에서 제시한 서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내용이나 4항~9항에서 제시한 단체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 12항~18항에서 제시한 평소 공부할 때 유념해야 할 내용 등은 모두 서원을 운영하고 서원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던 「이산원규」와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은병정사학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내용들로는 月朔 講會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과<sup>16</sup> 입학 예비생을 수용하는 養正齋라는 별도의 유예 시설을 두어 학생들의 수용 체계를 이원화하였다는 점이다.<sup>17</sup> 「은병정사학규」에서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 역시 이후 조선시대 서원의 학규에 지속적인 참고체계를 제공한다.

### III. 17세기 학규의 경향

「이산원규」와 「은병정사학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원의 학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는 밑그림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다듬고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 학규로서 이 두 작품에서 보완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享祀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18</sup> 이런 점에서 볼 때 寒岡 鄭述(1543-1620)의 「道東書院院規」(1604)<sup>19</sup>는 17세기 학규 가운데 우선 주목할 만하다.<sup>20</sup>

편입 유예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16 이에 관해서는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제33호, 2010, 62쪽.

17 편입 유예 시설 운영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寒岡이 제안한 養蒙齋에서도 발견된다. 養蒙齋에 관한 내용은 「道東書院院規」의 「引新進」 조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추측컨대, 「이산원규」에 享祀 조항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원규를 제작할 당시에는 이산서원에 아직 사당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사당은 퇴계 사후인 1572년에 세워져서 퇴계를 봉안하였다.) 「은병정사학규」에 享祀 조항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은병정사가 엄격한 의미의 서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율곡이 같은 시기에 제작한 「문헌서원학규」에는 「은병정사학규」에 없는 “春秋祭에 이유없이 불참한 자는 黜座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9 이하 「도동서원원규」 관련 내용은 『寒岡集』 續集卷4, 「院規[爲道東作]」 참고.

20 「도동서원원규」를 엄격한 의미에서 17세기 학규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

「도동서원원규」는 8개의 標題를 제시하고, 그 아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체계화된 방식을 채택하였다. 8개의 표제(하위 항목 개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謹享祀(2개항), 尊院長(2개항), 擇有司(1개항), 引新進(4개항), 定坐次(1개항), 勤講習(11개항), 禮賢士(1개항), 嚴禁防(5개항) 그리고 마지막에 修宇·點書·考廩·會計 등에 관한 내용은 盧侯(盧慶麟)의 규정을 따르면 되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附言이 있다.<sup>21</sup> 앞서 살펴본 「이산원규」나 「은병정사학규」와 구별되는 이 학규의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謹享祀’를 첫 번째 표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정 정도 「백운동서원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22</sup> ‘謹享祀’에서 한강은 향교의 향사와 서원의 향사 간의 질서를 논하면서, 서원 향사에 임하는 자세와 참석 의무(불참할 경우 벌칙), 그리고 매월 삭망에 분향재배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서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院長, 有司, 新進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아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sup>23</sup> ‘定坐次’ 조목은 “鄉中の ‘坐次’는 年齒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퇴계의 생각을 서원의 학풍을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한강이 학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sup>24</sup> 「도동서원원

도동서원원규」는 「川谷書院院規」를 대본으로 하여 도동서원의 실정에 맞게 원용하면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천곡서원원규」가 적어도 16세기 중반~후반에는 작성되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천곡서원은 성주목사였던 盧慶麟에 의해 1558년 迎鳳書院으로 건립되었다가 1566년 寒岡 등에 의해 천곡서원으로 개명되었는데, 건립 초기부터 이미 원규가 제정되어 있었고, 한강이 「도동서원원규」를 제정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도동서원원규」와 「천곡서원원규」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 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제60호, 2000, 130~131쪽에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천곡서원원규」가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동서원원규」가 그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하더라도 斟酌損益이 있었다면 당연히 「도동서원원규」가 제출된 시점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김지은은 「도동서원원규」를 분석하는 글에서 “「도동서원원규」는 이전에 정구가 지었던 「천곡서원원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김지은, 「한강 정구의 회연초당(檜淵草堂) 건립과 교육활동의 의미」, 『역사교육연구』 35권, 2019, 70쪽.) 「천곡서원원규」를 한강이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임근실은 『迎鳳志』(1559)를 노경린이 지은 것에 근거하여 수록된 「학규록」 역시 노경린의 작품으로 보았다.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6호, 2018, 160쪽.)

21 『寒岡集』續集卷4, 「院規[爲道東作]」: 如脩宇·點書·考廩·會計等條, 自有盧侯之規, 可以遵守, 今不復云. (이와 같은 附言을 통해서도 「도동서원원규」가 「천곡서원원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竹溪志』에 수록된 「백운동서원규」는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의 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도동서원원규」는 이 가운데 謹祀·禮賢는 특별히 표제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修宇·備廩·點書에 관해서는 盧侯의 규정에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백운동서원규」와 관련해서는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6호, 2018, 162쪽을 참고했다.)

23 도동서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 구성과 경제적 기반」(『사학연구』 제60호, 2000), 2장에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4 서원 역시 鄉禮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퇴계는 鄉中の ‘坐次’는 年齒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당

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勤講習’ 조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은 11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강은 퇴계가 「이산원규」에서 읽어야 할 책으로 제시한 四書五經과 史學·子·集을 채택하면서도 이를 공부할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즉, 사서오경 공부는 겨울부터 봄까지 하고, 사학·자·집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퇴계가 공부의 문호라고 했던 『가례』는 아예 빠졌고, 『소학』은 蒙養齋<sup>25</sup>에 소속된 학생들 교재로 배정하였다. 『가례』가 빠진 대신 『여씨향약』을 「백록동규」와 함께 서원의 학풍을 세우는 데 참고할 내용으로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백록동규」는 『禮記』의 ‘九容’과 함께 揭壁書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방 수령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禮賢士」에서는 원생들의 모범이 될 만한 지역의 훌륭한 인사들을 적극 초빙할 것을 원장의 소임으로 제안하고 있다. ‘嚴禁防」에서는 이단 서적이나 잡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들이지 말 것, 술을 빚거나 소를 잡지 말 것, 그리고 여종들이 공부하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강의 「도동서원원규」는 「백록동서원규」와 「이산원규」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서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보다는 약간 나중에 나온 市南 俞槩(1607-1664)의 「竹林書院節目」(17세기 중반)<sup>26</sup> 역시 앞선 학규들을 새롭게 보완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sup>27</sup>

총 9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진 「죽림서원절목」은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발견된다. 우선 ‘居齋」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재생들을 위해 식사는 물론 文房諸具 심지어 燈油까지 일체 지원해야 한다는 점

시 이에 관한 반발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우성,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鄉坐> 문제」, 『퇴계학보』 68권 1호, 1990 참조.

25 한강은 ‘引新進」 조목에서 20세 이하의 新學小兒들 또는 20세가 넘었더라도 원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예비 시설로 몽양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제54집, 2015, 211~212쪽 참조.

26 市南은 1653년을 전후하여 죽림서원의 전신인 黃山書院의 院長을 역임하면서 이 「절목」을 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경동, 「조선 후기 여산(驪山) 죽림서원(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권, 2019, 243쪽 참조.)

27 이하 「죽림서원절목」 관련 내용은 『市南集』 別集卷7, 「竹林書院節目[九節]」 참고.

과 거재생 이외에도 서책과 먹을 양식만 가지고 오면 거접할 수 있도록 반찬을 비롯한 나머지 물품은 서원에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생들 각자가 時讀하는 책 이외에 德性을 薰陶하고 志氣를 感發하기 위한 내용으로 詩와 禮를 적극 추천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詩經』의 「周南」·「召南」과 더불어 『小學』의 「明倫」을 아침에는 강론하고 저녁에는 외우도록 하였다. 특히 禮를 중시하여 春秋享祀를 위해 서원에 모이는 것을 「禮法之場」에 모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入齋해서도 『소학』과 『효경』을 공부하도록 하였고, 罷齋하는 날에는 鄉射禮나 鄉飲酒禮를 시행하도록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서원이 율곡과 우계 그리고 나중에 사계를 모신 기호 지역의 상징적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제정한 「이산원규」의 영향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숙흥야매잡」, 「경재잡」, 「사물잡」, 「백록동규」를 특정하여 游息할 때 講讀成誦하도록 한 것이나, 「여색은 들이지 말고 서적은 반출하지 말 것」을 「退翁이 門扃에 게시한 규범」이라며 엄격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1675년 明齋 尹拯(1629-1714)은 魯岡書院의 學規와 齋規를 제정했다.<sup>28</sup> 「노강서원학규」는 모두 2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院長과 掌議 및 有司 등의 선정 방식이나 매월 삭망의 사우 참배 그리고 재생의 생활규범 등 전반적으로 율곡의 「은병정사학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sup>29</sup>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노강서원재규」는 「학규」와 별도로 居齋讀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학규」와 「재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규」의 두 번째 항목에 제시된 독서목록과 독서방법에 관한 것이다. 「학규」에서는 『小學』·『家禮』와 『心經』·『近思錄』 그리고 四書와 六經을 순환하며 반복적으로 읽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기타 經·史·子·集類는 보조적인 공부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재규」에서는 이를 다시 3단계로 구분하여 더욱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한다. 즉, 『小學』·『家禮』·『心經』·『近思錄』 및 程·朱의 성리서를 읽는 것이 1단계이고, 四書三經을 읽는 것이 2단계이고, 史·子類를 읽는 것이 3단계이다. 이때 1단계는 通讀과 講論을 하고, 2단계는 익숙해지도록 背誦을 하며, 3단계는 형편에 따라 통독과

28 이하 「노강서원학규」 관련 내용은 『明齋遺稿』 卷30, 「魯岡書院齋規」 참고.

29 이해준에 따르면 「노강서원학규」는 현재 노강서원 강당에 2개의 현판으로 게시되어 있고, 成冊文書는 明齋古宅에 소장되어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준, 「노강서원(魯岡書院)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권, 2011, 162~163쪽 참조.) 이 글에서 언급하는 「노강서원학규」 저작 연대와 내용은 이해준의 조사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배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7세기 후반 가장 주목할 만한 학규는 1673년 南溪 朴世采(1631-1695)에 의해 제정된 「文會書院院規」이다.<sup>30</sup> 남계는 같은 해에 서원에 관한 朱子, 退溪, 栗谷, 牛溪의 설을 모아 서원의 본의와 폐단에 관하여 고증한 「書院考證」 3편(1, 2, 補)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南溪書堂學規」(1689)와 「紫雲書院院規」(1693)도 지었을 만큼 서원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sup>31</sup>

표제 없이 25개의 항목을 나열한 형태로 이루어진 「문회서원원규」의 가장 큰 특징은 남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퇴계와 율곡 이후 제출된 서원 학규의 종합편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sup>32</sup> 예를 들면, 1항과 2항에서 학자로서의 자세와 독서목록을 먼저 제시한 형식이나 11항에서 史·集類를 ‘博通’을 위해 열람하도록 한 표현 그리고 20항의 4가지 금기사항과 21항의 院屬下人에 관한 내용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산원규」의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한편 원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나 원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그리고 居齋와 在家에서 동일한 공부 패턴을 유지하라는 내용 등은 분명히 「은병정사학규」의 영향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서원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계가 활동했던 17세기 후반에는 祠宇나 鄉賢祠로 불려야 마땅할 시설도 서원으로 불리면서 서원과 混淆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sup>33</sup>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계는 서원의 본질이 講學이라는 점을 「문회서원원규」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8항에서 “이 서원은 본래 講堂으로 주를 삼는다”고 명시한 것이라든가, 24항에서 “선현들이 鄉學 이외에 서원을 기필코 세우고자 한 것은 향학에는 科擧와 筭式의 번잡함이 있어서 강학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서원의 강당에서 擧業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서원의 기능이 享祀를 위주로 하는 세태에 대하여 강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서원의 존재 이유를 환기하는 조치로서, 서원을 건립

30 이하 「문회서원원규」 관련 내용은 『南溪集』 卷65, 「文會書院院規 癸丑」 참고.

31 남계의 서원 교육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종배, 「남계 박세채의 서원교육 사상과 실천」, 『교육사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4 참조.

32 남계는 「문회서원학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晦菴先生設教白鹿, 只曰「揭示」而已, 蓋以學之有規, 爲猶未盡者也. 然其後退·栗諸賢又必因名而責實, 爲伊山·文憲等「院規」, 今謹略倣而并採之, 以成此規.”

33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95쪽.

하던 초창기에 향사의 전범을 일깨우고자 노력했던 시도와 비교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결국 18세기 서원에서 적극적으로 講會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특징은 강학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산원규」나 「은병정사학규」 등에서 두루뭉술하게 제시한 독서목록을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항에서 四書五經과 『小學』·『家禮』는 원칙적으로 강습해야 한다고 못박은 다음 諸經(『周禮』·『儀禮』·『孝經』 등), 諸書(『近思錄』·『心經』·『性理大全』 등), 諸史(『春秋』三傳·『資治通鑑綱目』 등) 그리고 性理書(『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 등)는 모두 “道學의 本原이고 性理의 淵藪이므로 강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는 매월 삭망에 사당에 가서 분향하고 배례를 올리던 것에서 끝났던 의식에 「문화서원원규」는 강당으로 옮겨 와 庭揖禮를 행하고 강당에 올라 「白鹿洞教條」·『學校模範』 전체와 『小學』·四書·『近思錄』·『聖學輯要』 가운데 선정한 글을 通讀하는 절차를 첨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에 제출된 서원 학규는 대체로 앞선 시기의 학규들이 제시한 원칙과 방향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수정·보완의 과정을 밟아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6세기가 서원 학규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17세기는 서원 학규를 다양화하고 구체화하면서 발전적 개선을 모색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IV. 18세기 학규의 경향

18세기에 접어들면 서원 학규에 이전 시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講會에 대한 관심과 시행이다.<sup>34</sup> 17세기 후반부터 換局과 伸冤이 반복되는 붕당정치와 연계되면서 서원의 남설과 첩설은 본격화되었고,<sup>35</sup> 이로 인

34 박종배는 “16~17세기의 서원 교육은 거재독서를 중심으로 강회가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면, 18~19세기의 서원 교육은 강회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추세적 변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참조.)

해 서원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향사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은 앞서 살펴본 남계의 「문회서원원규」에서 서원을 설립한 본의가 강학에 있음을 확인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18세기에 들어서면 그것이 강회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활발한 전개로 연결된다.<sup>36</sup>

18세기 초에 儉齋 金樸(1653-1719)의 「九峯書院院規」(미상)<sup>37</sup>와 克齋 申益愷(1672-1722)의 「觀善齋學規」(1709)이 제정되었다. 먼저, 「구봉서원원규」<sup>38</sup>는 표제 없이 22개의 항목이 나열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와 남계의 「자운서원원규」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항에서 이곳이 남계의 丘墓가 있는 곳임을 상기시키면서 남계의 『心學旨訣』을 숙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정도로 18세기의 특징은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하면 <學規>와 별도로 <講法>을 제시하고 있는 「관선재학규」<sup>39</sup>는 18세기의 특징이 약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규>에는 13개 항목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강법>은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제하면서 독서를 할 때 유념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학규>는 전반적으로 「은병정사학규」의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매월 삭망에 진행한 강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법>은 한강의 「講法」<sup>40</sup>에 준하되 탄력적으로 수정을 가했다.<sup>41</sup> 특히 한강의 「강법」과 「통독회의」는 현존하는 서원 학규류 규정 가운데 처음으로 ‘講會’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sup>42</sup> 「관선재학규」 역시 주목할 만하다.

18세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학규는 陶菴 李緯(1680-1746)의 「深谷書院學規」(1737)이다.<sup>43</sup> 도암은 이밖에도 「忠烈書院學規」와 「道基

3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제181집, 2004, 69쪽.

36 조성산은 “당시 서원이 문중서원화되고 제례 중심의 사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부정적인 면을 보였지만, 그와 별개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지식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조성산, 「18세기 후반 石室書院과 지식·지식인의 재생산」, 『역사와 담론』 제66집, 2013, 172쪽.) 18세기에 강회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상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7 「九峯書院院規」의 제정 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저자인 儉齋 金樸의 주도로 1696년(숙종 22)에 세워지고, 이듬해인 1697년(숙종 23) ‘九峯’이라고 사액된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儉齋가 請額하는 「代九峯書院儒生請額疏」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규」의 제정 시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38 이하 「구봉서원원규」 관련 내용은 『儉齋集』 卷29, 「九峯書院院規」 참고.

39 이하 「관선재학규」 관련 내용은 『克齋集』 卷6, 「觀善齋學規」 참고.

40 『寒岡集』 續集卷4, 「講法」 참고.

41 『克齋集』 卷12, 「家狀」: 嘗倣鄭文穆公學規, 設月朔會講之法於仲兄書堂, 卽所謂觀善齋也.

42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64쪽.



書院學規」도 남겼으나 모두 「심곡서원학규」를 따르고 있다. 「심곡서원학규」의 형식상 특징은 다른 학규들과 다르게 서원의 학생들은 서원에 모신 선현(靜庵 趙光祖)의 사상에 부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취지의 ‘서설’을 먼저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이는 충렬서원(鄭夢周)과 도기서원(金長生)도 마찬가지다.) 학규의 내용은 표제 없이 총 18개의 항목을 나열되어 있는데, 내용상 가장 큰 특징은 4항에서 서원의 설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암은 “서원은 본래 선비들이 群居하면서 講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요즘 서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저 봄가을로 享祀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서원이 단지 선현에게 향사하는 곳이 되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sup>44</sup> 그리고 7항~10항에 걸쳐 매월 초하루에 강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13항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마지막 달에 그동안의 성적을 총합하여 상과 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도암의 강학과 관련하여 「심곡서원학규」의 내용은 다소 소략하다는 느낌을 준다. 기실 도암이 전개한 강학은 寒泉精舍를 통해 이루어졌으며,<sup>45</sup> 그 구체적인 내용은 「龍仁鄉塾節目」<sup>46</sup>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sup>47</sup>

같은 측면에서 訥隱 李光庭(1674-1756)의 「居齋節目」(1746) 역시 주목할 만한 학규이다.<sup>48</sup> 같은 해에 「三溪書院居齋勸諭文[丙寅]」(이하 「거재권유문」)을 지은 것으로 보아 「거재절목」은 三溪書院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거재권유문」에 따르면 그는 講習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여 내용의 의미를 깊이 궁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講討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오직 여러 책에 충분히 관통하고 자신에게 돌이켜 체험하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비로소 얻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그리고 「거재절목」에 그

43 이하 「심곡서원학규」 관련 내용은 『陶菴集』 卷25, 「深谷書院院規」 참고.

44 『陶菴集』 卷25, 「深谷書院院規」: “書院本爲士子羣居講學而設, 而近來游書院者, 但以春秋參祀爲重, 故書院只爲先賢享祀之所, 有其名而無其實.” 당시 서원에 대한 도암의 비판은 道峯書院 院任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서원에서 글을 읽지 않으면 서원이 없으니만 못하다”고 말한다.(같은 책 卷25, 「諭道峰院任」: “有書院而不讀書, 則不如無書院.”)

45 寒泉精舍에서 이루어진 講學에 관해서는 崔誠桓, 「朝鮮後期 李穡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教育」, 『역사교육』 77권, 2001, 79~86쪽 참조.

46 『陶菴集』 卷25, 「龍仁鄉塾節目」 참조.

47 박종배는 「용인향숙절목」의 ‘용인향숙’이 곧 ‘한천정사’일 것으로 추측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70쪽, 각주29 참조.

48 이하 「거재절목」 관련 내용은 『訥隱集』 卷25, 「居齋節目」과 卷5, 「三溪書院居齋勸諭文[丙寅]」 참고.

49 『訥隱集』 卷25, 「居齋節目」과 卷5, 「三溪書院居齋勸諭文[丙寅]」: 第緣士友仝集, 徒致膠擾, 未免有講習不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인원이 많으면 대충 진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제하는 인원은 10명(관자 8인, 동자 2인)으로 정하고, 매달 2회에 걸쳐 15일 동안 배운 글을 背講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을 마치고 나면 『근사록』·『심경』·『소학』·『가례』·『대학연의』 등을 通讀하도록 하였다. 「거제권유문」에 따르면 이렇게 매달 진행하는 강은 面訓長이 담당하고, 四孟月(1월·4월·7월·10월) 초하루에는 면훈장이 각각 담당한 제생들을 이끌고 서원에 모여 山長 또는 都訓長의 주재하에 『근사록』, 經書, 『대학연의』 순서로 통독을 하도록 하였다.

1766년 작성된 屏溪 尹鳳九(1683-1767)의 「老江書院講學規目」<sup>50</sup>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講會의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당시 강회에 대한 수요가 이런 規目的 제정을 필요로 할 만큼 많았음을 보여준다. 병제는 「老江書院講學規目」(이하 「규목」)에서 “서원은 선비들이 藏修하면서 講學하는 곳인데 후세에는 이 점에 관해 까마득하게 망각하여 매양 개탄하였다”는 말로 시작한다.<sup>51</sup> 「규목」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삭·망) 강회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사림의 신망이 있는 2인을 講長으로 청하고, 필요할 경우 고을 수령 가운데 搢紳講長을 특별히 청할 수도 있다. 해당 고을에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대부 자제들을 대상으로 講案을 작성하되 이웃 고을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하도록 하였다. 또한 ‘講學之會’는 다른 사안과 다르므로 서얼 가운데서 걸출한 인재가 있다면 참여를 허락하되, 강안의 마지막에 기입하고 당일 앉는 자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말석에 앉도록 하였다. 「규목」은 강회의 진행과 관련한 순서와 방법을 齋任과 講長 그리고 講生의 동선까지 곁들여서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講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장과 강생 사이에 오간 講說을 기록으로 남기는 장면도 주목할 만하다. 諸生 중에서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는 사람을 講會色掌으로 선정하여 강장과 강생 사이에 오간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강을 하는 과정에서 강장이 강생에게 文義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강생이 강장에게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문답을 주고 받으며, 좌중에 누구도 質難한 사람이 없어야 다음 글로 넘어갈 수 있다. 講會色掌은 이렇게 오간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

專之歎. 如欲貫通首末, 深究旨義, 莫如各就所居之里, 私相講討, 爲專而有得. …… 勿限歲月, 惟以淹貫羣書反身體驗爲心, 方始親切有得.

50 이하 「노강서원강학규목」 관련 내용은 『屏溪集』 卷34, 「老江書院講學規目[丙戌]」 참고.

51 『屏溪集』 卷34, 「老江書院講學規目[丙戌]」: 書院本爲士子藏修講學之所, 後來於此全然昧昧, 每切慨然.

이 끝나면 이를 강장과 강생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원장에게 보내지고 관련 내용에 대해 往復質難한 다음 『院中故事』로 만들어서 서원에 비치한다. 「규목」에 따르면 강을 할 책으로는 程朱成法에 준하여 『小學』과 四書부터 강을 시작해서 五經에까지 이르는 순서로 진행하며, 그 사이에 『가례』·『심경』·『근사록』·『주자서절요』·『성학집요』을 넣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책이 끝나기 전에 다른 책을 끼워넣지 말아야 하고, 정해진 부분에 대한 강의 끝나면 다음 번에 강할 범위를 정하되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다음 번 강의 범위는 각각 강당에 게시한다. 그리고 확정된 범위의 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외우고 이해한 상태에 다음 강에 임해야 한다. 齋任은 강회의 주인으로서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강을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미리 충분히 준비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溪湖 金元行(1702-1772)의 「石室書院學規」와 「講規」 그리고 「講規」에 부록된 「講儀」 역시 주목할 만하다.<sup>52</sup> “서원이란 본래 강학을 위해 설립되었다. 선비가 강학을 하지 않으면 선비라 말할 수 없다”<sup>53</sup>고 천명한 「諭石室書院講生」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호는 강학을 서원의 존재 이유로 보았다. 미호의 관련 작품으로는 「학규」보다 「강규」와 「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규」는 표제 없이 21개 항목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은병정사학규」를 준용하고 있어서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에 비해 「강규」와 「강의」는 잠시 끊어졌던 석실서원의 講風을 다시 진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주목할 만하다.<sup>54</sup>

총 14조목으로 이루어진 「강규」는 강회를 구성하는 제반 조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항: 講事는 원장과 강장이 주재한다. 2항: 講案은 참가자들이 상의하여 작성하되, 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3항: 所講書

52 이하 「석실서원학규」와 「강규」 관련 내용은 『溪湖集』 卷14, 「石室書院學規」; 「石室書院講規」(講儀附) 참고.

53 『溪湖集』 卷14, 「諭石室書院講生」: 書院, 本爲講學而設, 士不講學, 不足謂之士矣.

54 석실서원은 1656년 仙源 金尙容(1561-1637)·淸陰 金尙憲(1570-1652)을 모신 충절서원으로 출발하였으나 1695년부터 農巖 金昌協(1651-1708)이 그의 아우 三淵 金昌翁(1653-1722)과 함께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면서 강학서원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석실서원의 강학은 이들 형제 사후에 소론 집권에 의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그 명맥이 끊어졌다.(농암의 석실서원 강학 활동에 관해서는 김자운,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농암 김창협」의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권, 2020 참조.)

는 『소학』—『대학』(『혹문』포함)—『논어』—『맹자』—『중용』—『심경』—『근사록』 순으로 하고, 나중에 諸經에 미치도록 한다. 4항: 每月講會를 16일로 고정하되 사정이 생겨서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院任이 사전에 응강생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5항: 강을 할 책을 응강생 숫자에 맞춰 분배하고 숫자에 맞게 紙[性]를 준비한 다음 뽑은 紙에 적힌 대로 나이순으로 응강한다. 6항: 30세 이상은 臨講, 이하는 背講하며, 연로하여 응강하지 않는 사람도 청강을 허락하되 答問討論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7항: 혹시 사정이 생겨서 闕參하였다면 다음 달에 강을 할 때 강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한다. 8항: 강안에 추가로 기입한 사람의 所講書도 원래의 순서에 따르되, 모든 편을 다 강할 필요는 없고 뽑은 紙에 따라 한다. 9항: 강할 분량을 정할 때 적당하게 하되 기일이 짧으면 분량을 줄이도록 하며, 강을 마치고 나면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서로 반복 토론한다. 10항: 강을 마친 다음에는 直月로 하여금 「백록동규」와 『學校模範』 등을 강회 때마다 순차적으로 읽게 하고, 여력이 있으면 당일에 강한 글이 아닐지라도 질의하도록 한다. 11항: 제생 가운데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는 사람을 直月로 선정하며, 강회 때마다 원장과 강장이 불참하였더라도 제생들 간에 문답한 내용이 義理에 관계된 것이라면 직월에게 기록하게 하여 1통을 원장과 강장에게 보내고 답변 내용을 서원에 보관한다. 12항: 강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달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의심난 부분을 기록하여 원장과 강장에게 올리고(원장이나 강장의 답이 있다면 질문자에 보낸 다음 서원에 보관한다), 강에 참여한 사람도 미리 질문할 내용을 준비해두었다가 강을 마친 다음 會中에 질문할 수 있다. 13항: 강안에 기입된 사람이 강에 나오지 않을 때는 單子를 올린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않으면 會中에 面戒를 하고, 두 번 참여하지 않으면 黜座시키고, 만일 강학에 의사가 없어서 전연히 강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안에서 삭제한다. 14항: 매 강마다 참석자의 성명을 써서 1부는 서원에 비치하고 1부는 원장과 강장에게 보낸다.(원장과 강장이 강회에 나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서원의 학규는 당시 서원이 처한 상황이 그 이전 시기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서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회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당시 제출된 대부분의 학규가 서원의 본질을 물으면서, 강회의 내용을 보장하거나 아예 강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부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

를 잘 보여준다.

## V. 결론

## 【참고문헌】

金元行, 『漢湖集』  
金樛, 『儉齋集』  
申益愧, 『克齋集』  
申活, 『竹老集』  
魏伯珪, 『存齋集』  
俞榮, 『市南集』  
尹鳳九, 『屏溪集』  
尹拯, 『明齋遺稿』  
李光庭, 『訥隱集』  
李珥, 『栗谷全書』  
李穡, 『陶菴集』  
李滉, 『退溪集』  
鄭述, 『寒岡集』

- 윤희면, 『조선시대의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김자운,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농암 김창협외의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권, 한국서원학회, 2020.  
김지은, 「한강 정구의 회연초당(檜淵草堂) 건립과 교육활동의 의미」, 『역사교육연구』 35권, 한국역사교육학회, 2019.  
김해용, 「학규(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근섭, 「은병정사 연구: 학문과 학풍」, 『울곡학연구』 19권, 울곡연구원, 2009.  
박종배, 「조선시대의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_\_\_\_\_,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교육사학회, 2009.  
\_\_\_\_\_,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제33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_\_\_\_\_, 「남계 박세채의 서원교육 사상과 실천」, 『교육사학연구』 제24집 제2호, 교육사

- 학회, 201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제181집, 역사학회, 2004.
-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제61집, 한국사상사학회, 2019.
- \_\_\_\_\_, 「조선후기 여산(驪山) 죽림서원(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권, 한국서원학회, 2019, 243쪽.
-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 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제60호, 한국사학회, 2000.
- \_\_\_\_\_,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제54집, 역사교육학회, 2015.
- 李佑成,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鄉坐> 문제」, 『퇴계학보』 68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90.
- 이해준, 「노강서원(魯岡書院)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권, 한국서원학회, 2011.
-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6호, 한국서원학회, 2018.
- 조성산, 「18세기 후반 石室書院과 지식·지식인의 재생산」, 『역사와 담론』 제66집, 호서사학회, 2013.
- 丁淳睦,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인문연구』 8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 崔誠桓, 「朝鮮後期 李縉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教育」, 『역사교육』 77권,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16~18세기) 경향」에 대한 토론

박 중 배(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선 2006년 이후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의 교육과 운영에 대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에 대한 수집·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서원 학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재훈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16세기의 대표 학규로 퇴계의 「이산원규」(1559)와 율곡의 「은병정사학규」(1578)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이들 학규를 조선시대 서원 학규[서원교육및운영]의 밑그림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토론자 또한 조선시대의 서원 학규, 나아가 전체 서원교육에서 두 학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심분 공감하며, 두 학규의 특징에 대한 한 선생님의 분석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서원 내에서의 과거 공부에 대한 두 학규의 입장이 각각 본말론[이산원규-일부 허용]과 배제론[은병정사학규-원천 불허]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의 후대 서원교육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17세기의 대표 학규로 한강 정구의 「도동서원원규」(1604)와 시남 유계의 「죽림서원절목」(17세기 중반), 명재 윤증의 노강서원 학규와 재규(1675), 남계 박세채의 「문회서원 원규」(1673) 등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17세기 들어 서원 학규가 그 형식 및 내용 면에서 다양화·구체화하며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토론자 또한 이전에 서원 학규들에 대해 수집·정리의 과정에서 17세기에 이루어진 서원 학규상의 변화와 발전에 똑같이 주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17세기가 한편으로는 서원의 남설(濫設)이 분

격화하면서 서원이 본래의 장수강학 기능보다 정치사회적 기능에 경도되어 가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의 학규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서원 본래의 강학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애썼던 몇몇 특별한 사례들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서원 학규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속에서 특정한 개별 사례들의 위치와 의미를 보려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서원 학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회(講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그 특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김재 김유의 「구봉서원원규」(미상), 극재 신익황의 「관선재학규」(1709), 도암 이재의 「심곡서원학규」(1737), 눌은 이광정의 「삼계서원거재절목」(1746), 병계 윤봉구의 「노강서원강학규목」(1766), 미호 김원행의 「심곡서원학규」(부록 「강규」, 「강의」) 등등 서원의 본질적 기능인 강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서원들의 학규에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강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토론자 또한 18세기는 서원 강학 운동의 시기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강학 활동이 전국의 많은 서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8세기 이후 서원 강학 기능의 회복이 과연 무엇을 배경으로 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윤희면 교수께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학교정책, 즉 조현명의 「권학절목」(1732)을 지목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정의 「삼계서원거재권유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유사[塾師]-면훈장-도훈장 등 권학절목 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원 강학 진흥 방안으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광정이 조현명의 초빙으로 안동부 도훈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권학절목 체제와 유사하게 이루어진 삼계서원의 강학 활동은 다소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학절목」의 영향을 강조하면 서원의 강학 기능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자칫 관 주도의 운동이거나 관변의 동원형(mobilization model) 정책의 결과물로 오인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18세기 서원 강학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각도에서의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조선시대 서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 학규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함께 그 제한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토론지는 학규에 나타난 서원교육은 그 성격상 이념과 실제의 중간형쯤에 해당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못되겠습니다만, 학규의 자료적 가치와 제한점에 대한 저 나름의 고민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가치는 충분히 살리고 제한점은 보완해야겠는데, 보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집(文集)이나 일기(日記) 자료에 나타난 개인의 서원에서의 수학(修學) 경험, 그리고 강회록(講會錄)이나 강회일기(講會日記) 등의 강학 관련 자료에 묘사된 서원 강학의 실제와 같은 것들을 통한 교차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서원 학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모저모에 대해 좀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

羅 琴(湖南大學嶽麓書院)

中國書院有講學、藏書、祭祀、研究、刻書等功能，“書院本”也因其精校、精刻、易行之“三善”，被以顧炎武為代表的讀書人推崇。吳國武先生以《書林清話》為中心考察書院刻書，認為：

廣義的“書院本”當指以“書院”為名刊刻之書籍。既包括真正的講學書院……也包括私宅家塾性質的書院……還包括書坊性質的書院……這種廣義的“書院本”，除了“書院”之名相同外，缺乏共同的版刻特徵。在現存的廣義“書院本”中，私宅書坊所刻占去一半以上，刻印精良、行格疏朗的官刻數量比較有限。

狹義的“書院本”，則特指真正的講學書院所刊刻的書籍，而以“書院”為名的私宅、書坊不在此列。<sup>1</sup>

而鄧洪波先生研究書院，一直採用廣義概念，凡有“書院”之名，不管是唐代作為修書機構的“集賢書院”，還是清末的教會書院，均納入研究範疇<sup>2</sup>。為便於統計，收集更多資料，避免因為知識欠缺導致的錯誤甄別，本次研究以廣義書院本為主。通過觀察中國與日本現存書院本的聯繫，一窺中國書院本在東亞（主要是日本朝鮮）的流傳與影響。

據《中國古籍總目》著錄，中國現存較早書院本應該是宋嘉定十七年(1224)白鷺洲書院刻《漢書》，宋代另有環溪書院、龍山書院、天香書院、建安書院刻本存世，元代有建安書院、宗文書院、古迂書院、東山書院、圓沙書院、梅溪書院、西湖書院、武溪書院、南山書院、雪窓書院、蘄江書院、日新書院、圭山書院、屏山書院、豫章書院等刻本傳世，至於明清，則更多。以上這些書院，自然是廣義狹義書院均有，包括講學性質書院、私宅家塾性質

1 吳國武《宋元書院本雜考》——以〈書林清話〉著錄為中心，湖南大學學報，2011年第6期，第28頁。

2 鄧洪波《中國書院史》，台灣大學出版中心，2005。

書院、書坊性質書院，所刊刻的圖書，則四部皆涉及，而刊本性質則涵蓋了官刻、坊刻、私刻多種類型。因此，雖然書院本名義上只是中國刻本中的一個小品類，但不管是從版刻類型，還是時間空間分佈上，它都是中國刻本的一個縮影，一定程度上可以代表中國刻本的時空流變特點。

中國與東亞各國之間的書籍交流其來已久，東亞漢字文化圈也存在過多個世紀，即便現在，也能從各國留存在漢籍中，找到諸多印證。具體到書院本而言，大約在東亞產生過如下影響：

其一，書院本為載體之一，將中國四部各類圖書傳播至東亞各國，既包括經學家法，也包括史料史法、各家思想、文章大義、學術學派等等。比如南宋以後，朱學日益興盛，從《四書》的刊刻（如宋龍山書院刻《論語》）到朱子文集的刊刻（如宋咸淳元年（1265）建寧建安書院刻《晦庵先生朱文公文集》）等，中國書院尤其是明清時代，很多是朱學重鎮，受此影響，江戶日本和同時期朝鮮，朱學亦甚發達，出現李滉、林羅山等朱學大儒。

其二，書院刻書，不僅傳播具體學派思想、知識體系，更在制度層面對東亞各國產生一定的影響。比如中國的官僚體系、科舉制度對朝鮮的影響，書院制度在朝鮮的流布，包括朝鮮書院也是集講學、研究、祭祀、藏書、修書、刻書等多種功能為一體。

其三，作為東亞漢字文化圈傳播途徑的一環，書院刻書最終也為東亞漢字文化圈的形成，貢獻過自己的一份力量。

以上為書院刻本在文化、思想、制度層面上籠統而言的影響，以下筆者試圖從刻書史的視角，考察中國書院本在東亞的流傳與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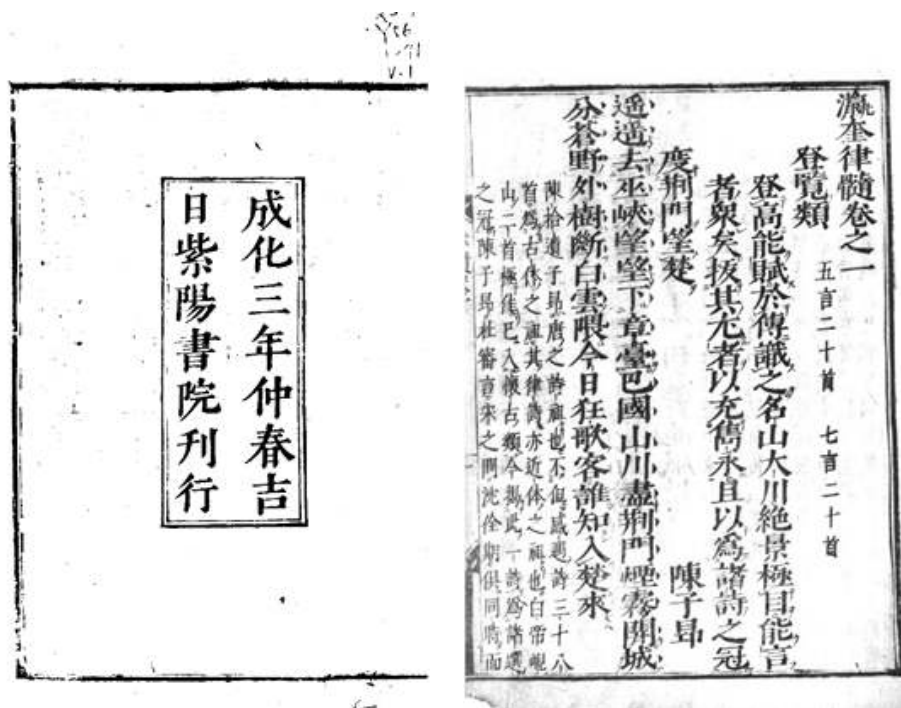
其一，中國書院本流傳至東亞各國，為東亞各國翻刻、重編提供底本。據《李朝書院文庫目錄》，陶山書院、玉山書院、屏山書院、紹修書院等，不僅收藏朝鮮學者的漢文著述，如朝鮮李德弘《艮齋集》（朝鮮英祖四十二年（1766）刻本），也收藏中國學者著述，如元熊忠撰《古今韻會舉要》（朝鮮中宗至仁祖年間刻本）；不僅收藏朝鮮的木刻本、活字本，也收藏中國刻本、鈔本<sup>3</sup>。一些在中國本土已經亡佚或是缺乏早期版本的典籍，如今在日本或朝鮮半島反而保存完好，清末楊守敬、黎庶昌等已經意識到，編輯刊印《古逸叢書》，今之中國學者如張伯偉、陳正宏、金程宇等也對此多有關注。可見當年流傳至東亞各國的漢文典籍數量之夥，而這些典籍無疑也成為東亞各國翻刻之底本。如方回撰《羸奎律髓》有明成化三年紫陽

3（韓）李春熙《李朝書院文庫目錄》，大韓民國國會圖書館，1969。

書院刻本，為寫刻本字體，後日本寬文十一年(1671)京都村上平樂寺翻刻明成化三年(1467)紫陽書院本，內容沿襲紫陽書院本，但字體已經變為日本江戶時代之方體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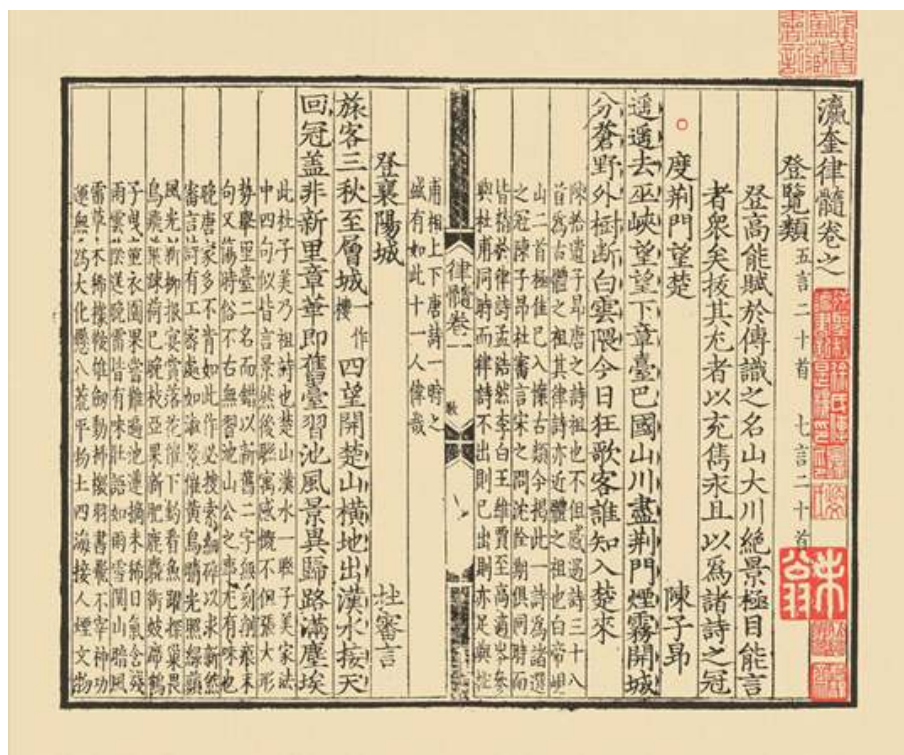
中國本原書還成為東亞各國增刪、註釋等的底本，如《朱子書節要》二十卷附《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一卷，朝鮮英祖十九年(1743)陶山書院刻本，此書為李滉節錄朱子原書而成，李滉序云：

顧其篇帙浩穰，未易究觀，兼所載弟子之問，或不免有得有失。滉之愚，竊不自揆，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表而出之，不拘篇章，惟務得要，乃屬諸友之善書者及子姪輩分卷寫訖，凡得十四卷，為七冊，蓋視其本書所減殆三之二，僭妄之罪，無所逃焉。<sup>4</sup>



圖一：《瀛奎律髓》牌記(上左)、卷一葉一(上右)，日本寬文十一年(1671)京都村上平樂寺翻刻明成化三年(1467)紫陽書院本

4 (宋)朱熹撰(朝鮮)李滉節錄《朱子書節要》卷首，朝鮮英祖十九年(1743)陶山書院陶山書院刻本。



圖二：《藏奎律髓》卷一葉一，《中華再造善本》影印明成化三年(1467)紫陽書院刻本(下)

其二，中國本對日本本、朝鮮本的影響，不僅見於內容，也深刻影響了東亞各國的圖書形制。比如日本、朝鮮、越南都普遍使用雕版印刷、活字印刷的方式刊印書籍，而這些技術無疑由中國傳入。版片方面，雖然大小上有差別，但都用翻刻文字方式上板，皆為長方形版片。雖然裝訂線粗細有別，但日本、朝鮮都普遍用線裝方式裝訂書籍，皆用單面印刷方式，版心向外對折，組成一葉書葉。有板框、版心、欄線，有魚尾、黑口白口等，各本普遍使用漢字。朝鮮本開本寬大，字體有明代內府本風格，這是受明代內府刻書之影響，朝鮮本直到清後期都部份保留了這一風格。朝鮮本版心喜歡用花魚尾裝飾，但此花魚尾並非毫無由來，在元代福建地區刻書正文中，就已經出現花魚尾來分割前後內容。再比如，日本五山版、朝鮮翻刻中國宋元本，其覆刻精細程度，有時甚至會讓版本學家難以區分。復旦圖書館藏《山谷外集詩注》十七卷，王同愈手跋鑒定為宋本，實為朝鮮翻刻本。一則字體似宋本，二則高麗皮紙與宋代皮紙有相似之處，然年代久遠，難以辨認。日本、朝鮮其他一些翻刻，有時也難以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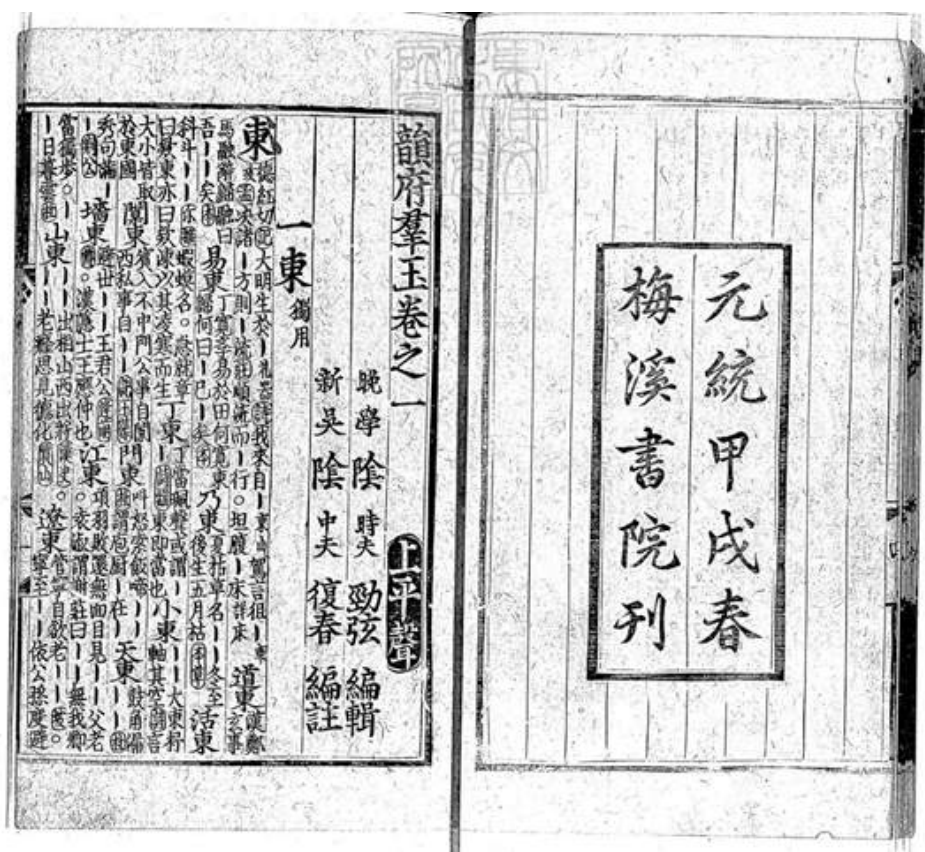


圖三：《朱子書節要》卷一葉一，朝鮮英祖十九年(1743) 陶山書院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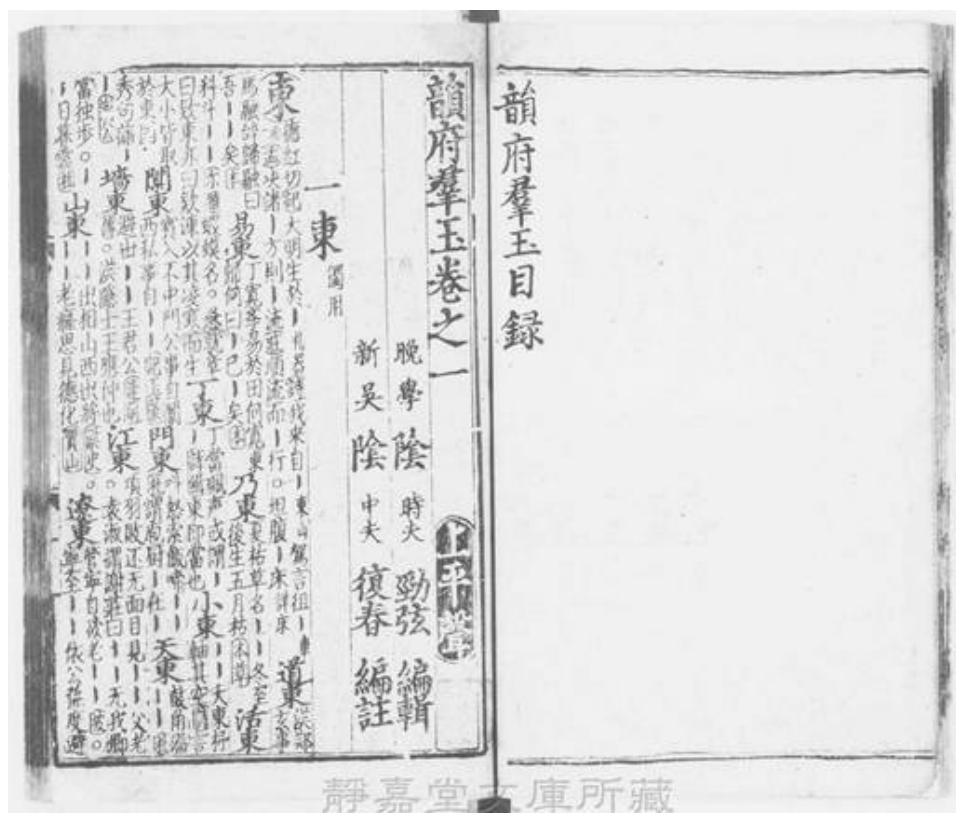
筆者曾經在成都書店見過一部日本翻刻之明嘉靖本《南華真經》，粗看為比較典型的明嘉靖蘇州方體字，紙張稍薄，但也和嘉靖白棉紙有幾分相似，後經反復對比，才確認是日本覆刻本。

再如今藏東京大學的《韻府群玉》為朝鮮翻刻元元統二年(1334) 梅溪書院刻本，《韻府群玉》一書因為韻書，需求量大，在日本流傳較廣，如靜嘉堂文庫還藏有《新增說文韻府群玉》，元清江書堂刻本；早稻田大學藏《新增說文韻府群玉》，明弘治七年(1494) 劉氏安正書堂刻本。對比朝鮮本對中國元統二年梅溪書院本的翻刻，基本可以算覆刻，不僅序跋、牌記、內容、板式、行款等照刻，就連字體也照刻，其字體為典型的元代至明初福建地區字

體，特點是起筆有鉤子一般的彎曲，尤其見於點畫、豎劃的起筆。



圖四：《韻府羣玉》牌記及卷一葉一，朝鮮翻刻元元統二年(1334)梅溪書院刻本，日本東京大學藏(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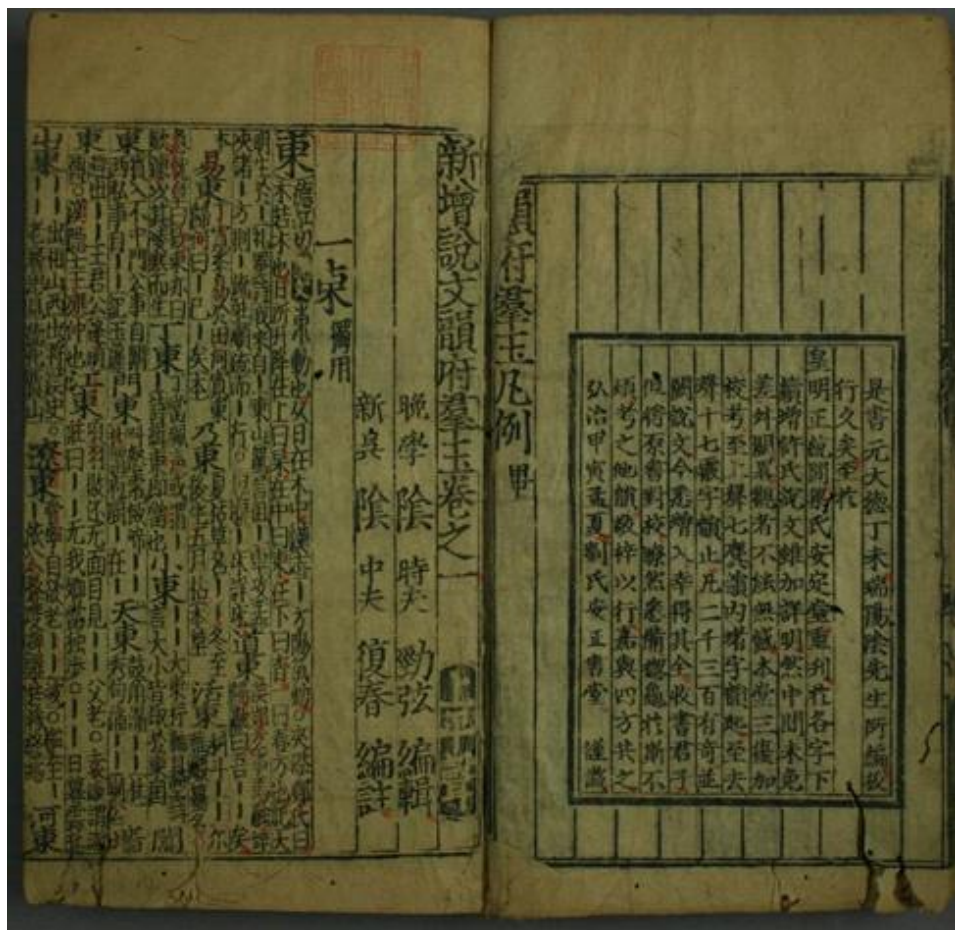
圖五：《韻府羣玉》牌記及卷一葉一，元刻本，日本靜嘉堂文庫藏(中)



圖六：《韻府羣玉》牌記及卷一葉一，明弘治七年(1494)劉氏安正書堂刻本，日本早稻田大學藏(下)

中國本的版刻字體，對日本朝鮮也有影響。以日本本為例，江戶時代流行的方體字，和萬曆字體有相似之處。據說這種字體在日本的流行，與萬曆刻《嘉興藏》在日本的傳播有關。<sup>5</sup>以日本內閣文庫藏《崇正書院翻刻馮貞白先生求是編》為例，此書底本為萬曆間崇正書院翻刻本，日本慶安三年(1650)翻刻。此本字體為江戶早期日本本樣貌，方體字，字體粗長方，筆劃橫細豎粗，具備萬曆字體的部分特征。

5 此種說法，多年前聽華東師範大學韓進老師提及。



圖七：《崇正書院翻刻馮貞白先生求是編》，日本安慶三年(1650)翻刻崇正書院翻刻本，日本內閣文庫藏(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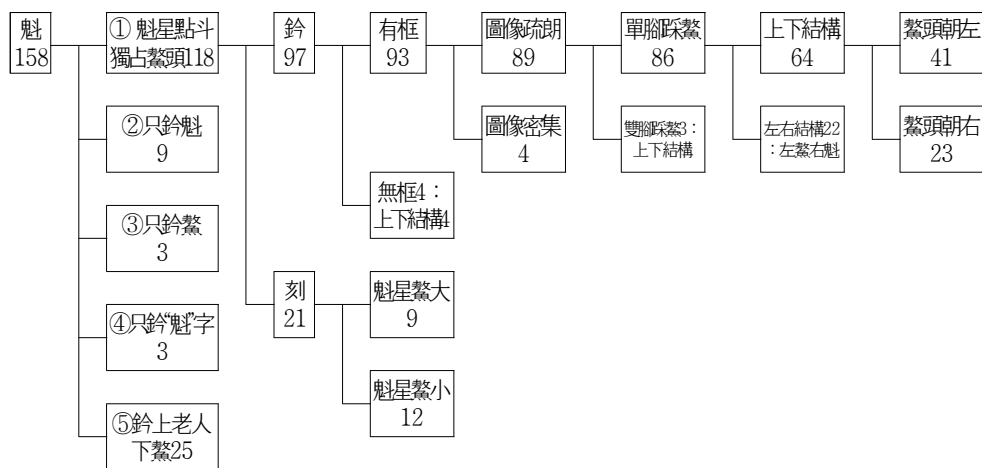




圖八：《孟子》，明萬曆四十五年(1617) 閩氏朱墨套印本(右)

中國本對東亞刻書的影響，還體現在諸多方面，比如內封上鈐蓋的發兌章中的圖像章，在明末的中國本上出現，其中一個圖案是“魁星點斗，獨佔鰲頭”，這種形式被江戶時代的日本刻本繼承，並最終發展出十餘個變種。比較傳統的“魁星點斗，獨佔鰲頭”圖像章，應該是上魁下鰲，用鈐蓋方式，外圍有圓框，圖像舒朗，魁星單腳踩鰲，魁鰲呈上下結構，鰲頭朝左。所見日本本內封魁星元素圖像章158例，可分為五類：魁星點斗獨佔鰲頭(鈐蓋97例、雕版印21例，合計118例)、只有魁(鈐蓋9例)、只有鰲(鈐蓋3例)、“魁”文字(鈐蓋3例)、上老人下鰲(鈐蓋25例)。魁鰲皆存的118例中有97例用鈐印方式，21例用雕版印刷方式與內封一體印刷。97例鈐蓋圖章中93例有外框，4例無外框。有外框的93例中，有89例圖形疏朗，有4例圖形密集。圖形疏朗的89例中，有3例雙腳踩鰲，為上下結構；有86例單腳踩鰲。單腳踩鰲的86例中，有22例為左右結構，左鰲右魁；41例上下結構，鰲頭朝左；23例上下結構，鰲頭朝右。

158例中，比較符合中國本原始圖案的，有41例。如下圖所示：



圖九：所見日本本魁星圖像章數量統計圖



圖十：魁星點斗獨占鰲頭(中國)<sup>6</sup>



圖十一：魁星點斗獨占鰲頭(日本)<sup>7</sup>

魁星跟中國科舉制度的興盛有密切關係，比如從前諸多教育機構祭祀的，除孔子以外，還有文昌帝君與魁星等。書籍內封鈴蓋魁星圖像章，正是與科舉制度息息相關。日本雖然沒有科

6 圖三 《玉堂對類》，明末存誠堂黃爾昭刻本，美國國會圖書館藏。

7 圖四 《唐詩選國字解》，江戶書肆嵩山房小林新兵衛寬政三年(1791)刻本，i17\_02015。

舉制度，但江戶時代也有完備的教育體系，有教育就存在考核，有考核魁星就有存在意義。

總之，書院本作為中國刻本中的一個品種，既具有一定的特殊性，又在時間性、地域性、內容上具備普通中國本的諸多特性。從案例上分析，以書院本為核心考察的中國本，對日本、朝鮮為中心的東亞漢籍的影響，不僅在內容上，而且在刻書形式上，都曾產生過深遠的影響。東亞各國之間文化相互影響和交融，形成東亞漢字文化圈，其由來已久。正是在與別人的對比中，我們才能更好的反觀自身。在歐洲中心論盛行的時代，東亞文化作為一個整體，或許有其獨特的價值。



附錄一：

《中國古籍總目》著錄中國現存宋元書院本

書院名	書名	作者	版本
白鷺洲書院	漢書一百卷	漢班固撰	宋嘉定十七年(1224) 白鷺洲書院刻本
	後漢書九十卷志三十卷	劉宋范曄撰	宋白鷺洲書院刻本
環溪書院	直指醫學四種：新刊仁齋直指方論二十六卷小兒附遺方論五卷醫脈真經二卷傷寒類書活人總括七卷	宋楊士瀛撰	宋景定元年至五年環溪書院(1260-1264) 刻本
龍山書院	纂圖互注春秋經傳集解三十卷	晉杜預撰	宋龍山書院刻本
天香書院	監本纂圖重言重意互注論語二卷	宋□□編	宋劉氏天香書院刻本
建安書院	晦庵先生朱文公文集一百卷續集十一卷別集十卷目錄二卷	宋朱熹撰	宋咸淳元年(1265) 建寧建安書院刻宋元明遞修本
	蜀漢本末三卷	元趙居信撰	元至正十一年(1351) 建寧路建安書院刻本
宗文書院	本草衍義二十卷	宋寇宗奭撰	元大德六年(1302) 宗文書院刻本
	經史證類備急本草三十一卷	宋唐慎微撰	
	五代史記七十四卷	宋歐陽修撰	元宗文書院刻本/元宗文書院刻明修本
古迂/東山書院	增補六臣注文選六十卷	南朝梁蕭統輯 六臣注	元大德三年(1299) 陳仁子古迂書院刻本
	古迂陳氏家藏夢溪筆談二十六卷	宋沈括撰	元大德九年(1305) 陳仁子東山書院刻本
圓沙書院	周易傳義附錄二十卷	宋董楷纂集	元延祐二年(1315) 圓沙書院刻本
	玉篇廣韻指南一卷	元□□輯	
	大廣益會玉篇三十卷玉篇廣韻指南一卷	南朝梁顧野王撰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前集十卷後集十卷續集十卷	宋林駟撰	元延祐四年(1317) 圓沙書院刻本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別集十卷	宋黃履翁撰	
	山堂先生羣書考索前集六十六卷後集六十五卷續集五十六卷別集二十五卷	宋章如愚輯	元延祐七年(1320) 圓沙書院刻本/元刻明修本

	廣韻五卷	宋陳彭年等重修	元泰定二年(1325) 圓沙書院刻本
梅溪書院	類編標註文公先生經濟文衡前集二十五卷後集二十五卷續集二十二卷	宋朱熹撰	元泰定元年(1324) 梅溪書院刻本
	韻府羣玉二十卷	元陰時夫輯	元元統二年(1334) 梅溪書院刻本
	皇元風雅三十卷	元蔣易輯	元建陽張氏梅溪書院刻本
西湖書院	文獻通考三百四十八卷	元馬端臨撰	元泰定元年(1324) 西湖書院刻本/元泰定元年(1324) 刻至元五年(1339) 余謙重修本/元刻元末明初遞修本/元刻元明遞修本
	國朝文類七十卷目錄三卷	元蘇天爵輯	元至元至正間(1335-1367) 西湖書院刻本元刻明修本
武溪書院	新編古今事文類聚前集六十卷後集五十卷續集二十八卷別集三十二卷新集三十六卷外集十五卷	宋祝穆輯	元泰定三年(1326) 廬陵武溪書院刻本/元刻明修本
南山書院	廣韻五卷	宋陳彭年等重修	元至正二十六年(1366) 南山書院刻本
	大廣益會玉篇三十卷	南朝梁顧野王撰	
雪牕書院	爾雅三卷	晉郭璞注	元雪牕書院刻本
鄞江書院	聯新事備詩學大成三十卷	元林楨輯	元至正十四年(1354) 鄞江書院刻本
			元至正十六年(1356) 鄞江書院刻本
			元至正二年(1342) 日新書院刻本
日新書院			
圭山書院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二十五卷	唐杜甫撰	元至正七年(1347) 潘屏山圭山書院刻本
屏山書院	方是閒居士小藁二卷	宋劉學箕撰	元至正二十年(1360) 屏山書院刻本
豫章書院	豫章羅先生文集十七卷	宋羅從彥撰	元至正二十五年(1365) 豫章書院刻本

##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讀後所感

金 洪 水(東國大)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所論及的內容是有關中國出版的書籍傳播到東亞的過程及產生影響的研究。通過現存書院版本的探索，可以進一步闡明其方法論。仔細分析有關書院版本既存的研究，可以發現所述內容只有在特定的時代、部分區域，及特定書院的狀況。同時，此文通過考察中國、韓國、日本現存的書院版本之間的關係，從而說明中國書院版本在東亞地區的影響，作為研究對象是具有重要的意義。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中，首先指出“在書院出版的書籍不僅具有精密的校勘和刻板，能夠比較舒適地理解字裏行間含意的特點，同時具有官刻、坊刻及私刻版的縮小形的特點，這些均代表了中國書籍出刊的特征。”對以上觀點，本人深以為然贊同。

本人將通過對〈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所述內容進行分析整理，並且提出幾點不同的看法僅供參考。

首先，本文將以〈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內容中，中國書院版本對東亞地區的思想、制度、文化產生的影響整理如下：

第一，內含各種經學思想、學術學派的書院版本成為傳播到東亞的媒介物；

第二，中國書院出版的書籍，對朝鮮時代的官僚體系、科舉制度、以及祭祀、講學、藏書、刻書為一体的書院制度，都具有深遠的影響。

第三，隨著中國書院出版的書籍在東亞的廣範流通，為形成漢字文化圈，傳播漢字文化做出了很大的貢獻。

其次，〈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內容中，縱觀書籍出版的歷史，中國書院版本在東亞廣範傳播的過程，以及產生的影響，整理如下：

第一，中國書院的版本隨著在東亞各國傳播，逐漸成為東亞各國翻刻、複排的藍本。

第二，中國書院的版本對朝鮮及日本書籍的版本，不僅在內容上影響很深，包括版框、版心、欄線、字體、圖像章等書籍版本形態也產生了重大的影響。

最後，本人對〈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其中所闡述的內容，提出一些不同的看法如下：

第一，〈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內容中，以列舉各種事實的基礎上證明自己的觀點，但是，關於中國書院版本對朝鮮官僚體系、科舉制度、書院制度，以及關於東亞文化圈的形成，諸方面所產生的影響，確沒有具體的事實加以論述。根據本人所知這些主張並不是創新的內容。

第二，〈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附錄中，將《中國古籍總目》中所記載的宋元書院18處的版本29(34)個，以圖表形式進行了整理。此圖表中所整理的內容是否能夠包括現存的宋元時代全部書院版本，確切的書院版本數字是多少？

綜上所述，本人希望傾聽〈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作者的高見，促進互相學習。

## 〈중국 서원의 서적 간행이 동아시아에 전파된 과정과 영향〉을 읽고

김 홍 수(동국대)

이 글은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이 동아시아에 전파된 과정과 영향에 관해 쓴 논문인데 그 방법론이 현존하는 서원판본書院板本을 통해서 본 점이 특이하다. 중국의 서원판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특정한 시대나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서원만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이 글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현존하는 서원판본의 연계성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서원판본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로 사료된다.

발표자는 논문의 제1쪽에서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정밀한 교감과 판각, 그리고 글을 읽기에 편하게 한 행간〔易行〕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기관〔官刻〕과 책방〔坊刻〕 및 개인〔私刻〕이 간행한 서적들의 장점을 망라한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점은 토론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토론자는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아울러 한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자는 서원판본이 동아시아의 사상을 비롯해 제도, 문화 등에 끼친 영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서원판본은 경학 사상과 학과 및 학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서적을 동아시아에 전파하는 매개체이다.

둘째, 중국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조선의 관료 체계는 물론이고, 과거 제도를 비롯해 강학, 제사, 장서, 서적 간행 등의 기능을 아우르는 서원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

쳤다.

셋째, 중국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한자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서적 간행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서원판본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과정과 영향력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서원판본이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의 번각翻刻 및 재편집에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중국의 서원판본은 조선 판본과 일본 판본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광板框, 판심版心, 난선欄線, 어미魚尾, 자체字體 그림도장 [圖像章] 등과 같은 서적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토론자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이 글에서 발표자는 자신의 주장을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서원판본이 조선의 관료 체계와 과거 제도, 서원 제도 및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토론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이 글의 부록에는 《중국고적총목中國古籍總目》에 실려 있는 송원宋元 시대의 서원 18곳의 판본 29(34)개를 도표로 정리해 놓았다. 이 표에 나타난 것이 현존하는 송원 시대의 서원판본 전부를 망라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존하는 송원 시대 서원판본의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이 광 우(영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퇴계학파’의 성립과 서원
- III.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분기와 서원의 확산
- IV. 17세기 전반 西厓學派의 ‘도통’ 의식과 서원 설립
- V. 17세기 전반 寒岡學派의 성립과 서원 확산

## I. 머리말

중국 宋代에 체계화된 성리학을 道學이라 일컫는다. 송대 학자들은 孔孟 이후 근본 유학이 단절되고 훼손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법은 正學과 異端의 구분이었다. 송대 유행하던 정통 관념에 입각하여 유학의 계보를 설정하고, 이를 계승한 인물들을 내세웠다. 학문적 계보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道統’ 의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도통’ 의식은 朱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中庸章句序」를 통해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孟子’로 전승되는 계보를 ‘도통’으로 내세우면서, 先聖들에 의해 이어져 온 도통이 老子·佛家 등의 이단으로 인해 단절되고 어지럽혀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맹 이후 한 동안 단절된 ‘도통’이 송대에 이르러 二程에 의하여 다시 이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자가 ‘도통’을 체계화했다면, 그 문인들은 주자를 그런 ‘도통’의 嫡傳으로 내세웠다. 공맹의 학문이 송대 二程에 의해 계승되었고, 二程이 계승한 ‘도통’을 주자가 계승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문인들은 학문적 계승관계를 통해 ‘도통’의 전수자임을 경쟁적으

로 피력하였다.<sup>1</sup> 이들은 주자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 실천으로 정치에 참여했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도통’에 정당성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단을 배척해 나갔다. 특히 書院 운영은 ‘도통’을 매개로 한 성리학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른바 ‘慶元僞學之禁’을 겪으면서 성리학은 한 동안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 이에 관직에 떨어진 주자와 일련의 도학자들은 지방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과 학문 전파에 힘썼다. 이들은 당시 科擧 위주의 官學 교육을 비판하고, ‘義理’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학문을 전파해 나갔다.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저변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후 도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官學化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私學 기관임에도 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다.<sup>2</sup> 이로써 서원은 성리학을 계승한 각 ‘學派’에 의해 ‘도통’을 계승하고,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집단을 부식시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서 서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송대 서원의 확산 배경과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원 설립의 주체였던 士林 세력은 관학의 부진으로 ‘도통’이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처로 서원을 주목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서원의 典型을 완성한 退溪 李滉은 1549년(명종 4) 慶尙道觀察使 沈通源에게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청원하기 위해 쓴 편지에서 관학의 부진을 지적하였고,<sup>3</sup> 紹修書院 사액 후 申光漢은 應製記文을 통해 관학의 부진 속에 공맹의 도통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송대 서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이다.<sup>4</sup> 조선에서도 서원은 관학의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정부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었다. 그런데 서원은 사람의 사적 교육기관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에게 있어 서원 설립과 운영은 조

1 지준호, 「주자문인의 도통의식」,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pp.367-368.

2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 -이학계 인사들의 정치·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pp.6-16; 지준호, 앞의 논문(2003), pp.374-377.

3 『退溪集』 권9, 書, 〈上沈方伯〉, “저 國學과 鄉校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舍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과거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니, ...”.

4 『竹溪誌』 권1, 行錄後, 〈白雲洞紹修書院記〉, “漢·唐·魏·晉 이후 학교를 숭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모두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직접 인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효과는 거의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 [宋]太宗이 천하의 군주로서 작은 隱士의 서원에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학문을 진작시킴으로써, 송나라가 다할 때까지 眞儒가 배출되고 도학이 크게 천명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孔孟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이를 본다면 宋朝에서 이룬 성과는 서원에서 나왔지 국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실천이었고,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도통’ 의식의 계승이었다. 따라서 사림 세력은 서원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집단성을 구현하였는데, 그 집단성은 ‘학파’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사림 세력은 당대를 대표하던 성리학자와 학문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각기 ‘학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16세기 후반 봉당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학파’는 각 黨色의 정치적 성격도 함께 띠게 되었다. 정치 세력은 ‘학파’별로 결집하였으며, 소속된 ‘학파’에 ‘도통’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집단성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따라 ‘도통’ 의식을 달리하는 여러 ‘학파’가 동시대에 공존하며 경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림의 부식 공간인 서원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에서 ‘학파’는 이념적 명분을 제공하였다. 서원은 그 명분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장시키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시대 서원의 설립과 확산 과정에서 ‘학파’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 성리학의 흐름은 교조주의로 나아갔으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17세기 이후 ‘학파’와 접목된 봉당 간의 극단적 당쟁, 중앙 정치 세력의 閥閥化에 따른 재지사족의 현실 안주와 보수적 정세 인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 단초는 우리나라에서 성리학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등장한다. 16세기 중반 소위 성리학의 ‘巨儒’들이 등장한 이후, 그 문인들은 ‘학파’를 형성하고 ‘도통’을 둘러싼 경쟁을 시작하였다. ‘학파’를 매개로 정치 세력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제공받았고, ‘학파’를 매개로 재지사족은 향촌 사회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학파’가 주창하는 ‘도통’ 의식은 곧 권력이 되었다. 이에 경쟁적으로 ‘학파’의 문인들은 先師를 적극적으로 추송하였고, 그것은 서원 설립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파’ 분기 이후 학문적 또는 사적 연고에 의해 많은 서원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학파의 ‘도통’ 의식이 서원 확산에 끼친 영향을 영남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남은 사림의 淵藪로서 이른 시기부터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특히 재야 南人의 거점으로 그들의 집단적 ‘도통’ 의식이 구현된 退溪學派 계열의 서원이 다수 건립된 지역이다. 그밖에도 봉당정치에 따른 정치적 부침 속에 南溟學派와 栗谷學派 계열의 서원도 공존하였기에 개별 서원의 학파

적 성격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즉, 영남 서원은 교육·교화 공간이라는 본연의 성격보다 특정 학맥의 구심점 또는 黨派의 공론처라는 성격이 어느 지역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sup>5</sup> ‘도통’ 의식의 전개에 따른 서원 설립 양상을 살펴보면 좋은 사례가 된다.

## II. ‘퇴계학과’의 성립과 서원

서원의 설립 주체는 해당 지역의 지방관과 鄉人, 제향자의 門人和 後孫 등 다양하다. 지역 및 시기별로 설립 주도 세력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세력의 상호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sup>6</sup> 초창기 서원 설립은 지역 사림의 공론과 지방관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아직 봉당정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학과’의 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서원—鄉 사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순조롭게 서원은 설립될 수 있었다. 사림 세력은 공통된 현실 인식과 학문관을 바탕으로 관학의 대안처로 서원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 서원의 제향 인물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제향 인물의 성격은 서원 설립 세력의 지향점과 성격을 말해준다. 특정 지역의 사림이 어떠한 ‘학과’를 표방하는데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위 중 하나가 서원이라 할 수 있다. 표방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요 인사 중 지역 사림과 연고가 있는 인사를 서원에 제향함으로써, 해당 ‘학과’가 주창하는 ‘도통’ 의식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창기 서원의 제향 인물에는 ‘학과’ 계승 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역과 연고가 있는 前 왕조의 名儒나 사림과 계열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尊賢’ 기능을 가진 관학의 대안처임을 자부하였던 것이다. 또한 초창기 서원의 경우 제향 인물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퇴계의 언급처럼 형편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유생 張壽禧를 나에게 보내어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고장은 받들어 제사할 만한 先正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고, 서원 규모도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우선

5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pp.107-133.

은 서재로써 서원의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였다. 내가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옛날에 서원에서 선현을 배향할 때에는 어찌 모두 그 고장의 인물들만을 고집했겠는가! 先聖과 先師를 모시는 곳도 있고, 또한 사묘를 세우지 못한 곳도 있으니 오직 그 힘과 형편에 따라 할 뿐인 것이다.”<sup>7</sup>

榮川 伊山書院 설립 과정에서 제향 인물에 대해 문의 받은 퇴계는 지역 출신의 先正·先聖·先師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유학에 직접적인 공이 있는 인사들만 제향하는 것이 올바르며, 도학자가 아닌 충절인이나 유학에 공이 없는 자를 제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방하였다.<sup>8</sup> 그렇기에 퇴계는 1560년 星州 迎鳳書院에 李兆年·李仁復 제향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드러내었으며,<sup>9</sup> 慶州 西岳書院의 金庾信·薛聰·崔致遠 제향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단지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만 당부하였을 뿐이다.<sup>10</sup>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서원의 전형을 확립한 퇴계 생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1574년(선조 7) 陶山書院 이전에 설립된 영남 지역 서원과 제향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1543~1573년 영남 지역 서원 건립 현황과 제향 인물<sup>12</sup>

설립연도[사액연도]	명칭	지역	제향 인물 <sup>11</sup>
1543년(중종 38)[1550]	白雲洞書院 [紹修書院]	豐基 順興	安珣[1543, 安軸·安輔[1544], 周世鵬
1552년(명종 7)[1566]	濫溪書院	咸陽	鄭汝昌[1552] 姜翼·俞好仁·鄭蘊·鄭弘緒
1553년(명종 8)[1554]	臨臯書院	永川	鄭夢周[1553], 張顯光·皇甫仁
1555년(명종 10)	白鶴書院	新寧	李滉·黃俊良
1556년(명종 11)[1576]	氷溪書院	義城	金安國·李彦迪[1556], 柳成龍·金誠一·張顯光
1558년(명종 13)[1560]	迎鳳書院 [川谷書院]	星州	程頤·朱子·金宏弼[1568] 鄭述·張顯光·李兆年·李仁復
1559년(명종 14)[1574]	伊山書院	榮川	李滉
1561년(명종 16)[1623]	西岳書院	慶州	金庾信[1561], 薛聰·崔致遠[1563]

7 『퇴계집』 권42, 記, 〈伊山書院記〉.

8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pp.91-92.

9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5, pp.198-201.

10 『퇴계집』 권4, 詩, 〈書院十詠〉.

1564년(명종 19)	淸溪書院	草溪	李希顔[1564], 全致遠·李大期
1564년(명종 19)[1660]	研經書院	大丘	李滉·鄭述·鄭經世·全慶昌·李叔樸
1567년(명종 22)[1669]	禮林書院 [德城書院]	密陽	金宗直[1567], 朴漢柱·申季誠
1568년(선조 1)[1607]	道東書院	玄風	金宏弼[1568], 鄭述
1568년(선조 1)	金谷書院	醴泉	朴忠佐[1568], 朴訥·朴孫慶
1568년(선조 1)	仙巖書院	淸道	金大有·朴河淡[1568]
1570년(선조 3)[1575]	金烏書院	善山	吉再·金宗直·鄭鵬·朴英[1570], 張顯光
1570년(선조 3)[1684]	易東書院	禮安	禹倬[1570]
1573년(선조 6)[1574]	玉山書院	慶州	李彥迪[1573]

백운동서원이 건립되던 1543년부터 1573년까지 설립된 서원의 제향 인물은 크게 중국의 名儒, 신라·고려의 名賢, 사림과 인사로 구분되며, 중국 명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원 설립자와 뚜렷한 연고를 가지고 있다. 조선 조 인물은 모두 사림과 인사로 당시 서원 설립이 사림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및 그들의 영향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영남 지역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설립된 他道 서원의 제향 인물 역시 중국의 箕子·孔子·주자, 고려 명현 徐熙·崔沖·崔惟善, 사림과 金宏弼·趙光祖·金淨·金安國·成守琛 등과 같은 인사가 주축을 이루었다.<sup>13</sup> 즉, 초창기 서원은 당대 사림의 보편성에 입각한 선현의 존현처였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중·후반 嶺南學派의 쌍벽을 이루던 퇴계와 南冥 曹植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문인들은 즉각적으로 스승을 제향하는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각각 퇴계 학파와 남명학파의 학통을 계승하며, 서원 설립에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 집단성에 대한 ‘도통’ 의식을 경쟁적으로 보여주었다.

퇴계 문인의 경우 퇴계의 서원관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였다. 일찍이 퇴계는

11 <표 1>의 제향 인물 중 1543~1570년 사이에 제향된 인물만 연도를 표기하였다. 해당 서원 중 伊山書院은 처음에 제향 인물이 없다가 퇴계 사후 廟宇를 짓고 퇴계를 제향하였다. 研經書院은 퇴계의 生祠堂에서 출발하였으며, 仙巖書院은 鄉賢祠였다가 1577년 서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퇴계의 자문을 통해 설립된 이산서원과 연경서원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존현에 대한 퇴계의 인식이 받아들여져, 제향 시설 없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12 <표 1>은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p.16~18’에 수록된 표를 참조한 것이다.

13 임근실, 앞의 논문(2019), pp.19~24.

관학을 출세주의와 공리주의에 매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신진 사림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서원을 주목하였으며,<sup>14</sup> 소수서원 사액 이후 적극적으로 서원 보급에 앞장섰다. 퇴계는 소수서원을 필두로 여러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그의 〈서원십영〉은 서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상징한다.<sup>15</sup>

퇴계 문인들도 스승의 서원 보급에 적극 참여하였다. 경주 서악서원과 밀양 禮林書院의 경우 퇴계 문인 李楨과 裴三益이 각각 慶州府尹과 密陽教授로 있으면서 설립하였다. 훗날 이황·黃俊良을 제향하게 되는 白鶴書院도 퇴계 문인 황준량이 新寧縣監 재임시 설립한 것이다. 이산서원·임고서원·연경서원은 해당 고을의 퇴계 문인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sup>16</sup> 역동서원은 예안의 퇴계 문인들이 스승의 지시 하에 설립하였다.<sup>17</sup> 퇴계 사후 문인들의 서원 설립은 더욱 활발해졌다. 퇴계 문인들은 대략 중종 연간부터 광해군 때까지 활약하였는데, 이 기간 설립된 전국 125개소 서원 중 43개소에 관여하였다. 이를 다시 영남으로 한정하면 49개소 중 절반이 넘는 29개소가 퇴계 문인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8</sup> 이들은 鄉人의 공문을 모아 고을별로 서원을 설립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관직에 진출한 동문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퇴계 사후 진행된 문인들의 서원 보급 활동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문인들이 퇴계를 직접 제향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표 1〉에서와 같이 퇴계 생전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생몰 연도와 학문적 수수 관계를 감안할 때, 直傳 문인에 의한 서원 제향은 퇴계 문인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퇴계의 3년상이 끝난 직후인 1573년(선조 6) 8월 東方五賢의 文廟從祀를 성균관 유생들이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sup>19</sup> 문집 인출과 贈諡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계를 존숭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퇴계 문인들도 1573년 11월 제향 인물이 비어있던 이산서원에 우선적으로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였으며, 1574년 봄 도산서원 건립

14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이조성리학의 토착화와 아카데미즘-」,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pp.208-209.

15 『퇴계집』 권4, 시, 〈서원십영〉. 竹溪書院[소수서원]·임고서원·영봉서원·남계서원·이산서원·西岳精舍[서악서원]·畫巖書院[연경서원]과 海州 文憲書院, 江陵 丘山書院[五峯書院]에 대한 讚詩이다.

16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pp.9-13.

17 『梅軒集』 권2, 雜著, 〈易東書院記事〉; 『月川集』 권5, 잡저, 〈易東書院事實〉.

18 권시용, 앞의 논문(2019), pp.9-13.

19 『宣祖實錄』 권7, 6년 8월 28일.

을 시작하여 1575년 사액, 1576년 위판 봉안이 차례로 이루어졌다.<sup>20</sup>

당시 퇴계 문인들은 퇴계가 우리나라 성리학 ‘도통’의 적통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서원 제향의 당위성으로 삼았다. 일찍이 조광조를 필두로 한 기묘사림이 鄭夢周를 우리나라 ‘도통’ 연원으로 삼았으며, 이후 ‘정몽주-吉再-金宗直-金宏弼-鄭汝昌-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가 성립되었다.<sup>21</sup> 사림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67년(선조 즉위)에 이르게 되자 퇴계는 朝講에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李彦迪 4인의 학문적 업적을 논하였다.<sup>22</sup> 이듬해에는 이조에서 김굉필·정여창은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斯文에 공로를 남겼고, 조광조·이언적은 서로 잇달아 일어나 斯道を 강론했음을 선조에게 아뢰었다.<sup>23</sup> 그리고 1570년부터는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四賢에 대한 성균관 유생들의 문묘종사 청원이 시작되었다.<sup>24</sup> 즉, 기묘사림이 우리나라 ‘도통’ 연원을 설정했다면, 퇴계는 ‘도통’ 계보를 사림파로 귀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도통’ 연원과 계보가 성립하자, 문인들은 곧바로 그 계보의 계승자로 퇴계를 내세우게 된다. 이산서원에 퇴계를 봉안할 당시 문인 朴承任이 쓴 奉安文에는 그 ‘도통’ 의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그것은 원래 하늘에서 나왔다. 못 성인이 위업을 계승하여 앞 뒤를 번갈아 전하였다. 공자가 聖道を 집대성했으나 맹자 이후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세상에 건줄 수 없는 周程[周敦頤·程顥·程頤]이 끊어진 줄을 오랜만에 이었다. 성도가 크게 유행함은 오로지 큰 賢人이 나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탁월하시다. 주자여! 선성을 빛내고 後人을 일깨웠다. 성도가 高明하여 하늘이 열리고 해가 빛나게 되었다. 덕이 넓게 베풀어져 우리 海東에도 미치었다. 圃老[정몽주]가 유독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불행히 뜻을 펴려다가 중도에 그치었다. 文運이 다시 청성하는데 100년을 심고 가꾸었다. 四儒[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가 서로 이어서 淳朴篤實하고 한 결 같이 성도를 정진하였다. 그러나 橫厄을 당하여 돌아가시니 탐구하고 선양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성도를 버리지 않아 선생 [이황]을 태어나게 했다.<sup>25</sup>

20 『退溪年譜』 권2.

21 『中宗實錄』 권103, 39년 5월 29일.

22 『선조실록』 권1, 즉위년 11월 4일.

23 『선조실록』 권2, 1년 6월 4일.

24 『선조실록』 권4, 3년 4월 23일.

25 『嘯臯集』 권3, 祭文,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박승임을 필두로 한 퇴계 문인은 송대 도학자들이 체계화한 ‘도통’ 계보를 우리나라에서는 ‘정몽주-4현-퇴계’로 이어짐을 천명하였고, 이를 명분으로 퇴계에 대한 적극적인 서원 제향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동안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은 宋時烈 다음으로 많은 31개소인데, 이 중 퇴계 사후부터 광해군 때까지 제향된 것이 전체에서 ⅔에 이르는 20개소이다. 이 시기 퇴계를 제향한 영남 지역 서원을 일람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조-광해군 연간 퇴계 제향 서원<sup>26</sup>

명칭	지역	설립연도[사액연도]	제향인
伊山書院	榮川	1559년(명종 14)[1574]	李滉[1573]
研經書院	大丘	1564년(명종 19)[1660]	李滉[1613]·鄭述·鄭經世·全慶昌·李叔樸
陶山書院	禮安	1574년(선조 7)[1575]	李滉·趙穆
廬江書院 [虎溪書院]	安東	1575년(선조 8)[1676]	李滉·柳成龍·金誠一
鳳覽書院	眞寶	1602년(선조 35)[1690]	李滉
文巖書院	奉化	1604년(선조 37)[1694]	李滉·趙穆
道南書院	尙州	1606년(선조 39)[1677]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彦迪·李滉·盧守愼·柳成龍·鄭經世
龜溪書院	泗川	1606년(선조 39)[1676]	李滉·李楨·金德誠
鼎山書院	醴泉	1612년(광해군 4)[1677]	李滉·趙穆
南江書院	盈德	1621년(광해군 13)	李滉·許詡·朴世茂·李文樞·盧守愼 金悌甲·柳根·全亨·李愼儀

〈표 2〉와 같이 퇴계 사후 광해군 연간까지 영남 지역에 설립된 것이 약 50년 간 모두 10개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퇴계와 직접적으로 연고가 있거나, 문인들이 활동 하던 지역이었다. 우선 퇴계의 주요 활동지였던 예안·안동·榮川에서는 문인들이 즉각 적으로 퇴계를 서원에 제향하였고, 이어 다른 고을에서도 직전 및 再傳 문인에 의해 퇴계가 제향되면서 퇴계학파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서원에서 퇴계를 제향하는 비율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서원이 증설 되던 17세기 중반 이후 서원 남설기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 퇴계

26 〈표 2〉는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pp.602-604’에 수록된 표를 참조한 것이다.

가 집중적으로 제향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 문인들은 “우리 동방에서만 비견될 만한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람조차 찾아볼 수가 없으니, 실로 주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오직 퇴계 선생 한 분뿐이다”<sup>27</sup>라고 한 曹好益의 언급처럼, 퇴계를 동방의 주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주자를 제향한 서원이 武夷·考亭·晦菴 등 20개소에 이른 사실에 근거하여,<sup>28</sup> 퇴계학파를 확장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원을 설립하고, 퇴계를 제향해 나갔던 것이다. 16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성리학 계보에서 뚜렷이 ‘학파’라는 개념은 설정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서원 제향도 당시 사림의 보편적 시각에서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사를 ‘尊賢’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땅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중국 명유나 따로 제향자를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제향 인물 중 세 번째로 많은 인물이 주자인데, 명종-선조 연간에만 9개소가 건립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sup>29</sup>

조선시대 서원 확산에 ‘학파’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퇴계 문인들의 적극적인 서원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퇴계 문인들은 보편적인 ‘존현’을 넘어서, 서원 설립과 제향을 통해 퇴계학파라는 집단성에 ‘도통’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퇴계가 가지는 학문적 위상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학문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서원 제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래 없는 현상이었으며, 각 학파 별로 ‘존현’의 대상이 사적 연고에 기인한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원 확산에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각 학파별로 서원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적으로 설립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 III.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분기와 서원의 확산

16세기 중·후반 각 학파를 성립시켰던 거유들이 세상을 떠난 시기부터, 서원에 제

27 『芝山集』 권5, 잡저, 〈退溪先生行錄〉.

28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여강(호계)서원 치폐 전말-」,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p.321.

29 정현정,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p.94-98.



항되는 ‘존현’ 대상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종전까지 제향 인물은 공자·주자와 같은 중국의 명유와 지역 출신의 명현 및 사람과 인사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시기별·지역별로 각 학파의 주요 계보에 있는 인사도 제향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임진왜란 이후 향촌 복구와 더불어 서원 설립이 활발해졌으며, 17세기 이후부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서원의 증가와 더불어 폐단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임진왜란 당시 전시 정국 운영과 군비 확보에 서원은 걸림돌로 치부되었다.<sup>30</sup> 1595년 7월에는 선조가 文弊의 온상으로 서원을 지목하며 혁파를 지시하는 전교를 내렸는데, 『宣祖修正實錄』의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론이 실려 있다.

서원 설립은 명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周世鵬이 豊基郡守로 있으면서 竹溪에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여 선현인 安裕를 제사지냈고, 그 뒤 이황이 풍기군수가 되어 조정에 사액과 頒書를 청하였다. 당시에는 자못 士子의 講業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잇따라 설립된 것이 국내에 겨우 10여 군데에 불과했다. 당시 이황이 김종직을 제사지내려 하자 문인 중에 부당하다고 의혹을 가지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尊祀된 자도 적었으며, 서원만 있고 제사지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내에서 마구 본받아 “우리 고을에도 제사지낼 만한 현인이 있다”고 굳이 청하면서 연달아 서원을 세우고 祠宇를 세웠다.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그다지 폐단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上敎가 이미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서원이 없는 고을이 없고, 제사를 받는 자도 하찮은 사람이 많다. 儒籍이 役을 도피하는 소굴이 되어 絃誦의 미풍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文弊를 운위할 것도 못 된다 하겠다.<sup>31</sup>

1657년(효종 8) 완성된 『선조수정실록』의 사론은 당시 서원이 남설되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그 원인이 ‘존현’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서원을 건립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학’에 업적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서원 제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남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종 대까지 모두 93개소의 院祠[서원 70, 사우 23]가 건립되었으며, 21개소에 해당되는 원사가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21개소 중 14개소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사론에서처럼 제향되는 인물의 보편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2</sup> 서원 제향 인물 선정에 학문적 수수 관계 같은 서원 설립 및 운영 세력의

30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3일.

31 『宣祖修正實錄』 권29, 28년 7월 1일.

32 이병훈, 「조선 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사적 연고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서원이 증가하는 현상은 학파의 분화에 따른 사람들의 경쟁의식, 서원을 이용한 각 붕당의 여론 정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원의 향촌자치 기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특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제향하고 ‘도통’의 계승자로 천명하는 행위는 해당 서원에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는 일반적이 행위가 되었다. 각 서원의 운영자들은 제향된 선현의 ‘도통’ 계승자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영남 지역의 서원 설립 증가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남 지역에서 서원 설립을 주도한 것은 퇴계학파이다. 퇴계학파는 당대 영남에서 가장 큰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권위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투영하기 위하여, 17세기 전후의 직전 문인들은 퇴계를 우리나라 ‘도통’의 적전임을 내세우며 우선적으로 퇴계를 서원에 제향하였다. 이어 재전 문인들은 자신들에게 ‘학파’를 이어준 직전 문인을 퇴계가 제향된 서원에 配享·從享하거나, 퇴계의 적전이라는 명분으로 별도의 서원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며 영남 지역 내 퇴계학파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해 『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된 영남 출신 퇴계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퇴계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sup>33</sup>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자
安東	1575[1676]	廬江書院[虎溪書院]	李滉 柳成龍[追1620] 金誠一[追1620]
	1607[1618]	臨川書院	金誠一
	1612[1693]	龍山書院[周溪書院]	具鳳齡 權春蘭[追1622]
	1612	青城書院	權好文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1613] 柳袞
	1649	魯林書院	南致利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張興孝
	1693	道淵書院	鄭述[星州] 許穆 蔡濟恭

pp.93-94.

33 퇴계 문인은 『陶山及門諸賢錄』을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燃藜室記述』別集 권4, 祀典典故, 書院 편과 『嶠南誌』에 수록된 각 고을별 ‘校院’ 편을 정리한 것이다.

	1709	泗濱書院	金璉 金克一 金守一 金明一 金誠一 金復一
	1741	陝陽書院	孫洪亮 金白粹 柳仲淹
	1778	龍溪書院	金彥璣 權大器[追]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
	미상	嶧陽書院	金瑛 金箕報
榮川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追1669] 金玔[追1669] 金榮祖
	1650	三峯書院	金爾音 李濯 金蓋國 金隆
	1663	迂溪書院	李德弘
	1786	寒泉書院	張壽禧 吳澣 朴檜茂 朴樅茂
星州	1558[1560]	迎鳳書院[川谷書院]	程頤 朱子 金宏弼 鄭述[追1623] 張顯光 鄭述 李潤雨 ○鄉賢祠 宋師頤 李弘器 李弘量 李弘宇 李{竹/舒}[追1670]
	1627[1690]	檜淵書院	
	1713	柳溪書院	鄭崑壽 朴深 李淳
	1729	晴川書院	金宇頤 金聃壽 朴而章
醴泉	1612[1677]	鼎山書院	李滉 趙穆[禮安, 追1615]
	1634	鳳山書院	權五福 權孟孫 權檣 文瓘 金復一[追, 安東] 權文海[追] 權旭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
善山	1642	洛峯書院[1787]	金叔滋 金就成 朴雲 金就文 高應陟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晈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
	1807	景洛書院	吳湜 黃瑋 康居敏 黃耆老 尹弘宣
豐基	1662	郁陽書院	李滉 黃俊良[榮川]
	1704	愚谷書院	柳雲龍[安東] 黃暹 李竣 金光燁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滉 盧守愼 柳成龍[追1631, 安東] 鄭經世
	1635	涑水書院	孫仲墩 申祐 金宇宏[追1730, 星州] 趙靖 趙翊
義城	1556[1576]	冰溪書院	金安國 李彥迪 柳成龍[追1689, 安東] 金誠一[追1689, 安東] 張顯光
	1671	藏待書院	金光粹 申元祿[追1685] 申之悌 李民成
新寧	1555	白鶴書院	李滉 黃俊良[追1678, 榮川]
大丘	1563[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追1622, 星州] 鄭經世 ○別祠 全慶昌[追1707] 李叔樑[追1707, 禮安]
玄風	1568[1607]	道東書院	金宏弼 鄭述[追1678, 星州] ○別祠 郭承華 裴紳[追1634] 郭起 元概
禮安	1574[1575]	陶山書院	李滉 趙穆[追1615]
安陰	1583[1662]	龍門書院	鄭汝昌 林薰 林芸[追1586] 鄭蘊

山陰	1606[1677]	西溪書院	吳健
泗川	1606[1676]	龜溪書院	李滉 李楨 金德誠
永川	1613[1678]	道岑書院	曹好益
奉化	1616[1694]	文巖書院	李滉 趙穆[禮安]
昌寧	1620[1711]	冠山書院	鄭述[星州] ○別祠 姜訢 安餘慶
軍威	1627	南溪書院	柳成龍[安東] 李好閔[追1787]
昌原	1634	檜原書院	鄭述[星州] 許穆
龍宮	1643	三江書院	鄭夢周 李滉 柳成龍[安東]
漆原	1651[1678]	德淵書院	周世鵬 ○別祠 裴世績 周博[追1678] 裴錫祉 黃恢 周孟獻
漆谷	1651	泗陽書院	鄭述[星州] 李潤雨 李遠慶
英陽	1655[1694]	英山書院	李滉 金誠一[安東]
高靈	1667	道巖書院	金沔 李起春
順興	1676	龜灣書院	琴軻 南夢鰲 朴善長 權虎臣
咸安	1684	道林書院	鄭述[星州] 李僞 朴齊仁 李漣
河東	1698	永溪書院	鄭汝昌 金誠一[安東]
青松	1699	松鶴書院	李滉 金誠一[安東] 張顯光
聞慶	1712	瀟陽書院	鄭彥信 金樂春[安東] 南嶸 沈大孚 李樸
彥陽	1712	礪龜書院	鄭夢周 李彥迪 鄭述[星州]
知禮	1771	道洞書院	李崇元 李淑琦 李淑臧 李後白 李好閔[追, 軍威]
晉州	1821	慶林書院	金誠一[安東] 趙宗道
固城	1854	道淵書院	許麒 許千壽 許栽

\* 제향 인물 중 퇴계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제향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 ]’로 별도 기재

『도산금문제현록』에는 모두 144명의 영남 출신 인사가 등재되어 있는데,<sup>34</sup> 영남 지역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표 3> 과 같이 모두 50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吳健·金宇宏·金宇顥·吳滉·金沔·鄭述·李僞처럼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출입한 인사도 있지만,<sup>35</sup> 대체로 퇴계의 활동 범위인 안동권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영남에서 이들을 제향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59개소인데 절반 정도는 17세기 중반 이전에 제향한 것으로 나타난

34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403 참조. 이를 다시 권역별로 구분하면 안동권 115명, 진주권 8명, 성주권 8명, 상주권 7명, 경주권 6명으로 나타난다.

35 김종석, 『『도산금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pp.170-187.

다.

이 무렵 재지사족에게 특정 ‘학파’의 계승 여부는 향촌사회에서의 권위와 연결되는 문제였다.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 구성원들은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성리학 ‘도통’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향촌사회활동은 곧 주자·퇴계가 구상하던 성리학적 이상의 실현이었다. 그렇기에 퇴계의 적전을 자부하는 움직임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퇴계의 재전 문인들은 직전 문인을 서원에 제향하였다.

퇴계 사후 퇴계학과는 月川 趙穆, 西厓 柳成龍, 鶴峯 金誠一, 寒岡 鄭述에 의해 각각 영도되었다. 이들 중 먼저 퇴계의 적전으로 추승된 이는 禮安의 조목이다. 그는 퇴계의 동향인으로 지근거리에서 스승을 보필하였으며, 퇴계 사후에는 각종 추승 사업을 주도하였다. 또한 조목은 『退溪集』 편집을 둘러싸고 류성룡과 갈등을 겪었으며, 복인 세력에 동조하여 그를 ‘主和誤國’으로 비판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목은 복인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퇴계학과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위상은 조목의 문인에게도 이어져, 1615년(광해군 7) 도산서원에 종향하였다.<sup>36</sup> 당시 조목 종향을 주도했던 이는 金中淸·金澤龍이었다. 이들은 도산서원 종향을 전후하여, 퇴계를 제향하는 예천 鼎山書院과 봉화 文巖書院에도 조목을 종향하였다. 퇴계학파의 다른 재전 문인들은 곧 반발하였는데, 예안의 金垕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무리들의 본래 계획은 자신의 스승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만 위한 것에 불과하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을 빙자하여 이것에서 중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李笠의 무리들이 퇴계 선생의 ‘도통’이 월천에게 전해졌고 월천은 中淸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에서랴! 대개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말은 있었고, 오늘날의 이 소행은 이 같음에 불과할 따름이다. 심하도다! 소인배들의 허물이여!<sup>37</sup>

김령의 평가처럼 김중청은 ‘퇴계-월천-김중청’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도통’으로 설정하여, 다른 퇴계학과 계열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며, ‘도통’의 상징으로 도산서원

36 조목의 정치적 향방과 도산서원 종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논의」,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과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37 『溪巖日錄』 2, 〈壬子 2월 13일〉.

종향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예안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 내 월천 계열은 인조 반정 이후 복인 정권의 몰락과 함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퇴계학과의 정치·사회 활동은 안동의 문인들이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퇴계학과 내에서 도산서원이 가지는 상징은 막대하였기에 18세기 영·정조는 도산서원에 여러 차례 致祭를 지시하였으며, 정조는 邪學이 영남에서 번성하지 않는 이유가 도산서원 같은 데서 先正의 학문을 지켰기 때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sup>38</sup> 비록 월천 계열은 학파로 전개되지는 못하였으나, 예안 사림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퇴계학과의 적통을 계승했다는 인식 하에 그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 연간 월천 문인들의 ‘도통’ 계승 활동은 또 다른 퇴계학과의 거점인 안동 사림을 자극하였다. 1575년 류성룡·김성일을 주축으로 한 안동의 문인들은 퇴계를 제향하기 위해 廬江書院[虎溪書院] 설립하였다. 여강서원 설립에는 조목·金彦璣 등 예안의 문인들도 적극 협조하였다. 이 무렵 퇴계를 제향하는 이산서원·도산서원·여강서원 등이 잇달아 설립된 것은 퇴계학과 내 동질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9</sup> 하지만, 17세기 초 재전 문인들의 경쟁 속에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되자, 안동 사림들도 ‘도통’의 적전임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표 3〉에서처럼 17세기 초반 안동에는 퇴계 문인을 단독으로 제향하는 臨川書院[김성일], 龍山書院[具鳳齡], 屏山書院[류성룡], 靑城書院[權好文] 4개 서원이 설립되어 있었다. 4개 서원 모두 설립 명분을 퇴계와의 학문적 수수 관계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sup>40</sup> 이 또한 퇴계 ‘도통’의 적전을 계승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비슷한 시기 도산서원·정산서원·문암서원에 조목 종향을 추진한 세력들도 분명 이를 의식하였을 것이다. 안동의 여러 퇴계 문인 중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서애 류성룡 계열이었다. 김성일의 경우 임진왜란 중에 세상을 떠나, 서애 계열만큼 학과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sup>41</sup> 張興孝·黃汝一·崔晁·申之悌·金涌 등의 문인이

38 『正祖實錄』 권34, 16년 3월 2일.

39 설석규, 앞의 논문(2009), p.322.

40 『愚伏集』 권16, 祭文, 〈臨川書院奉安祭文〉·〈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 『蒼石集』 권15, 祭文, 〈龍山書院栢潭先生奉安祭文〉

41 설석규, 앞의 논문(2009), p.331.

있었으나, 하나의 학파로 부상된 것은 17세기 후반 李玄逸이 등장한 이후이다.

그런 가운데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되자, 류성룡과 김성일을 여강서원에 합향하여 ‘도통의 적전’을 안동 쪽으로 귀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sup>42</sup> 여강서원 합향을 주도한 인물은 류성룡의 문인인 尙州의 愚伏 鄭經世였다.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에 봉안된 위패를 여강서원에 합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난제가 있었다. 위패를 옮길 경우 기존 서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향 방식, 位次 및 호칭 문제가 그것이었다. 정경세는 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여 1620년 합향을 성사시키게 된다. 합향은 ‘종향’인 조목보다 격이 높은 ‘배향’의 형태였다. 이는 류성룡·김성일을 합향하여 조목 문인에 대한 안동 사림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향의 형식을 ‘배향’으로 높임으로서 ‘도통’ 계승에서 상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가장 난제였던 배향 시 위치는 정경세의 주장으로 年齒가 아닌 官爵을 우선시하는 논리로써,<sup>43</sup> 이른바 ‘厓東鶴西’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 대해 김령이 “그들의 본래 의도는 서애를 높이 받들어 반드시 선생의 지위로 떠받들려 한 것일 것이다. ... 실제로 퇴도 선생의 사당에서 配食하게 함으로써 도통을 받아 전하는 결과를 얻어 선생과 같은 반열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sup>44</sup>라고 평가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정경세는 합향의 형식을 빌려 스승인 서애를 퇴계학파의 적전으로 내세우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한편, 여강서원 합향을 전후해서 드러난 몇 가지 사안은 17세기 이후 봉당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기되던 ‘학파’가 서원 설립과 제향 기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비단 안동 지역만이 아니라, 당시 서원 제향에 대한 여러 ‘학파’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첫 번째로 ‘一邑一院’이라는 암묵적 협의가 무너지고 ‘一邑多院’이 보편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안동에서 이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퇴계의 재전 문인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7세기 초반 안동에는 여강서원 이외에도 퇴계 문인을 제향하는 서원만 4개소였

42 이하 여강서원 합향 과정은 다음 논문 참조.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91-99; 설석규, 앞의 논문(2009).

43 『우북집』 권13, 書, 〈答三書院廬江屏山臨川諸士友〉.

44 『溪巖日錄』 3, 〈庚申 10월 28일〉.

다.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정부에서는 서원의 남설 현상을 문제시 삼고 있었다. 당초 서원이 지방 관학인 향교의 대안처로 설립되었기에 한 고을에 여러 서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동에서는 1605년 홍수로 여강서원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류성룡은 아직 제향 인물이 없던 병산서원에 여강서원을 설립하지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류성룡·조목 양 문하에 출입했던 裴龍吉은 류성룡이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퇴계학과의 적전을 독점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편지를 보내 불가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여강서원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병산서원을 철폐해서 여강서원에 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한 『一統志』를 근거로 중국에서는 하나의 縣에도 3~4개소의 서원을 설립하고 각기 다른 사람을 봉향하지만 폐단은 없다고 하였다.<sup>45</sup> 해당 사안의 이면에는 퇴계학과의 적전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서원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다양하게 분기되는 학파 내부에서 자신들의 계열을 유지시키고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반면, ‘一邑一院’의 원칙은 여러 계열로 분기된 학파의 영향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一邑一院’의 원칙은 서원 제향을 원하는 여러 계열의 학파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김성일 합향이 성사된 후 일련의 재전 문인들은 賁趾 南致利와 松巢 權宇와 같은 퇴계 문인을 추향하려 했다. 특히 惟一齋 金彦璣 계열이 주도하여 남치리의 추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는 안동의 대표적인 처사향 퇴계 문인이었다. 남치리는 일찍이 김언기에게 수학하다가, 퇴계의 문인이 된 인사였다. 이 또한 재전 문인 대에 퇴계 계열의 학파가 분화되는 상황 속에서 처사형 삶을 지향했던 퇴계 문인 계열들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sup>46</sup> 하지만 서애·학봉 계열의 반대로 추향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남치리가 一鄉의 善士에 불과한데, 一國의 善士가 제향되어 있는 여강서원에 추향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논리로 반대하였으며,<sup>47</sup> 권호문이 제향된 청성서원에 합향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sup>48</sup> 그렇게 되자 추향 추진이 무산되자, 1649년 남치리를 제향하는 魯林書院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45 『琴易堂集』 권3, 書, 〈上西厓柳先生〉.

46 설석규, 앞의 논문(2009), pp.338-346.

47 『廬江誌』 권2, 續志, 〈本府士林通文〉.

48 『계암일록』 3, 〈甲戌 8월 21일〉.



‘퇴계-유일재-분지’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열에 ‘도통’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一畛一院’의 원칙은 서원 제향을 통해 학문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여러 계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남설로 인한 폐단이 지적되는 와중에도 각 학파의 계보별로 연결 고리가 되는 인사들을 제향하는 서원을 경쟁적으로 설립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한 고을 내의 ‘疊享’이다. 여강서원 합향 당시 안동의 재전 문인들은 주로 서애와 학봉 계열로 결집하였는데, 17세기 전반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했던 서애 계열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양 계열은 여강서원 배향으로 퇴계학파의 ‘적전’임을 과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에 있던 류성룡·김성일의 위패가 여강서원으로 옮겨졌다.<sup>49</sup> 하지만 병산서원 측은 위패를 옮김으로써, 병산서원이 퇴락할 것을 우려하여 얼마 되지 않아 여강서원과는 별개로 1629년 다시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당연히 ‘疊享’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경세는 중국 建寧에 주자를 제향한 서원이 2개소라는 사례를 내세우며 반박하였다.<sup>50</sup> 여강서원 합향이 퇴계학과 내 ‘도통’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면, 병산서원은 류성룡 일족의 결속력 강화와 사회적 지위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각 학파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 가문은 학파의 적통 유지와는 별개로 사적 연고를 매개로 일족이 주도할 수 있는 서원을 운영함으로써, 같은 학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다.

세 번째는 ‘학파’의 고착화에 따라 ‘家學’의 전통이 부각되면서, 일족 간 사적 연고에 따라 서원 설립과 제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첩향’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1662년 병산서원에는 류성룡의 삼남인 柳紇을 종향하였다. 당시 종향 명분은 ‘克紹家學’<sup>51</sup>이었다. ‘퇴계-서애’로 이어지는 ‘도통’을 풍산류씨 일족에게 계승되는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실상 ‘克紹家學’은 류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학파’의 계열이 ‘가학’의 전통과 일치되는 가운데, 조선 후기 서원에서 제향자의

49 임천서원은 이후 사당이 비워지면서 임천서당으로 존속하다가, 사빈서원과 결합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개별 서원으로 중건되었다.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패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pp.132-137.

50 『우복집』 권16, 제문,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 “주자 모신 병산 담로 두 곳 사당이 건넌 땅에 둘이 함께 나란히 있네 한 고을에 두 개 사당 같이 있는 건 그 징험이 아주 밝아 분명한 거네 [屏山湛盧 同在建寧 一府兩祠 其徵甚明]”.

51 『木齋集』 권7, 祭文, 〈屏山書院修巖奉安文〉.

후손을 추향하는데 ‘克紹家學’은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적 연고는 제향자 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1635년 김령은 다음과 같은 연락을 듣게 된다.

선산 부사를 지낸 金孝徵[金應祖, 서애 문인]이 이산서원의 원장이 되었는데,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도산서원과 여강서원 및 이산서원은 한 몸과 같습니다. 柳持平[류진]의 장례를 다음달 6일에 치르니 각 서원에서 奠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以志[金光繼]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으니, 이 역시 末世의 弊習이다.<sup>52</sup>

당시 퇴계를 제향하는 도산·이산·여강서원은 류진의 장례를 맞이하여 奠을 올렸다. 류진이 단지 여강서원에 배향된 류성룡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명분은 분명 先正 후손에 대한 예우이며, ‘도통’을 계승해 온 ‘가학’ 전통에 대한 존숭일 것이다.<sup>53</sup> ‘末世의 弊習’이란 언급처럼 사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는 서원이 사적 연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해져 서원 남설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당색이 ‘학파’와 일치되어 가는 상황에서 특정 학통을 고수하는 것이 도학의 가치라 생각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학문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학파의 가치를 이어가는 ‘가학’의 전통이 높게 평가 받았으며, 그것이 서원 제향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분기는 당시 서원이 증설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퇴계학파를 계승한 각 계열은 자신들에게 ‘도통’을 귀결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퇴계 직전 및 재전 문인을 서원에 제향하였다. 일찍이 퇴계는 서원 享祀의 기준으로 道學을 제시하였으나,<sup>54</sup> 이 시기 서원 제향 과정에서 제향 인물의 도학적 우열

52 『계암일록』 6, 〈乙亥 3월 27일〉.

53 퇴계학과 내 학봉계를 주도하는 김성일 일족도 泗濱書院을 설립하여 일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고을 내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사빈서원은 金璣를 주향으로 하고, 그의 다섯 아들인 金克一·金守一·金明一·김성일·金復一 형제를 배향한 서원이다. 원래 1685년(숙종 11) 影堂에서 출발했다가 1709년 서원으로 승격하였는데, 봉안의 명분은 “일찍이 淸溪公[김진]은 사문을 일으킨 공이 있고, 또한 五賢子是 모두 퇴계 문하에서 중유하여 ... 가히 六賢의 家學이 盛大함을 알 수 있다”로 역시 ‘퇴계-학봉’으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통을 계승해 온 것에 두고 있다. 『雨溪集』 권3, 잡저, 〈呈備局文〉.

54 『퇴계집』 권12, 書, 〈答盧仁甫〉, “서원에 있어서는 도학이 더욱더 주가 되니, 賢人을 향사함에 있어서도 도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계를 언급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학문적 업적에 대한 보편적 공감보다는 ‘학과’ 내에서의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사적 연고를 중요시 했던 것이다. 훗날 ‘屏虎是非’의 단초가 되는 병산서원 위치 논쟁도 도학에 대한 이론적 경쟁이 아니라, ‘年齒’와 ‘官爵’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있었다. 조선후기 ‘학과’의 전개는 이론의 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통’ 계승을 둘러싼 정통성 경쟁에 가까웠다. 17세기 전반 퇴계 직전 및 재전 문인에 대한 서원 제향도 이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IV. 17세기 전반 西厓學派의 ‘도통’ 의식과 서원 설립

퇴계 문인과 재전 문인들은 퇴계 사후 월천·서애·학봉 계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들은 각기 예안·안동·상주 등을 중심으로 學團을 형성하였고, 경쟁적으로 후속 세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당초 재전 문인은 월천·서애·학봉 문하를 번갈아 출입하였으나, 17세기 이후 퇴계학과 ‘도통’ 계승을 두고 서원 설립과 추향이 논란거리가 되자, 각 계열별로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7세기 전반 퇴계학과 내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서애 계열이었다.

서애의 학문은 크게 두 계열로 계승되었다. 하나는 柳仲郢을 시작으로 ‘서애-류진-柳元之-柳宜河-柳世哲-柳世鳴-柳後章’ 등으로 전개되는 ‘가학’ 계열이다.<sup>55</sup> 이 계열은 서애가 퇴계 문하를 ‘首登’한 이래 퇴계학파의 ‘도통’을 ‘가학’으로 계승해 왔음을 자부하였으며,<sup>56</sup> 서원 활동을 통해 ‘가학’의 위상을 천명하였다. 서애 가문은 안동의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에 류성룡을 제향함으로써, 퇴계학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강서원 배향을 통해 퇴계의 적전임을 자부하였고, 가학의 전통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서 일족들이 결집하였던 것이다.<sup>57</sup> 그런 가운데 1666년(현종 7) 류세철은 병

55 『家學淵源錄』. 이 책은 1902년 柳膺睦이 정리한 서애학과 문인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3 -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1999, pp.701-731’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56 『家學淵源錄』, 〈家學淵源世系圖錄跋〉.

57 1791년(정조 15)에는 퇴계의 高弟이자 친형인 謙庵 柳雲龍을 비롯해 손자 柳元之, 문인 金允安을 제향하는 화천서원을 화회 인근에서 설립하여, 가학의 전통을 강화하였다.

산서원을 거점으로 영남 유생 1,000여 명과 함께 서인 宋時烈의 禮論을 공박하는 服制疏를 올렸다. 이는 17세기 중반 퇴계학과 내에서 ‘서애학과’와 병산서원의 영향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학’ 계열과 더불어 서애의 학문은 ‘퇴계-서애-우복-류진-鄭宗魯-柳尋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西厓學派’로 전개되었다. 서애학파는 퇴계의 직전 문인은 서애, 재전 문인은 우복을 퇴계학파의 ‘嫡傳’으로 인식하였다.<sup>58</sup> 이들 역시 류성룡 사후 서원 제향을 통해 ‘도통’ 계승 의식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이에 17세기 전반기 동안 안동의 병산서원·여강서원 이외에도 류성룡과 연고가 있는 尙州 道南書院, 軍威 南溪書院, 龍宮 三江書院에 제향함으로써, 학파의 지역적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안동 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은 남계서원이다. 군위는 류성룡 가문의 先塋이 있으며, 1586년(선조 19)에는 류성룡이 南溪書堂을 짓고 머물렀던 곳이다.<sup>59</sup> 남계서원은 1627년(인조 5) 남계서당 옛 터에 설립되었다. 봉안문은 李堧이 작성하였는데,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도를 장차 일으키려 하늘이 陶翁[퇴계]을 내셨다. 溪上에서 학문을 가르치시니 英才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先生[서애]의 전수가 홀로 그 宗을 얻었다. ... 큰 재앙[임진왜란]이 참혹하게 일어나 천둥이 大義를 울리고 해가 외로운 患을 비추었다.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舜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공과 같다. 도적의 난리가 사라지고 吾道가 동쪽 땅에 퍼지니 그 은택은 장맛비와 같고 아리따움은 무지개와 같은데, 모여서 혈뜰음이 바야흐로 한창 치성하고 참조하는 공격을 번갈아 받았다. 물여우가 그림자라도 쏘려고 엿보나, 큰 기러기는 날개를 널리 펴고 높이 날아간다.<sup>60</sup>

이준은 봉안문에서 류성룡이 퇴계의 ‘도통’ 계승자임과 임진왜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인 세력과 월천 계열이 류성룡을 ‘주화오국’으로 참조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월천 계열이 퇴락해 가는 가운데, 류성룡의 정치·학문적 당위성을 정립했던 것이다. 한편, 서애 계열은 1643년(인조 21) 용궁에 삼강서원을 설립하였다. 용궁은 류성룡의 매부인 李潤壽가 정착한 지역으로 삼강서원

58 『溪堂集』 권16, 行狀, 〈王考江臯府君家狀〉. 이 행장에서 柳尋春은 ‘世稱陶山再傳之嫡者’이라 하여, 퇴계학파의 재전 문인 중 서애에게 수학한 정경세가 ‘도통’을 계승했다고 평가하였다.

59 『西厓年譜』 권1.

60 『蒼石續集』 권7, 제문, 〈南溪書院奉安西厓先生文〉.

설립을 주창한 李煥은 류성룡의 생질이자 류진과 교유했던 인사이다.<sup>61</sup>

〈표 4〉 서애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sup>62</sup>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자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彦迪 李滉 盧守愼 柳成龍 鄭經世[追1635]
	1631	玉城書院	金得培 申潛 金範 李堧[追1710] 李埈[追1647]
	1688	鳳山書院	盧守愼 沈喜壽 成允諧 丁好善 金弘微[追] 曹友仁 黃翼再
	1685	孝谷書院	宋亮 金沖 高仁繼[追] 金光斗
	1714[1789]	玉洞書院	黃喜 全滉 黃孝獻 黃紐[追1783]
	1796	愚山書院	鄭經世 鄭宗魯
安東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 柳軫[追1662]
	1661	勿溪書院	金方慶 金九容 金楊震 金應祖[追1670, 榮川]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張興孝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追1803]
軍威	1786	良川書院	洪彦博 洪瑋 洪灌
	1795	松湖書院	李叔璜 李軫 李輔
榮川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 金玔 金榮祖[追1669]
	1664	義山書院	李介立 金應祖[追1799]
醴泉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追1786]
聞慶	1712	瀟陽書院	鄭彦信 金樂春 南嶸 沈大孚 李樽
善山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晈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追]
豐基	1704	愚谷書院	柳雲龍 憲黃暹 李埈[尙州] 金光輝
開寧	1669[1676]	德林書院	金宗直 鄭鵬 鄭經世
慶山	1693	孤山書院	李滉 鄭經世[尙州]
大丘	1563[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星州] 鄭經世[追1676, 尙州] ○別祠 全慶昌 李叔樸

\* 제향 인물 중 서애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제향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 ]’로 별도 기재

그런데 안동 지역 보다 서애학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은 상주이다. 류성룡은 1580년(선조 8) 尙州牧使로 부임하였고, 정경세가 이때 문인이 되었다. 1617년에는 류성룡의 삼남 류진이 상주로 이거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경세·이준·류진 등이

61 『목재집』 권7, 碣銘, 〈湖憂李公墓誌〉.

62 서애 문인은 『가학연원록』, 〈匡門弟子錄〉’을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표 3〉 참고 자료와 동일.

머물고 있는 상주 지역은 서애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표 4〉에서와 같이 조선후기 동안 영남에서는 모두 21개소의 서원에 서애 문인이 제향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상주가 6개소로 가장 많고 류성룡의 고향·선영이 있는 안동과 군위에 각각 4개소와 2개소가 확인된다. 그 외에도 榮川·예천·문경·선산·개령 등 상주·안동·선산 인근에 서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서애학파의 주요 활동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慶尙道觀察使를 지낸 정경세의 경우 모두 5개소에 제향되어 있는데, 퇴계와 직접 연결되는 재전 문인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상도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퇴계의 재전 문인 중에서는 서애학파가 퇴계학파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4〉의 서애학파 계열 서원 중 병산서원과 더불어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상주 도남서원이다. 도남서원은 이른바 ‘商山三老’라 불리던 정경세·奎湜·이준 등 상주의 류성룡 문인과 金覺·宋亮 등 상주 지역 인사들이 설립을 주도하였다.<sup>63</sup> 특히 대외적으로는 정경세의 역할이 컸다. 도남서원에는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처음 제향했고, 이후 추향이 이루어져 8인을 제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정경세를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 의식이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세는 1605년 고을 내 士子들에게 通文을 보내어 서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까지 상주에만 서원이 없는 것은 큰 ‘欠事’이기에 서원을 세워 영남 출신의 國朝 儒賢 네 분[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제향하자고 건의하였던 것이다.<sup>64</sup> 또한 정경세는 스승 류성룡에게 서원 명칭 등 제반 사항을 자문하였으며, 상주목사·경상도 관찰사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청원하기도 했다.<sup>65</sup> 그 결과 1606년 정몽주를 포함해 5인을 제향하는 도남서원이 설립되었다.

1611년(광해군 3) 정경세가 쓴 奉安祭文에는 5인을 제향하는 명분에 대하여 “하늘 이미 우리 사문 도우시었고 또한 역시 우리 동방 도우시었네 이에 대현 이 세상에 나게 했으니, 바로 우리 영남 땅에 나게 하셨네[天既右文 亦右東方 篤生大賢 于嶺之陽 有倡

63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p.138.

64 『우복집』 권14, 잡저, 〈道南建院通文〉.

65 김형수, 앞의 논문(2005), p.132; 김학수, 「정경세·이준의 소재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pp.142-143.

其始]”<sup>66</sup>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문묘종사가 추진되고 있던 ‘동방오현’ 중 4인과 우리나라 성리학의 鼻祖로 알려진 정몽주가 모두 영남 출신이기에 이 5인을 영남 지역에서 함께 제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경세가 5인의 제향지로 상주를 내세운 것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존의식 때문일 것이다. 상주는 얼마 전까지 경상감영이 있었던 행정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낙동강이 시작되는 고을이었다. 우리나라 ‘도통’ 계보의 중심이 영남이라면, 영남 ‘도통’ 계보의 중심은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남서원에 5인을 제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정경세는 5인 중에서도 퇴계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그는 1606년 지은 도남서원 상량문에서 앞선 4인은 간단히 성리학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였지만, 퇴계에 대해서는 ‘集成一代諸子’와 ‘世適千載晦翁’<sup>67</sup>이라고 평가하였다. 16세기 중반을 대표했던 여러 ‘거유’ 중에서도 우리나라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가 바로 퇴계이니, 이는 주자에 빗댄 만할 업적이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5인에 대한 제향은 상주를 중심으로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퇴계학과 ‘도통’ 계승에 대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인 제향에 이어 1617년 노수신 추향[종향], 1631년 노수신 陞配 및 류성룡 배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수신 추향 과정에서 사적 제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sup>68</sup> 당시 상주목사로 재임하던 康復誠에 의해 노수신 추향이 발론되었는데, 그가 5인과 합향할만큼 학문적 업적이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상주 사람뿐만 아니라 안동·예안의 사람들도 합세하여 이론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도남서원을 주도했던 정경세와 이준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종향을 거쳐 숭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사적 제향이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김령도 다음 같이 비판하였다.

상주 도남서원서 盧蘇齋[노수신] 相公을 종향하려 한다고 하니, ‘末世의 私情’의 우세함이 어이 이 갑단 말인가? 주론자는 상주목사 강복성이고, 부회한 자는 奎湜이다. 강복성은 노소재의 3촌 조카이고, 전식은 문하 제자이다. 관직의 위세로 ‘私恩’을 갚으려고 하여 때를 틈타 꾀를 내었다. 鄭江陵[정경세]도 바로 잡지 못하고 다시 따라서 봉안제문을 지었다.<sup>69</sup>

66 『우복집』 권16, 제문, 〈道南書院奉安五先生祭文〉.

67 『우복집』 권16, 上樑文, 〈道南書院廟上樑文〉.

68 노수신 제향 과정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2019), pp.143-151’ 참조.

69 『계암일록』 3, 〈丁巳 3월 18일〉.

김령은 강복성이 관직의 위세로 ‘私恩’에 따라 노수신 추향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김령은 이러한 행태를 ‘末世의 私情’으로 보았다. 17세기 초반 학과가 분기되고 지역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원 제향은 ‘도통’의 계승자임을 확증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에 사적 연고를 바탕으로 서원에 배향 및 종향하거나, 별도로 서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원 설립과 제향이 공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제향이 이루어지면, 비록 사적 연고로 제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향 추진자들은 자신들의 집단성에 대한 학문적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령과 같은 인사는 노수신 추향을 ‘말세의 사정’으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물론 서원 설립과 제향을 통해 ‘도통’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도남서원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사적 연고를 바탕으로 서원이 설립되는 양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노수신 추향은 결과적으로 성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세와 이준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준이 적극적으로 존모한 것에 반해 정경세는 제문을 쓰기는 하지만,<sup>70</sup>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정경세가 구상하고 있던 ‘도통’ 계보에 노수신 추향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20년 여강서원 합향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퇴계-서애’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 ‘世稱陶山再傳之嫡者’<sup>71</sup>이라 평가 받았던 정경세는 향후 ‘퇴계-서애’의 ‘도통’까지도 자신에게로 귀결시키려 했기 때문에 노수신에 대한 추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2</sup> 비록 ‘말세의 사정’이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서원 설립과 제향은 ‘도통’ 의식을 매개로 향촌사회에서 권위를 확보하려는 여러 사람들의 열망이었다. 정경세 입장에서도 이러한 열망을 도외시킬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 ‘도통’을 자신에게 귀결시키는데 있어 외연 확장 또한 필요하였기에 노수신 추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수신 추향과 승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경세를 필두로 한 상주의 퇴계학과 재

70 『우복집』 권16, 제문, 〈蘇齋先生從享五賢廟祭文〉.

71 『계당집』 권16, 행장, 〈왕고강고부군가장〉.

72 김학수, 앞의 논문(2019), p.156.



전 문인들은 퇴계학파의 ‘도통’을 확보하기 위해 류성룡의 도남서원 추향을 추진하였다. 류성룡 제향을 통해 상주를 안동·예안에 버금가는 퇴계학파의 嫡傳地로 부상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정경세는 스승 류성룡에게 가해진 각종 혐의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의 여러 당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복인 세력에 ‘주화오국’을 지목된 혐의를 변호함으로써, 제향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 나갔다.<sup>73</sup> 그 결과 1631년 류성룡 배향이 성사되었고, 이른바 ‘서애학파’라는 학문적 집단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배향 당시 봉안문은 이준이 지었는데, 다음과 같은 ‘도통’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黃河와 五岳의 신령함이 조선에 鍾粹하였도다. 생각하건대 영남이 가장 온전함을 얻어, 여러 哲人이 번갈아 일어나 斯道가 날로 드날렸다. 중간에 불행을 만나 時運이 험난해졌지만, 文純[퇴계]께서 倡道하여, 끊어진 거문고 줄을 이어 나갔다. 공[서애]께서 溪上에서 어린 시절 執贄하셨다. 스승께서 감탄하시니, 하늘에서 재주 있는 분을 내었도다. 곧고 맑음이 그 속에 있으며 英邁함은 전에 없도다. ... 얼굴빛을 엄숙히 하고 조정에 서서 길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 세상을 彌綸하여 여러 현인의 儀表가 되었다. 鯨鯢가 독기를 뿜고 八路에 비린내를 진동하나, 人傑이 있지 않아 누가 그 전복됨을 도와줄까? 대대로 陸沈하다 忠을 다해 임금을 환도하였다. 큰 은혜 다 풀지 못했는데 讒說이 交謫하니, 이제 그만 거두어 가슴속에 감추고서 낙동강 가 언덕으로 돌아왔네.<sup>74</sup>

위의 봉안문에서 이준은 우리나라의 ‘도통’ 계보는 영남에서 변성하였으며, 사화 이후에는 ‘퇴계-류성룡’에게 ‘도통’의 적통이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扈聖功臣으로서의 공적과 政敵에게 讒說 당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배향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류성룡 사후 서애학파를 이끈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향은 예견되어 있었다. 정경세는 관료 생활 중 당색을 불문하고 폭넓은 관인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사후에는 인조와 동궁의 致祭를 받기도 했다. 또한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문인들이 愚伏學團을 형성하고 있었다.<sup>75</sup> 이러한 학문적·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1635년(인조 13) 삼년상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맞추어, 그의 문인들은 발 빠르게 정경세를 추향하였다. 당시 도남서원 원장이었던 金廷堅과 韓克述·洪鎬가 주도하였으며, 동문인 전식은 추향을 지휘하

73 『愚伏別集』 권7, 부록, 〈年譜〉; 김형수, 앞의 논문(2005), pp.137-138.

74 『창석집』 권15, 제문, 〈五賢廟西厓先生配享祭文〉.

75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愚伏先生門人錄』에는 류진을 필두로 67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고<sup>76</sup> 직접 봉안문을 지었다. 정경세 서원 제향은 류성룡 문인뿐만 아니라, 퇴계의 재전 문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 서원에 제향된 인물 중 하나이다. 전식이 봉안문에서 ‘學傳閩洛 統接溪厓’<sup>77</sup>라고 언급한 것처럼, 정경세 문인 집단은 ‘주자-퇴계-서애-우복’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도남서원 추향을 통해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도남서원 설립과 추향은 ‘학파’ 집단이 ‘도통’ 계보를 특정 지역으로 귀결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찍이 정경세는 상주를 우리나라 ‘도통’의 중심지로 구상했던 것으로 보이며, 서원을 그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그는 상주가 영남의 首邑이니, 영남 명현도 상주에 제향됨이 마땅함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남서원 설립을 실현시켰다. 5현이 우리나라 ‘도통’을 이어왔다면, 류성룡 제향을 통해 그런 ‘도통’을 상주 지역으로 연결시키고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을 표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주 출신의 정경세를 도남서원에 추향함으로써, ‘도통’ 계보는 상주 지역으로 귀결되었다. 즉, 상주를 도학의 연원과 統緒로 이해되는 ‘泗洙’와 ‘閩洛’에 대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 V. 17세기 전반 寒岡學派의 성립과 서원 확산

17세기 전반기 퇴계학파가 분화되는 가운데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 중앙부를 중심으로 또 다른 퇴계 문인인 한강 정구가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구가 퇴계에게 학문을 수수 받는 양상은 앞서 살펴 본 월천·서애·학봉 등 예안·안동 일대의 문인들과는 사뭇 다르다. 성주 출신의 정구는 13세 때 남명 문인 吳健에게 학문을 배웠고, 21세 때 퇴계, 24세 때 남명을 각각 배알하면서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하였다.<sup>78</sup> 정구는 퇴계의 다른 高弟들과 비교해 직접 서신을 주고받거나 배알한 횟수도 적은 편이다. 실록의 卒記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정구 스스로도 어느 문하에서 전적으로 수업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sup>79</sup> 따라서 한강 계열 입장에서는 예안·안동·상

76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pp.72-73.

77 『沙西集』 권7, 祝文, 〈道南書院愚伏奉安文〉.

78 『寒岡年譜』 권1, 〈年譜〉.

79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48, 12년 1월 5일, “어려서는 덕계 오건을 스승으로 모셨고, 겸하여 퇴계와 남명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퇴계는 德宇가 渾厚하며 행실이 독실하고, 남명은 才氣가

주권의 다른 재전 문인처럼 퇴계학파에 대한 배타적 ‘도통’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0</sup>

정구는 1603년(선조 36)에는 남명 문하에서 동문수학했고 당대 남명학파의 적통으로 인식되던 鄭仁弘과 절교하며, 남명 문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북인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 가운데 인조반정으로 남명학파가 퇴락하자, 종전까지 남명학파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정구를 통해 퇴계학파와의 연접을 시도했다.<sup>81</sup> 한편, 정구는 성주·칠곡·대구 등지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였기에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다. 또한 安東府使로 재임하면서 안동 권역에도 문인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檜淵及門諸賢錄』에 수록된 정구 문인은 모두 342명으로 수적으로도 월천·서애·학봉 계열을 압도한다. 거기다 정인홍·류성룡·정경세 등의 퇴계 직전 문인과 중첩된 사승 관계를 보이는 인사도 적지 않다. 물론 문인의 상당수는 낙동강 연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 본 퇴계학과 계열과 비교해 지역적으로도 영남 지역 전역에 두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2</sup> 퇴계가 직접 활동했던 예안·안동 지역의 문인들은 ‘도통’ 계승을 둘러싸고 배타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에 반해 정구 이전 뚜렷한 구심점이 없었던 낙동강 연안과 학문 외적인 사유로 와해된 진주·합천권의 남명학과 계열의 사람들은 ‘도통’에 대한 배타적 성격이 적었던 한강 계열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남을 벗어나 ‘퇴계-한강-眉叟-星湖’로 이어지는 近畿 지역의 퇴계학과 연원이<sup>83</sup> 정구에게 연접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한강학과 계열의 서원 설립과 제향 현상도 ‘도통’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우선시 두는 다른 계열과 비교해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정구는 문묘종사 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원에 네 번째로 많이 제향된 인물이다.

〈표 3〉에서 정구는 영남 지역에만 10개소의 서원에 제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퇴계의 직전 문인 중 가장 많은 수치일뿐더러,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여주

---

호걸스럽고 高邁하여 우뚝 서서 홀로 행하는 어른이다’하였는데, 그가 마음에 정한 견해가 그러하였다.”

80 김중석, 앞의 논문(1998), pp.163-165.

81 이수진, 앞의 책(1995), pp.402-403.

82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pp.110-127.

83 『樊巖集』 권51, 墓碣銘, 〈星湖李先生墓碣銘〉.

는 대목이다.

※ 이하 V장 미완

〈표 5〉 한강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sup>84</sup>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자
대丘	1563[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星州] 鄭經世[追1676, 尙州] ○別祠 全慶昌 李叔樸
	1639	伊江書院	徐思遠
	1691	南岡書院	朴漢柱 朴壽春[密陽]
	1692	百源書院	徐時立
	1694	靑湖書院	孫肇瑞 孫處訥 柳時藩 鄭好仁
	1708	龍湖書院	都聖俞 都汝俞 都愼修
	1764	琴巖書院	鄭師哲 鄭光天
	1781	西溪書院	李文和 李翰[追1801]
	1784	柳湖書院	蔡應麟 郭再謙
	1785	屏巖書院	都應俞 都慶俞
	1799	鳳山書院	孫遴
	1824	西山書院	蔡貴洞 蔡應麟 蔡先見 蔡先修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彦迪 李滉 盧守愼 柳成龍 鄭經世[追1635]
	1631	玉城書院	金得培 申潛 金範 李塤[追1710] 李埈
	1635	涑水書院	孫仲嗽 申祐 金宇宏 趙靖[追1730] 趙翊
	1714[1789]	玉洞書院	黃喜 全滉 黃孝獻 黃紐[追1783]
	1745	洛巖書院	金聃壽 金廷龍 金廷堅
	1796	愚山書院	鄭經世 鄭宗魯
星州	1627[1690]	檜淵書院	鄭述 李潤雨[追1677] ○鄉賢祠 宋師頤 李弘器 李弘量 李弘宇 李{竹/舒}
	1656	伊陽書院	張鳳翰 張以俞
	1725	道川書院	裴尙龍 裴尙虎
	1782	鰲巖書院	崔恒慶 崔麟 崔{車+潏}
	1794	德泉書院	金關石 金天澤 金輅 金楫
安東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 柳軫[追1662]

84 한강 문인은 『檜淵及門諸賢錄』과 『권언옹, 『회연금문제현록』 소고,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를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표 3〉 참고 자료와 동일.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張興孝
	1693	道淵書院	鄭述 許穆[京] 蔡濟恭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追1803]
漆谷	1651	泗陽書院	鄭述[星州] 李潤雨[追1664] 李遠慶
	1705	梅陽書院	宋遠器 宋命基 宋履錫
	1748	梧陽書院	鄭鍾
昌寧	1695	燕巖書院	李承彥 李長坤 成安義
	1712	勿溪書院	成松國 成三問 成聃壽 成守琛 成運 成悌元 成允諧 成渾 成思齊 成勝 成守琮 成汝完 成愷 成守慶 成濫 成濬 成汝信 成安義[追1814]
	1829	東山書院	盧善卿 盧克弘 盧世厚 盧垓
晉州	1702	臨川書院	李俊民 姜應台 成汝信 韓夢參 河愷
	1720	鼎岡書院	鄭溫 姜叔卿 河潤 俞伯溫 李濟 李琰 河天樹 陳克敬 朴敏 朴旨瑞
善山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晁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
	1796	勝巖書院	金寧
榮川	1786	寒泉書院	張壽禧 吳澐 朴檜茂 朴樅茂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 金功 金榮祖[追1669]
義城	1671	藏待書院	金光粹 申元祿 申之悌 李民成
	1856	丹邱書院	申適道 申悅道
義興	1786	羅溪書院	李堰 朴敏樹 朴從男
	1833	道岡書院	朴敏樹 朴從男
陝川	1766	會山書院	朴良佐 朴而文 李重茂 權濬
	1832	河南書院	文景虎
咸安	1780	道溪書院	李瀟 李休復 朴震英 趙益道
	1789	廬陽書院	趙參 安宅 朴昨 李明憲[追1802] 李景藩 李景茂
慶山	1693	孤山書院	李滉 鄭經世[尙州]
	1786	玉川書院	徐思選
居昌	1661[1662]	道山書院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鄭蘊
	1686	龍源書院	文緯
漆原	1850	清溪書院	李三老 李時韻[丹城]
	1864	泰陽書院	安倅
丹城	1787	浣溪書院	權濤 權克亮
	1612[1727]	道川書院	文益漸 權濤[追1672]
咸陽	1552[1566]	濫溪書院	鄭汝昌 姜翼 俞好仁 鄭蘊[追1677, 安陰] ○別祠 俞好仁 鄭弘緒[追1820]
安陰	1583[1662]	龍門書院	鄭汝昌 林薰 林芸 鄭蘊[追1642]

昌原	1634	檜原書院	鄭述 許穆[追1708, 京]
醴泉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追1786]
永川	1657	立巖書院	張顯光 鄭四震 權克立 鄭四象[追1713] 孫宇男
開寧	1669[1676]	德林書院	金宗直 鄭鵬 鄭經世
玄風	1674[1677]	禮淵書院	郭越 郭再祐
奉化	1676	盤泉書院	金中清
靈山	1703	德峰書院	李碩慶 李厚慶 李道孜
高靈	1707	文淵書院	朴潤 朴澤 尹奎 朴廷璠 崔汝契
河陽	1798	南湖書院	金是聲
仁同	1803	嘯巖書院	蔡夢硯[大丘] 張乃範[追1847] 蔡楸
宜寧	1825	峯淵書院	許穆[京]
英陽	1830	明阜書院	鄭湛 吳克成

\* 제향 인물 중 한강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제향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 ]’로 별도 기재

## VI. 맺음말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竹溪誌』 『嶠南誌』 『廬江誌』 『退溪集』 『退溪年譜』 『西厓年譜』 『梅軒集』 『月川集』 『嘯臯集』 『芝山集』 『寒岡年譜』 『愚伏集』 『愚伏別集』 『琴易堂集』 『蒼石集』 『蒼石續集』 『沙西集』 『木齋集』 『樊巖集』 『溪堂集』 『雨溪集』 『陶山及門諸賢錄』 『檜淵及門諸賢錄』 『家學淵源錄』 『愚伏先生門人錄』 『溪巖日錄』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 소고」,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

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정경세·이준의 소재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과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Ⅱ) -여강(호계)서원 치폐 전말-」,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 -이학계 인사들의 정치·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논의」,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이조성리학의 토착화와 아카데미즘-」,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폐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현정,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지준호, 「주자문인의 도통의식」,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모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 \_\_\_\_\_,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3 -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1999



## 토론문 :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의식과 서원의 확산’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연구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영남지역의 서원 건립 추이를 이황의 퇴계학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원건립 운동과 학파 특징 연결은 이황의 제자와 재전제자를 중심으로 전개한 추이를 정밀하게 추적한 성과입니다.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이황의 서원 건립 의지와 그의 ‘서원 건립 운동’의 성격이 밝혀졌으며, 또한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서원건립이 퇴계학파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간극을 매우는 정밀한 사료 분석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함은 물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이른바 ‘학단’의 동향과 연계하여 퇴계학파의 서원건립 운동과 도통의식을 종합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퇴계학파의 성립기, 이황 제자들에 의한 퇴계학파의 분기 시기 그리고 재전 제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류성룡을 대표 사례로 한 서애학파의 서원건립 운동을 순차적으로 서술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퇴계학파의 성립과 서원에 대한 서술관련입니다. 영남학파, 특히 퇴계와 남명학파에 의해 주도한 초창기 서원은 사람의 보편에 입각한 선현의 존현처로서 서원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원 건립을 통해 학문의 ‘도통’을 경쟁적으로 보여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묘종사 사람을 필두로 이황을 서원에 향사하는 움직임이 퇴계학파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1의 16세기 영남 17개 서원의 제향 인물 중 이황이 확인 가능한 사례는 영주의 이산서원 등 3곳뿐입니다. 서원건립 초기에는 대체로 사람도통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퇴계학파의 특징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표-2와 관련해서도 도산서원을 제외하고는 17세기 이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향사 인물과 관련해서도 도통의 사례와 관련이 있지만 지역의 선현이 대상이기도 하므로 16세기 목표의식과 방향을 갖고 서원건립운동을 전개 했다가 보다 결과론적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퇴계학파의 분기와 서원의 확산과 관련해서입니다. 17세기는 서원의 남설로 인식되고 있듯이 전국적인 서원 건립 동향 속에서 퇴계학파의 동향 혹은 대응에 대한 서술입니다. 영남지역에서의 퇴계 문인들이 향사된 사례를 보여주는 표-3의 경우, 지역의 엘리트들이 대체로 제한적인 현실에서 제향인물이 결정된 결과입니다. 이황의 문인들만 향사했다고 보기에다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의 건립이 ‘학과’의 인식과 맥락을 가지면서 ‘일읍일우’의 원칙이 무너지고, 한 인물의 壘享 그리고 家學 강조 현상의 대두로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퇴계학파 만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며, 17세기 전반의 학파와 정파의 분기에 따른 고착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서원 건립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착화가 아닌 향사 인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서원의 사례가 있는지요?

3. 17세기 전반 서애학파를 중심으로 상주지역의 서원건립 동향에 대한 서술은 류성룡의 후학-정경세-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성격을 밝혔습니다. 17세기 이후 이황의 제자, 혹은 재전제자의 분기에 따른 학술적 논쟁과 군소학파의 분기가 나타나고 이는 점차 확산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원의 운영과 강학의 특징을 서술하였습니다. 학술적 논쟁을 통한 서원의 경쟁은 각종 시비로 비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조적인 서원 활동으로 전개함에 따라 이황이 처음 주창했던 서원건립운동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퇴계학파, 특히 류성룡이 상징하는 합리성에 바탕 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서애학파의 서원건립과 운영에 있어 이러한 교조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탈피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채 광 수(영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도남서원 주도 세력 네트워크의 성격
- III. 도남서원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 1. 船遊와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 2. 講學과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 I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제향이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 지식문화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장소였다.<sup>1</sup> 서원의 지식문화와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상주 도남서원의 시회가 이를 입증하는 좋은 실례가 될 것 같다. 서원에서는 시회를 통해 지식을 교류했고, 서원과 관련된 각종 詩文을 지어 지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는 서원, 제향자, 자연, 선배의 시문 등 서원에 관련된 것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서원이 위치한 탁월한 산수 경관은 유학자들에게 遊食과 학습의 대상이었다.<sup>2</sup> 서원 영역 전면에 배치된 樓亭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 건물이다. 조

1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170쪽.

선시대 학자들의 여러 문집 및 서원 내 게시된 편액 등이 증거이다.

서원의 문화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서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시론적 정리,<sup>3</sup> ②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 분석,<sup>4</sup> ③심원록·문집 등을 통한 문학적 고찰<sup>5</sup> 등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두 번째 연구 외에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자료와 관심 부족에 기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중 상주의 도남서원은 ①·③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고, 그 문화사적 실체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회 자료가 현전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두 장으로 구성해 보았다. 우선 II장에서는 도남서원 주도세력의 네트워크 성격을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詩帖과 문집 등의 기록을 토대로 선유와 강학 후 실시된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의 구체적 활동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식사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지식의 생성과 네트워크 형성, 지식 확산의 과정을 도남서원의 시회 활동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sup>6</sup>

## II. 도남서원 주도 세력 네트워크의 성격

도남서원<sup>7</sup>은 조선시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 중 한 곳이다. 임란 뒤 상주 전 사족의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의 道가 남쪽에 있다’는 큰 뜻을 가진 院號와 그에 걸맞는 제향인[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모셔 창건되었다. 조선의 도통 정맥이 영남에 있고, 영남에서 상주가 이를 계승했음을 천명한 의미이다. 道院의 초대 원장 趙靖

2 이상해, 「도동서원과 조선시대 서원건축」,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2013, 99~102쪽.

3 이해준, 「앞의 논문」,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4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은 서지학 분야에서 보다 연구가 활발하며, 역사학에서는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5 김학수, 「德川書院: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제20집』, 2015.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27』, 2015.

권진호, 「한시로 쓴 심원록 -한시에 그려진 도산서원과 그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6 임근실,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69집, 2018, 496쪽.

7 이하는 편의상 도원으로 약칭한다.

의 손자 趙稜은 ‘도학의 연원은 洛水에서 찾을 일, 도원은 영남 사람의 으뜸 일세’<sup>8</sup>라고 하여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1616년(광해군 8) 노수신, 1631년(인조 9), 류성룡, 1635년(인조 13) 정경세의 연이은 추향은 향론이 반영된 결과로 상주를 안동과 대등한 또 하나의 영남학파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sup>9</sup> 도원에 처음 추향되는 노수신은 상주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양명학적 학문 성향 때문에 크게는 주류 성리학계에서, 작게는 안동권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도원 입향이 가능했던 것은 사상을 떠나 이준을 위시한 지역 후배 집단의 공조와 노력 덕분이다. 상주목사이면서 노수신의 高弟 康復誠이 입향 발의를, 노수신의 각종 문자를 지은 이준과 전식이 측면에서 지원을,<sup>10</sup> 노수신의 증손을 사위로 맞은 정경세가 종향제문을 지어 봉안에 일조를 하였다. 강복성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류성룡의 문인이며, 세칭 ‘商山三老’라 불리는 명망가이다. 이들이 노수신을 도원에 추향하고자 한데는 스승 류성룡과 노수신 간의 양명학적 동질성과 인간적 친밀성이 일정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당대 상주 사람들이 노수신을 향현이자 서원에 추향할 존모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한편으로는 소재 학맥이 건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주의 퇴계학맥은 류성룡 ⇨ 정경세 ⇨ 류진 ⇨ 정도응·정종로 ⇨ 柳尋春으로 전승이 된다. 상주권은 류성룡 문인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고장이면서 핵심 문인 정경세와 이준, 그리고 3남 류진이 이거한 서애학맥의 근거지이다. 16개 성관에서 배출된 상주의 서애문인 23명은 임란시에는 의병활동, 임란 후에는 사족을 대변하는 낙사계 결성과 존애원 설립, 향약 시행 등 향촌 복구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여기에 구성원 가운데 20명에 달하는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의 비율, 또 ‘오현종사소’·‘퇴계변무소’·‘이이첨 탄핵소’를 통한 정치 활동 등 그 위상이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 시기 지역 사회를 이끈 주역들이며, 그 중심에는 정경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8 조릉, 「홍관관운」 『도남서원사실 하』 ; 권태을, 「도남서원 관련 詩文의 機能考」, 『도남서원의 사회적·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27쪽, 재인용.

9 이와 관련해서는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이 크게 참고가 된다. 한편 1710년 이준 추향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권1, 「1710년 11월 21일」.

10 이준이 노수신 관련문자는 총 9편에 이른다. 김학수, 「정경세, 이준의 소재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71호』 2019, 137쪽.

도원 창건 당시 류성룡의 자문을 받아 서원의 위치·院號 등을 낙점했고, 1619년(광해군 11) 『서애집』 첫 교정을 상주 용암 修善書堂에서 진행한 것이다. 1631년(인조 9) 류성룡의 도원 추향은 지역 분위기 상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때 추향제문은 이준이 맡았다.

“젊어서는 친구였고, 늙어서는 스승이다”<sup>11</sup>라는 정경세와 동문수학한 전식의 말처럼 류성룡 사후 서애문인은 우복학단으로 흡수 및 이행되었다.<sup>12</sup> 그 과정에서 정경세의 학문적 입지와 위상은 보다 고양되어갔다. 류성룡 추향이 그 문인들 협의 하에 성사되었듯 정경세 추향 역시 우복문인들이 주도를 했다. 정경세 사망 2년이 지난 1635년(인조 13) 문인 金廷堅·韓克述·洪皓 등이 앞장섰고, 전식이 후원자로서 지휘하였다. 이때 김정견이 도원 원장에 재직 중이라 여러모로 유리한 환경이었다. 당초 이 일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피력한 趙靖과 이 자체를 못 마땅히 여긴 金榮祖 등 일부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 2개월 만에 추향이 실현된다.<sup>13</sup> 추향이 단시일에 성공한 요인은 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복학단의 강한 결속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봉안일의 집사와 예식문자 역시 문인들이 맡아 마무리했다.<sup>14</sup> 정경세의 도원 추향은 이황-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학통의 적전 계보를 정립한 사업인 동시에, 서애·우복학단의 남인계 서원으로서의 성격을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이다.

도원에 현전하는 「임원록」 4책에 수록된 원장 204명의 인적분석을 통하여 그 네트워크 실체와 성격을 추적해 볼 수 있다.<sup>15</sup> 「임원록」의 자료는 1664년~1747년[1책] 73명과 1802년~1871년[3책] 131명으로 구분되며, 성관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1 정경세, 『(국역) 우복집 별집』 권12, 「부록-又 全渥」.

12 서애문인에서 우복문인으로 흡수된 인원은 모두 16명이다.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178~179쪽.

13 일례로 현풍 도동서원 중간에 크게 이바지한 제향자 김평필의 외증손인 정구만 하더라도 종향에 소요된 기간이 14년이나 걸렸다. 도동서원에서 정구의 위상과 서원 운영을 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녹록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초현 李峽·아현 申楫·중현 郭龍伯 이었고, 고유문은 李峽, 봉안문은 전식이 찬술을 했다. 김령, 『(국역) 계암일록』, 5권, 한국국진흥원, 2013, 516~517쪽;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93쪽.

15 도남서원 원장에 대한 연구물로는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제79집, 2016이 있다.

<표. 1> 도남서원 원장 성관 구성

①1664년~1747년[84년]					
성관	인원	원장명	성관	인원	원장명
창녕성 [老]	7	成德徵(3) · 成世璜 · 成爾漢 · 成爾鴻 · 成震丙	홍양이	7	李麟至(2) · 李在憲(2) · 李增嘩(2) · 李增祿
경주손	4	孫萬雄(3) · 孫景錫	장수황	4	黃滿 · 黃翼再 · 黃緬 · 黃浚
청도김 [老]	4	金時泰(2) · 金必大 · 金宇泰	평산신	4	申弼成(4)
풍산류	4	柳千之(3) · 柳經河	부림홍	3	洪相民(2) · 洪汝河
상산김	3	金鍵(3)	안동권	3	權坵(2) · 權相一
진양정	3	鄭胄源 · 鄭錫僑(2)	남양홍	2	洪道達(2)
동래정	2	鄭堯錫 · 鄭之鍵	순천김	2	金堧 · 金壽聃
신평이	2	李葆英(2)	여산송	2	宋頻(2)
의령남 [老]	2	南躋 · 南塹	의성김	2	金以載 · 金國采
전주이	2	李知聖(2)	개성고	1	高師聖
광주이	1	李世瑗	벽진이	1	李挺奎
선산김	1	金在鎰	안동김	1	金楷
연안이	1	李萬敷	영동김	1	金世維
인천채	1	蔡獻徵	진주강	1	姜悅
함안조 [老]	1	趙重台	풍양조	1	趙稜
②1802년~1871년[70년]					
성관	인원	원장명	성관	인원	원장명
진주강	22	姜世綸(4) · 姜世揆(3) · 姜申永(3) · 姜秉欽(2) · 姜胥永(2) · 姜世白(2) · 姜長欽(2) · 姜哲欽(2) · 姜肱欽 · 姜文永 · 姜世鷹	진양정	18	鄭象晉(6) · 鄭允愚(6) · 鄭象樞(4) · 鄭民秀(2)
풍산류	17	柳尋春(7) · 柳厚祚(7) · 柳教祚 · 柳疇睦 · 柳喆祚	연안이	11	李建基(5) · 李敬儒(4) · 李敦九(2)
장수황	10	黃礪老(6) · 黃贊熙(3) · 黃莘老	부림홍	6	洪殷標(5) · 洪錫嘯
풍양조	6	趙櫛(3) · 趙得和 · 趙嶷 · 趙學洙	인천채	6	蔡光禹(4) · 蔡周郁(2)
안동권	4	權世永(3) · 權訪	여산송	4	宋台霖(3) · 宋奎弼
선산김	3	金聲鶴(2) · 金驥燦	홍양이	3	李升培(3)

경주손	2	孫鎭翼 · 孫會慶	봉화금	2	琴英澤(2)
비안손	2	孫興祖(2)	개성고	1	高聖謙
경주김	1	金熙永	순천박	1	朴光錫
안동김	1	金顯奎	의령남	1	南必錫
의성김	1	金揚壽	진성이	1	李彙寧
진주류	1	柳榮國	청주정	1	鄭述
풍산김	1	金重夏	기타	3	李正煥(2) · 李鉉駿

※ ( )는 역임횟수, [老]는 노론, 상주목사 신분으로 원장을 역임한 4명은 제외함.

총 38개 성관에서 108명의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홍여하 · 이만부 · 권상일 · 류심춘 · 류후조 · 류주목 등 당대 영남을 대표하던 관료와 학자군은 도원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도원 원장 구성의 특징적인 성격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전 · 후 시기 원장의 성관 구성, 곧 諸 가문의 변화상을 언급할 수 있다. ①의 80년간은 30개 성관에서 51명의 원장이, ②의 70년간은 25개 성관에서 59명이 나왔다. 도원은 제향자의 후손이 명확한 도산 · 병산 · 옥산서원과는 달리 특정 가문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운영 체계였다. 다만 시기별 제 가문의 원장 배출 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위권을 대상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시기 : 홍양이 · 창녕성 · 경주손 · 장수황 · 청도김 · 평산신 · 풍산류 · 부림홍 · 상산김 · 안동권 · 진양정
- ② 시기 : 진주강 · 진양정 · 풍산류 · 연안이 · 장수황 · 부림홍 · 풍양조 · 인천채 · 안동권 · 여산송 · 선산김 · 홍양이

양 시기 모두 원장을 배출한 상위 가문은 부림홍 · 안동권 · 장수황 · 진양정 · 풍산류 · 홍양이씨 6개 성관이다. 전반적으로 정경세의 문인 후손들에서 제향자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홍양이씨는 감소, 창녕성 · 청도김씨는 탈락, 장수황 · 부림홍씨는 유지, 진주강 · 연안이 · 인천채씨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양 시기를 비교하며 제향자 가문 성관의 증가, 홍양이씨와 진주강씨의 성쇠로 요약된다.

진양정씨는 정경세의 직계 증손자 정석교를 시작으로 정주원-[鄭仁模-정종로]<sup>16</sup>-정상진



-정민수까지 세대를 이어 원장에 취임할 만큼 도원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다. 1871년(고종 8) 대원군 서원 훼손 반대 영남유소를 도원에서 주관할 때 정경세의 8대손 鄭民秉이 疏首를 맡아 중심적 역할을 한 것도 이 같은 사정에 말미암은 것이다.<sup>17</sup>

진양정씨와 특별한 世直가 있는 풍산류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양정씨 상주 입향조 류진은 1618년(광해군 10) 안동 하회에서 이거해 이준의 딸과 정경세의 손자를 며느리와 사위로 맞이하며 지역사회에 안착을 한다. 장남 류천지를 비롯해 특히 6대~8대 종손 류심춘[7회] - 류후조[7회]<sup>18</sup> - 류주목이 대를 이어 도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들의 명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대다수의 서원들의 기능이 추락하던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도원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18세 중후반 영남지역 首 서원들에서 목격되는 외부 명망가를 추대하는 京·道원장제가 도원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서원 운영에 관의 지원을 기대해 현지 지방관을 원장으로 초빙한 것이 도원에서는 19세기 4명에 불과 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임 또한 사마시 입격자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통규로 삼았을 정도였다.<sup>19</sup>

‘篤學君子’로 칭송받은 정종로의 문인 류심춘은 아들 류후조와 함께 가장 오랜 기간 원장에 재임을 했다. 1848년(헌종 14) 여름 도원에서의 문집 간행은 그가 원장에 있으며 강학·원생들과 교감·문자 찬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의 소산이었다. 손자 류주목은 이 사실을 告成文으로 남겼다.<sup>20</sup>

현직 관료로 있으면서 13년간 원장을 겸임한 류후조는 400년 만에 배출 된 영남 출신 정승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원에 대해 남다른 자긍심을 가졌던 만큼 명예직에 머물지 않고, 여러모로 도움을 줬을 것이다.<sup>21</sup> 서원 입장에서도 류후조가 원장에 있는 자체 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실제 1883년(고종 20) ‘정경세 문묘종사소’는 류후조의 주선으로 추진된 추숭사업이었다.<sup>22</sup>

16 정인모와 정종로가 활동한 시기의 도남서원 원임록이 전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종로의 경우 당대 명성과 도남서원 관련 문자 찬술 및 강학활동, 도산·덕천·옥동서원 원장에 부임한 경력을 감안하면 원장을 역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17 이수환, 「대원군의 사원훼손과 영남유소」,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375쪽.

18 류심춘 : 도산(1823)·병산(1828), 류후조 : 도산(1868)·병산(1863·1875), 류철조 : 도산(1832)·병산(1831), 류주목 : 병산서원(1868) 원장을 역임했다.

19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4년 윤4월 14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69쪽.

20 류주목, 『溪堂先生文集』 권12, 「奉安文·常享文·告由文-王考江皋先生文集告成文」.

21 류후조, 『洛坡先生文集(全)』, 「南嶽祠記」, 대보사, 1994, 445쪽.

한편 홍양이씨와 진주강씨는 자못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자는 최다 원장 배출 가문에서 1명으로, 후자는 그 반대로 바뀌었다. 후손의 浮沈, 소·대과 급제자 수, 서원 출입처 분산,<sup>23</sup> 혼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듯하다. 이중 명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문과 급제자를 기준 삼아 비교해 보면, 18세기 이후에 홍양이씨가 2명인 데 비해서 진주강씨는 7명이나 된다.<sup>24</sup> 진주강씨는 상주에서 풍양조씨[9명]와 진양정씨[8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보유한 성관인 것이다. 이는 후술할 도원 원장 구성원들의 높은 과거 합격률을 고려하면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양반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혼인에서도 서로 일정한 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경세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볼 수 있다. 정경세는 총 107명의 문인을 두었는데 본향인 상주권에 절반이 넘는 55명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학통적 계보는 향촌의 중추적 기구 도원에서 구현 및 계승되어 갔다. 1676년(숙종 2) 도원 청액소에 “만력 갑오년에 문속공 정경세가 학궁을 세워 5현의 舍祀를 꾀했으니, 이른바 도원이 이것입니다”<sup>25</sup>라는 구절은 정경세가 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疏首 이재현의 경우 조부가 정경세와 동문인 이전이며, 부친 李德圭는 정경세의 문인이다. 전형적인 우복문인 계열의 후학인 셈이다. 그는 1687년(숙종 13)에 도원 원장에 취임을 한다. 이재현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인물 상당수가 도원의 운영을 담당했다. 서원 창건 당시부터 서애·우복문인 참여자가 절대다수를 점하던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sup>26</sup>

<표. 1>의 앞 시기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상을 파악해 보자. 51명 원장 중 정경세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자는 28명에 달한다. 28명은 자료상 확인된 숫자일 뿐 정경세와 연관이 있었던 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서인계 8명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경세 문인 중에서 서인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27</sup> 이

22 김자상, 「文莊公 愚伏 鄭經世 陞祀聖廟疏 小巧」, 『상주문화』 제7호, 1998, 13쪽.

23 홍양이씨: 1631년 玉成書院 설립[享 김득배·신잠·金範·이전·이준], 진주강씨 1817년 景德祠 설립[享 姜淮仲·姜詞].

24 18세기 이후 대과 급제자: 홍양이씨 - 李增祿(1708)·李瑛(1789), 진주강씨 - 姜杭(1726)·姜世鷹(1780)·姜世綸(1783)·姜世樸(1786)·姜世白(1794)·姜長煥(1837)·姜景熙(1893).

25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0월 25일.

26 창설계안에는 1605년(선조 38)부터 1656년(효종 7)까지 42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주 전체 사족이 참여하고 있다. 이수건,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73~76쪽.

시기 도원 원장 65% 이상이 정경세와 관련 있는 인적구성이다. 그 구성원은 크게 학연과 혈연 그룹이다. 세분하면 앞에는 문인 1명과 문인 후손 23명이며, 뒤에는 정경세의 증·현손과, 류진의 장남·손자들이다.

정경세 문인의 연령대는 1557년 생 金涌부터 1616년 생 柳宜河까지 60년의 편차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중 『임원록』에 등재되어 1664년까지 생존했던 직계 문인은 15명이었는데 黃緬 1명만이 원장에 취임을 했다. 이미 원장을 지냈거나 타 지역 거주자, 서인계 문인은 배제 등의 이유와 닿아 있을 것이다.<sup>28</sup> 도원 원장에 재임하며 스승의 추향을 이끈 김정견처럼 아마도 1604년(선조 37) 창건 후 60년 동안은 <표. 1> 기간보다 정경세 문인들의 참여율과 활동이 더 활발했을 것은 자명하다.

문인 후손 23명은 홍양이·장수황씨 각 4명, 청도김씨 3명, 경주손·동래정·부림홍·의성김씨 각 2명, 여산송·영동김·창녕성·평산신·풍양조씨 각 1명씩 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위권인 홍양이씨와 장수황씨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보자.

상주를 대표하는 남인계 사족가문인 홍양이씨는 정경세와 생전 異姓형제로 불린 李堧·李竣과 아들 대 7명이 그 문하에서 공부한, 각별한 交契가 있는 후예들이다.<sup>29</sup> 이 증록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중임을 했고, 이재현과 이인지는 부자가 원장을 지냈다. 부자가 원장을 맡은 또 다른 사례에는 鄭榮後의 손자 정요석과 증손 정지건, 洪鎬의 아들 홍여하와 손자 홍상민이 있다.

장수황씨는 정경세의 증조모가 출가해 戚聯이 있는 가문이다. 입향조 黃保身의 차남 黃從兄을 파조로 하는 참판공파에서 4명이 정경세와 사제를 맺었다.<sup>30</sup> 원장은 황종형의 5대손 黃紐·黃紳 형제계열에서 나왔다. 특히 황뉴는 10세 때 정경세 문하에 입문한 이래 학문, 관직, 일상사까지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 그가 먼저 사망하자 정경세는 만사를 지어 곡하고, 제문을 지어 조문했는데 ‘정신과 혼 모두 녹아 다 없어졌고, 몸체만이 흙덩인 양 홀로 남았네’<sup>31</sup>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1786년(정조 10) 玉洞書院에 위패를 모실 때 상향축문을 정경세의 5대손 정종로가 지은 것도 이 때

27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28 1660년(현종 1) 도원 강당 화재 때 1664년 이전의 임원록이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하다.

29 홍양이씨 가문의 정경세 문인: 이진 아들 - 李一圭·德圭·身圭, 이준 아들 - 李大圭·元圭·文圭·光圭.

30 황뉴·황신 형제, 황뉴의 아들 黃德柔, 황면 4명이다.

31 정경세, 『(국역) 우복집』 권2, 「시-持平 黃會甫紐에 대한 만사」, 민족문화추진회, 2003.

문이다.<sup>32</sup> 반대로 장수황씨에서 1791년(정조 15) 『우복문인록』 修補와 『우복별집』 · 『연보』 간행을 주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한편 4차례나 원장직을 중임한 신필성은 정경세에 입문해 스스로 덕을 증진시키고 학문을 닦는 데 노력한 申尙哲의 증손자이다. 서울에 살던 신상철이 1618년(광해 10) 상주 영순리에 이거해 영남 사람이 되는데는 정경세와 인연이 일정한 계기가 되었다.<sup>33</sup> 신필성은 원장에 있는 동안 후배들에게는 興感이 되어 주었고, 전통과 모범이 있는 서원 구축에 이바지 했다.<sup>34</sup>

도원에서 1657년(효종 8) 『우복집』 이 간행되고, 1693년(숙종 19) 정경세의 ‘文莊公’ 시호 개정을 추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9세기 들어서도 정종로의 문인 9명이 원장에 취임하며 이러한 기조에 조응했다.<sup>35</sup>

셋째, 남인과 노론이 병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영남 남인계 서원에서는 거의 목격할 수 없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지역적 특성의 하나로 지적해 둘 만하다.<sup>36</sup> <표. 1>에서 창녕성 · 청도김 · 의령남 · 함안조씨가 바로 노론계 성관이다.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에 왜 노론 색목의 원장이 있는 것일까? 이는 정경세의 사위가 노론의 영수 송준길이라는 점과 서인계 사족인 창녕성 · 평산신씨 등 친서인 세력의 존재에 기인한다. 상주의 노론이 1702년(숙종 28) 송준길을 모신 흥암서원을 창건해 자파 서원을 확보한 뒤, 중앙의 노론 정국에 편승해 도원으로 세력을 확대한 결과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향촌 해게모니 문제로 봐야하나 이들은 도원 출입의 명분을 정경세가 보여준 서인과의 친연성<sup>37</sup> 및 世誼<sup>38</sup>라고 강조하였다.

창녕성씨는 우율 문인 成灝이 상주에 입향한 이래 서인계라는 정체성을 고수하며, 영남 노론세력을 선도한 가문이다. 이 가문은 지속적인 노론계 문인 배출, 우율 · 사계 · 양송종사소 등 각종 상소 기획 및 주관, 영남 내 노론계 서원 설립 주도 등 가시

32 정종로는 황뉴를 비롯해 정경세 문인과 후손들에 대한 많은 문자를 작성하였다.

33 李敏求, 『(국역) 東州集』 권8, 「戶曹正郎申公墓碣銘」, 한국고전번역원, 2018.

34 신필성, 『盧峯遺稿-부록』 권1, 「祭文-道南士林祭文」.

35 정석진, 『愚山史積大觀』, 「附 及門諸子錄」, 愚山先生記念事業會, 1975.

36 18세기 초반 도산 · 병산서원에 노론으로 전향한 安鍊石이 원장에 취임하기도 하나 도원과 같이 장기 간 여러 명은 아니었다.

37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233~247쪽.

38 성이한, 「歲戊午三月上丁」, 『흥판관운』.

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sup>39</sup> 원장의 일면을 보면 성덕정은 1718년(숙종 44) ‘양송문묘 중 사소’ 疏首, 성이한은 조야에 파란을 일으킨 안동 김상헌 서원 창건 유사를 지냈으며, 성이홍은 권상하의 문인이다.

청도김씨 상주파의 김필대는 우복문인 金百鑑 증손으로 성이홍과는 동문이다. 일찍이 5대조 金洽이 이이에게 증유를 했고, 종조부 金三樂이 창녕성씨를 三娶로 맞으면서 노론으로 밀착되었다. 청도김씨 세거지 관곡에 西山書院[후 김상용·상헌]을 창건하고, 청액소를 올리는 金必千·必粹와는 재종간이다.<sup>40</sup> 아울러 임란 때 순절한 고조 金俊臣의 노론계 사우인 忠義壇 추향 역시 지역 노론의 연대물이다.

렇게 한때 도원을 장악했으나 이들 가문의 원임직 유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1738년(영조 14) 서원 강회 뒤 詩會에서 노론계 원장 성이한이,

“어찌다 말세가 되니 논의는 갈수록 격렬하여 배움집이요, 예절을 가르칠 서원[도원]이 문득 이쪽은 들이고 저쪽은 내치는 장소가 되어,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으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sup>41</sup>

라는 토로 속에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도원은 집권 노론의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 원임직을 내주는 일시적인 변동을 겪었지만 곧바로 남인계가 주도권을 회복한다.

넷째, 원장의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 비율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영남지역 서원과 구별되는 도원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생원에서 참판에 이르기까지 원장 전원이 소·대과 합격과 관직 경력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북을 포함해 소·대과에는 생원 39명·진사 18명, 대과 56명 그리고 관직은 참봉 15명, 현감 9명, 부사·正言 각 5명, 別檢·奉事 각 4명, 都正·翊衛·장령·주부·지평 각 3명, 都事·목사·부윤·승지·翊贊·典籍·正字·헌납·현령 각 2명, 교리·군수·副驛·수찬·정랑·좌랑·집의·찰방·판관 각 1명씩이다. 다만 당상관 경력자는 목사 손만웅, 승지 강세륜·조덕·이휘녕, 참판 류후조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대과 합격자 비

39 채광수·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40 채광수·이수환, 「앞의 논문」,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41 권태을, 「洪判官韻 해제」, 『상주문화연구 6』, 1996, 241쪽.

율이 50.9%에 달하는 점은 18·19세기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22%<sup>42</sup>와 14.5%에<sup>43</sup>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sup>44</sup> 임원록 기간 내 상주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52명 중에서 30명이 도원 원장을 거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는 서애·우복학단의 경제가적 특성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원 수의 증가와 역량을 가진 인사 감소 등으로 인해 원장을 지낸 다수가 다른 서원의 원장을 중복해 역임했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영남지역 서원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도원 성격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대 영남을 대표한 이만부는 도남[1729]·덕천서원[1721] 원장을, 권상일은 도남[1723]·옥동[1726]·도산서원 원장[1733]을 차례로 지냈다.<sup>45</sup> 이뿐 아니라 상주의 같은 남인계 사액서원인 옥동서원에는 무려 23명이 원장에 취임을 했다. 주로 도원 원장을 먼저 수행한 다음 옥동서원 원장에 취임한 사례가 많았다. 또 도원과 동질성이 큰 서애학파의 근거지인 병산서원 원장은 19세기에만 등장을 한다. 풍산류씨 愚川派 일원과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오른 부사 이건기<sup>46</sup>·승지 이휘령<sup>47</sup>·교리 김종하<sup>48</sup> 그리고 정종로의 증손자 정윤우 등이 그 대상이었다.

### III. 도남서원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도원을 논하면서 시회와 문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후기 서원의 다양한 모습과 지식 네트워크의 실재를 보여주기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에 있다. 상주 사람들은 낙동강을 끼고 삶의 터전을 이루었고,

42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43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44 참고로 경주 옥산서원 원장의 경우 17세기 유학 신분이 34.2%, 18세기 70.5%, 19세기 67.8%나 차지했다.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3쪽.

45 홍상민, 강세륜도 도남·옥동·도산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46 이건기는 이만부의 현손으로 정종로 문인이다.

47 이휘령은 이항의 10대손으로 도산서원[1842, 1846~48]과 병산서원[1843]의 원장을 지낸 후 1853년 도원 원장에 초빙되었다.

48 金榮祖의 7대손으로 1835년(헌종 1) 문과에 급제했으나 한 번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南州高士’로 불렸다.

낙동강의 물로 농사를 경영했으며, 선비들은 낙동강을 조망하며 시를 읊은 특별한 강이다.<sup>49</sup> 上洛·洛陽·洛邑으로 불린 상주는 낙동강의 고장으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다.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李璵는 ‘낙동강에는 신비로운 거북이 나온다’ 했으니,<sup>50</sup> 곧 상주는 洪範의 원본이 되는 神龜의 출현지라는 의미이다. 상주 선비들의 낙동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상주 땅 동남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은 북쪽 三灘津 ⇨ 檜洞津 ⇨ 飛鸞津 ⇨ 竹岩津 ⇨ 洛東津까지 30리 수로가 펼쳐져 있다.<sup>51</sup> 상주에 301개에 달하는 누정이 분포한 것도 낙동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sup>52</sup> 특히 30리 수로에는 명승지 擎天臺, 首학궁 도원, 류진의 수암종택, 영남 3대 누각인 觀水樓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리고 위쪽 경천대와 아래쪽 관수루 사이에 위치한 도원은 상주 낙동강 구간 명승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sup>53</sup>

조선후기 상주를 대표했던 시회·詩社로는 ‘淵嶽文會’, ‘洛江詩會’, ‘秋水社’ 등이 꼽힌다. 3개의 단체 중 도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하며 지역 사족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낙강시회’였다. 이를 통해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의 실재를 조명해 보려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악문화’에 대해 잠시 살필 필요가 있다. 연악문화는 조선시대 상주에서 최초로 공동 시문집을 낸 시회이자 낙강시회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연악은 상주의 명산 甲長山 북쪽 정상부 九龍淵에서 유래했다. 경관이 무척 빼어난 갑장산은 서원·서당·누정·종택 등이 망라되어 있는 상주문화의 淵藪인 유서가 깊은 공간이다.<sup>54</sup> 그 중에서 목사 신잠이 세우고, 손수 편액을 건 연악서당은 갑장산 문화권의 일 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연악서당은 임란 당시 소실되고 만다. 이를 애석히 여긴 康應哲이 동몽재 옛터에 작은 집을 지어 ‘淵岳書屋’이라 편액을 걸어 유식의 장소로 삼았다.<sup>55</sup> 참고로 강응철은 처남 정경세와 더불어 17세기 초·중반 상주학풍을 주도한 인물

49 임재해, 「낙동강으로 읽는 상주의 문화와 인물」, 『낙동강을 품은 상주 문화』, 상주박물관, 2012.

50 이진, 『(국역) 월간선생문집』, 「壬戌之秋七月既望泛月東江同遊凡二十五人以赤壁賦從頭分韻得之字」, 2008.

51 『상산지』, 「산천-낙동강」.

52 상주문화원, 『상주의 누정록』, 2008.

53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화보』 18, 2008, 1295쪽.

54 김학수, 「상주지역 갑장산 유교문화」, 『갑장산』, 상주박물관, 2016, 85쪽.

이다.

1622년(광해군 14) 5월 25일 상주목사 趙續韓이 사위를 대동해 서옥을 내방했고, 이 소식을 접한 여러 벗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내방의 목적은 강학이었고, 여흥으로 문화가 개최된 것이다. 정경세와 이준은 일찍 도착해 목사를 맞이했다. 앞의 두 사람과 전식에게도 편지로 기별했으나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다.<sup>56</sup> 3명은 이미 중앙정계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이들의 이러한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찬한은 상주목사 부임 전 1614년(광해군 6) 榮川郡守 재직 때 朴檜茂<sup>57</sup>의 정자인 六友堂에서 이준과 相韻을 나눈 바 있다.<sup>58</sup> 상주에 와서도 이준의 溪堂, 류성룡의 별서 鳳笙亭, 仙遊洞에서 詩遊를 즐겼고, 멀리 충청도 葩串까지 유람하는 등 수시로 모여 우의를 다졌다. 詩賦에 명성이 높았던 조찬한이 그 감회를 詩로 남겼음은 당연했고,<sup>59</sup> 둘과의 인연을 ‘鷄黍夢’으로까지 표현을 했다.<sup>60</sup>

연악에서의 모임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악 일대는 상주 선비들이 즐겨 찾던 유상처이며, 사회가 꾸준히 열린 곳으로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sup>61</sup> 이준은 문화록 서문에 이때를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전략)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비록 아무런 격식이 없이 어울리는 뜻에 나왔으나 그래도 서로가 권면하는 것은 서로 경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뜻이 아닌 게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끝내 추구하는 사실은 술이 깨고 나면 그때의 일에 대해서 뒷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술을 깨었다가 다시 뒤켰다가 깨면서 옛날 사람들의 聯句의 시를 본떠서 글 짓는 재미로 삼기로 했다. 흰 눈썹에 야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산 속을 흰하게 비추니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도사의 모습 같았는데 이렇게 지낸 것이 4일간이었다.<sup>62</sup>

55 강응철, 『南溪集』 권4, 「부록-淵嶽書院上樑文」.

56 전식, 『사서집』 권4, 「書 -答鄭景任」·「答李叔平」.

57 박회무[1575~1666]: 본관 반남. 호 옥우당. 박승임의 손자로 정구와 정경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58 조찬한, 『(국역) 玄洲集(상)-2』 권6, 「蒼石星巖韻」,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59 조찬한, 『앞의 책(상)-1』 권5, 「蒼石溪堂會愚伏鄭經世」, 2019.

60 鷄黍夢: 닭 잡고 기장밥 지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데 친구 사이의 우의가 깊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쓰인다. 조찬한, 『앞의 책(상)-1』 권5, 「蒼石溪堂會愚伏鄭經世」,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61 권태을, 「尙州 淵嶽圈 詩會研究」, 『상주문화연구』 제3집, 1993.

62 김정찬 譯, 『淵嶽門會錄』, 「序文」, 상주박물관, 2009.



주최자 강응철이 마련한 술과 안주에 음악까지 어우러진 문회는 격식 없이 4일간 이어졌다.<sup>63</sup> 재미 삼아 10명이 지은 「淵嶽聯句」 시 1수와 ‘여러 친구들이 행차하여 무리지어 다닐 때 나이도 잊고 친구들 사귀에 격식을 버린다[群行忘先後 朋息棄拘儉]’<sup>64</sup>라는 글자로 分韻해 10수를 지었다. 마지막은 먼저 돌아간 조목사가 참석자들의 작품을 玩賞한 뒤 문회의 장소·인물·광경·감회 등을 시간별대로 정리하여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 문회를 무릉도원에까지 비견할 정도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술회했다.

어떤 성향의 인물이 문회에 참석한 것일까? 목사와 그 사위는 논외로 하면, 문회 참여자는 정경세·이전·이준·金憲·黃廷幹·金遠振·강응철·金安節·趙光璧·金知復·康用侯·許翀龍·金縝 총 13명이다.<sup>65</sup> 이들은 넓게는 남촌,<sup>66</sup> 좁게는 연악권 일원에 세거했다. 이 중에서 강응철의 아들 강용후와 문인 허충룡·김진은 모임의 핵심 同人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김안절을 제외한 9명이 서애문인이라는 학문적 동질감 그리고 전원이 도원 창건에 참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아가 거개가 본인 내지 후손들이 정경세에게 입문하여 사승관계를 맺는 동시에 김지복처럼 도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서원 운영에도 적극 참여를 하였다.<sup>67</sup>

이제 본고가 주목하는 ‘낙강시회’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낙강시회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상당 부분 밝혀졌고,<sup>68</sup>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여기서는 도원과의 관계 및 시회의 인적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기능이 곧 지식 확산과 결속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원에서 실시된 시회·문회는 크게 3가지 갈래로 전개가 되었다. 世傳된 기록에 따라 공동시집을 엮은 ① 『임술범월록』의 ‘壬戌詩壇’, ② 『洪判官韻』의 ‘木齋詩壇’,<sup>69</sup> 그리고 개별 학자들이 남긴 ③ ‘문회’ 및 ‘시회’로 구분할 수 있다.

63 4일이나 서옥에 머문 이유는 폭우 때문이며, 목사는 공무로 25일 당일 먼저 자리를 떴다.

64 이 운자는 한유의 『陪杜侍御遊湘西兩寺』 시 중에서 4구의 ‘群行忘先後 朋息棄拘儉’을 취한 것이다.

65 연악서당이 1702년(숙종 28) 서원으로 승격할 때 강응철이 제향되고, 1726년(영조 2) 조광벽·강용량은 추향이 된다.

66 상주목의 남쪽 일대인 靑南面, 靑東面, 功西面, 功東面을 말한다.

67 채광수, 「앞의 논문」, 2020, 21쪽.

68 권태을, 『洛江詩會 研究』,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권태을, 「앞의 논문」, 1996.

69 이구의, 「낙강범월시 해제」,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①은 1607년(선조 40)부터 1778년(정조 2)까지 171년 동안 8차례 시회를 개최해 序·跋 21편, 詞·賦 4편, 시 119수가 전한다. ②는 1663년(현종 4)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135년 간 홍여하의 ‘道南書院講堂重修詩’에 대를 이어 차운한 序 3편과 시 109수를 남겼다. ③은 양쪽 시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만부·권상일·정종로처럼 서원 강학 후 진행한 문회와 시회가 있었다. 이를 통칭해서 ‘낙강시회’라 부른다. 모두 도원을 근간으로 활동을 했고, 낙동강을 주 무대로 삼은 공통점이 있다. 자료적 비중은 본 시회를 도원의 전통으로 안착의 계기를 마련해 준 ①과 구체적 실상이 비교적 소상히 담겨있는 ③이 높다. ②는 이를 보완해주는 자료이다. 이를 고려하여 ①과 ③을 중심으로 그 활동 양상을 서술해보려 한다.



[合江船遊錄 ; 상주박물관 제공]

## 1. 선유와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임술범월회’를 중심으로

도원은 낙동강가에 위치하여 뱃놀이가 무척 용이하다. 더구나 낙동강 상주구간은 물결이 잔잔하고, 다른 곳과는 달리 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산기슭과 물이 닿는 지점 곳곳에 위치한 기암절벽들 사이에는 누정들이 포진해 있다. 아래 정종로의 말이 그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 상주의 도남서원은 바로 낙동강가에 임하여 강과 산이 넓고도 그윽하니 영남의 좋

은 구역이라고 부른다. 아, 서원을 창설한 이후로 선배 유자들 가운데 무릇 여기에 의귀한 이들이 진실로 이해 이날을 만나거나 혹은 임술년이 아니더라도 이날을 만나면 반드시 서로 더불어 앞 강물에 배를 띄워 놀이를 하고, 또 적벽부로 분운하여 시를 지어 그 흥을 적어 내었다.<sup>70</sup>

도원 낙성 이듬해인 1607년 9월 처음 배를 띄워 시회를 가졌다. 새로 부임한 수령 김정목의 서원 방문에 따른 歡迎宴 일환으로 개최된 것 같다. 참석자는 상주 출신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시회는 도원에서 가진 첫 시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때 읊은 30韻 60句의 聯句詩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선유가 아니었다. 임란 의병 활동 당사자들이 참석한 시회 성격상 당시 울분의 심정과 憂國을 추동하는 자리였다.<sup>71</sup>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상산지』 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sup>72</sup> 이후 개최 된 ‘임술범월시회’의 활동 내역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이 <표. 2>다.

<표. 2> 임술범월시회 개최 현황

개최연대	시회 제목	참석자
1607년	洛江泛舟詩會	金廷睦·趙翊·이준·전식·趙澱·김해·황정간 李希聖·조정·이전·이준·강응철·김해·김지복·金廷獻· 柳珍·趙又新·李大珪·韓克禮·金瑩·李元珪·李文奎·李身圭·禹處恭·丘山立·孫胤業·全湜·全克恒·全克恬·趙光虎 [조찬위·金廷堅]
1622년 7월	蒼石洛江泛月詩會	
1622년 10월	蒼石洛江泛月詩會	이준·丘希岌·손운업·金音+業·이원규 외 15인
1657년	湖翁洛江泛月詩會	曹挺融·조릉 외
1682년	四友堂洛江泛月詩會	조릉·趙大胤 외
1768년	靜窩洛江泛遊詩會	金致龍·李世峰·趙敏經·趙錫朋·曹錫中·申宅仁·洪天休· 趙錫喆·趙益經·趙錫魯·趙錫龍·金致元·徐佑漢·趙禮和· 趙之經·柳光漢·趙錫玉

70 정중로, 『앞의 책』 권2, 「시-東坡赤壁之遊 膾炙千古 誦其賦者 莫不想像而艷歎之 每遇壬戌七月既望 則思欲泛舟弄月 以辦勝遊 吾商道院 正臨洛水之上 江山曠幽 號爲嶺中勝區 粵自創設以後 先輩縫掖之凡 依歸於此者 苟遇是年是日 或雖非是年而遇是日 則必相與泛舟前江而遊 又用赤壁賦分韻賦詩 以寫其興 蓋至去壬戌而遵古無廢 至於今日 則我正考終祥 甫過於前月 故臣民之情 感涕未已 不忍遽事遊遨而泛月故事 遂廢焉 非盛德至善 有使人沒世不忘者 何以如是 聊賦一律以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106쪽.

71 권태을, 「앞의 논문」, 1992, 85쪽.

72 『상산지』, 「文翰-題詠」.

1770년	芝翁洛江泛月續遊	曹景稷·金守鼎·조천경·鄭緯相·李增述·邊壘·蔡穀·琴一協·趙亨經·全始復·柳聖霖·全克渾·李師膺·金光五·金光澈·權綬·金履常·金益彬·金光溥·曹顯國·黃翊休·柳聖穆·李厚根·李承延·高衡瑞·金白彬·王虎臣·李堯佐·金光七·姜世師·李華國·류광한·郭起孝·王俊臣·金光九·金彦高·李堯臣·柳光濂·琴英澤·金克禮·金宗運 追到 - 申漢台·조석봉·李東燮·柳必天·李秉燮·柳復天·河世弼·龜·申慶麟·盧處元·盧允文·柳聖愚·柳雨+油·盧起文
1778년	姜世魯洛江泛月遊	姜世魯·康思欽·鄭泰巖·金南曄 외

임술범월회의 출발점과 본 시회를 도원의 전통으로 확고히 정착시킨 당사자는 애항심이 남달라 향중의 존경을 받은 이준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1622년 7월 시회는 오로지 國士적 선비들이 망라했으며, 후대 시회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했다.<sup>73</sup> 따라서 본 시회의 소개만으로도 ‘임술범월시회’의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듯하다.

시회는 1622년 7월 16일~17일 양일간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당초 조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병환으로 걸음하지 못하고 후일 시만 보내왔다. 그는 이미 전년 늦봄에 선유를 체험한 바 있다.<sup>74</sup> 김정견 또한 조목사와 동일했다. 시회 발의자 이준은 ‘소동파의赤壁놀이는 고금에 공경하여 사모해 부러워하는 바요, 우리들이賦 짓는 재주는 없으나 정경에 촉감하여 흥취를 이룬즉 굳이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sup>75</sup>라며 개최의 사유를 밝혔다. 그는 1082년[임술] 7월 송나라 蘇軾이 호북성에서赤壁賦를 남긴 9甲을 맞이해 이를 재연하기 위함이라 덧붙였다.<sup>76</sup>

이준은 상주를 文鄉의 반열에 올린 인물 중 1명이다. 그는 鄉風의 진작을 위해 읍지 편찬, 향약 보급, 학교의 활성화, 향현사 설립, 기로회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당대 문장가답게 스스로 많은 문자들을 작성했는데 그중에서 詩에 주목해 보면 그 분량이 상당하다. 그의 『蒼石集』에는 무려 530수가 전할 뿐 아니라, 완상할 만한

73 권태을, 「앞의 논문」,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87쪽.

74 조찬한은 상주에 복거를 계획했으며, 목사 재직 때 상주관련 여러 문자들을 남겼다.

75 이준, 『(국역) 추금록』, 「추금록 서문」, 상주박물관, 2012.

76 이준 외, 「낙강범월 序」,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35~36쪽.

본인의 시를 선별해 묶은 별도의 『箒金錄』을 남겼다. 개인적으로 경치를 보며 시 읊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sup>77</sup> 정치가이자 걸출한 시인으로 알려진 이수광은 백거이를 흠모한 이준의 시에 대해서 ‘풍부하고 상세하게 통달한 시라 칭송하며, 화려함에 치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됃됨이와 같다’는 평을 남겼다.<sup>78</sup> 청백리로 이름난 이원익도 이준이 보내준 시를 아들에게 가보로 삼게 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했다.<sup>79</sup>

이들은 앞서 ‘연악문화’의 구성원과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명단에 낙향해 있던 정경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도원의 원장 조정이 가장 연장자이고, 1616년생 이전의 3남 이신규가 최연소자다.<sup>80</sup> 1550~60년대 생과 그 아래 세대로 양분되는데 후자는 아들 대 인물들이다. 주최자 이준의 아들 3명과 조카·사위 각 1명이며, 전식의 아들 2명도 동석을 했다. 이밖에 이준의 문인이면서 그의 차남 이원규와 매우 가까이 지낸 조우신이 있다.<sup>81</sup> 세대를 아우르는 시회의 시작점은 바로 도원이었다.

본격적인 선유에 앞서 참석자들은 도원에 집결해 사당 道正司에 배알 의식을 치렀다.<sup>82</sup> 강응철의 문집에 당일 시제를 ‘泛舟道南前江分韻得七字’라 명명한데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도원 앞에서 두 척의 배에 올랐다.<sup>83</sup> 서원의 누각 옆 詠歸門 밖에서 배를 출발시켰다.<sup>84</sup> 이 배가 도원의 것인지 그리고 배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sup>85</sup> 참석인원을 참작하면 약간 규모가 있는 사당나무로 제작한 돛단배를 사용했을 것이다. 첫날<sup>86</sup>의 선유는 도원에서 낙동강 하류로 내려가 ⇨ 龜巖 ⇨ 楓湖 ⇨ 簞岩을 경유해 도원으로 다시 귀로하는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77 이준, 『앞의 책』, 2012.

78 李敏求, 『추금록』, 「추금록 발문」, 상주박물관, 2012.

79 이원익은 자신의 묘지명을 이준에게 부탁할 만큼 서로 교분이 두터웠다. 이원익, 『(국역) 오리선생문집』 권1, 「錦障花草帖」, ㈜충현, 1995, 55~56쪽.; 또 향인 孫胤業은 이준을 詩仙으로 표현해 마지 않았다. 손운업, 「得夏字」, 『앞의 책』, 아세아문화사, 2007, 104쪽.

80 李希聖, 韓克禮, 金瑩, 禹處恭, 丘山立 5명은 출생연도가 파악되지 않아 제외했다.

81 蔡獻徵이 지은 조우신 행장을 이원규의 말로 매듭지은 것도 이러한 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채현징, 『(국역) 愚軒先生文集』 권4, 「행장-白潭趙公行狀」, 愚軒先生文集重刊委員會, 1996.

82 趙靖, 『黔澗集』, 「연보-1622년(임술)」.

83 강응철, 『南溪集』 권1, 「詩-泛舟道南前江分韻得七字」.

84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4년 윤4월 11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67쪽. 시회를 그린 『함강선유록』을 보면 도남서원 바로 아래에 배를 띄우고 있다.

85 현전하는(상주박물관 소장) 도원 『傳掌記』에는 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같은 낙동강 가에 위치한 현풍의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86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권17, 「記 - 上洛文會記」.

먼저 구암은 현 중동면 신암리 兎津나루 뒤 산 退治巖 밑에 있는 천연 石臺이다. 거북 모양의 큰 바위 뜻을 가진 구암은 임란 때 運餉使로 활약한 姜績의 소유였다. 그는 이 터를 얻고서 구암이라 명명했으며, 자호로 삼았다. 선조 초기 우의정을 지낸 姜士尙이 바로 그의 백부이며, 1619년(광해군) 도원수로 후금 정벌에 나섰던 姜洪립은 族姪이다.

구암을 잠시 감상한 뒤 도남팔경 중 제 4경 풍호로 이동했다.<sup>87</sup> 풍호가 있는 長川일대는 풍양조씨 동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강 연안의 풍호 주인 역시 풍양조씨 家의 일원 趙徽가 遊食한 정자였다.<sup>88</sup> 5·6세 때 詩作을 선보여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조휘는 1567년(선조 즉위년) 생원시 장원으로 입격한 뒤, 이듬해 바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이러한 출중한 능력과 함께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였기에 정자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풍호의 내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록을 상고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점암은 류진의 8대손 류흠목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한 승경이다.<sup>89</sup> 다행히 『상산지』 樓觀條에 ‘洛濱에 典翰 金弘敏의 所卜인데, 지금은 서원의 것이 되었다’<sup>90</sup>라는 점암의 설명이 수록되어있다. 짧지만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점암이 소재한 烏巖[현 도남동]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김홍민의 상산김씨 內苑令과의 田莊이 산재해 있는 거처이기에 언급한 것이다. 그러다가 도원이 창건되자 점암을 서원에 편입시켰다. “점암 아름다운 곳에 儒宮을 세워...”<sup>91</sup>라는 이전의 시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마 도원이 세워진 無任浦 근방의 바위 어디로 추정이 된다. 여기에 정박해 은어 회 안주에 술을 곁들이면서 시를 읊었다.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이준의 3남 李文圭가 ‘遊자를 얻어 쓴 시에 첫날밤의 풍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윽고 달이 구름 틈으로 나오고, 하늘이 시인을 위해 멋진 놀이 제공하네.  
 끊임없는 범패 소리 절에서 들려오고, 점점이 고깃배 불은 물가 섬에서 반짝이네.  
 강이 텅 비니 때로 은어 뛰는 소리 들리고, 노 저어 나아가니 나는 白鷗 만나네.  
 서늘한 바람 문득 양 겨드랑에서 나누는가 싶은데, 온갖 경치 다 다가와 두 눈에 드네.

87 柳欽睦, 『克菴文集』 권1, 「시-道南八景 并序-40」.

88 조휘는 조정의 조부 禧와 재종간이다.

89 류흠목, 『앞의 책』 권1, 「시-道南八景 并序-40」.

90 『상산지』, 「樓觀-점암」.

91 이전, 「得之字」, 『앞의 책』, 2007, 46쪽.

간드러진 통소 소리 어디서 나는가, 응당 천 길 못 속의 虬龍도 춤을 추리.  
용궁이 처량하니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돌아오니 옥 이슬이 옷을 적시네.<sup>92</sup>(이하 중략)

달이 뜬 밤에 들려오는 범패 소리는 아마 도원 동쪽에 있는 靑龍寺에서 들려왔을 것이다. 청룡사는 도원의 屬寺<sup>93</sup>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원생의 휴식처로 기능을 한 사찰이다.<sup>94</sup> 통소가 어우러져 규룡까지 춤추게 한 놀이를 만끽한 뒤 배를 타고 다시 도원으로 돌아와 숙박을 했다. 서원에서의 숙박은 빈번한 일이었고, 관련 기록도 어렵지 않게 산견이 된다. 이를테면 1832년(순조 32) 류후조 등이 낙강선유를 한 당시에 도원에 유숙하며 시를 지은 기록이 남아있다.<sup>95</sup>

다음날 술을 실은 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낙동강의 제1경 경천대로 향했다. 읍치 동쪽 20리 낙동강 상류 지점의 경천대는 蔡壽의 현손 蔡得沂가 병자호란 후 이곳 玉柱峰 아래 초가와 舞雩亭을 지어 여생을 보낸 寓居所다. 원래 기이한 바위가 높이 쌓여 天作으로 臺를 이룬 까닭에 ‘自天臺’라 불렀다. 하지만 채득기가 살고부터 사람들이 ‘공은 하늘을 떠받드는 의리가 있다’고 하여 ‘경천대’라는 명칭을 붙였다.<sup>96</sup> 증손인 蔡休徵이 증조부의 尊華攘夷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암벽에 ‘大明天地 崇禎日月’을 새겼다.

경천대는 효종과 관련된 일화가 전한다. 채득기는 심양에서 주치의로 효종을 극진히 보필해 충애를 받았다.<sup>97</sup> 환국 후 효종은 그에게 출사를 권유했으나 나오지 않자 대신 화원을 보내 그가 사는 경천대를 화폭에 담아오게 해 御屏을 만들어 옆에 두고 감상했다고 한다.<sup>98</sup> 28경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경천대를 두고, 김상헌·이식·최명길·李沃·이만부·권상일·송명흠·류주목 등 여러 문사들이 방문 또는 전언을 듣고 쓴 글들이 즐비하다.

다음날, 애초부터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차질을 빚은 전식 부자도 경천대

92 이문규, 「得遊字」, 『앞의 책』, 2007, 95쪽.

93 도원은 청룡사 외 상주 김룡사와 대구 동화사에도 院奴가 거주하고 있었다.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00쪽.

94 『상산지』, 「사찰-청룡사」.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7년 1월 26일」.

95 상주박물관, 『낙유첩』, 「宿道南書院」, 2020, 45~62쪽.

96 류후조, 『앞의 책』, 「행장-靑潭蔡公行狀」.

97 채득기는 호란 직후 심양행을 명령 받았지만 병을 이유로 거부하여 보은현에 3년간 유배되었다. 해배 후 1638년 다시 심양에 파견이 되었다.

98 김기탁, 「靑潭 蔡得沂의 樓亭詩歌 연구」, 『상주문화연구 1』, 1991, 163쪽.

에서 합류를 했다. 臺 왼편 玉峯에 하선해 명승지 龍沼와 龜巖을 두루 탐승했다. 용소는 용이 거처하고 있어 수재나 가물 때 빌면 應驗한다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靄潭亭 아래에 있다. 구암은 큰 돌이 강 속에 있는데 가운데가 불룩한 게 마치 살아있는 듯한 거북 형상의 바위이다.<sup>99</sup> 다만 강물이 적막하고, 차가워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다. 다시 노를 저어 석양이 질 무렵 伴鷗亭에 당도했다. 당시 반구정은 趙靖의 둘째 동생 趙紘의 소유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담 없이 반구정에 올라 시회를 열었다. 적벽부의 머리글 ‘壬戌之秋 七月既望 蘇子與客 泛舟遊於赤壁下 清徐來水’를 韻子해 글을 지었다. 통소와 거문고 연주로 흥취를 더한 가운데 25명이 508聯句의 공동 장편시를 창작했다. 10월에 재차 모이기로 약속한 뒤 선유는 마무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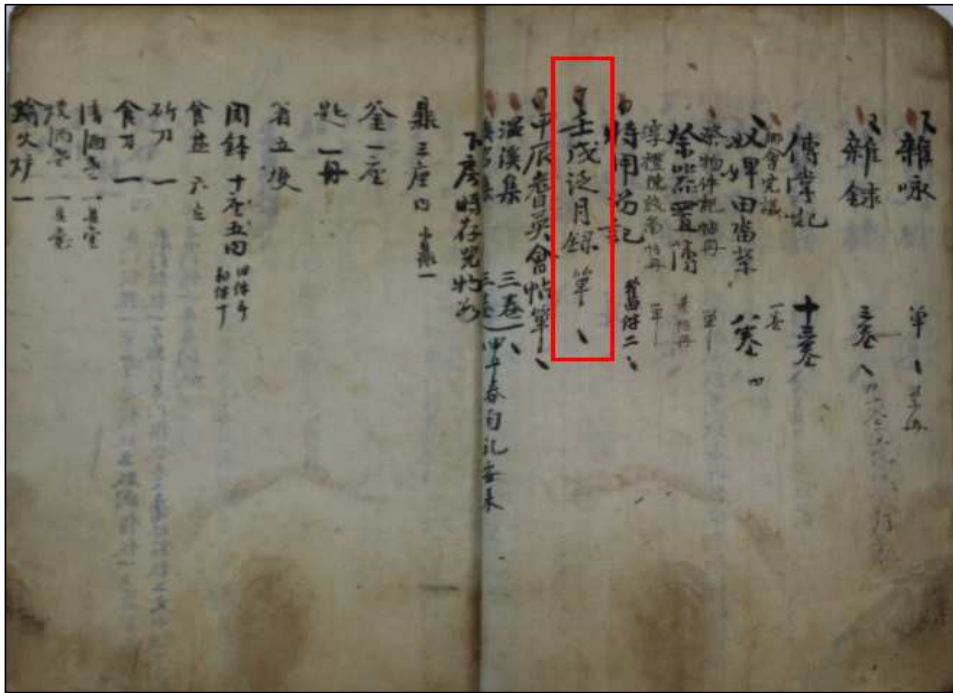
시집이 완성되자 이준은 서문 끝자락에 중요한 당부를 적기했다. ‘간략히 일의 전말을 써서 책머리에 놓아 도원에 갈무리하여 뒷날 이 놀이를 잇는 자의 선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도원을 출입하는 후학들에게 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를 피력한 말이다. 이후 도원의 시회를 통한 연대와 결속, 다시 말해서 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 도원의 후학들은 <표. 2> 뿐 아니라 한말까지 이준의 당부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승시켜 나갔다. 아래의 사진은 그 증거 중 하나로, 도원의 임원 교체 시에 작성하는 『傳與記』에 「임술범월록」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후 상주에서 결성되는 ‘秋水社’와 ‘竹雨社’의 구성원 역시 도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sup>100</sup> ‘추수사’는 1784년(정조 8) ‘鳳姜北李’라 불리며 세의가 돈독한 봉대의 진주강씨와 북광의 연안이씨가 주축이 되어 관아의 二香亭에서 조직된 시사이다. 강·이家は 근기 남인적 성향이 짙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시사의 핵심 회원인 이경유의 경우 기존 임술범월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804년(순조 4) ‘추수사’를 계승한 ‘죽우사’는 앞의 양 가문 후예에 더해서 홍양이·장수황·진주정·풍산류씨가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시사로 자리매김했다. 그 참여자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99 류주목, 『自天臺記』;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권17, 「記 - 上洛文會記」. 현재 경천대에서 구암은 보이지 않는다.

100 ‘秋水社’와 ‘竹雨社’에 대해서는 상주박물관 김주부 박사가 제공해준 자료로 정리한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남서원 傳與記 ; 상주박물관 소장]

### <표. 3> 추수사와 죽우사 구성원

추수사	죽우사
이경유, 李挺儒, 李承延, 姜世白, 姜世綸, 姜世謬, 姜世闇, 姜世揆, 이진기, 강봉흙, 강장흙, 姜龍欽, 정종로, 鄭象觀, 鄭象履, 정상진, 이승배, 李學培, 황반로, 黃麟老, 류심춘, 趙承洙, 姜哲欽, [박종추, 김약주]	

<표. 3>에서 진한 이름은 도원 원장과 재임을 지낸 인사다. 재임은 姜世闇과 鄭象履 두 명 뿐이고, 나머지는 원장을 역임했다. 상술한 바대로 18세기 후반 ~ 19세기 도원의 주도권을 가진 성관들이자 지역의 명문 사족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죽우사의 경우에는 정종로의 문인들이 여럿 보인다.

101 李承輝는 4세, 朴宗樞과 金岳柱는 향리이다.

아무튼 서원과 시사 세력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주 시사의 길을 연 이래 지역 사회·시사 결성과 활동의 母胎라 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渭川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명승지 舍江亭의 주인 金光轍이 1770년(영조 46) 7월 뱃놀이 후 남긴 「詩債訟」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 같다.

지난 1770년 7월 뱃놀이도 실은 천계 임술년의 일을 잇는 것이었다. 장로는 다 上洛의 덕망 있는 노인들이요, 젊은이도 동남방의 名勝 아님이 없었다, 돛을 나란히 하고 돛대를 묶어 만경창과를 넘으며 술을 싣고 달을 띄워 몇 날의 한가한 놀이에서 각기 四韻詩 여러 편을 읊어서 뛰어난 놀이를 기록하되, 이미 전후의 이름 첩과 記·序·詩·賦 제 작품을 모아 서 한 책에 싣고 이름하여 『낙강범월록』이라 하니, 그 사이 풍류를 아는 호걸인사가 소문을 듣고는 추가 和韻한 자가 또한 무수하다.<sup>102</sup>

## 2. 강학과 사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이만부·권상일·정종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은 ‘尊賢養士’ 곧 교육과 제향이 핵심 기능이다. 조선에 서원 제도를 보급·정착시킨 퇴계가 둘 중 교육을 더 중요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퇴계를 모신 도원은 지속적으로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손꼽힌다. 서원에서 실시된 강학의 종류에는 居接, 居齋, 강회, 旬題, 백일장 등이 있다. 안타깝게도 도원의 경우 거재, 거접, 순제를 파악할 만한 직접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제반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명망가를 초빙해 진행되는 강회 활동은 상당히 활발했다. 서원의 강회는 학문적 성과를 확인 및 공유하는 집단적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었다.<sup>103</sup> 율곡은 『隱屏精舍學規』를 제정하며 매월 초하루에 서원에서 강회를 정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해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했다.<sup>104</sup> 도원에서도 18세기 초반 규약이긴 하나 춘추에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1책을 다 통독한 다음 강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sup>105</sup>

더구나 상주는 정경세·이준·홍여하·이만부·권상일·정종로·류심춘·류주목 등 영남학

102 권태을, 『상주의 한문학』, 상주문화원, 문창사, 2001.

103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2010, 59쪽.

104 이이, 『율곡선생전서』 권16, 「잡저 2 - 隱屏精舍學規戊寅」.

105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권10, 「잡저 - 도원條約」.

파의 嫡脈을 계승한 학자들이 배출된 지역이다. 이른바 강회를 주관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유수의 학자 群이 형성되어 있는 환경이었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강회가 전후 개최하는 시회 부분이다. 도원의 강회와 시회는 지식 확산의 발판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준 좋은 매개체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만부·권상일·정종로를 중심으로 도원의 강회 뒤 문회의 구체적 인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먼저 이만부는 1697년(숙종 23) 34세 나이로 상주 魯谷으로 이주하며 영남 사람이 되었다. 이만부의 이주는 지역의 학문 발전에 큰 활력소로 작용을 했다.<sup>106</sup> 그는 이현일과의 교류, 각종 저술, 이현일의 아들 李裁 및 권상하의 문인 成晩徵과의 논쟁, 강론, 문인 양성 등 왕성한 학문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앞서 그는 이주한 해 겨울 도원에서 열린 문회와 선유를 겸한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아마 지역 인사들과 상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것 같다. 1박 2일간 진행된 행사의 참석자는 원장 李葆英과 원생 12명이었다. 첫날은 서원 부근의 숲에 있는 詠歸亭에 모였다. 달빛 아래에 강물은 투명하고, 소나무 그림자가 나부꼈다. 다들 흥취에 젖어 말없이 머물다 야밤에서야 서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은 배를 타고 영귀정에서 자천대까지 유람하는 일정이었다. 그는 처음 본 자천대·귀암·石峯·용암·龍潭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묘사를 해두었다.<sup>107</sup>

이어서 1724년(경종 4) 2월에는 講長의 자격으로 도원 강회를 주관했다. 당시 원장 권상일의 요청으로 성사된 장이었다.<sup>108</sup> 이 시기 이만부는 남인 학계에서 大儒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권상일·申正模·吳尙遠과 5일 동안 『근사록』을 강론하고 토론을 벌였다. 『근사록』은 이만부 공부론의 핵심 텍스트이며, 평소에도 그 요점을 뽑아 自撰한 교재를 강학에 활용하였다.<sup>109</sup>

강회에 참여한 3명 모두 이만부의 문인으로 볼 수 있다. 권상일은 이만부에 대해 각별한 존경심을 가졌으며, 선생으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은 그가 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100리 길을 마다않고 참석한 의성 출신의 신정모는 1715년(숙종 41)에 이만부에게 入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 사제의 연을 맺은 관계였다.<sup>110</sup> 오상원은 이만부와 같

106 권태을, 『식산 이만부 문학연구』, 문창사, 1990, 113쪽.

107 이만부, 『앞의 책』 권17, 「記 - 上洛文會記」.

108 권상일, 『앞의 책』 권6, 「書 - 與李息山」.

109 신두환,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29, 2009, 426쪽.

이 경기 파주에서 상주 성북으로 이거한 근기 남인으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런 오상원이 1733년(영조 9) 먼저 사망하자 만사와 제문을 지어 애절한 마음을 표했다.<sup>111</sup>

서원 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이만부였지만 이 강회는 근래 흔치 않는 일로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sup>112</sup> 강회가 끝난 직후에 권상일이 보내 온 운자에 酬唱한 이만부의 시구에 그런 감정이 잘 녹아있다.

도원의 학문을 하는 모임에, 사립문 열고 안석과 지팡이 옮겨왔지요.  
은미한 말씀으로 차례대로 논하니, 吾道는 다른 길과는 구별이 됩니다.  
강처럼 넓어 연원을 증험하겠고, 산처럼 맑아 기상을 알겠습니다.  
조용히 5일 동안의 가르침이, 다음 십 년의 벼슬살이보다 나을 것입니다.<sup>113</sup>

한편 신정모는 이 강회의 배움 성과를 10년의 독서와 맛먹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자평했고, 이후 『근사록』 관련 다른 의문점들은 편지로 문답을 이어갔다.<sup>114</sup> 또 李裁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보내어 거듭 확인을 받으려는 노력도 포착이 된다.<sup>115</sup> 오상원의 경우는 본 강회가 이만부의 문인이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다.

권상일은 서원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평생 도남·근암서원 양 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서원 활동을 펼쳤다.<sup>116</sup> 그는 25세인 1703년(숙종 29) 처음 도원을 출입한 이래 향사 참석, 문자 찬술, 원장 역임, 강학, 자문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권상일은 문과에 합격한 뒤 중앙 관료를 거치면서 지역 내 명성도 높아졌고, 1723년(경종 3)에는 도원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원장에 있는 동안 瓦役, 편액·屋舍·담장·수리 등 서원 건물 정비와 강론, 정몽주와 오현의 필적 각석·원규 개수·원규 재게시·장서 확보 등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권상일은 안동 廬江書院에서 강학을 주도한 이상정과 함께 18세기 영남 서원의 강학

110 신정모, 『二恥齋集』 권2, 「書 - 與息山李文-萬敷-乙未·與息山李文-丙申」.

111 이만부, 『앞의 책』, 「부록 - 挽詞」.

112 이만부, 『앞의 책』 권9, 「書 - 答河聖則」.

113 이만부, 『앞의 책』 권2, 「詩 - 甲辰仲春 權台仲 相一 號淸臺 與申景楷 正模 來도원 約吳致重 尙遠 號峩峩 文會 老人亦重違其勤意 擺病而赴 仍留數日 諸君共讀近思錄 頗有講磨之益 老人以病冗先歸 台仲寄來一律 遂步其韻 屬三君焉甲辰」.

114 신정모, 『二恥齋集』 권3, 「答吳致重 尙遠 甲辰」.

115 신정모, 『이치재집』 권2, 「答與密菴李文」.

116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된다.<sup>117</sup> 그는 원장 2년차에 신임목사 송인명의 방문을 맞아 도원에서 첫 강학을 선보였다. 1월 26일 서원에 도착한 송목사는 夾室의 敬齋·義齋 이름을 본 뒤 ‘이는 긴요하고, 절실하니 講을 해볼 만하다’라며 강론 주제로 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서원에 소장된 『心經』을 가져와 ‘곤괘’의 六二에 대해 「敬以直內章」을 스스로 한 번 읽고, 附註의 마지막 편까지는 권상일이 읽도록 하였다. 그 장의 의심스러운 뜻을 서로 강론하였다. 이어 科文과 『성리대전』 4~5곳, 이기설의 여러 설을 논하며 강학을 마쳤다.

다음날 목사 역시 자천대까지 선유했다. 권상일도 일주일 전 두 차례나 낙동강에서 선유를 즐기며, 공동으로 시를 창작한바 있다.<sup>118</sup> 낙동강에서 선유는 도원의 특징적인 성격의 하나로 볼만하다. 이후에도 권상일은 1748·49년에도 강론 및 출제 등 강회를 직접 주관했다.<sup>119</sup> “우리 고향에서는 淸翁이 돌아가신 이후에 적막하여 ‘강학’ 두 글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sup>120</sup> 권상일의 강학 활동을 함축한 정종로의 評이다.

도원은 정종로에게 의미가 특별한 서원이다. 도원의 門樓인 「靜虛樓記」, 강당 중수기 「一貫堂重修記」 등의 문자 찬술과 1816년(순조 16) 생을 마감하기 3개월 전 펼친 ‘도원 강회’가 그러한 인식의 발로였다. 특히 시회와 어우러진 강회는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홍학에 열성적이었던 정종로는 서실, 서당, 존애원, 道存堂 등 강학처에서 지속적으로 강회를 개설했고, 그때마다 수백 명이 운집을 했다. 1798년(정조 22) 9월에는 도원 훈장에 선임되어 상주지역 교육 전반을 관장했다.<sup>121</sup> 훈장 선임의 배경은 당대 ‘좌대산 우입재’라 불렸고, 채제공으로부터 ‘경학과 문장이 蔚然하여 영남 제1인자’라는 격찬을 받은 대학자로서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이다.<sup>122</sup> 이때 지역 현실에 맞는 강규를 제정해 일향의 서당에 통지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꾀했다. 강규의 요지는 1차적으로 각기 서

117 이수환, 「앞의 논문」, 2016, 31쪽.

118 권상일, 『앞의 책』, 「1724년 1월 21일~27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54~361쪽.

119 권상일, 『앞의 책』, 「1748년 윤7월 29일·1749년 3월 3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권 733쪽·4권 32쪽.

120 정종로, 『(국역) 입재집』 권3, 「書-與趙靜窩」,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427쪽.

121 정석진, 『앞의 책』, 1975, 314쪽.

122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338쪽.

당·서숙에서 강학을 거친 뒤 講案과 問目을 도원에 통보하고, 다시 우수자들을 모아 강론과 토론하는 것을 관례로 삼도록 한 것이었다.<sup>123</sup>

강회는 이만부의 증손이자 원장 李敬儒의 초청에 응한 덕분에 설행이 된 것이다. 정종로의 문인이기도 한 이경유는 스승의 문장에 대해 “경전이 속에 가득하여 문장이典雅하다. 그 詩도 그 사람과 같았으니 발을 걸으니 맑은 하늘 나타나고, 미미하게 맑은 이슬 드리웠네” 라며 인품과 학문을 존경해 마지않았다.<sup>124</sup> 그는 1816년 3월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도원에 도착해 영남 좌·우도 11개 고을에서 수백 명이 걸음한 가운데 『중용』을 통독했다. 통독 후 개인적 물음에 일일이 응대했음은 물론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열의를 보였다. 잠시 쉬면서 하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상을 받들려고 멀리서 왔으니 그 뜻을 저버릴 수 없다’ 라며 하루 종일 강행을 하였다. 또 다른 문인 李升培는 이날 강회의 분위기에 대해 ‘[정종로] 음성은 맑고도 우렁차서 세찬 비가 쏟아지듯 마치 강하의 물길을 띄워 바다로 들게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이가 다 충족하여 기뻐하고 감복하였다’라고 회고했다.<sup>125</sup> 강회가 끝이 나자 백일장과 선유의 시간을 가졌다. 백일장에서는 孫鎭岳의 손자가 장원을 차지했고,<sup>126</sup> 이어 도원에서 배를 띄워 물길을 거슬러 자천대에 이르렀다. 그도 여느 선배들처럼 읍시 한 수를 지어 선유를 기념하였다.

예전에는 강가 서원에서 이 가을을 만나면, 선배들이 서로 불러 배 띄워 달을 감상했네.  
동파의 문장에야 누가 비슷할 수 있겠는가, 교남의 좋은 풍광은 여기가 더욱 좋아라.  
마음 아픈 호제에 상복을 겨우 벗고, 뜻 없이 푸른 물가에 자취 다시 남기네.  
시험 삼아 美人歌 한 곡조를 부르며, 서풍에 머리 돌리니 눈물 거두기 어려워라.<sup>127</sup>

정종로는 도원의 泛月 전통과 상주 낙강의 좋은 풍광, 그리고 정조의 자취, 즉 그 德善을 잊지 못해서 미인가를 부르니 눈물이 난다고 읊었다. 이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시문으로 보인다.

123 정종로, 『앞의 책』 권6, 「잡저-爲講學事 通各書堂文」,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376쪽.

124 이경유, 『林下遺稿』 中卷, 「154則」.; 조정운, 「李敬儒의 詩文學觀 一考 - 『滄海詩眼』을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2019, 130쪽, 재인용.

125 정종로, 『앞의 책』 권7, 「부록-行狀[李升培]」, 2017, 쪽.

126 노상추, 『(국역) 노상추일기 11』, 국사편찬위원회, 2020, 38쪽.

127 각주 70번.

#### IV. 맺음말

이상 상주 도남서원의 시회를 중심으로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 실재를 조명해 보았다.

먼저 도원 주도세력의 네트워크 성격을 분석한 결과, ①원장을 배출한 상위 가문은 부림흥·안동권·장수황·진양정·풍산류·홍양이씨 6개 성관이었다. ②정경세와의 밀접한 관계성, ③남인과 노론이 병존하고 있는 모습, ④원장의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 비율, ⑤원장을 지낸 다수가 다른 서원의 원장을 중복해 역임하는 일련의 현상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토대로 낙동강과 도원을 무대로 삼은 ‘임술시단’과 ‘개별 학자의 문화·시회’ 축으로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 양상을 서술해 보았다.

전자는 소동파의 적벽놀이를 본받아 1607년부터 1778년까지 이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시회의 출발점인 1607년을 대상으로 도원과 관계, 구성원 면면, 선유 경유지, 공동시 창작 등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을 탐색해 보았다. 이준이 작성한 공동시 서문에 ‘간략히 일의 전말을 써서 책머리에 놓아 도원에 갈무리해 뒷날 이 놀이를 잇는 자의 선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처럼 이후 도원에서는 시회를 통해서 연대와 결속, 나아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후자는 영남학파의 적맥을 계승한 유수의 학자들이 배출된 지역 특성상 首院인 도원은 활발한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꼽힌다. 이중 이만부·권상일·정종로의 강학과 어우러진 시회 사례를 주목했다. 이만부는 1697년 상주 이주 직후 도원에서 열린 문회와 선유를 경험했고, 1724년 講長의 자격으로 『근사록』 강회를 주관하였다. 서원 교육에 관심이 남달랐던 권상일은 1723년 원장 신분으로 『심경』 강회를 선보였고, 선유를 즐겼다. 1816년 수백명이 참석한 정종로의 도원 강회는 특기할 만하며, 강회 후에는 생전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시 1수를 남겼다.

이러한 도원의 시회 활동을 통해서 서원의 지식 생성과 네트워크 형성, 지식 확산의

과정을 밝힘으로서 서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 【참고문헌】

### 원본

『도남서원 고문서(상주박물관 소장)』, 『도남서원사실 하』, 『상산지』, 『숙종실록』, 『洪判官韻』.

### 문집

강응철, 『南溪集』. ;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 류주목, 『溪堂先生文集』. ; 류후조, 『洛坡先生文集(全)』, 1994, 대보사. ; 柳欽睦, 『克菴文集』, 申正模, 『二恥齋集』. ; 申弼成, 『盧峯遺稿』. ; 이경유, 『林下遺稿』. ;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 李敏求, 『(국역) 東州集』, 한국고전번역원, 2018. 이이, 『율곡선생전서』. ; 이전, 『(국역) 월간선생문집』, 2008. ; 전식, 『沙西集』. ; 정경세, 『(국역) 우복집 별집』. ; 정종로, 『(국역) 입재집』,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 趙靖, 『黔澗集』. ; 조찬한, 『(국역) 玄洲集』,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 蔡獻徵, 『(국역) 愚軒先生文集』, 愚軒先生文集重刊委員會, 1996.

### 단행본

김령, 『(국역) 계암일록』, 한국국진흥원, 2013.  
김정찬 譯, 『淵嶽門會錄』, 상주박물관, 2009.  
권태을, 『상주의 한문학』, 상주문화원, 문창사, 2001.  
노상추, 『(국역) 노상추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20.  
상주문화원, 『상주의 누정록』, 2008.  
상주박물관, 『갑장산』, 상주박물관, 2016.  
\_\_\_\_\_, 『洛遊帖』, 2020.  
이수건,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준 외,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이준, 『추금록』, 상주박물관, 2012.  
정석진, 『愚山史積大觀』, 愚山先生記念事業會, 1975.

### 논문

권태을, 「도남서원 관련 詩文의 機能考」,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자료집, 2011.
- 권진호, 「한시로 쓴 심원록 -한시에 그려진 도산서원과 그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 권태을, 「洛江詩會 研究」,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 \_\_\_\_\_, 「尙州 淵嶽圈 詩會研究」, 『상주문화연구』 제3집, 1993.
- \_\_\_\_\_, 「洪判官韻 해제」, 『상주문화연구』 제6집, 1996.
- 김기탁, 「雩潭 蔡得沂의 樓亭詩歌 연구」, 『상주문화연구 1』, 1991.
-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자상, 「文莊公 愚伏 鄭經世 陞祀聖廡疏 小巧」, 『상주문화』 제7호, 1998.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德川書院: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제20집』, 2015.
- \_\_\_\_\_, 「정경세, 이준의 소재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71호』 2019,
-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2010.
-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제79집, 2016.
- 신두환,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29, 2009.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이구의, 「낙강범월시 해제」,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_\_\_\_\_,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상해, 「도동서원과 조선시대 서원건축」,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2013.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2017.

- \_\_\_\_\_,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69집, 2018.
- 임재해, 「낙동강으로 읽는 상주의 문화와 인물」, 『낙동강을 품은 상주 문화』, 상주박물관, 2012.
-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27』, 2015.
- 채광수 · 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_\_\_\_\_,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학보』 18, 2008.



## 토론문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재’

정 수 환(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연구는 서원을 문화사적 접근으로 분석한 주제로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한 의미가 있다. 특히, 상주의 도동서원을 대상으로 지식인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양상을 詩會를 주제로 접근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역사회와 문화 활동 재현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상주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상징성-상주문화권, 학파와 정파의 경계-을 고려했을 때,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전개한 지역의 문화 활동을 분석하고 있어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가 크리라 기대한다. 필자의 입론과 논리에 동의하면서도 토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임원록」 4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도남서원 원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서원을 둘러싼 지식인들의 특징을 5가지로 적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료 출신 비중, 우복 정경세와의 연관성, 남인과 노론의 병존, 과거 급제 출신 원장의 높은 비율 그리고 서원 원장의 중복 수행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원록」을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한 이유가 이 자료의 작성 성격이나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밝혔으면 합니다. 위의 원장 성격에 대한 규명은 분명 도남서원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록」에 나타난 원장 구성의 변화-성관구성 등-를 위의 5가지 특징과 연관하여 새로이 분석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18세기 노론의 참여가 19세기 이후 단절되었다거나 진양정씨를 중심으로 한 정경세 후학들의 대두와 같은 특징이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년에 걸친 도남서원의 성격 변화 추이를 지역사회의 동향과 관련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회와 연계하여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지식인의 회동을 추적하였습니다. ‘임술범 월회’의 경우 도남서원 낙성이 있는 다음해 1607년 수령 김정목의 방문에 따라 실시한

내용이 처음입니다. 이후 1778년까지 다수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회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관의 동참이 언급되고 있어 이 시회가 도남서원의 활동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유 경로에 서원이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또한, 이 선유에 참여한 인사들과 詩作에 작품을 남긴 인사들은 대체로 도남서원에 출입한 내용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추수사’와 ‘죽우사’와 같은 유사한 시회도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시회 회동을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식 교류 활동으로, 즉 서원의 지역사회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의 활동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강학과 시회를 연계한 도남서원의 활동을 이만부, 권상일, 정종로와 관련한 개별 학자들의 ‘문회’ 및 ‘시회’의 사례로 설명하였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자들은 사실 18세기 상주뿐만 아니라 영남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서술내용은 이들 학자들의 서원에서의 강학활동과 시회의 연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시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구성이나 성격을 좀 더 서술함으로써 이 시회와 서원활동의 연결성 그로부터 확장하는 지역사회 지식인의 활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회와 관련해서는 백일장의 성격으로 지방수령뿐만 아니라 서원, 결사 등에서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때로는 과거를 목적으로 한 회동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만부 등 지역의 석학과 서원 핵심 인사들이 서원에서 실시한 시회의 성격을 좀 더 객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서원강학과 관련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회를 통한 접근은 유효합니다. 18세기 이후 서원이 지역사회에서 정치화함에 따라 그리고 학문적으로 고착화함에 따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과정에서 서원의 활동-시회를 포함-이 그리고 상주라는 지역적 특징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변화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토론을 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이 병 훈(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I. 머리말
- II. 서원 장서의 수집 경위
- III. 서원의 출판 기능
- IV. 서원의 장서 관리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통시대에 학교는 ‘교화를 펼치는 근원이며,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곳’이라는 말처럼 신민에 대해 교화를 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구였다.<sup>1</sup> 이런 학교는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서 官學과 私學으로 나뉜다. 국가가 세우고 운영하는 관학에는 중앙의 성균관과 四學 및 지방의 鄉校가 있다. 사학에는 향촌자제들의 초등교육을 맡은 학당이나 서당 혹은 이름 있는 학자가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하는 書齋, 유생의 강학과 藏修를 기본으로 하는 書院이 있다.<sup>2</sup>

서원은 중국의 唐代에 藏書와 讀書處로서 등장하여, 宋代에 들어서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 발전하고, 南宋代에 들어서는 성리학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학술 기구적 면모를 더했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학자마다 달랐다. 그래서 이들 학자의 학

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諭四學師生文」. “學校 風化之原 首善之地 而士子 禮義之宗 元氣之寓也. 國家設學而養士 其意甚隆 士子入學以自養 寧可苟爲是淺鱗哉.”

2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설을 사제 간에 授受하는 學派가 형성되고, 先師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점으로 서 서원 건립을 촉발시켰다. 또한 그 학파의 開祖를 顯揚하기 위해서 그를 제향하는 祠廟를 서원 경내에 부설하였다. 이때부터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강학처로서의 서원과 제향처로서의 사당 또는 사묘가 통합되어,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성되는 서원 제도가 확립되었다.<sup>3</sup>

남송대 서원의 이러한 변화는 퇴계와 그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서원이 강학과 장수를 위한 기구임을 강조한 퇴계는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서의 확보를 위해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청원하면서, 서적도 함께 요청하였다.<sup>4</sup>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서책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창고로도 기능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지식창고 역할을 한 것은 藏書제도였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의 장서제도와 출판문화는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도 서원의 장서는 조선시대 서적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간행되거나 소장된 서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전반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sup>5</sup>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한 서원은 17세기 이래로 정치·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림의 강학·장수처라는 초기의 설립 취지는 많이 쇠퇴하였다. 그렇지만 성리학의 지방 확산과 정착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교육적 역할은 지대하였다. 이것은 서원이 가지는 출판·도서관적 기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원의 교육적 기능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약화되어 갔지만,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한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은 강화되는 측면도 나타났다. 이것은 18세기 중반이후 양반지배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유학 교육을 강화하여, 대민 교화를 통한 신분질서 확립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액서원은 一鄉을 영도할 정도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각 고을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장서를 구비하고, 제향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문집과 저

3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pp.41~42.

4 이황, 앞의 책, 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則欲請依宋朝故事 頒降書籍 宣賜扁額 兼之給土田 臧獲...”

5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서의 출판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그렇기에 藏板閣, 藏書閣 등 별도의 장서 및 책판을 보관하는 건물을 가진 곳들은 문묘종사 대현을 제향하는 사액서원이 대부분이다. 서적의 수집과 출판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용되기에 그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했으며, 제향인의 위상에 따라 국가와 수령, 문중, 개인들의 부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원군의 원사 휘철령 당시에도 존치했던 47개 서원·사우는 문묘종사 대현과 충절인을 제향하는 대표적인 원사였다. 특히 27개소의 서원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一道를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조야의 주목을 받아왔다.<sup>6</sup> 이 서원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중앙의 정치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그 정치적 입지도 신장해 왔다. 문화사적으로는 향촌사회에서의 성리학 보급과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지식확산과 보급은 건립 이래로 크게 성장해온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더불어 수많은 서원 장서와 목판 인쇄로 대표되는 출판의 중심처였기에 가능하였다.<sup>7</sup>

그러나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분야에서 일부 언급할 뿐이며, 역사학에서는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다.<sup>8</sup> 그러나 2000년 이래로 개별 서원에 소장된 전적과 고문서, 목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도산·옥산·도동·병산서원 등 일부의 다량 소장처

6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3월 9일(기해), 3월 18일(무신), 3월 20일(경술). 미휘철된 27개소의 서원은 경기도(8) : 개성 崇陽書院(鄭夢周), 용인 深谷書院(趙光祖), 파주 坡山書院(成渾), 김포 牛渚書院(趙憲), 포천 龍淵書院(李德馨), 과천 四忠書院(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양성 德峰書院(吳斗寅), 과천 鸞江書院(朴泰輔), 충청도(2) : 연산 遯巖書院(金長生), 노성 魯岡書院(尹煌), 전라도(2) : 태인 武城書院(崔致遠), 장성 筆巖書院(金麟厚), 경상도(10) : 경주 西岳書院(薛聰), 선산 金烏書院(吉再), 함양 藍溪書院(鄭汝昌), 예안 陶山書院(李滉), 상주 玉洞書院(黃喜), 안동 屏山書院(柳成龍), 순흥 紹修書院(安珣), 현풍 道東書院(金宏弼), 경주 玉山書院(李彥迪), 상주 興巖書院(宋浚吉), 강원도(2) : 영월 彰節書院(死六臣), 금화 忠烈書院(洪命耆), 황해도(2) : 배천 文會書院(李珥), 장연 鳳陽書院(朴世采), 함경도(1) : 북청 老德書院(李恒福) 등이다.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華陽書院이 대표적 제향처였지만 萬東廟와 함께 우선 휘철되면서, 여주 江漢祠가 존치되었다. 이외에도 金尙容의 강화 忠烈祠, 金尙憲의 광주 顯節祠도 대표적 제향처로 존치되었다.

7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8 서원 장서와 관련하여 이춘희의 선구적 연구 이래로 오랫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그러나 서지학에서는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 전라남도·전남대 문헌정보연구소, 『전남 서원의 목판』, 1998). 역사학에서는 윤희면의 연구가 2005년에 처음 진행되었다.(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에 국한되었다.<sup>9</sup> 이것은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선시대 모든 서원이 출판·도서관적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해도 대원군의 원사 궐철 당시 대부분 망실하였던 것이다. 미궐철 서원이라 하더라도 한국전쟁과 근대화 과정에서 소실 및 도난을 당하였다. 그 결과 현전하는 장서와 책판 등은 전란을 피해 철저한 관리를 이어온 일부 서원에 국한되며, 그 외 서원은 관련된 인물의 문집이나 가문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된다.

본고는 한국 서원의 장서 구축 경위와 그 관리 실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와 현전하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자료들이 특정 지역의 일부 서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본 연구도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원들은 한국 서원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높은 위상을 유지했던 곳으로서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서원을 통해 한국 서원이 가진 출판과 도서관적 기능의 실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2003년 이래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서원 관련 자료가 소개되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한 국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뤄지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서지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朴章承, 「慶州소재 書院·祠에서 간행한 典籍考」 『신라문화』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31,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古典籍』4, 2008;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17, 경주문화원, 2011; 옥영정, 「한국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60, 한국서지학회, 2014; 배현숙, 「영남지방 서원 장서의 연원과 성격」,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역사학에서는 2005년의 윤희면이 서원의 도서관 기능을 연구한 이래로 우정임·이병훈·임근실·김정운 등에 의해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임근실, 「16세기 서원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한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서원 장서와 목판에 대한 학제간 연구도 진행되었다. 서원 장서는 안동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이후 영남지역 목판을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서원에서 제작한 책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한국국학진흥원 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 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 II. 서원 장서의 수집 경위

서원의 장서제도는 오늘날 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 서적의 수집과 정리, 열람을 통해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서원의 장서 제도 역시 전통사회에서 도서관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유생들은 그들이 필요한 서적을 구입할 때 校書館이나 서울의 書肆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관이 감영을 중심으로 발간하는 책판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했다. 그러므로 유통방식은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을 통하거나 혹은 빌려서 보았다. 그런 면에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를 간행하는 서원은 유생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 장서의 수집과 정리·열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서원의 기능은 선현 향사와 敎學 기능 외에도 여러 기능이 알려졌지만 주된 기능은 교학이었다. 따라서 서원에서 장서를 마련하는 것은 교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집되는 도서의 주제는 서원의 교육목표 및 내용과 관련성이 깊었다. 서원의 장서는 국왕, 지방관, 개인(문중)에게 內賜, 寄贈받거나 購入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는데, 주로 經典과 성리학의 기본 서적 및 중국의 역사서가 많았다. 이는 서원 장서가 講學을 위한 교재나 당시의 사상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서원 교육의 대강을 제시한 院規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교육 순서를 달리할 뿐 공통 필수과목으로 『小學』과 『사서오경』을 두고, 기타 『家禮』, 『心經』, 『近思錄』 등의 성리서 및 詞章, 諸史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옥산서원의 『院規』<sup>11</sup>에서도 “諸生들은 독서하는 데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門戶로 삼으며, ... 여러 史書와 子書, 文集, 文章과 科擧 공부 또한 널리 힘쓰

10 옥영정, 「한국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345~346쪽.

11 경주 양동 여주이씨 무침당 소장. 옥산서원 원규는 주세붕이 제정한 <白雲洞書院規>와 퇴계가 제정한 <伊山院規>를 대본으로 중요한 내용을 적출하여,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1716(丙申) 8월 『傳與記』에 ‘院規板’이 처음 등장하고, 이후 서적 목록에 ‘院規’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원규는 1716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옥산서원 원임직 허통을 두고 적서간의 향전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 두루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규는 퇴계의 ‘伊山院規’와 동일한데, 鄭球가 제정한 道東書院 원규 역시 ‘이산원규’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뿐이다.<sup>12</sup> 즉 영남지역 서원들의 대부분 이 원규에 따라 교학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서원이 尊賢을 통해 道學을 수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科擧를 도외시하고 순수한 爲己之學만을 위한 서원으로 존재하였다면 서원제도의 정착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서원들은 건립 이래로 經學을 중심으로 수기를 위한 성리학에 중심을 두었지만, 과거시험을 위한 詞章이나 역사 등의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원규에 나타난 것이다. 서원에서는 원규에서 정한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그에 맞는 도서를 갖춰 나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서원의 효시가 되는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사례이다. 이곳에서는 구입, 하사, 기증이라는 방법으로 초창기 장서를 마련하였는데, 원규의 교육 목표에 따라 경전과 성리서 및 과거 준비를 위한 역사서와 사장학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 1. 서원의 격을 높여준 內賜本

1543년(중종 38) 건립 당시 주세붕은 學田을 마련하고, 500권의 도서를 구비하여 유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서의 경우 숙주사지에서 나온 銅器 300여 근을 팔아 서울에서 經書와 程朱書를 구입하여 서원의 藏書로 삼게 하였다.<sup>13</sup> 이후 1547년(명종 2)의 『斯文立議』를 보면 “院上 竹溪志付書冊 五百二十五卷 及備上書冊四十九卷”이라 되어 있어서 서원 자체에서 마련하고, 지방관아에서 보내준 책을 더하여<sup>14</sup>

12 도동서원 원규에서는 “겨울과 봄에는 五經과 四書 및 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을 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양몽재 제생에 대해서는) 『소학』을 읽어서 익힐 것을 명하되, 그 과정을 엄격히 세워 훈계한다. 莊子, 列子, 老子, 釋氏의 서책은 모두 서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구, 『寒岡續集』 권4, 雜著, 院規) 반면, 용인 深谷書院(趙光祖)에서는 “小學을 먼저 읽고 다음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순으로 읽고, 『심경』, 『근사록』, 『가례』 등의 諸書는 혹 먼저 읽기도 하고 혹은 뒤에 읽기도 하여 번갈아 읽는다”(『深谷書院誌』, 本院學規)고 하여 경학과 성리학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사장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13 『중종실록』 권95, 중종 3년 5월 22일(丁未) 및 『雲院雜錄』 「白雲院創建識」(金仲文). 주세붕이 서원 건립 직후에 설립 경위와 유래를 알릴 목적으로 편찬한 『竹溪志』에는 44종 500권에 달하는 도서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書院藏書錄」 참조).

수년 사이 70여 권 이상 늘어나고 있었다. 뒤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요청에 따라 백운동서원은 1550년(명종 5)에 ‘소수서원’으로 사액됨에 따라 편액과 서적을 받았다. 이때 하사받은 것은 사서오경과 『性理大全』 등이었고,<sup>15</sup> 이후에도 국가에서는 계속 책을頒秩하였다.

즉 1552년(명종 7)에는 『綱目』과 『事文類聚』를 내려주고, 그 이후에도 『續綱目』, 『朱子大全』, 『精忠錄』, 『朱子語類』, 『四書諺解』와 같은 책들이 內賜되었다.<sup>16</sup> 주세붕의 아들 周博은 영천군수로 재직하던 1581년(선조 14) 주세붕의 문집인 『武陵雜稿』(8권)를 기부하였으며, 원장 黃詔과 유사 등이 『朱子書節要』(19권)를 기부하는 등 사람들도 서원도서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sup>17</sup> 그 결과 1602년(선조 35)에 작성된 『紹修書院書冊置簿』에는 모두 107종 1,678권이 수록되어 있어서 처음과 비교하여 3배가량 증가하고 있었다.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이 사액된 이래로 각 지역에서는 서원이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신설된 서원은 서적을 구입하거나, 서원을 세운 수령과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원 건립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서적을 기증했다. 1550년(명종 5) 해주의 수양서원을 세운 주세붕은 자신의 책을 내어 서고를 채웠고, 1555년(명종 10) 사액되면서 현판과 서적을 하사 받았다.<sup>18</sup>

1554년(명종 9) 永川의 임고서원은 설립 직후 사액을 받으며, 소수서원의 사례에 따라서 서책은 사서오경 1질을 文武樓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려 보내고, 『綱目』 및 『事文類聚』는 남아 있는 것이 1질뿐이어서 내려주기가 곤란하니 이 밖의 교서관이 사온 책 중에서 『少微通鑑』·『通鑑續編』을 1질씩 내려 보내되 책마다 첫째 권에 年月日과 ‘內賜臨臯書院’이라고 써서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편액은 ‘臨臯書院’ 4글자를

14 순흥부에서는 1547년 2월 22일에 유생들이 읽을 책을 보내왔는데, 『大學』(1책), 『論語』(7책), 『中庸』(1책), 『孟子』(7책), 『詩傳』(10책), 『書傳』(9책), 『春秋』(8책), 『童蒙先習』(1책), 『童蒙須知』(1책), 『入學圖說』(1책), 『天運紹統』(2책), 『朝陽雜記』(1책), 『張東海大法貼』(1점) 등 13종 50책이었다.(『紹修書院謄錄』, 『分定行移謄錄』 嘉靖26년 2월 22일 在書院).

15 『紹修書院謄錄』, 嘉靖29년(1550) 3월 24일.

16 『紹修書院書冊置簿』(1602). 이 치부책은 소장된 책들을 <內賜>와 <道上天院備>로 구분하고 있다. 내사란 국가에서 내려준 책이란 의미이고, 도상원비는 감영과 고을 관아로부터 기증 받은 것과 서원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기증[내사]과 구입이라는 장서 구비 방법을 확인시켜준다.

1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208.

18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2월 25일(경인).“傳曰 扁額書籍等事 一依臨臯書院例·越明年庚戌 移而闢之于州庠之西 以安其靈 下建書院 以爲諸生肄業之所 乃出家藏書帙以實之 置田民立廚庫…”

큰 글자로 쓰되 아래쪽에 연월일과 ‘宣賜’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서” 보내었다.<sup>19</sup> 이때부터 內賜記와 편액의 서식이 정해졌다.

임고서원 이후 사액된 수양서원, 함양 남계서원<sup>20</sup>, 榮川 이산서원<sup>21</sup> 등은 모두 서적이 함께 내려졌다. 경주 옥산서원도 1577년(선조 10)에 四書六經 각 2질, 『朱子大全』, 『朱子語類』, 『儒先錄』 각 1질을 宣賜받았으며, 조정으로부터 부족한 교육용 교재의 지원 방안으로 1583년(선조 16)에는 『諺解小學』 1질, 1585년(선조 18)에는 『四書諺解』 각 1질을 선사 받았다.<sup>22</sup> 예안의 도산서원은 1575년(선조 8) 준공하여, 1576년(선조 9)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1575년에 이미 사액을 받은 상태였기에 도산서원 역시 현판과 서적, 전답, 노비 등의 은전이 이어졌다. 도산서원은 16종 318책의 내사본을 하사 받았다. 즉 1575년(선조 8) 사액 당시 『주자대전』 (95책), 『주자어류』 (75책), 『성리대전』 (26책), 『논어』 (2건 14책), 『춘추』 (2건 16책), 『시전』 (2건 18책), 『예기』 (2건 32책), 『대학』 (2건 2책), 『중용』 (2건 2책), 『서전』 (2건 18책) 등 경전과 성리서 10종 298책을 하사 받았다. 그 후 1585년(선조 18) 『精忠錄』 (3책)을, 1588년(선조 21)에 『소학언해』 (4책), 1590년(선조 23)에 『맹자언해』 (7책), 『논어언해』 (4책), 『중용언해』 (1책), 『대학언해』 (1책) 등 사서언해를 하사 받았다.<sup>23</sup>

이처럼 사액을 내릴 때 교육을 권장하는 뜻에서 서적을 함께 내리는 것이 소수서원 이래로 관례가 되었다. 이들 서적은 책 첫면에 내려준 해와 날짜 및 ‘內賜’를 표기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했음을 표시하였다. 내사본은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로 마련한 함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또한 서원에 따라서 御書閣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서 보관했으며, 열람할 때에는 반드시 再拜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였다.<sup>24</sup>

왕조 국가에서 국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존엄한 것이었다. 서원의 사액은 왕명에 의

19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1월 2일(기해). “書冊 依紹修書院例 四書五經各一件 以文武樓所藏帙賜送 而綱目及事文類聚 則餘在只一件 賜給爲難 以外 校書館貿易冊內 少微通鑑通鑑續編各一件賜送 每書初卷 題其年月日 內賜臨臯書院 以示敦獎之意”

20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6월 15일(갑술).

21 趙繼韓, 『玄洲集』 卷15, 『伊山書院興廢記』. “萬曆甲戌 特賜扁額 額以伊山者 以其里卽山伊故 因里名而別之也. 丁丑秋 賜書 冬又賜書 己卯庚辰連賜書 書凡十七帙也.”

22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玉山書院.

23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p.54~55.

24 이춘희,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p.11.

해 편액 하사와 致祭가 진행되면서 공식적으로 국학에 준하는 권위를 공인 받았다. 한 번 진행되는 사액과는 별개로 치제와 서적 하사는 왕명으로 거듭 내려지기도 했으며,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원의 위상이 높을수록 장서의 구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지방관아에서 간행된 서적이나 서원·문중 등 민간에서 간행된 서적들의 기증과 지방관 및 관련 인사들의 개인적인 서적 기부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창기 서원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서적을 온전히 보존한 곳은 도산·옥산서원 정도에 불과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옥산서원은 오히려 전쟁의 피해를 입은 홍문관의 요청으로 1599년에 사서오경, 『주자대전』, 『국조유선록』, 『소학언해』, 사서언해본 등의 내사본을 대여하기도 했다.<sup>25</sup> 이후에 부임하는 경주부 윤들은 서원으로부터 이들 서적을 대여하여 열람하는 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이루어졌다. 지방관의 관심은 서원 운영에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서적의 대여는 언제든지 망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원규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실제 옥산서원에서는 18세기 중반 다량의 서적을 분실하였고, 그 원인으로 지방관의 서적대여가 지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에서는 왕명으로 서적의 간행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졌기에 간행하는 서적은 제한적이었다. 17세기 이래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은 증가했으나 관례대로 모든 사액서원에 서적을 하사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액을 하더라도 서적을 하사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관행으로 되었다. 대신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할 때면 문묘종사 대현을 제향한 서원이나 충절사우에 서적을 하사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적 하사였기에 옥산서원을 비롯한 영남지역 서원들은 속종 이래로 이전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영·정조대에 비로소 퇴계와 회재의 학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서적의 반질과 치제가 이어졌다.

실제 도산서원에서는 1794년(정조 18)에 사서삼경 7종과 『어정주서백선』이 내사되고,<sup>26</sup> 같은 해 옥산서원에는 『어정주서백선』과 『어제속대학혹문』이 내사되었다.<sup>27</sup> 이어서 두 서원에는 1796년(정조 20)에 『어정규장전운』,<sup>28</sup> 1797년(정조 21)에 『향례합편』,<sup>29</sup> 1798년(정조 22) 『어정오경백편』, 『춘추좌씨전』,<sup>30</sup> 1799년(정조 23) 『어

25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26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1월 24일(임자).

27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2월 25일(무인); 권40, 정조 18년 8월 30일(갑신).

28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8월 11일(계미).

제아송』<sup>31</sup> 등이 거듭 내려왔다. 이처럼 두 서원은 치제와 함께 수차례 서적을 받으면서 18세기 후반부터 영남을 대표하는 首院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

## 2. 서원 장서의 초석을 만든 기증본

현전하는 옥산서원 장서를 보면 1572년(선조 5) 건립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이 많다. 특히 16세기 간행본들은 대부분 역사서로서 초창기 서원 교육에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主驪江李...家藏’, ‘獨樂堂’, ‘晦齋’ 등의 註記가 있는 것은 회재 후손가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회재가 家藏하고 있던 내사본과 手筆稿本, 手澤本은 옥산서원 장서 중 내사본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외에도 회재의 동생 李彦适 가장본은 그 후손들이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문인 權士毅가 『宋朝名臣錄』을 所納하기도 하였다. 경주부에서는 『孔子通紀』를 비롯한 서원 건립 이전까지 간행되었던 성리서와 역사서, 문집 등을 보내왔는데, ‘玉山書院上’이라 墨記되어 있다.

1574년(선조 7)에는 경주부윤 이제민이 경상감사 盧禎에게 건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회재집』을 간행하였으며, 그의 저술들도 뒤이어 간행하였다.<sup>32</sup> 1575년(선조 8)에는 경주부에서 『회재선생집』, 『양산묵담』, 『대학장구보유』 및 부록 『續大學或問』을 간행하였다. 당시 『회재집』 간행에 관찰사 노진과 경주부윤 이제민의 적극적인 부조가 있었는데<sup>33</sup>, 여타 서적들의 간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옥산서원은 건립 당시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을 기증받음으로써 서원 장서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이다.

경주부는 1561년(명종 16) 부윤 李楨(1512-1571, 재임 :1560.9-1563.1)이 주도하여 김유신을 제향하는 서악서원을 건립하고, 스승인 퇴계의 자문을 받아서 『孔子通紀』

29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6월 2일(신미) ; 권47, 정조 21년 7월 20일(정해).

30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9월 3일(을사) ; 『승정원일기』 1792책, 정조 22년 5월 22일(을유) ; 1795책, 정조 22년 8월 7일(무술) 및 옥산서원 소장본 內賜記.

31 옥산서원 소장본 內賜記.

32 『선조실록』 권8, 선조7년 9월 27일(무술) ; 선조7년 11월 4일(갑술). 이언적의 『九經衍義』는 유희춘이 인출할 것을 아뢰고, 옥당에서 이를 교정하였는데, 이후 1583년(선조 16) 경주부에서 初刊되었다.

33 『晦齋先生集』, 柳希春 跋 “...願見全集者久矣 今鷄林尹李侯齊民請於方伯盧公禎鳩材募工開板...”



(1562), 『伊洛淵源錄·續錄』 (1561), 『二程粹語』 (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 (1562), 『唐鑑』 (1562), 『庸學指南』 (1562), 『皇極內篇』 (1562) 등의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경주일대 文風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34</sup> 이정 역시 이전 서원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신이 건립을 주도한 서악서원에 재임시에 간행했던 서적들을 기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그 외에도 경주부에서 1512년(중종 7) 경주부윤 李繼福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重刊하거나, 1543년(중종 38)에 『春秋胡氏傳』, 『書傳』, 『自警編』을 소수서원으로 印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sup>36</sup> 이들 서적들도 초기 서악서원 장서 형성에 한 축을 담당했을 것이다. 옥산서원 『書冊記』에도 이들 서적들이 기재되어 있어 옥산서원도 경주부로부터 같은 서적을 기증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안의 역동서원은 1568년(선조 1) 퇴계와 그의 제자들이 주관하여 건립하였다. 퇴계는 1570년(선조 3) 교서관 제조로 임명되었을 때 貿易하여 경서와 성리서 등 16종 195책을 보내왔으며, 이후 『延平答問』 (2책), 『朱子年譜』 (2책), 『聖學十圖』 (1책), 『小學集成』 (6책), 『近思錄』 (4책) 등 5종 15책을 추가로 보내었다.<sup>37</sup> 이후 퇴계가 기증한 서적들은 역동서원 장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관리되어왔다. 또한 지방관으로 부임했던 퇴계 문인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청주목사 류중영은 『家禮儀節』 (4책), 성주목사 김극일은 『啓蒙翼傳』 (3책), 대구부사 권문해가 『睡軒集』 (2책)을, 감사 李曼은

34 李楨은 순천부사 재임시에 『程氏遺書·外傳』 (1564), 『(胡敬齋)居業錄』 (1564), 『景賢錄』 (1564), 『性理遺編·補遺』, 『朱子年譜』 (1565), 『濂洛風雅』 (1565) 등을 저술하고, 1564년에는 김평필을 제향하는 玉川書院을 건립하는 한편, 함양 남계서원에 『通鑑』 (17권)과 『程氏遺書』 (8권)을 기증하였다.(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pp.217~220).

35 서악서원의 초창기 장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모두 불타 없어졌기에 그 내역을 알 수 없다.(“壬辰兵火中廟宇齋舍及書冊文書盡爲缺虛位版難以奉安于天龍山”, 『西岳書院考往錄臆草』, 玉山書院所藏) 그러나 이정이 스승인 퇴계의 서원보급운동과 궤를 같이하여 士氣의 진작이란 측면에서 서악서원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위판과 동·서재의 명칭 및 사립 천거에 따른 節目 등을 퇴계에게 稟定하였던 점(『西岳書院考往錄臆草』, 玉山書院所藏)과 퇴계 본인도 영천 임고서원 건립 시에 내사본을 기증한 사실을 본다면 이정 역시 서악서원 건립 후에 간행된 서적들을 기증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은 순천부사 재임시 함양 남계서원에 서적을 보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36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pp.7~9.

37 『易東書院記』, 『書冊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퇴계가 교서관 제조로 임명되어 무역한 서적들은 『대학』 (2책, 2건)·『대학혹문』 (2책, 2건)·『중용』 (2책, 2건)·『중용혹문』 (2책, 2건)·『논어』 (14책, 2건)·『맹자』 (14책, 2건)·『詩傳』 (9책)·『書傳』 (9책)·『性理大全』 (24책)·『春秋胡氏傳』 (8책)·『좌전』 (11책)·『주역』 (12책)·『예기』 (15책)·『宋鑑』 (15책)·『韻府群玉』 (10책)·『韻會』 (10책) 등이다.

『소학』(8책 2건), 좌상 기자헌은 『德陽遺稿』를 보내왔다. 또한 오산서원에서 『三仁錄』, 우계서원에서 『艮齋集』, 삼계서원에서 『冲齋集』을 보내왔다.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서적 외에도 현조를 현양하기 위한 문집의 기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산서원에도 개인과 서원, 타 문중, 지방관 등의 기증이 주류를 이루었다. 퇴계의 높은 위상만큼 전국에서 서적이 도래하였다.....<sup>38</sup>[추후 정리]

17세기 들어 옥산서원 장서는 자체 간행과 기증에 의해 충당되었다. 구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었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란 이후 국가 주도로 각 감영에 서적 간행을 명하면서 경주부에서의 간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영에서는 직접 간행한 경전 및 『통감절요』와 같은 역사서를 보내오거나 감사들의 개인적 기증이 있었다. 일례로 1701년에 감사 최석항은 『光國志慶錄』을 보내왔으며, 1748년에는 『炭翁集』과 『詩藪』, 1755년에는 감사 李彝章이 『陰崖集』, 1838년에는 巡使 朴岐壽가 『錦石集』를 보내왔다. 1847년에는 서울의 판서 이광정 집안에서 『四禮便覽』을 보내왔다.

17세기 중반 이래로 서원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1631년 청도 자천서원에서 『탁영집』, 1642년 서악서원의 『서악지』, 1709년 예림서원의 『점필재집』, 1722년 호계서원의 『학봉집』, 1733년 도산서원의 『퇴계언행록』, 1739~1756년 용산서원의 『정무공실기』, 1739~1740년 의성 藏待書院의 『경정집』·『송은집』·『오봉집』, 1748년 공주 道山書院의 『탄옹집』, 1756년 동강서원의 『우재실기』, 영주 오계서원의 『간재집』, 영해 인산서원의 『존재집』, 1801년 경주 장산서원의 『효경』, 1817년 영천 용계서원의 『경은유사』, 안동 구담서당의 『소산집』, 1819년 군위 송현사의 『송오집』, 1820년 영해 구봉서원의 『관감록』, 1828년 함창 임호서원의 『동계실기』, 광산사의 『전암실기』, 1842년 현풍 도동서원의 『경현록』, 1847년 청도 덕남서원의 『송은집』 등이 그러하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문중서원의 증가와 함께 서원 간행본의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문중에서의 서적 반질도 이어졌다. 1606년 奇遵의 『덕양유고』가 나주의 幸州奇氏 가문에서 보내져왔는데, 기준은 회재의 狀碣文을 지은 기대승의 숙부가 된다. 또한 1609년 기준의 증손이 되는 前좌의정 奇自獻이 옥산서원에 謁廟한 것

38 최우경, 앞의 논문, 2019, pp.83~108.

처럼 행주기씨 가문과의 인연은 특별하였다. 1683년에는 조광조의 후예인 조위수가 『정암집』을 보내왔으며, 內侍敎官을 지낸 孟萬澤이 화재가 직접 點朱한 『대학연의』를 보내었다. 1703~1709년 사이에는 한음의 후예인 하양현감 이복인이 『한음선생수필』을, 1713년에는 대전 안동권씨 집안에서 권득기의 문집인 『만회집』을 보내왔다. 1755년에는 경주부윤 홍삼익이 그의 부친의 문집 『내재집』을 보내왔다. 이처럼 기증에 의한 것은 사적·공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옥산서원 『서책기』, 『서책전여도록』에 수록된 서적수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서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758년 『서책기』에 184종 1,618책에서 1801년에는 253종 1,905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796~1874년에는 310종 2,076책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370종 2,121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세기 들어와서 문중서원·사우와 개별 가문 등에서 顯祖를 현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집과 遺稿의 간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표 1> 옥산·도산서원 서책수

옥 산 서 원	경주 교원 서책 (1863- 1907)	書冊記 (1713)	書冊記 (1756)	書冊記 (1758)	書冊 傳與 都錄 (1801)	서책 전여 도록 (1796- 1874)	서책 전여기 (1906)	서책 현재 도록 (1862- 1945)
계	1,862 (198)	1,446 (161)	1,626 (182)	1,618 (184)	1,905 (253)	2,076 (310)	2,048 (338)	2,121 (370)
도 산 서 원								
계								

이상에서 초창기 서원들은 서원 건립과 장서 구비에 지방관의 도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향촌 유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증이 있기도 했으

나, 서원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면모와 권위를 갖추는 데는 사액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서적을 하사받으면서 가능하였다.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 확대할 필요가 있던 시기였기에 서적의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서원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경제적 보조를 받기 위해 서원의 건립과 동시에 사액을 청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갔다.

한편 조정에서는 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소수서원 이래로 사액과 동시에 서책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서 초창기 서원들은 사액시에 서책을 하사받아 서원 장서를 늘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사본은 책 첫 면에 내려준 연도와 날짜 및 ‘내사’를 표기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하사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의 궤에 넣어 두었고, 서원에 따라 어서각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열람시에는 반드시 재배를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기증과 내사에 의한 장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의 증가와 장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서원 자체에서 경비를 들여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원규 등을 통해 서원 장서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 2. 구입과 騰書[筆寫]

교육기관인 서원이 강학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확보가 우선이었다. 서원의 도서 확보 방법은 구입이 우선이었다. 도서 구입은 서원에서 필요한 장서를 수집하는 방법 중 비교적 손쉬운 것이지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왕의 내사본 내지 지방 관아와 개인의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서원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증에 의한 것은 서원에서 필요한 서적만을 선택할 수 없기에 부득이 구매에 의한 장서 마련이 뒤따랐다.

앞서 소수서원이 건립 당시 다량의 銅器가 수습되어 그것으로 일부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임고서원에서 건립 초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 서적을 구매하려 다녔다는 사실<sup>39</sup>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서원을 건립할 당시

39 趙稜, 『慕庵先生文集』 권3, 「通列邑書院文(道南洞主時)」. 영천의 사람들이 포은선생의 서원을 건립

장서의 수집 방법은 주로 구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사액 서원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서적의 하사라는 것도 없었기에 더욱 서적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선후기 서원의 남설 과정에서 많은 서원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제향의 기능만을 갖춘 것도 서적을 구매하고 교육기능을 유지할 재정의 부족이라는 측면도 컸던 것이다.

그러나 사액서원의 경우에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았다. 사액이 되면 편액과 함께 서책이 반질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17세기 이래로 사액서원의 증가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문묘종사대현 내지 충절인을 제향하는 사액원사에 한정해서 서적을 반질하였던 것이다.<sup>40</sup> 일례로 경주 서악서원의 경우 1623년(인조 1) 사액되었지만 <표 2>처럼 ‘買藏’, ‘印藏’, ‘寫藏’ 등의 방법으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서적을 구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특히 경전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사액 당시 사서오경과 성리서 등을 하사하던 이전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적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과는 달리 공급이 부족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2> 서악서원 『고왕록』 내 서적 수집 내역

번호	연도	서적명	비고
1	1614	九經衍義	買藏
2	1615	唐音(2권), 禮部韻(1권)	印藏
3	1620	四遊錄(1권)	買藏
4	1621	朱子節要疑釋(1部)	買藏
5	1623	忠烈錄(1部)	買藏
6	1624	小學(1권), 通鑑(1권)	買藏
7	1627	孟子(2권)	印藏
8	1628	陸宣公集(1권), 周易(1권), 晦齋集(1권)	買藏
9	1630	孔子通紀(1권)	買藏
10	1631	詩大全, 詩諺解, 書諺解, 諺解小學, 漢史 각 1질	買藏
11	1632	易上經(1질)	買藏
		箕子廟碑文	奇相印送
		四書諺解, 杜詩諺解, 詩學指南 각1질	買藏

할 때 서울에 와서 서적을 널리 구하였는데, 퇴계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內賜받은 『性理群書』 1질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40 『영조실록』 권127, 부록 영조대왕행장.

41 「西岳書院考往錄贈草」(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2	1633	左傳(1질)	買藏
13	1635	東國地理志(1질), 佔畢齋碑文(1폭), 碑陰誌(1폭)	買藏
14	1636	小學諺解(1질)	買藏
		桂苑筆耕(1질)	寫藏
15	1637	周易諺解(1질)	買藏
16	1639	家禮(1질)	買藏

임란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과 조정에 보관되어있던 서적들의 소실<sup>42</sup> 등으로 조정에서도 이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옥산서원에서는 왕명으로 경전 23권을 홍문관에 진상하기도 하였다.<sup>43</sup> 서적이 부족한 상황은 중국에서의 구입과 私家에서의 입수 및 校書館을 통한 인출로 완화되어 갔지만<sup>44</sup> 사액서원의 증설로 모든 사액서원에 대한 서적 반질 요구를 조정으로서도 수용하기 힘들었다.<sup>45</sup> 그 결과 영조대부터 문묘종사 대현을 모신 서원만 간혹 서적을 내려주는 경우가 나타났다.<sup>46</sup> 전란 직후 중앙정부의 서적 부족현상은 지방관 및 서원, 문중 등에도 영향을 주어서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 구매가 늘어났다.

예안 역동서원 역시 17세기 들어와서 『대학연의』, 『朱子語錄類要』, 『회재집』, 『회재연보』, 『황명명신언행록』, 『文獻通考』, 『주자대전』, 『晦庵語錄』, 『古文眞寶』, 『포은집』 등을 買得, 買得 하였다. 모두 도학 연원의 인물 및 그들의 저서와 초학자들이 익히는 서적이었다. 즉 유생과 동몽의 교육을 위해 구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주로 기증과 간행에 의해 장서를 구비했기에 구매에 의한 사례는 잘 보이지 않는다.<sup>47</sup> 그러나 17세기 말 제작된 『역학도설』이 筆寫本이고, 1755

42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권117, 선조 32년 9월 25일(신미);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권212, 선조 40년 6월 16일(정미).

43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44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24일(임신);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0일(을축);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2일; 권35, 광해군 2년 11월 20일(신유), 22일(계해); 권54, 광해군 4년 6월 3일(병인); 권106, 광해군 8년 8월 4일(임인); 권113, 광해군 9년 3월 19일(갑신);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7일(기사); 『효종실록』 권14, 효종6년 3월 8일(계사);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13일(경진);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2월 20일(신유); 권51, 영조 16년 6월 3일(임신); 권97, 영조 37년 3월 23일(임술)

45 윤희면, 앞의 논문, 2005, pp. 9~10.

46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pp. 303~304.

47 도산서원 『書冊秩』(1649, 인조 27)에 의거하면, 수록된 181종 1,507책 가운데 구입한 서책은 37종

년에 『맹자』를, 1782년에는 『예기』 당판본 10권을 구매하였다. 18세기에 경주부와 감영에서 『소학』, 『시전』, 『서전전문』, 『서전대문』 등을 간행하여 보내왔지만 강학에 필요할 경우 구매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刊所別備冊價錢傳與記』는 18세기 중반 옥산서원의 서적 구매 당시의 사정을 알려준다.

<표 3> 간소별비책가전 전여기(1756-1762)

번호	연도	구분	내역
1	1756(丙子) 4월	史記評林	刊所買置時 7兩 貸下
2	1757(丁丑) 2월	圃隱集	1兩 價下
3	1757(丁丑) 冬	禮記	1兩2錢 冊紙 8卷價下
4		禮記膳書	7錢 筆價下
5		墨	1錢5立 墨價下
6		鶴峯集, 言行通錄	2냥4전5립 冊紙價下
7	1762(壬午) 정월	禮記	11냥 1秩價送 康陵
8		魯史零言	5냥 冊紙價下 初散膳寫故貿置
9		魯史零言	11냥 價送 東部
10			

옥산서원에서는 1756년 『사기평림』을 7냥에 구매하고, 이듬해인 1757년에 『포은집』을 1냥에 추가 구입하였다. 같은 해 겨울에는 『예기』를 서적으로 완비된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종이값과膳書비, 인쇄에 필요한 墨값을 치렀듯이 등서하였다. 표지를 꾸미는 裝黃價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옥산서원에서 필사본을 직접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봉집』과 『언행통록』도 종이 값만 지불한 것으로 보아서 印出만 하였다. 1762년 정월에는 이항복이 편찬한 『노사영언』에 대해 11냥의 책값을 지불하였는데 膳寫한 글을 잘 써서 5냥의 종이 값을 지불하고 그냥 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책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인출 외에도 膳書(筆寫)의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같은 달에 11냥을 들여 서울 康陵에서 『禮記』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1782년에도 당판본 『예기』를 구매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옥산서원 교육에서 『예기』가 필수였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 『完議』를 보면,<sup>48</sup> 재주있는 학생을 선

479책이다. 내사본 16종 318책을 제외하면 기증에 의한 장서구비가 대부분이다.(최우경, 앞의 논문, 2019, pp.54~59). 구입한 서적은 역동서원과 비슷하며, 영천과 경주일대에서 간행된 서적의 구매가 많았다.

발하여 증용·대학·소학·예기를 考講한 후 이름을 儒籍에 붙인다고 되어 있다. 19세기 초반의 옥산서원 講案(紙)에도 증용·대학·소학·가례 등 4과목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종의 서적이 교육의 기본교재로서 옥산서원에서 가장 많이 읽혔으며 그만큼 훼손과 유실이 심하여 구입도 많았을 것이다. 『예기』는 그런 측면에서 자주 구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서 목록 중에는 ‘新備’로 기록된 것이 있다. 새로 갖추었다는 것인데 신간 도서를 나타낸다. 新備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은 기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문집을 제외한 『史略』, 『周禮』, 『柳文』 등은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이외에도 드물지만 상호 교환을 통해 필요한 서적을 구비하기도 했다. 옥산서원은 1734년에 『家禮』 2권(1질)과 『近思錄』 4권(1질)을 교환하고<sup>50</sup>, 1745년에는 『抄史略』 2권과 『歷代捷錄』 2권을 교환하였다.<sup>51</sup>

### Ⅲ. 서원의 출판 기능

서적은 간행 주체에 따라 官板과 私板으로 구분하는데, 관판은 간행 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별하여 중앙판과 지방판으로 나눌 수 있고, 사판은 寺刹板, 書院板, 私家板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저술된 문헌의 보급을 위해서는 서책의 간행이 필수적이었다.<sup>52</sup> 경주지역은 신라의 古都이자, 고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관판 내지 사찰판의 출판문화가 발달하여 많은 서적이 간행된 곳이었다.<sup>53</sup> 조선

48 「完議乙亥2月13日」(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p.225)

49 『전여기』에는 서적 외에도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필사본도 서적의 한 종류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책기』에는 서원에서 생성된 필사본은 제외하고 있다. 1760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臚錄』과 1745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院規』 및 서원 건립시부터 작성된 『심원록』은 『서책전여도록』에 기재되어 있다. 서원의 중요 방문객의 명단인 심원록은 서원의 대외적 인망을 증명하는 것이며, 원규와 등록은 서원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0 『전여기』 갑인(1734) 2월.

51 『전여기』 을축(1745) 12월 25일.

52 박장승,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53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전기에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교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관판이 출판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 의식의 고취와 서원의 증가 등에 힘입어 출판문화의 중심이 사관 그 중에서도 서원판과 사가판으로 이동되어 갔다.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서원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초기 서원에서 간행된 판목은 평안도 中和의 淸涼書院에서 1566년(명종 21)에 『近思錄集解』, 『漢書傳抄』와 1568년(선조 1)에 『古史通略』을 간행하였고, 1574년에는 성주 川谷書院에서 『薛文淸公讀書錄要解』와 『朱子書節要』를, 1581년 서천 鳴谷書院에서는 『標題句解孔子家語』, 『新刊素王事紀』 등만이 확인된다.<sup>54</sup> 이후 서원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서원제도가 확립되었듯이 서원에서의 간행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이것은 1796년 徐有渠의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판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는 전국 84개 서원의 185종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도산서원이 1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산서원, 논산 魯岡書院으로 7종이 수록되어 있다.

#### 『누판고』 소재 서원 책판 목록

지역	소장처	제향인	책판명	비고
예안	陶山書院	李滉   趙穆	嶠南賓興錄	1권, 1792(정조 16), 경상감영
			經書釋義	8권, 李滉 撰
			啓蒙傳疑	1권, 이항 찬
			退溪言行錄	6권, 李滉門人 찬, [초판 權斗經]
			理學通錄·外集	통록 11권, 李滉 撰 / 외집 1권 趙穆跋, 成渾 點批
			古鏡重磨方	1권, 李滉 編
			朱子書節要	20권, 李滉 編
			松齋集	2권, 李堦 撰
			聾巖集	5권, 李賢輔 撰
			雲巖逸稿	2권, 金綠 撰
			溫溪逸稿	5권, 李濯 撰
			退溪自省錄	1권, 이항 찬
			退溪集·續集·年譜	문집 51권, 속집 8권, 연보 3권, 이항 찬, 원집·연보- 류성용 편, 속집- 後孫 李守淵 편
			耻齋遺稿·附錄	유고 3권, 부록 1권, 洪仁祐 撰

54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240쪽.

			月川集	6권, 趙穆 撰
			近始齋集	4권, 金垓 撰
			溪巖集	6권, 金垓 撰
			陽村入學圖說	1권, 權近 撰
청도	紫溪書院	金駟孫	濯纓文集	5권, 金駟孫 撰
			滄溪集	27권, 林泳 撰
	仙巖書院	金大有 · 朴河淡	禮部韻略·玉篇	운략 4권, 옥편 1권
상주	檜淵書院	鄭述	大河圖	1권
			小河圖	1권
			五先生禮說(前後)集	전집 8권, 후집 12권, 鄭述 찬
			五服沿革圖	1권, 정구 찬
			心經發揮	4권, 鄭述 撰
			太極問辨	2권, 정구 편
			寒岡集·續集·別集·年譜	본집 15권, 속집 6권, 별집 1권, 연보 1권
	安峯影堂	李億年 · 李兆年 · 李仁復 · 李崇仁 · 李稷	亨齋集	4권, 李稷 撰 [京山李氏 世德祠]
	晴川書院	金宇顒   金聃壽 · 朴而章	東岡集	19집, 金宇顒 撰
	柳溪書院	鄭崑壽 · 朴燦 · 李淳	柏谷集·年譜	본집 4권, 연보 1권, 鄭崑壽 撰
안동	東洛書院	張顯光	易學圖說	9권, 張顯光 찬
			旅軒年譜	3권, 문인 張舉 편
			性理說	8권, 장현광 찬
			旅軒集	11권, 장현광 찬
경주	玉山書院	李彦迪	奉先雜儀	2권, 李彦迪 찬
			大學章句補遺·續或問	보유 1권, 속혹문 1권, 이언적 찬
			近思錄	14권
			中庸九經衍義	29권, 이언적 찬
			求仁錄	4권, 이언적 찬
			太極問辨	2권, 鄭述 編
			晦齋集·年譜·附錄	문집 13권, 연보 1권, 부록 1권, 李彦

			迪 撰, 李滉 編
	西岳書院	薛聰·金庾信·崔致遠	帝王歷年通攷 1권, 鄭克後 찬
	龜岡書院	李齊賢	孝行錄 1권, 李齊賢 찬, 權近 註 櫟翁稗說 4권, 이재현 찬 益齋亂藁 10권, 이재현 찬
	東江書院	孫仲墩	愚齋實記·補遺 실기 2권, 孫汝斗 輯, 보유 1권 孫鼎九 編
	龍山書院	崔震立	貞武公實記 4권, 후손 편
永川	道岑書院	曹好益	家禮考證 7권, 曹好益 찬 大學童子問答 1권, 조호익 및 문인 金鉉 찬 心經質疑考誤 1권, 조호익 찬 芝山集 11권, 조호익 찬
	環邱世德祠	鄭世雅·鄭宜蕃	湖叟實紀 8권, 鄭一鑽 輯 [鄭世雅·鄭宜蕃]
	臨臯書院	鄭夢周 張顯光 皇甫仁	圃隱集·續集 본집 4권, 속집 3권
連山	遯巖書院	金長生 金集·宋浚吉·宋時烈	涵溪集 6권, 鄭碩達 撰 梅山集 12권, 鄭重器 撰
			家禮輯覽 11권, 金長生 撰 喪禮備要 2권, 김장생 찬, 申義慶 修 沙溪年譜 1권, 後孫 金憲 편 沙溪遺稿 14권, 김장생 찬 愼獨齋遺稿 15권, 金集 찬
			喪禮備要 2권, 김장생 찬
			疑禮問解·續解 문해 4권, 속해 1권, 金集 編, 속해 尹宣舉 編
전주	石溪書院	金東準	家禮源流·往復書 원류 16권, 왕복서 1권, 兪榮 찬 市南集·附錄·年譜 본집 23권, 부록 3권, 연보 1권, 兪榮 撰
부여 (林川)	七山書院	兪榮	明齋疑禮問答 8권, 尹拯 門人 편 三韻通考補遺 5권, 朴斗世 찬 明齋言行錄 5권, 傍孫 尹光紹 編. 明齋年譜 6권, 傍孫 尹光紹 撰. 牛溪續集 6권, 成渾 撰 八松封事·附錄 봉사 1권, 부록 2권, 尹煌 撰 魯西遺稿·附錄 유고 20권, 부록 2권, 尹宣舉 撰
논산 (尼城, 礪山)	魯岡書院	尹煌 尹文舉·尹拯·尹宣舉	仲冤牛栗兩賢疏 1권
	竹林書院	李珥·成	

		渾·金長生   趙光祖·李滉   宋時烈		
상주	近岳鄉賢祠 (近岳書院)	洪彦忠·李德馨   金弘敏·洪汝河   李渠·李萬敷·權相一	通國通鑑提綱	14권, 洪汝河 찬
			寓菴文集	4권, 洪彦忠 撰
			漢陰集	12권, 李德馨 撰
	西山書院	金尙容·金尙憲	仙源年譜·淸陰年譜	선원 1권, 후손 편, 청음 2권, 宋時烈 편
			仙源遺稿	5권, 金尙容 撰
	玉成書院	金得培·申潛   金範·李埈   李埈	后溪集	2권, 金範 撰
			月磻集·부록·兄弟急難圖	본집 3권, 부록 1권, 금란도 1권, 李埈 撰
			蒼石集	18권, 李埈 撰
	淵嶽書院	朴彦誠·金彦健·康應哲·趙光璧·康用良	南溪集	1권 康應哲 撰
	興巖書院	宋浚吉	同春堂集·別集	본집 24권, 별집 9권, 宋浚吉 撰
			洞虛齋集	1권, 成獻徵 撰
	道南書院	東方五賢   盧守愼   柳成龍   鄭經世·李埈	蘇齋集·續集·附錄	본집 10권, 속집 8권, 부록 1권, 盧守愼 撰
愚伏集			21권, 鄭經世 撰	
頤齋集			2권, 曹友仁 찬	
안동	屏山書院	柳成龍   柳 祔	懲毖錄	16권, 柳成龍 찬
			西厓集·別集·年譜	본집 21권, 별집 4권, 연보 3권
			梧里集·附錄·續集·別集·附錄	본집 6권, 부록 4권, 속집 2권, 별집 2권, 부록 2권, 李元翼 撰
	虎溪書院	李滉·柳成龍·金誠一	朱書講錄刊補	6권, 李栽 刊補
			鶴峯集·行狀·續集	문집 8권, 행장 1권, 속집 5권, 金誠一 撰
三溪書院	權機	冲齋集	9권, 權機 撰	

	魯林書院	南致利	賁趾集	4권, 南致利 撰
	鏡光書院	裴 尙 志 · 李 宗 準 · 張興孝	敬堂集	2권, 張興孝 撰
	周溪書院	具 鳳 齡 · 權春蘭	晦谷進學圖	4권, 權春蘭 撰
			栢潭集	4권, 具鳳齡 撰
			晦谷集	2권, 權春蘭 撰
	默溪書院	玉 沽 · 金 係行	凝溪實記	2권, 玉世寶 輯 [옥고]
			寶白堂實紀	2권, 金承鈺 輯, [김계행]
			雲川集	6권, 金涌 撰
	柞溪書堂		麗澤齋遺稿	6권, 權在運 撰
善山	金烏書院	吉再   金宗 直 · 鄭 鵬·朴英   張顯光	三仁錄	1권, 善山諸儒 찬[金澍, 河緯地, 李孟 專]
			治隱言行拾遺	3권, 吉興先 編
			兩賢淵源錄	1권, 朴悞·金濡 等編, [鄭鵬·朴英]
	洛峯書院	金 叔 滋 · 金 就 成 · 朴 雲 · 金 就 文 · 高 應陟	龍巖集	4권, 朴雲 撰
			眞樂堂集	2권, 金就成 撰
			久菴集	4권, 金就文 撰
			喚醒堂逸稿	3권, 朴演 撰
			健齋逸稿	2권, 朴遂一 撰
	松山書院	金 應 箕 · 金 振 宗 · 崔 應 龍 · 康 惟 善 · 崔 晁 · 盧 景任	敬菴集	7권, 盧景任 撰
			認齋集·別集·年 譜·附錄·續集	본집 13권, 별집 2권, 연보 1권, 부록 1권, 속집 7권, 崔晁 撰
함안	西山書院	趙 旅 · 元 昊 · 金 時 習 · 李 孟 專 · 成 聃 壽 · 南 孝 溫	趙氏十忠實錄	1권, 趙希孟 편, 후손 趙輝晉 重訂[趙 旅·趙邴·趙鵬·趙宗道·趙俊男· 趙信道·趙敏道·趙凝道·趙益道· 趙善道·趙繼先]
			漁溪集	2권, 趙旅 撰
			損菴集	9권, 趙根 撰
	德巖書院	趙 純 · 朴 漢 柱 · 趙 宗道	大笑軒集	3권, 趙宗道 撰
	松汀書院	趙任道	澗松堂集	7권, 趙任道 撰
순천	玉川書院	金宏弼	景賢錄	2권, 李禎 편, [金宏弼]

			擊蒙要訣	2권, 이이 찬
	忠愍祠	金 贊 吉 · 林慶業	忠武公家乘	6권, 신령현감 李弘毅 輯, [李舜臣]
	芝峯書院	李晬光	昇平志	2권, 李晬光 撰
鏡城	彰烈祠	鄭文孚	彰烈祠志·續志	불분권, 李端夏 찬
	雲峰祠	申崇謙	壯節公遺蹟	불분권, 朴世采 찬
平山	九峯書院	朴世采	南溪年譜	4권
영암	鹿洞書院	崔德之   崔 忠成   金壽 恒   金昌協	烟村事蹟	2권, 崔挺 輯
		金宗直   朴	彝尊錄	2권, 金宗直 찬 [金叔滋]
밀양	禮林書院	漢 柱 · 申 季誠	佔畢齋詩集·文集	시집 23권, 문집 2권, 金宗直 撰
			知足堂忠烈記	1권, 趙璫 집 [趙之瑞, 조지서 처 鄭氏]
	新塘書院	趙之瑞	丹圃集	1권, 趙希進 撰
			槽巖集	4권, 趙昌期 撰
	德川書院	曹植   崔永 慶	南冥集·別集	본집 5권, 별집 9권, 曹植 撰
		李 俊 民 · 姜 應 台 · 成 汝 信 · 河 澄 · 韓 夢參	浮查集	8권, 成汝信 撰
진주 ( 산 청 )	臨川書院		覺齋集	3권, 河沆 撰
		河沆   孫天 佑 · 金 大 鳴 · 河 應 圖 · 李 漣 · 柳 宗 智 · 河 受 一	松亭集	6권, 河受一 撰
	大覺書院			
산청	西溪書院	吳健	德溪集	8권, 吳健 撰
		李恒福   金 德 成 · 鄭 弘翼   閔鼎 重 · 吳 斗 寅   李 尙	北遷日錄	1권, 鄭忠信 撰, [李恒福]
北靑	老德書院			

		眞·李世華 李光佐 (黜享)		
新寧	龜川書院	權應銖	白雲齋實紀	4권, 權弘運 輯, [權應銖]
光州	褒忠祠	高 敬 命 ·	霽峰遊瑞石錄	1권, 高敬命 撰
		高 從 厚 ·	霽峯集·遺集·續集	본집 5권, 유집 1권, 속집 1권
		高 因 厚 ·	正氣錄	1권
		柳 彭 老 ·	白麓集	3권, 辛應時 撰
		安瑛	晴沙集	1권, 高用厚 찬
창주	華陽書院	宋時烈	程書分類	30권, 宋時烈 編
			宋子大全·附錄	본집 217권, 부록 19권
해주	紹賢書院	朱子 趙光祖 · 李滉 · 李珥 · 成渾 · 金長生 · 宋時烈	近思錄釋疑	14권, 金長生 撰
			聖學輯要	13권, 李珥 撰
			擊蒙要訣	2권, 이이 찬
			桑榆集	2권, 柳思規 撰
			栗谷集·續集·外集·年譜	본집10권,속집3권,외집1권,연보2권
서천 (한산)	文獻書院	李 穀 · 李穡   李鍾學 · 李塏 · 李耜	稼亨集·雜錄	가정집 20권, 李穀 찬, 李穡 편 / 잡록 1권, 이색 편, 후손 李泰淵 編
			牧隱集·附錄·年譜	본집 58권, 부록 1권, 연보 1권, 李穡 찬
			麟齋集	1권, 李鍾學 撰
개성	崧陽書院	鄭夢周 · 徐敬德   金尙憲   金堉 · 趙翼   禹玄寶	圃隱集·續集	본집 4권, 속집 3권, 鄭夢周 撰
	花谷書院	徐 敬 德 · 朴 淳 · 閔純 · 許曄	花潭集	3권, 徐敬德 撰
용강	鰲山書院	金 安 國 · 金正國	慕齋集	15권, 金安國 撰
			思齋集	4권, 金正國 撰
보은	象賢書院	金淨   成運	冲庵集	5권, 金淨 撰
		成悌元 · 趙憲   宋時	大谷集	3권, 成運 撰

		烈		
의성	藏待書院	申之悌 李 民成 申元 祿·金光 粹	松隱集	2권, 金光粹 撰
			悔堂集	2권, 申元祿 撰
			梧峯集	8권, 申之悌 撰
			敬亭集	12권, 李民成 撰
능주	竹樹書院	趙光祖 梁 彭孫	靜菴集	8권, 趙光祖 撰
함양 ( 안 의 )	龍門書院	鄭汝昌 林 薰·林芸  鄭蘊	葛川集	4권, 林薰 撰
			瞻慕堂集	3권, 林芸 撰
			桐溪集·附錄	본집 4권, 부록 2권, 鄭蘊 撰
장성	筆巖書院	金麟厚 梁 子徵	河西集·別集	본집 14권, 별집 9권, 金麟厚 撰
사천	龜溪書院	李禎	龜巖集	2권, 李禎 撰 - 원집 1권 - 許穆 편, 속 집 1권 - 魚有成 편
풍기	郁陽書院	李 滉 · 黃 俊良	錦溪集·外集	문집 4권, 외집 8권, 黃俊良 撰, 李滉 校訂, 외집 - 鄭述 編
	愚谷書院	柳 雲 龍 · 黃 暹 · 李 堧 · 金 光 曄	息菴集·年譜	본집 5권, 연보 1권, 黃暹 撰
榮川	龜江書院	金淡 朴承 任 · 金 玜 · 金 榮 祖	嘯臯集·續集·附錄	본집 4권, 속집 4권, 부록 2권, 朴承任 撰
	三峰書院	金爾音 金 蓋 國 · 金 隆	勿巖集·年譜·附錄	본집 4권, 연보 1권, 부록 1권, 金隆 撰
			晚翠集	4권, 金蓋國 撰
	迂溪書院	李德弘	艮齋集	14권, 李德弘 撰
	義山書院	李 介 立 · 金應祖	省吾堂集	4권, 李介立 撰
			鶴沙集·外集·年 譜·附錄	본집 9권, 외집 1권, 연보 1권, 부록 1 권, 金應祖 撰
연안	顯忠祠	李 廷 旼 · 申 恪 · 金 大 鼎 · 宋 德 潤 · 張 應 祺 · 趙 光庭	四留齋集	12권, 李廷旼 撰



錦山	從容祠	趙憲	重峰集·附錄	본집 5권, 부록 1권, 趙憲 撰
고부	道溪書院	李希孟·崔安·金齊閔·金地粹·金齊顏	鰲峯集	5권, 金齊閔 撰
			苔川集	2권, 金地粹 撰
나주	眉泉書院	許穆	記言·別集	기언 67권, 별집 26권
文義	黔潭書院	宋浚吉	同春堂集·別集	본집 24권, 별집 9권
장흥	淵谷書院	閔鼎重·閔維重	老峯集·附錄	본집 10권, 별집 2권, 閔鼎重 撰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전여기』와 『東京雜記』(1670), 『鏤板考』(1796), 『金鰲勝覽』(1936)을 통해서도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옥산서원에서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刊所’를 속사인 정혜사에 두고 운영하였는데, 印出에 사용할 책판도 정혜사에서 보관하였다.<sup>56</sup> 1670년 『동경잡기』를 보면 당시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역옹패설』·『적벽부』·『효행록』·『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1711년부터 1793년까지 작성된 『전여기』를 보면 책판의 종류가 31종에서 12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748년을 기점으로 옥산서원 판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효행록』·『심경』·『익재집』·『역옹패설』·『익재화상』·『동경지』 등은 경주부에서 판각한 것으로 改版을 위하여 잠시 옥산서원에 보관했던 것이다. 1796년의 『누판고』에는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으로 『구인록』·『근사록』·『대학장구보유』·『봉선잡의』·『중용구경연의』·『태극문변』·『회재집』 등 7종이 확인된다. 1936년 『금오승람』에서는 1670년 정혜사 소장 책판 14종 외에 『東史纂

55 옥산서원 간행 판본과 책판 등은 박장승, 앞의 논문, 2001 및 윤상기, 「경주 옥산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 38, 동의대학교, 200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56 정혜사는 1572년 옥산서원 창건과 동시에 속사로 정속되어, 1834년 11월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옥산서원의 서적 간행 및 책판보관, 유생 공궤 등 인적·물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서원에서 刊役을 시행할 때는 간소를 사찰 내에 두어 운영하였다.(『文集刊役記事』, 1744)

要』·『晦齋別集』 등이 새로 확인된다. 이중 『동사찬요』는 1609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관판본이며, 『회재별집』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34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오승람』에는 정혜사 소장 책판이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전여기』 등에 보이는 책판을 모두 망라하면 『구경연의』·『회재선생문집(구)』·『회재선생문집(신)』·『대학장구보유』·『근사록』·『구인록』·『봉선잡의』·『대원조오잠』·『십육영』·『태극문변』·『改正大學』·『원조오잠(구)』·『收心良性風松寒竹』 등 회재와 그의 저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東京誌』·『익재집』·『역옹패설』·『익재화상』·『효행록』·『심경』·『大屏風』·『小屏風』, 「구인당」 현판·「해월루」 현판 등이 있었다. 『동경지』는 1669년(현종 10) 경주부사 閔周冕이 진사 李埰 등과 함께 편찬한 『동경잡기』를 1711년(숙종 37) 경주부윤 남지훈이 재간행하면서 인출을 옥산서원 측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대학』은 1602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었는데, 앞선 기록들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요컨대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목판은 옥산서원 경각과 정혜사 별고에 分藏하고 있었으며, 인쇄내지 책판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옮겨졌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일부 책판도 이 두 곳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174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익재와 관련된 책판은 龜岡書院으로 옮겨지고 옥산서원에는 회재와 관련된 책판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회재집』은 1575년 경주부에서 初刊한 이래 1600년에 다시 重刊하였고, 이후 3刊(1624)부터 10刊(1926)까지는 옥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 IV. 서원의 장서 관리

한국의 서원 중 옥산·도산·병산서원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57 ‘구인당’ 현판은 1711년 이전에 改刊하고, 原板은 經閣에 보관하였으며, 1748년 이후 대소‘병풍’판도 경주부 판목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다. 청하 ‘해월루’ 현판은 중수시에 청하 현감 鄭岐胤(재위:1692~1702) 推去해 갔다.(『전여기』, 신유(1711)).

서원들이다.<sup>58</sup> 이것은 건립 이래로 도서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기에 가능했다. 이들 서원에는 원임의 인수인계시나 포쇄시에 작성한 『書冊目錄』, 『傳與記』, 『書冊記』, 『書冊(傳與)都錄』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서 서적 관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국가 지정 사적 9개 서원 기록문화의 현황<sup>59</sup>

구분	고서	고문서	책판
영주 소수서원	30종 145책	110점	4종 428장
안동 도산서원	1,026종 4,605책	2,128점	28종 3,928장
안동 병산서원	1,071종 3,030책	1,439점	25종 1,907장
경주 옥산서원	943종 3,977책	1,156점	19종 1,121장
현풍 도동서원	10종 26책	214점	1종 71장
함양 남계서원	147종	717점	377장
논산 돈암서원	—	10점	11종 1,841장
정읍 무성서원	8종	49점	기타 51장
장성 필암서원	132종	64점	701장

장서의 이용과 열람은 서원 내에서만 허락되었다. 최초의 서원이었던 소수서원의 院規는 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의 5가지를 기본 조목으로 하고 있다.<sup>60</sup> 주세붕은 원규를 통해 서책의 점검과 수령과 그 자제의 무단 반출을 엄히 금하였다. 현전하는 소수서원 장서의 표지 이면에는 “來讀院中 勿出院門”라고 墨書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 역시 이산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일체 서원 밖으로 서책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sup>61</sup>

이산서원 원규는 이후 건립된 대부분의 서원에서 인용되었다.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원규로 채택되었다. 永川의 임고서원은 소수서원의 원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書院規範』을 별도로 제정하여 ‘點書’에 대해 기준을 받거

58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59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2.

60 周世鵬, 『竹溪志』, 雜錄後, 「院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夫不謹則祀不享 不禮則賢不至 宇不修則必壞 廩不備則必匱 書不點則必散 五者 不可以廢一也. … 致齋日 獻官點曬藏書… 邑宰子弟 不得擅便書冊. 擅便則必有因緣偷竊之弊 子弟之心 父兄豈盡知之. 若携出院門 或致遺失 則人必曰偷竊也. 其貽愧 當與竹溪同其流也 爲父兄者可不警哉 爲子弟者可不懼哉 某故不令子弟寓于此 欲防其源也 然有大志而無書冊 積誠來學之君子 則亦不可一切拘於此例也”

6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汚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나, 買得하면 서책의 많고 적음과 전후로 다른 게 있는지 점검하고, 습기에 젖은 서적을 그냥 두면 좀벌레가 생기므로 포쇄를 하도록 규정하였다.<sup>62</sup> 이처럼 16세기에 건립되었던 초창기 서원들이 원규로 제정항 공통적으로 준수하였던 장서의 점검이라는 전통은 이후 건립되는 모든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되었다. 장서 점검의 목적이 서적의 분실을 확인하고, 책을 포쇄하여 습기와 좀벌레를 방지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장서의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소수서원에서는 매년 齋日에 현관이 점검하여 포쇄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장서가 증가하면서 각 서원에서는 목록을 작성하였다. 목록은 장서의 이용보다는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장서목록」은 일반적으로 冊子 방식으로 만들어서 書名, 卷冊數를 기본적으로 기재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구비한 내역을 적기도 했는데, <內賜>, <院備> 등으로 구분했으며, 이외에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서적명의 아래에 註記했다. 일반적으로 櫃나 冊匣의 유무, 기증된 서적일 경우 보내온 곳을 적기도 했으며, 원칙적으로 대여가 불가했지만 부득이 대여를 했을 경우 대여자와 대여일, 반납 유무를 적고 있다.<sup>63</sup> 목록에 기재하는 순서는 內賜本을 먼저 적고 그 다음은 책이 놓여진 위치를 밝히고, 대체로 書架에 놓인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특히 3책의 『서책(전여)도록』에는 서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적은 「壬申年 9월 府尹 完文」과 「壬子年 致祭時 禮官文」, 「壬戌 5월 1일 堂中 完議」가 있다.

175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년 부운 완문」은 옥산서원의 서책 編囊이 많고 또 宣賜된 것도 많은 것은 서원을 건립할 초기에 ‘不出院門’하는 절목을 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1권도 闕失하는 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부터 관가로부터 혹 책자를 살피볼 것이 있다고 서원에 下帖하여 매번 輪上 왕래하는 사이에 편질이 훼손되거나 혹 오랫동안 推尋하지 않아서 闕失되기에 이르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에 사람의 백년 成規를 이 해에 嚴截하니 官長 또한 인편으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sup>64</sup>

62 臨臯書院, 『書院規範』, 「點書」. (1628년 8월 19일) “一. 書冊雖始入院門 終無還出之理 或有仁者之賜 或有院中之備 數之多寡 前後必異 且當霪雨應致蠹敗 必須釐以正之 且點且曬 毋令有汚有損(川谷院規)”. 이 규정은 성주의 川谷書院에서는 제정한 것을 빌려온 것이다.

63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64 『書冊傳與都錄』 「壬申9월일 府尹完文」.

실제 현전하는 옥산서원 『원규』에는 반드시 께를 갖추 책을 넣어 보관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흩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적의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sup>65</sup> 부윤의 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원규는 대체로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1권의 서실도 없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관가에 의해 서적의 훼손 내지 서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부윤의 이런 지적은 「전여기」 내의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은 「전여기」 내의 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옥산서원의 경전과 성리서 및 문집 등이 경주부로 반출되고 있음을 ‘官入’, ‘入府’로 표기하고 있다. 1753년에는 대규모의 서적들을 서실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완문에서 언급한 대로 경주부에서 빌려간 뒤 오랫동안 추심하지 않아서 서원의 기록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부윤의 완문이 있었음에도 이후 경주부로의 서적 대출은 계속 진행되었다. 서원 운영에 필수적인 원속, 전답, 노비 등에 대한 면역, 면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윤의 재량에 달려있었던 만큼 부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전임 부윤의 명령을 후임 부윤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도 없었기에 이 완문은 사족들에게만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현전하는 각종 자료에서 19세기 이전에 사사로이 서적을 빌려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적이 필요할 경우 서원에 공식 요청을 하면 堂中에서 회의하여 서적을 보내거나 인출하였다. 즉 서적의 반출에 그만큼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완문에도 불구하고 부윤의 서적 반출 요구가 계속되자 옥산서원 측은 1792년(임자) 치제시에 예관(李晩秀)이 전달한 경연석 상에서의 국왕의 말을 부기하여 관에 의한 서적반출을 엄금하였다.<sup>66</sup> 즉 옥산서원에서 ‘書院書冊不出院門’이라는 원규가 이미 있으니 국왕이 책을 보고자 한다면 명을 내려 책을 가져오게 하면 되지만, 이는 원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옥산서원측은 이러한 왕의 말을 「전여도록」에

65 『원규』(무침당 소장), “...五曰點書...不備則必匱書 不點則必散...一邑宰子弟不得留滯胎弊不得擅便書冊...”. 옥산서원 ‘院規板’은 1716년(丙申) 8월 「전여기」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시기는 17세기 말 원 임직을 두고 적서간의 향전이 치열히 전개되던 때였다. 실제 그 여파로 1697년 『關西錄』 판목을 훼손하고, 계정을 서원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던 시기로서 서원측은 서원 입록과 운영을 규정한 원규를 새롭게 정비하여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66 『서책전여도록』, “壬子 致祭時 仕臣領 筵教云玉山書院書冊不出院門已爲成規良庸嘉爲然 予欲見之則必當與之以此傳諭于士子處如有可觀 冊子卽爲齎來”

부기하여 관아를 비롯한 유력자들의 서적 반출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표 6>에서처럼 1792년 이래로 경주부로의 반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

번호	연도	내역	비고
1	1709	원비 : 奉先雜儀 [齋任 權慶祚失]	전여기1
2	1734	원비 : 鶴峯續集(前任李文龍(1732.2~1733.8)傳與時失)	전여기6
3	1753	선사 : 全失 - 주역(26권), 시전(9권), 서전(18권), 춘추(8권) 失 - 孟子(1권), 중용(2권내 1권), 예기(31권내 4권) 院備 : 全失 - 書傳(10권), 禮記(15권), 魯史零言(14권), 大學補遺(1권), 楚辭(4권), 圃隱集(2권), 退溪言行錄(6권), 鶴峯集(5권) 失 - 周易(11권내 5권), 詩傳(17권내 1권), 選武彙編(4권내 2권)	전여기14
4	1755	선사 : 맹자(7권 1질) - 官入 원비 : 詩傳(17권내 7권) - 官入, 詩傳諺解(14권내 7권 - 官入) 退溪言行錄 - 7권내 4권(1질) 在堤澄	전여기17
5	1764	원비 : 西岳誌 - 前任不傳	전여기21
6	1765	선사 : 入府 - 논어(7권1질), 맹자(7권1질), 중용(1질), 대학(1질) 원비 : 入府 - 주역(13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시전(10권1질), 시전언해(7권1질),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서전언해(5권), 중용언해(1권)	전여기22
7	1775	선사 : 入府 - 논어(7권), 맹자(7권), 대학(1권), 중용(1권) 원비 : 入府(潤月11日出來) - 周易(12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서전언해(5권), 시전(7권), 시전언해(7권),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중용언해(1권), 史略(7권), 통감(14권), 三韻通考(1권)	전여기25
8	1779	求仁錄(2권), 九經衍義(27권 3질) 代次還江界	전여기26
9	1783	선사 : 孟子(7권 1질) - 入府 원비 : 詩傳(7권 1질), 詩傳諺解(7권 1질) - 入府	전여기31
10	1792	원비 : 奉先雜儀 - 6권내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1790(庚戌)2월 堂中傳與時] 太極問辨(本院新刊本) - 李佐郎持去前任時	전여기34
11	1793	원비 : 奉先雜儀(6권)내 1권 迎日官求請送,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 / 奎華名選(1794(甲寅)正月自本府來)	전여기35
12	1798	宣賜 : 孟子 2卷 戊午(1798)失	書冊傳與都錄4

이렇게 서적을 잘 보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서실과 훼손은 심해지고 있었다. 1836년(丙申) 1월 15일 傳與할 당시에 堂中<sup>67</sup>에서 서적을 점검해 보니 卷帙이 중간에 서실된 것이 많음에도 이전의 전여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기록에는 있으나 뒤로 전수할 때는 없어서 새로운 신·구임 간에 많은 다툼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이라 하여 권질이 누락된 19종의 서적을 부기하고 있다.<sup>68</sup>

1862년(壬戌) 5월 1일 당중 「완의」<sup>69</sup>에는 서원 서책을 ‘不出院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원규를 훼손하지 않고 받들기 위해 큰 글씨로 새겨서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였다고 한다.<sup>70</sup> 그러나 근래에 책은 많으나 관리하는 사람은 적어서 혹 빌려간 것을 잊거나 오래 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散失한 것이 허다하다고 하였다. 이에 금번의 포쇄를 맞이하여 서적을 일일이 점검하여 현전하는 실제 수량을 파악하고, 새로 都錄을 고쳐서 경각에 보관하니, 이후부터는 마땅히 古規를 지켜서 前轍을 밟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서원의 귀한 책을 보고자 하는 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任司를 경유하여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열람을 하고, 열람이 끝나면 바로 반환하도록 했다. 혹 즉시 반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임사가 따로 더욱 독려하고, 遞任으로 傳受시에는 打點하여 책 수를 도록에 의거하여 확인하되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 완의는 서적의 관리에 있어서 임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명시한 것이 특징인데 인수인계시에 서실된 서적의 책임소재로 분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서적

67 『書冊傳與都錄』(經閣所藏書冊) 「丙申 正月十五日 傳與時 堂中」.

68 『書冊傳與都錄』(經閣疏狀書冊),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 “宣賜『孟子』(6卷前無), 『儀禮經傳圖解』(14卷內1卷前無), 『儀禮圖』(9권내1권전무), 『程氏臥書』(2권내1권전무), 『孔子通紀』(2권내1권전무), 『馬史』(3권내1권전무), 『註唐詩』(10권내1권전무), 『選武抄語』(6권내4권전무), 『小學講譜』(2권내1권전무), 『奉先雜儀』(5권내3권전무), 『九經衍義』(3권내1권전무), 『武陵集』(8권내1권전무), 『孤松集』(2권전무), 『瓶窩集』(9권내1권전무), 『修庵集』(3권내1권전무), 『省吾堂集』(2권내1권전무), 『孝經』(1권전무), 『太極問辨』(新備1권전무)”

69 『書冊現在都錄』, 1862(壬戌) 5월 1일, ‘完議膺附’

70 옥산서원내에 남았는 「書院書冊不出院門」 현판에는 1840년(庚子) 2월(仲春)에 의견을 수렴하여 적었다고 註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구인당중건일기』 1840년 3월 1일자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주요 내용은 1792년(임자)에 정조가 경연석 상에서 한 이야기를 판각한 것이다.

의 열람을 원할 시 임사를 경유하여 날짜와 대여자, 책명을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서적의 문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서원 운영에 유력한 가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나온 교육책이었다. 또한 책의 분실 내지 훼손시 그 책임이 임사에게 있으므로 인수인계시에 책의 대출여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으며,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옥산서원 『書冊借去秩』(庚子(1900) 5월 1일)이다. 이 책에는 대여자가 宅號로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인명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本洞, 內洞, 守城, 上里 등 서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침당, 계정과 같이 화재 후손 각 파의 종가도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점은 서적의 주요 대출자들은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로서 화재의 후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옥산서원은 인근 사족들의 지식문화 보급소로서 대출과 정리라는 도서관적 기능을 확인시켜준다.

<표 7> 書冊借去秩(庚子 5월 1일)

연도	서적명	내역
1908(戊申) 4월 15일	朱書講錄(3권)	還來, 丹邱宅
	文選(47권)	中12권 納, 32권 無忝堂
	坡谷遺稿(1권)	納
	花溪集(5권)	內洞 河回宅
	三綱行實圖(1권)	本里 垚巖宅
	喪祭(1권)	雙溪宅
	寒岡集(3권)	
1884(甲寅) 8월 1일	文選(47권)	무침당
	楚辭(4권)	
1885(乙酉) 1월 25일	九經衍義(9권)	守城 仙原宅 移居 良洞
	晦齋集	
	艮翁集(12권)	내동 화희택 還
	坡谷遺稿(1권)	
	花溪集(5권)	本里 池山宅
	孟子諺解(2권)	
	唐詩(6권)	德山宅 還
	中庸諺解(1권)	原堂 嘉川宅 還
	周易(3권)	守城 仁洞宅 還
1900(庚子) 5월 2일	三國史(9권)	本里 斗洞宅
	禮記(10권)	?洞宅
	西厓集(13권)	蓮亭宅



	朱書百選(3권)	本里 琴湖宅
	禮記(6권)	見谷 浦山宅
	輿地勝覽(6권)	
	喪祭問答(2권)	
	東京雜記(3권)	中里 琴湖宅
	懲愆錄(5권)	本里 琴湖宅
	東京誌(3권)	本里 元覺宅
	東京誌(상,중)	紫陽宅
	詩傳具諺解(17권)	上里 蘆谷宅
	小學具諺解(8권)	本里 大田宅
	小學具諺解(8권)	上里 溪亭
	懲愆錄(5권)	本里 元覺宅 還匣無 1권
	朱子大全(95권)	良洞 無忝堂
壬寅 3월 1일	春秋(10권)-冊匣并	합18卷 紫溪宅 還
	詩藪(6권)	
	靜庵筆札(單)	
	漢陰手筆(單)	

이상에서 참고한 자료들 중 『서책기』와 『서책전여도록』의 경우 經閣 내에 소장된 서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잡문서를 서적과 함께 존치하는 것은 경각의 뜻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제외하였다.<sup>71</sup> 그러나 『전여기』에는 서책 이외에도 책판과 각종 집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적을 宣賜秩과 院備秩로 나누고, 서적 간행시 조성된 책판을 冊板秩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원 운영상에 생성된 각종 문서와 筆寫本을 大櫃秩, 中櫃, 雜文秩로 나누고 있다.

문서의 경우 모든 기록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궐에는 『정서등록』과 노비·토지매매문서, 통문, 전답안, 노비추쇄안, 정혜사 및 각 店所 관련 문서 등 서원의 재정(경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대외 문건을 보관하고, 중궐에는 執事記, 笏記, 入院錄, 傳與記 등 서원 제향 및 임원, 인수인계와 관련한 원내 문건을 보관하였다. 그 외의 명문, 완문, 관문, 통문, 추수기, 관문, 각종 회계록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였다. 또한 유사한 문건은 여러 장을 1권으로 묶어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문서의 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서적은 책장에 보관하였는데 尋院錄, 書冊記, 攷往錄도 같이 관리하였으며, 내사본은 별도의 袍匣에 보관하였다. 대궐과 중궐 등은 經閣(御書閣)에 보

71 『書冊傳與都錄』, 註記(1면) ‘傳與時隨改置簿 恐有匱失之患 曾成一冊以爲點墨 而渾置雜文書中 亦非尊閣之意 故更爲此簿 此後則勿爲改書囊以下 只記有無 而墨之之幸甚’

관하고 책판은 각종 책판목록에서 확인되듯 속사인 정혜사에서 보관했다. 그러나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책판은 1835년 옥산서원 내에 文集板閣을 지어 모두 옮겨 보관했다.

이외에도 『전여기』에는 서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궤에 보관하거나 다른 서적과 함께 보관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晦齋附錄草冊』과 『1513년 先生司馬榜目』, 『鄉案臚草』, 『先賢書疏』은 儒案櫃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회재의 별업이었던 독락당에는 이전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오면서 회재가 개인적으로 宣賜받은 서적과 그가 보던 手澤本, 후손이 수집한 서적 및 고문서, 19세기 이후 제작된 목판(관서문답록, 잠계선생유고 등) 등을 보관·전승해 오고 있다. 독락당 소장 자료들 중 內賜本과 手澤本을 제외한 서적류는 1972년 淸芬閣을 지으면서 모두 옮겨왔으며, 옥산서원에서도 경각에 보관하던 전적과 고문서, 문집판각의 시판 및 기타 유물 등을 옮겨서 일괄 보관해 왔었다.<sup>72</sup> 최근에는 청분각을 허물고 유물의 훼손방지와 도난예방 및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2010년에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신축하여 현재 서원 소장 전적과 고문서, 유물 및 목판(책판, 현판, 시판) 등을 최신 설비의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 V. 맺음말

한국 서원 장서는 기증, 구매, 출판 등의 방법에 의해 구축되었다. 서원별·시기별로 차이는 나지만 장서의 토대를 형성한 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내사본과 지방관, 후손, 문인들의 기증본이었다. 초창기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들 서적의 기증은 서원 재정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기증 및 내사된 도서는 원규에 명시된 대로 유생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경전과 사서, 성리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내사본은 사액과 함께 내려진 것 외에도 임란 이전까지 수차례 하사되었지만 전란 이후 국가 재정의 파탄과 당쟁의 영향 등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영·정조대에 도산·옥산서원과 같이 문묘종사 대현을 제향하는 서원은 중앙으로부터 내사본이 거듭 하사되었다.

72 『청분각건립지』, 1970.(옥산서원 소장)

17세기 중반이후 국가에 의한 반질보다는 지방관 개인내지 여타 서원·문중에서의 서적 기증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의 발달과 서원·사우의 증가와 궤를 같이하였다. 이외에도 상호 교환 내지 등서(필사)를 통한 서적 구비도 보인다. 한편 구매를 통한 서적 구입은 교육에 필요할 경우 이루어졌다. 서적 출판은 제향자의 문집과 저서들이 대부분이지만 옥산서원의 『한사열전초』, 도산서원의 『계몽전의』 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19세기 이후에는 제향인의 후손과 문인의 문집을 서원에서 간행함으로써 혈연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와 제작된 책판들을 관리하는 것도 서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사액서원은 서적을 內賜와 院備로 구분하여 책갑을 씌워 장서각·어서각 등에 보관하였다. 그 외에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필사본과 문서들은 그 성격에 따라 대궐과 중궐, 문서질로 나누어서 보관하였다. 이중에서 서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은 별도의 궐에다가 보관하였다. 책판은 속사에 보관하거나, 장판각 등을 건립하여 보관하였다. 옥산서원은 속사인 정혜사에 보관해 오다가 1834년 화재로 사찰이 전소되자 이듬해 문집판각을 원내에 건립하여 책판을 보관하였다.

수많은 장서는 서원 교육뿐만 아니라 서원의 위상을 알리는데도 주요했다. 대부분의 서원은 원규로서 정기적 점검과 서책의 반출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원사가 건립되면서 서원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방관과 후손가 및 일부 유력 가문들의 서적 대여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옥산서원의 경우 문집 등의 기증이 늘면서 장서의 수가 급증하고, 원내의 적서갈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많은 장서를 잃어 버렸다. 이에 부윤 완문과 당중 완의 등으로 서적 대여를 단속하고, 관리를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왕(정조)의 권위를 빌려서 ‘서책불출문외’ 현판을 경각에 걸고 새로운 장서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서적 반출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책차거록’에 기재한 후 서적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서적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자구책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이래로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장서를 축적해 왔으며, 향촌의 식자들은 서원을 이용하면서 지식을 습득·보급해 나갔다. 이러한

도서관적 역할 외에도 배향자의 저서를 간행·보급함으로써 그의 학문을 전승·확산시켰다. 책판 제작과 서적 보급 과정에서 서원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확대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자, 공론 형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列邑院宇事蹟』·『慶州府校院書冊錄』(국립중앙도서관)  
「(刊所)傳與記」(46책)·「書冊傳與記」(1책)·「書冊傳與都錄」(2책)·「書冊都錄」(2책)·「(玉山書院)書冊記」(3책)·「書冊借去錄」(1책)·「刊所別備冊價傳與記」(1책)·「頒秩記」(1책)·「考往錄」(1책)·『竹溪志』(周世鵬, 국립중앙도서관)
- 이수건 외,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_\_\_\_\_,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_\_\_\_\_,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_\_\_\_\_, 『도산서원을 통해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_\_\_\_\_,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 이수건 외, 「조선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민족문화논총』 1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4.  
이수환, 「회재 이언적과 옥산서원」, 『경주사학』 16, 동국대학교 사학회, 1997.  
\_\_\_\_\_,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 목판 제작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 역사연구소, 2008.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17, 경주문화원, 2011.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_\_\_\_\_,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옥수화, 「조선시대 서적의 보급과 교육기관의 장서관리 -관 주도의 도서관행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배현숙, 「퇴계 장서의 집산고:개인문고의 서원문고화의 일례로서」, 『서지학연구』 10, 1994.

\_\_\_\_\_, 「영남지방 서원장서의 연원과 성격」,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60, 한국서지학회, 2014.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 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임근실, 「16세기 서원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9.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s://www.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검색 (<https://search.koreastudy.or.kr>)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디지털 아카이브 (<http://k-seowon.or.kr>)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에 관한 토론문

토론 : 우진웅(한국국학진흥원)

이병훈 선생님의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 서원의 장서 구축 경위와 그 관리 실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으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완성된 원고인 것 같습니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주시면 더 명확한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 논문 주제와 내용 구성 관련

### ■ 논문주제: 서원의 장서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보완점: 내용의 대부분이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련된 것이고, 장서 관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4장(서원의 장서 관리)의 마지막 부분에 몇 줄 언급한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관리 제도의 변화’ 부분의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대상을 축소하시거나 대표적인 2-3군데 서원을 골라서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 관리(소장) 주체의 변화(전문기관 기증 내지는 기탁, 서원 자체 시설 구축)

- 2) 관리시스템의 변화
- 3) 목록 시스템의 변화
- 4) 관리 환경의 변화

## 2. 개념

### ■ 서원 장서

⇒장서의 개념이 서책인지? 문서류나 책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포함하는지?

## 3. 제목 관련

⇒논고 내용은 영남지역 서원이 대부분인데 굳이 한국 서원 장서라고 해야 하는지?



# 晚清书院藏书制度研究

邓洪波·张晓新(湖南大学岳麓书院)

**【摘要】**晚清书院藏书制度既在纵向的时间轴上继承了我国传统书院藏书制度的优良传统,又在横向的空间上面临西学浪潮的冲击,因此在整体发展上呈现出倾同性的特征,这是可以将其作为整体研究对象的前提。一方面,晚清书院藏书具有开放化与社会化的趋势,其制度重视内部规范化,设置了详细的管理流程'人事制度'文书制度'借阅制度等。另一方面,在西学浪潮影响下,它体现出改革固有知识体系的萌芽趋势,以及突出的地方官绅互助合作的特点。这些都成为辛亥革命后中国知识体系近代化转型的铺垫和基础。

**【关键词】**晚清书院,书院藏书,藏书制度。

自鸦片战争之后,中国社会发生了巨大且深刻的变革。学术层面,体现在国门渐开,西学逐渐引入,并进而与中学产生冲突和融合,书院作为学术和教育的重要阵地,其建设和发展自然也受到时代的重要影响。有学者指出,两次鸦片战争后,在各个通商口岸,随着资本主义的入侵,一批新的商人产生了,他们对西学的兴趣浓于科举,他们创办书院的观念已不同于清初中期的盐商<sup>1</sup>。虽然在书院的后续发展中,商人是否能够主导书院的建设尚值得商榷,但晚清书院具有不同于清初中期书院的发展特点,这个判断是正确的。在这个“三千年未有之大变局”的背景下,书院的管理者们秉承经世致用的原则,在中西新旧的夹缝之间寻求一种可行的教育模式,期待培养出合格人才,以达到救世安民的目的。特别自同治年间开始,清政府迎来“中兴”时期,太平天国运动平息,洋务运动逐渐发展,西学东渐的

---

1 李国均:《中国书院史》,长沙,湖南教育出版社,1994年,第794页。

步伐加快,晚清书院达到了前所未有的高速发展期<sup>2</sup>,在教学内容‘藏书结构’人员聘请等各方面都呈现出了异彩纷呈的局面,尤其在藏书制度的设置和建设方面,具有非常强烈的时代色彩。虽然清政府在1901年下诏改书院为学堂,人为中断了书院高速发展的势头,但在改制诏令下达之后,书院的发展仍有余声,按照专家的统计,绝大部分书院在清末就完成了改制,也有极少数延至了民国初年<sup>3</sup>,因此本文所讨论晚清书院藏书制度,上限设置在同治元年(1862)开始,下限至宣统三年(1911),也即辛亥革命前夕为止。

有关晚清书院藏书制度的研究,多数出现在以书院藏书为整体事业的探讨中,兼论及书院藏书制度。邓洪波教授对此贡献良多,他对历代书院藏书的研究涉及对藏书事业整体概况的概括‘藏书管理体系’藏书目录等各方面,晚清书院方面,他曾对落成于同治二年(1863)的箴言书院藏书及藏书目录进行详细探讨,并对其《院目》与《四库总目》的类目设置进行了对比研究,充分肯定了箴言书院的藏书管理,指出箴言书院藏书在一定程度上已具备向公众开放的尝试,具有极大的进步性<sup>4</sup>,他还对晚清时期的江苏书院藏书事业进行考察,指出其时江苏书院的藏书管理已开始制度化和规范化,形成了较为完善的涉及图书登记‘编目’‘借阅’‘赔偿’‘保管’等各个环节的规章制度<sup>5</sup>;张根华在探讨清代福州致用书院藏书的流传过程中,曾涉及到了部分书院藏书制度<sup>6</sup>;张晓新等曾针对晚清书院藏书章程与近代图书馆章程之间继承与发扬关系进行了探讨<sup>7</sup>;王丽在讨论晚清河南地区藏书楼的近代化转变时,认为致用性是晚清书院藏书楼的重要特征,并对正义书院、豫南书院及大梁书院的藏书管理制度做了考察<sup>8</sup>。邹桂香等认为晚清书院藏书理念从“囿于一统”到“兼收并蓄”的转变,彰显了书院藏书事业近代化的面向和特征,文中列举了众多晚清书院藏书目录及藏书管理规章论述书院藏书的近代化特点,论证角度富有启发性<sup>9</sup>。综上,当前有关晚清书院藏书制度的研究,虽已经积累了较为丰厚的成果,但探讨范围主要是将书院藏书作为整体事业进行考察,尚缺乏专门针对书院藏书制度的深入研究。本文在现有研究基础上,尽可能收

2 邓洪波:《中国书院史》,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2年,第245页。

3 邓洪波:《晚清书院改制的新观察》,《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1年第6期。

4 邓洪波:《箴言书院及其藏书(上下)》,《图书馆》,1988年第6期,1989年第2期。

5 邓洪波:《简论晚清江苏书院藏书事业的特色与贡献》,《江苏图书馆学报》,1999年第4期。

6 张根华:《清代福州致用书院藏书研究》,《三明学院学报》,2016年第1期。

7 张晓新,何燕:《我国早期图书馆章程对近代书院藏书制度之继承与发扬》,《图书馆》,2018年第7期。

8 王丽:《晚清河南地区藏书楼的近代化转变》,《佳木斯大学社会科学学报》,2020年第1期。

9 邹桂香,高俊宽:《我国书院藏书事业近代化的历程‘特征’与意义》,《图书馆建设》,1-12[2021-05-10].<http://kns.cnki.net/kcms/detail/23.1331.g2.20200813.0923.002.html>.

集有关晚清书院藏书制度的相关文献,以期能够从全貌上对晚清书院藏书制度做一个大体的勾勒.

## 一. 从“非必备”到整体的倾向性:晚清书院藏书制度的普及

在各种书院制度当中,书院的藏书制度是非常特殊的类型.首先,它不属于必备制度,原因在于并非所有书院都拥有藏书,即使拥有藏书的书院,也不一定会制定藏书制度,因此它属于书院制度中的非必要部分.其次,作为书院制度中非必备的部分,书院藏书制度又非常重要,因为它以书院制度中非必要的部分,展示了强大的影响力,晚清书院诸多藏书规则直接为近代图书馆承袭并且沿用了下来,具有深远的影响.最后,晚清书院藏书制度能够反映出在特定的历史条件下,晚清书院对学术变革的接受和容纳程度,侧面也能够体现出书院在学术发展脉络中所起到的作用.因此有必要对书院藏书制度进行深入探讨.

综合来看,晚清书院藏书制度没有形成行业性的规范化标准,各家书院基本都是根据自身的藏书状况制定相应的藏书制度,这样一来,一方面受书院管理者或主事者理念的影响,一方面受各个地区间经济文化发展水平的影响,晚清书院藏书制度在整体上呈现出参差不齐的特征.举例来讲,书院藏书制度在设置的详略程度上就有很大不同,晚清一些书院制定了详细的藏书制度,如开封大梁书院,其在光绪二十四年(1898)制定的藏书制度就包括了《大梁书院购书略例》(七条)'<sup>10</sup>《大梁书院编次目录略例》(九条)和《大梁书院藏书阅书规则》(十二条)<sup>10</sup>三个不同的制度,分门别类地规范了有关藏书购买'整理及借阅的程序.光绪年间的惠州丰湖书院,设置藏书制度凡五十六条,分借书约'守书约'藏书约'捐书约四部分,对书籍的借阅'保存'置办各方面都有详细的规定.但也有相当数量的晚清书院并不设置单独的藏书制度,而是在总的书院章程中列入少量与藏书管理相关的条款,以此来规范其藏书的使用,如同治年间湖州安定书院《重订安定书院章程》中涉及到藏书的条目只有一条:“院中书籍,凡肄业之人,均准取阅,惟不得携出转借.阅后归橱,俾无遗失.”<sup>11</sup>光绪二十三年(1897)《浙江求是书院章程》中,也仅有一条涉及到藏书:“九'书籍仪器.院中

10 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836—838页.

11 清佚名撰:《湖州爱山安定两书院征信录》,清同治十年杨荣绪序刊本.

择一高敞之处，庋藏书籍仪器，由监院率同司事，不时查点，于夏冬时，分别曝晾，以期经久，学生如需取阅书籍，实验仪器，收监院另行妥拟，附入规条。”<sup>12</sup>可见，在各个书院之间，其藏书制度的详略程度差异非常大，这是晚清书院藏书制度在各书院间发展不平衡所致，也是晚清书院制度乃为非必备性的表现。

但是，虽然存在上述各家书院藏书制度不均衡的现象，从晚清书院藏书制度发展的整体性来说，晚清书院藏书制度又有着显著的倾向性特征。随着晚清时局的变化，尤其在维新思想影响下，晚清书院似乎分裂成传统与新式两大对立阵营，前者代表守旧，暗示着在新时代背景下的旧士绅阶层的冥顽不化，而后者代表着趋新的知识界人士对富国强兵的向往，昭示着历史发展的主流方向。依历史发展的眼光来看，这样二元划分中的新式书院代表了历史发展的正轨，传统书院则逐渐走向末路，如同学者所断言：“清末新式书院成为推动对外交流的窗口，传统书院逐渐淡出主流”<sup>13</sup>，但事实果真如此么？实际上按照晚清书院藏书制度的设置情况，并不存在截然的新旧书院划分，因为即使是可堪为新式书院代表的上海格致书院，其藏书制度的内容也并没有迥异于其他书院。晚清书院发展有其内在的一致性，就藏书制度的设置来说，难以分割成新旧两个部分，最有力的证明，是晚清书院虽然尚没有出现可以从整体上对全国书院产生指导性影响的藏书制度，但在一些书院之间已经存在共用或相互借鉴藏书制度的情况，如岳阳书院和慎修书院共用藏书章程，芜湖中江书院宣布仿照仙源书院的成例，其《中江书院尊经阁募捐送书籍并藏书规条》第一条规定“各处官绅诸公捐送书籍到院，即于书目注明送书人姓名，仿仙源书院例也。”<sup>14</sup>能够共用藏书制度或者相互借鉴，这表明晚清书院之间已经开展了一定程度的合作与交流，无论趋新或守古，这些书院都难免互为影响，逐渐表现出了一种互鉴的‘共享的’普遍的制度倾向性，我们简称为倾向性。这是本文在讨论书院制度时不将晚清书院强行划分新旧，而是看作一个整体加以探讨的原因。

事实上，晚清书院藏书制度在整体上具备倾向性的可能：一是我国书院藏书有着长期的独特的习惯性传承，这个传承毫无保留地延续到了晚清书院的藏书制度中；二是处于中西思潮激烈交锋中的晚清书院，其藏书制度已不可能再单纯地延续传统，不管是有意还是无

12 陈元晖：《中国近代教育史资料汇编·戊戌时期教育》，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7年，第325页。

13 管仲乐：《晚清公共阅读空间中的“隐性后蒙”——以厦门博文书院为中心的考察》，《图书馆》，2020年第1期。

14 《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59页。

意,它必须吸纳西学书籍以及外来理念的客观性已经无可避免。就前者而言,我国书院藏书制度有着悠久的历史,历代书院重视藏书建设,也制定相应的藏书制度,早在天顺元年(1457)江州陈氏义门书院所建藏书楼,就有设置藏书制度的记载,如:“除现置书籍外,须令添置,于书生中立一人掌书籍,出入须令照管,不得遗失。”<sup>15</sup>又如江西白鹿洞书院曾编订有《藏书事宜》,规定了一系列有关藏书的事宜等<sup>16</sup>。因此从纵向时间轴来讲,晚清书院藏书制度具有传承性质,它是我国古代书院藏书传统的延续。而从横向上来说,处在晚清这一特殊时代背景下,虽然全国各个地区、各个省市之间的经济发展和社会文化状况不同,但面临西方强势入侵下的压力是一致的,因此晚清书院的藏书制度在横向的空间上也具备倾同性的前提。

晚清书院藏书制度主要涉及藏书置办、类目设置、书籍管理、书籍借阅等内容,这些业务的内容与近代图书馆的核心业务已经很接近,考虑到这些制度远远早于西方近代图书馆制度的正式引入时间<sup>17</sup>,这意味着晚清书院藏书制度在很大概率上是在特定的时代背景中,依托我国长久以来的藏书传统滋生出来的,具有极为强烈的本土风格。

综合来看,晚清书院藏书制度虽然各家书院在设置上或有详略的不同,但由于所属纵横两方面的倾同性,使得晚清书院在藏书制度的设置上具有相当的一致性,表现在晚清书院在藏书利用上具备极为突出的以实用为主的理念意识,这反映在藏书制度各个层面的设置,以及其潜意识中对开放化与社会化的追求上。

## 二. 晚清书院藏书的开放化与社会化

晚清书院基本都追求藏书的实用性价值,经世致用是书院藏书的主要目的。为此,在书

---

15 《义门陈氏家乘·陈氏家法三十二条》,民国丁丑年平江江洲义门聚星堂刊本。按《陈氏家法》载于各地陈氏族谱中,惟文字稍有出入。

16 邓洪波:《明代书院的藏书事业》,《江苏图书馆学报》,1996年第5期。

17 按程焕文等人的研究,早在洋务运动时期中国知识分子就开始对日本图书馆有所考察,这个过程一直持续到辛亥革命发生,在民国之后,美国图书馆学的传播才开始成为主流。可见在晚清时期,我国主要受日本图书馆学的影响,在这个过程中,尚未见有关日本图书馆制度引入的有关论述。见程焕文:《晚清图书馆学术思想史研究》,北京:北京图书馆出版社,2004年;潘燕桃、程焕文:《清末民初日本图书馆学的传入和影响》,《中国图书馆学报》,2014年第4期;程焕文:《国际视野下的中国图书馆学术思想发展》,《中国图书馆学报》,2019年第5期。

院藏书制度中,制定者通常会阐明藏书的功能和目的,相当于纲领性的声明。如光绪年间《仙源书院初议公集书籍章程》称:“书籍渐充,急须讲求读书之法,务令积书之后,与未积书之先,气象大不相同。要于文章经济上见出,于精神福泽上见出,于风俗人心上见出,才是藏书真实作用。非徒欲汗牛充栋,万轴琳琅,为夸多斗靡计也。”<sup>18</sup>这样的理念已表达出藏书重“用”的宗旨。再如《丰湖书院借书约》:“今之书藏乃一府之公物,非一人之私有(与藏书家不同),不借不如不藏,不读不如不借。”<sup>19</sup>都表达了藏书只有被利用才能发挥出最大价值的理念。需要注意的是,晚清书院众多,虽然在藏书方面都倾向于“用”,但在开放程度上还是有所区别,前述仙源书院和丰湖书院虽强调书籍之用,其所面对的对象大抵还是书院生徒,在晚清书院中这是很常见的,光绪十八年(1892)《诗山书院章程》云:“院中新置书籍,备多士在院观览,不许摊移院外。”<sup>20</sup>光绪二十三年(1897)《校经书院书楼章程》规定:“凭单分注院内院外字样,凡非院内之人,皆不准携书下楼,即院内人,亦须查明确系常住斋者,方准携书入斋房。”<sup>21</sup>这些规定都非常明确地对书院内外的读者做了区分,这说明晚清书院虽然重视藏书利用,但大部分仍处在有限开放的范围内。

晚清也有部分书院在藏书的使用范围上有所扩展,兼顾到了院外读者。光绪十三年(1887)端溪书院规定:“院内藏书数千卷,略备观览。在院内肄业者,准其借读。院外者准其到内翻阅,不得携出。”<sup>22</sup>再如高淳县的尊经书院,按其光绪十五年(1889)制定的《尊经书院章程》:“即有向学之士,欲借读此书者,书院当设一净室,安排桌几,即可知会监院,取书翻阅。每日阅毕,即行点交,次日再来取阅。”<sup>23</sup>光绪三十三年(1907)《上海格致书院藏书楼观书约》不对读者区别对待:“楼下桌几备有笔砚册簿,凡欲登楼观书者,请先将姓名住址及名目登册,一面由司事照填联单,凭单观书,无单不准。”<sup>24</sup>按格致书院的观书约来

18 《仙源书院初议公集书籍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73页。

19 《丰湖书院藏四约》,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三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348页。

20 《诗山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599页。

21 《校经书院学会章程 附书楼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085页。

22 《端溪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三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365页。按端溪书院有1877年制定《原定收借书籍规条》,凡六条,但未规定院内外学生借书的不同权限。在其1887年的《端溪书院章程》中,有两条涉及藏书的条款,其中一条规定了院内院外学生的具有不同的藏书借阅权限。

23 《尊经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211页。

24 《上海格致书院藏书楼观书约》,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

看, 社会人士均可前往观书, 是书院藏书向社会开放的一大步。

可见, 晚清书院藏书讲求实用, 同时已具有逐步开放的趋势, 这应当是受到当时社会公众需求的影响。举例而言, 光绪二十四年(1898)《凤梧书院藏书规约》虽然也强调书院藏书不许出院的规定, 但条款中出现了希望外界对此加以体谅的表达, 其条款云:“书院藏书仅供住院肄业生批阅, 不得携出院外。若院外诸君, 各宜谅此苦衷, 勿轻后齿。”<sup>25</sup> 可以想见, 如果不是院外之人希望书院藏书开放的愿望太过强烈, 凤梧书院大可不用在藏书制度中设置这样的条款, 这表明书院藏书已经感受到社会期待其扩大开放程度的压力, 而一些书院已经开始制定章程来缓解这种矛盾, 这预示着晚清书院藏书已逐渐趋向开放。

与开放化相对应, 晚清书院藏书还有逐步社会化的特征, 其藏书制度通常不仅表明藏书来源, 还面向社会表达募捐书籍器物的期许。晚清书院藏书颇注重对书籍来源进行说明, 如同治十年(1871)《惜阴书院借书局章程》称:“同治十年, 分巡江宁盐法道孙公依言上议都府, 取湖北浙江苏州江宁四书局新刊经籍, 藏书惜阴书院, 而达官寓公又各出善本益之, 名曰‘劝学官书’。”<sup>26</sup> 光绪十年(1884)《令德书院章程》云:“本院所需书籍, 由浚文书局刊刻, 暨由各省购到书籍内, 每种由监院官承领一部, 藏度于院, 以便诸生阅看, 仍随时同监院官眼同收发, 列入监院官交代。”<sup>27</sup> 再如光绪十四年(1888)年《崇实书院章程》:“书院中器具书籍, 或经历任捐存, 或支经费购备, 均由董事会同监院分晰登簿。”<sup>28</sup> 这种声明藏书来源的做法, 是晚清书院藏书制度设置的一个特点, 其目的当在于通过这样的方式, 勉励社会各界向书院捐献经费或藏书, 从而达到扩充藏书的目的。

书院接受书籍捐赠的传统由来已久, 早在南宋时期朱熹就曾四处寻求友人将图书捐置到白鹿洞书院。其为刘子和作传所得四十四通《汉书》, 被他捐入白鹿洞书院的藏书之中, 已是一个常用的典故。可以说, 号召社会各界捐赠书籍, 是中国古代书院藏书建设的常规操作, 有学者就曾指出:“中国古代藏书特别是书院藏书, 社会援助乃为其主要书源”<sup>29</sup>, 但向书院进行捐助, 是一种自发性的行为, 并没有制度性的规章进行规范。自清季以来, 书院藏书无论从规模还是数量上都得到了非常快速的发展, 有学者甚至认为获得书院师生及社

---

年, 第130页。

25 《凤梧书院藏书规约》, 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 第一卷, 上海:中西书局, 1999年, 第427页。

26 《惜阴书院借书局章程》, 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 第一卷, 上海:中西书局, 1999年, 第199页。

27 《令德书院章程》, 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 第一卷, 上海:中西书局, 1999年, 第75页。

28 《崇实书院章程》, 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 第一卷, 上海:中西书局, 1999年, 第354页。

29 张白影:《图书馆的社会援助》, 《中国图书馆学报》, 2000年第1期。

会人士捐助，是清代书院藏书事业大大兴盛于以往朝代的重要原因<sup>30</sup>，此种说法虽然难以得到证实，但在晚清书院藏书制度的设置中，出现了众多劝说官员士绅捐赠书籍的条款，并规定了对这些捐赠书籍的处理办法，却是不争的事实，从侧面也反映出晚清时期社会人士向书院实施捐赠乃为常态。光绪二十年(1894)《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在其前言中写道：“岳阳慎修两院集资购书，并函致各绅劝捐。”<sup>31</sup> 光绪二十一年(1895)《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云：“远近官绅颁发捐送书籍，随到随登簿。官则注明某省大宪颁发，或某省某官捐送，绅则注明某地某甫先生捐送。”<sup>32</sup> 再如光绪二十五年(1899)《正义书院购置图书以备阅览谕》最后一个条款：“款项只有此数，所购书籍尚少，仍望邑中绅富有志培养后学者，量力捐助，以冀扩充。”<sup>33</sup> 惠州丰湖书院在光绪年间所制定的《丰湖书藏四约》中专门有《捐书约》，凡十一条，对捐赠图书的各项事宜都做了详细的规定，对所捐赠书籍的种类‘数量’登记流程都有相应的规程来加以规范，特别是对捐赠书籍的各方人士会给予凭条以做凭证：“凡捐书贵者，无论自他处本处寄院时，要取收条，以示信约。见刻木印，上书‘某年某月某日收到某先生捐书几种捐赏若干，管理丰湖董事生徒同后’字样”<sup>34</sup>，这样的措施既表明了书院管理者对捐赠人的重视，又通过明确的规章制度将捐赠人的行为记录下来，存留后世，在某种程度上对捐赠人也形成了一种心理层面的激励。可见，晚清书院藏书制度的设置者已经明确意识到书院藏书不仅是书院的私事，而是关系到地方教育发展的公共事业，为了激励地方官绅士人向书院捐献藏书，制定号召性的书籍捐赠条款和详细的管理措施非常必要。晚清书院将捐赠书籍的相关条款纳入藏书制度，确立了社会捐助在书院藏书置办中的重要作用，是书院藏书从私有领域迈向公共领域的前奏，也是晚清书院藏书社会化的体现。

30 陈谷嘉，邓洪波主编：《中国书院制度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年，第171页。

31 《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87页。

32 《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59页。

33 《正义书院购置图书以备阅览谕》，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926页。

34 舒原，余峰：《中国书院的图书征集制度》，《湖南大学学报》，1998年第1期。



### 三. 晚清书院藏书管理的内部规范化

晚清书院藏书的开放化与社会化,是其面向外部采取的应对策略,而要想得到社会公众的信任和持续发展,规范的书院藏书制度才是更为重要的前提和基础,因此书院藏书的内部管理规范化需求也就应运而生,相对于上述书院藏书的开放化和社会化,我们将其称之为书院藏书管理的内部规范化,体现在以下方面.

(一)藏书制度开始设置详细的管理流程,以保障藏书管理与利用的平衡. 在我国的藏书传统中,书籍因为其与生俱来的文化表征被视为一种特殊的财富,历代均不乏皇家'寺庙及私人藏书家将所藏书籍视若珍宝'秘不示人的例子,而书院藏书因为其天然具备的教学功能,使得它在我国传统的藏书体系中单独具有一种开放性特征. 书院藏书的主要目的是为书院师生教学服务,因此在藏书管理制度的设置上也具有不同于其他藏书体系的公共性特点. 书院藏书倾向于重用轻藏,但在管理手段不够先进的条件下,一味强调利用必然会导致书籍的大量流失,而过于严格的管理制度又不利于藏书的利用.《大梁书院藏书序》中对此矛盾有一段精彩的论述:“夫书院藏书一事,立法最难,太密则阅者惮烦,必束之高阁;太疏则散漫无纪,卒归于乌有.是在疏密得中,与诸生协力维持,庶不至为因噎废食者所窃笑,抑吾宣尼之教人博文归于约礼.”<sup>35</sup>可见,要达到藏书“藏”与“用”之间的平衡,要紧的是把握适宜的度,对藏书的保存制度限制得太紧或太松都不可行.

为了实现藏书“藏”与“用”之间的平衡,晚清书院在藏书管理和借阅制度中,较为注重两个方面:一是对读者的分类管理,二是针对各类型图书制定不同层次的借阅规则. 书院藏书的目标群体一般为本院师生,因此在很多书院的藏书制度中,对借阅者的身份有明确要求,前述论及晚清书院藏书开放程度时,已有涉及,兹不赘述. 而针对各类型图书制定不同层次的借阅规则,其原因在于:(1)不同类型书籍其本身价值不同. 书院藏书包含各种类型的书籍,有的属于市场通行本,便宜且易获得;有的属于大型丛书,价格昂贵且不易购;有的甚至是孤本或者传世稀少的图书,珍贵异常. 因此,在制定书籍的借阅制度时,不能一概而论,如《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规定:“《史》'《汉》'《三国》及各种类书,只准偶尔翻查,不准借出. 四史局价甚廉,须各置一部,或数人分买传观亦可. 若

35 《大梁书院藏书序》.陈谷嘉,邓洪波主编:《中国书院史资料》下册,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第2320-2321页.

类书一查即了,不必借出,且恐常有人来查.至于孤本'钞本,尤不准借.”<sup>36</sup>藏书价值不同,则其可借阅的权限也相应不同,这说明了晚清书院藏书制度具有相当的灵活性。(2)针对藏书类型设置借阅权限,可最大化地提高图书利用率.一些以套装形式或丛书形式出版的大型工具书,在短时间是无法完成通读的,对于这类图书的借阅数量加以限制,可以争取更多的读者一起利用这类图书.如《华阳书院储书规条》:“诸生看书,不准将全部携出,只准先取一二本,俟看完再向邛架调取.若此,则一部书可备数人看矣.”<sup>37</sup>光绪二十五年(1899)《文正书院藏书凡例》规定:“卷数繁简不一,简单准取全册,繁者每取十本,挨次取阅,阅毕即还.”<sup>38</sup>无论如何,一切的规则都围绕着藏书利用这个核心,并以最大化的利用率为追求的目标,同时兼顾藏书管理与利用之间的平衡,是晚清书院藏书制度非常重要的特征.

(二)针对藏书管理,书院开始设置规范化的人事制度.为有效管理藏书,并规范化地提供利用,晚清书院设置了专门人员对藏书进行管理,并在藏书制度中对这些人员的职责'福利'以及权限范围给予明确规定.从藏书制度的设置来看,晚清书院藏书虽已经强调实用,但仍是一种珍贵的资源,需要通过繁杂的手续才能够被借阅.随着书院藏书的增多,单一的管理人员逐渐难以完成日常工作,于是逐渐增设书籍管理人员,从个人管理演进为团队管理就成为顺理成章之事.

晚清书院藏书制度在人事管理方面的设计,主要涉及两类人员:一是管理类人员,二是遵从规章制度和管理人员指示从事实际的藏书管理的人员.前者由山长'监院或斋长担任,负责书院藏书的总体事宜<sup>39</sup>.一般来讲,山长或监院位高权重,事务繁忙,通常将藏书事宜委任于斋长,斋长向山长或监院负责,如《文正书院藏书凡例》:“立斋长以专责成.所藏书籍,整齐卷页,谨守管钥,统归经理.无事不得擅离,有事回家,须禀明山长,择人庖代”.<sup>40</sup>或是山长负主要职责,监院处理藏书相关事宜,光绪二十四年(1898)《凤梧书院

36 《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59到460页.

37 《华阳书院储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228页.

38 《文正书院藏书凡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303页.

39 邓洪波教授曾将书院藏书管理划分为监院负责制'斋长负责制'董事负责制'山长负责制几种类型.见:邓洪波:《试论书院藏书的管理体系》,《图书馆理论与实践》,1996年第3期.

40 《文正书院藏书凡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

藏书规约》规定：“书厨平日封锁，诸生欲取阅某书者，必先请命于山长许诺，然后监院给发。”<sup>41</sup> 也有的书院将藏书事务委任于多位斋长，有事协商，不再向山长或监院请命，如光绪二十二年(1896)《续定明道书院章程二十条》：“院中书籍，归两斋长公同管理，立簿登名。”<sup>42</sup> 但也有特例，如光绪元年(1875)《凤阳书院学规》：“每年肄业诸公中保举老成一人，作为司事。斋生欲阅何书，须具领纸与司事，司事将书检给，阅后送还，不得涂抹污损。”可见<sup>43</sup>，书院藏书的管事者并不存在一定之规，而是由各书院根据自身情况来制定，但设置专门人员负责藏书事宜却已经是惯常做法。

随着书籍的增多，晚清书院已意识到将藏书管理委任一人或少数人的做法远远不能满足于需求，书院藏书管理人员开始朝团队合作迈进。仙源书院规定了不同管理人员的对应职责：“院中书籍，公举四人总理。另举在院肄业或在院教读者一人，专管借书，每年酌帮薪水。如有遗失，总理查出，专管赔认。”<sup>44</sup> 从这个条款来看，书院有总理藏书事宜的人员，有专管借书的人员，还有专门负责审计图书遗失以及赔偿事宜的人员，共同组成一个有效的书籍管理团队。正义书院也有类似的规定：“书院内有斋长一人。此后存储书籍，虽有书办经理，仍由斋长总理其事。如有损失，斋长亦不能辞其责。统由监院稽查。”<sup>45</sup> 这里的书办，应该是负责具体书籍管理工作的基层人员，需要注意，晚清书院对管理藏书的人员，除上述司事、司书较为常见外，还有经管人<sup>46</sup>、董事<sup>47</sup>、管书<sup>48</sup>、掌书员<sup>49</sup>等称呼，其职责主要包含对藏书进行造册登记、收发借还、协助核对书簿等，不具有决策权。他们的上一级负

---

303页。

41 《凤梧书院藏书规约》，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27页。

42 《续定明道书院章程二十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846页。

43 《凤阳书院学规》，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303页。

44 《仙源书院初议公集书籍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73页。

45 《正义书院购置图书以备阅览谕》，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925页。

46 参见同治年间《洞溪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48页。

47 参见光绪十年(1884)《龙潭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214页。

48 参见光绪十七年(1891)《校经书院章程》（“慎重官书”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081页。

49 参见宣统元年(1909)《清心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文献丛刊》，第一辑，第十八册，第90页。

责人一般是斋长，若书籍有损失，斋长要承担相应的责任，因此有的书院在藏书制度中会设置条款保障斋长的福利，如光绪二十年《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斋长管书，事繁责重，必须加给辛资，乃可专以责成。”<sup>50</sup>而最终有关书籍的所有事物由监院负总责，已经很具有现代图书馆实施的馆长负责制意味。从这些规定中可以看出晚清书院在藏书制度的设置上，已具备明确的人事管理意识。

（三）晚清书院藏书制度不仅在理念上有所突破，在管理手段上也迈向先进。一是注重采用登记造簿的文书管理制度。书院藏书涉及采买、编目整理、借阅登记、收藏保存等各项流程，这是书院藏书达到一定规模之后必然产生的结果。完善的登记造簿及编号序次制度可以极为有效地提高书籍的使用效率。晚清书院藏书制度中的登记簿有书目簿、借书簿、捐书簿等类型，光绪十五年（1889）《尊经书院章程》：“监院预设三簿，先将存书卷目本数开列一簿，是为存书簿。再用一簿，令诸生取书时自行填明日期书目，为取书簿。阅毕缴还，亦于簿上填明某日缴，是为还书簿。”<sup>51</sup>《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云：“于登记书目簿外，另行刊备借书簿一本，盖用监院铃记，凡院生领书，以及山长借看，均须令其亲笔登簿。”<sup>52</sup>岳阳和慎修书院不但刊印藏书目录，而且还不止刊印一本，为互相参证之用。仙源书院规定“邑人在各省游宦者既多，士人游学四方者亦复不少，宜各就所使，集资商购书籍，寄置书院。……书籍到院，集于书目注明送书姓名。一俟书目积成卷帙，随时刊布，以示不忘培文重学之意”。<sup>53</sup>以文书的形式将捐赠者的姓名及捐赠行为保存下来，从制度层面肯定了捐赠书籍者的贡献，为书院藏书持续性地获得社会支持取得了长久的保障。这些规定表明了晚清书院在书籍管理的整个流程上具备的文书化趋势。最为可贵的是大梁书院在其购书略例中规定了必须保存购书款项和清单，其第七条云：“捐款原后及原购各书价值清单，皆汇存一总簿，存书院内，可随时检查。”<sup>54</sup>这个规定不见于其他书院藏书制度，但它的出现

50 《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87页。

51 《尊经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210页。

52 《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87页。

53 《仙源书院初议公集书籍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73页。

54 《大梁书院购书略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837页。

非常重要,因为这类条款的出现,预示着晚清书院的藏书制度已经形成从藏书采访到入藏的整个图书处理环节,理论上昭示着晚清书院在藏书制度的设置上已颇为注意完善整个藏书管理流程。

二是重视编号的使用,构建依号排序的书籍管理制度。书籍要能够得到实际的运用,就需要建立起一套井然有序的书籍组织制度。我国藏书传统向来重视书籍的分类类目设置,但不在意标识符号的设置和使用,这样容易导致在实际的书籍收藏中,进行书籍排架整理的人员必须对图书分类法相当熟悉,与此同时,需要利用书籍的人员也必须具备同样的分类法知识,才能使用这些被规整进特定分类体系的书籍。如此导致的结果,就是在书籍的收藏和利用之间造成了壁垒,使得书籍的收藏和利用成为少部分知识精英的特权,客观上阻碍了知识的自由传播。晚清书院在此方面已经有所创新,在书院藏书制度中屡见有关于对书橱进行编号管理,强调书籍依据编号进行收藏的规定,如凤梧书院:“书厨若干只,分编某某等字号,凡某书若干卷,装订若干本,藏某字号厨,开列书目,一本存书院山长处备检,又照式缮一副本,存县署备检。”<sup>55</sup> 强调以数字编号对书籍开展科学有序的管理,又如“每年六七月间,曝书一次。曝毕,仍照书目所开某书藏某字号橱循序归原,俾平日取书易检。”<sup>56</sup> 这样一来,既使是对图书分类法不甚了解的人员,通过对编号的排序,也可以对书籍开展整理和利用,在藏书的管理上是一大进步。

(四)以保障教学为导向的藏书制度设计。晚清书院藏书目的在于辅助教学,为了实现这个目的,其制度设计大抵在维护藏书不致散失的同时,最大化地为教学工作服务。正如光绪十七年(1891)《校经书院章程》所论其宗旨:“书院购置书籍,原以备诸生阅览之资,非所以饰壮观供蠹饱也。然借书还书,漫无限制,亦非经久之道。”<sup>57</sup> 所以晚清书院在藏书制度的设置上,强调采取恰当的手段和方法来保障书院藏书为教学的辅助手段。

晚清书院藏书制度强调藏书优先为教学服务,其制度设计中也体现了这一点,在南菁书院的《藏书楼约》中可以得到印证:“楼藏各书,诸生平时例可领阅,但课期之日须备查考,凡前领阅者,宜先期归书于楼,便课日检用。今定课期先一日,查号簿内有领阅本

55 《凤梧书院藏书规约》,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427页。

56 同上。

57 《校经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081页。

课应用之书者，由司书人一概收回。”<sup>58</sup> 在这个条款后面，详细列明了经学'史学'学政'算学'格致学等各种类型图书的归还日期，可见，当教学需求与藏书借阅出现冲突的时候，教学优于其他任务。光绪二十五年(1895)中江书院的规定为：“借书但准平时，若课期前，即未逾十日限期，亦须送缴，以备出题时查考出处。出题时但准来查，自带笔墨来钞，不准借出。”<sup>59</sup> 在这条规定后有解释其原因在于“缘书止一部，查者众多也。”由此可知书院藏书围绕教学，强调教学为上的宗旨。为了保护书籍的教学功能，一些晚清书院甚至谢绝地方官员借书，如惜阴书院，其《借书局章程》规定：“凡一切大小文武现任致仕官员，并侨寓仕官，概不准借。”<sup>60</sup> 为了保证书院藏书课随时围绕教学服务，甚至不惜在章程中设置条文来谢绝官员借书，由此也可见晚清书院藏书以教学为中心任务的坚持。

为了保障藏书对教学的促进作用，晚清书院对藏书借阅的具体期限也有所规定，同时为保证这些规定的可执行性，针对读者借书不还或逾期不还的行为也制定了相应的惩处措施。晚清书院对于逾期未归还图书或是违反书院藏书章程的读者，主要规定了两种惩罚手段，一种是禁止再借，一种是经济制裁。如光绪十三年(1887)《冠山书院藏书规条》：“有借书读者限一月送还，如过期不交，即遣人去取，以后不许伊再借，以防延搁。”<sup>61</sup> 这是以取消借阅资格来作为惩罚手段，又光绪二十三年(1897)校经书院《书楼章程》：“看书限十日一缴，过期由管书人于册上注明，三次逾限者，即将凭单扣存，禀明公绅，不准再给看书凭单。”同样将取消借阅资格作为惩罚手段，但校经书院借书逾期的次数提高到三次，逾期三次以上才考虑取消借书的权限，相比之下惩罚力度似乎稍宽松了些。光绪二十六年(1900)《正义书院领书条例》设置其惩罚规定为：“书籍在外，不准辗转借看。违者，一经查出，罚钱一千文，不即缴者倍罚。”<sup>62</sup> 则表明了正义书院不将取消借书权限作为惩罚的手段。从取消借阅权限，到改用经济手段来制裁违章读者，从侧面反映出晚清书院的管理者在藏书管理理念上的多元化，但无论采用何种手段，其目的都是为了“藏书期于有用”的教学

58 《南菁书院藏书楼约十二条》，《南菁书院改办学堂章程》，清光绪二十八年刊本。

59 《中江书院募捐书籍并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99页。

60 《惜阴书院借书局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99页。

61 《冠山书院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77页。

62 《正义书院领书条例》，见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926页。

目标.

#### 四. 西学化影响下的晚清书院藏书制度

晚清面临“三千年未有之大变局”，书院也发生着极为重要的转变，就教育导向来说，科举功名虽仍是读书人求学的主要进身之阶，但经世致用已成为晚清书院的共同诉求。诚如光绪二十一年(1895)刘光贲所言：“今日中国以整顿商务为先，宜急刻商务及通商条约各国交涉等书。西商所以获利者，制造精也，故宜急刻造器各书。造器之原，均由格致，故宜急刻格致诸书。商贾之中，即伏兵戎，故宜急刻战阵军械等书。”<sup>63</sup> 晚清书院在藏书方面具备明确的以西学为导向的趋势，这是晚清书院对藏书分类法产生改革诉求的重要前提。晚清书院藏书制度在继承传统的同时，也吸纳了不少西方的观念和方法，具有鲜明的西学化特征，主要表现在以下两个方面：

(一)固有知识分类体系逐渐动摇，从四部走向分科的趋势开始萌芽。据学者统计，晚清时期开设实学或西学课程的新型书院有36所，其中湖南9所，江苏'广东各4所，四川'江西'河南各3所，浙江'陕西各2所，湖北'安徽'福建'广西'贵州'云南各1所<sup>64</sup>。晚清时期，已经有相当多的书院开始收藏西学书籍，如韩山书院，光绪二十八年(1902)章程称：“书院向无书籍，近来科举改革，此后学务必中西兼习。惟新译东西书籍，寒士无力购买，应筹款陆续购置，度藏院内，以供披览。”<sup>65</sup> 这表示晚清书院不但在学术上注重中西融合，其藏书也开始重视中西兼收，这样的局面为传统知识体系的改革奠定了基础，但在书院藏书的具体收藏工作中，不可避免地产生了一个新问题，即西方按学科分类的知识体系如何融入中国传统四部分类的框架之中？依顾颉刚所言：“中国学问是向来只有一尊观念而没有分科观念的。”<sup>66</sup> 我国传统四部图书分类，习惯以“经”部统摄其他部类图书，这个体系在面对西方分

63 《味经创设时务斋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三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677页。

64 邹桂香，高俊宽：《我国书院藏书事业近代化的历程'特征与意义》，《图书馆建设》，网络首发。

65 《韩山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383页。

66 顾颉刚：《古史辨自序》，《走在历史的路上——顾颉刚自述》，南京：江苏教育出版社，2005年，第31页。

科系统下的知识结构时颇显得有些力不从心。张之洞曾试图在传统分类体系中容纳中西书籍，但后来的历史发展证明他基于四部基础上的类目扩充并不能彻底解决这个问题。<sup>67</sup>

在晚清书院藏书制度中不乏对书籍分类的理论探索，《大梁书院编次目录略例》云：“某书应归某类，必从其用之所近，如《经世文编》，或有入史部诏令奏议类者，实觉未协，兹则归入政书类。又如各朝学案入史部传记总类，《读史兵略》入子部兵家，皆取其便于用。”<sup>68</sup>大梁书院强调书籍的类分原则是以类相从，已经是一种变革，它虽仍不能从被奉为万世经典的经史子集框架中跳脱出来，但强调以实用为主的分类规则，相较而言已带有明显的进步意味。就实际状况而言，晚清书院虽收藏西学书籍，但在藏书目录的设置上大体仍尊四部，不能归入四部的图书最早是冀图通过扩充类目来容纳的。以相对进步的大梁书院1898年和1904年的两个藏书目录为例，其类目的调整就表现在增设了算学和时务两个部类，以用来放置新购置的西学书籍，这种程度的类目调整尚谈不上从中国固有的文史哲不分的“通人之学”向西方近代“专门之学”的转变，而一些晚清书院已经注意到了新出的目录学著作可作为参考样本，如天岳书院，光绪二十四年(1898)购西学新书，就拟遵照梁启超《西学书目表》来购置：“凡有圆圈者，悉数买取。”<sup>69</sup>则可视作迈出四部分类体系的一个尝试。

整体来看，晚清书院虽已经在固有的知识体系上有所突破，但仍处在萌芽阶段，尚没有开始明确的转型。有学者指出，学科知识的建立，乃涉及全方位文化迁移的现象，在“援西入中”大潮下，中国社会有关现实世界及社会理念合法性论证的思想资源，渐次脱离传统中国的知识样式，转而采纳西方现代型的知识样式，构成近代中国学术变迁的重要一环。<sup>70</sup>这个过程需要相当长的时间才能完成，按照左玉河的研究，这个知识转型从19世纪60年代开始，20世纪初基本实现，而直到20年代末才最后完成。<sup>71</sup>晚清书院虽然在藏书的类目设置上有所改良，但还未来得及从根本上动摇我国传统的知识分类系统，不过晚清书院积极

67 参见张之洞撰：《书目答问补正》，范希曾补正，徐鹏导读，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68 陈谷嘉，邓洪波主编：《中国书院制度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年，第216页。

69 《致时务学堂梁院长书》，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98页。

70 章清：《晚清中国“阅读世界”之一瞥》，张寿安主编：《晚清民初的知识转型与知识传播》，北京：北京师范大学出版社，2018年，第254页。

71 左玉河：《从四部之学到七科之学：学术分科与近代中国知识系统之创建》，上海：上海书店出版社，2014年，第5页。



引入西学并努力将西学书籍纳入自身知识体系的态度,已孕育着我国知识体系从四部走向分科的萌芽.书院藏书的西学化趋势虽然还不足以促成我国传统知识体系的近代化转型,但在西学思潮影响下,书院藏书制度领域的官绅合作,却已经有了一番新气象.

(二)西学浪潮下,书院藏书制度中官绅合作力度加大.晚清书院与地方官绅阶层有着极为紧密的关系,官府与民间的合作,是造成晚清书院繁荣的重要推力.按照瞿同祖的研究,清代“士绅具有比其他社会阶层更加优越的地位.他们有一种阶级意识或一种集团归属感.他们相互认同为侪类,并具有相近的态度'兴趣和价值观(尤其是儒家的价值观)".<sup>72</sup>晚清书院士绅深度参与管理的现象,大体是由于中国传统士绅在地方社会的身份特权所决定的,士绅作为地方精英,他们可以自由见官,与地方官平起平坐,也有为地方表率,领导和参与地方事务,并维护地方利益的职责.<sup>73</sup>晚清许多书院在很大程度上受到地方官员士绅的资助,甚至有部分书院就是在一些官绅的带动和组织下建立起来的,晚清书院藏书制度中的许多条款充分证明了地方士绅对书院发展具有极其重要的影响力,他们不但深入参与书院的具体事务,并且承担着重要的监督和管理职责.同治十年(1871)《惜阴书院借书局章程》“事领于官,而簿籍出纳则绅士掌之”<sup>74</sup>的条文,就可谓官绅合作反映到书院藏书事业中的恰当注解.

晚清书院藏书制度中,不乏借助地方政府行监督职责的例子,光绪二十四年(1898)《文正书院藏书凡例》规定:“借书出院,须有保结呈县,由县付条至斋长处取书.还书时,凭斋长给条至县销结.”<sup>75</sup>书院藏书借阅手续需通过县衙经办,其官府主导的意味不言而喻,正义书院光绪二十五年(1899)《购置图书以备阅览谕》中有:“书院书办,即由礼房拨出一名,常川住院,听监院约束.”<sup>76</sup>正义书院的这位书办负责书院藏书借阅'催缴'保管等工作,他在书院居住,归书院监院管辖,但他又属于地方政府派遣人员,具有双重身份,这是晚清书院藏书制度中所体现出来的特有的官绅合作特征.这个特征还体现在其他

72 瞿同祖:《清代地方政府》,北京:法律出版社,2003年,第293页.

73 参见张仲礼著,李荣昌译:《中国绅士——关于其在19世纪中国社会中作用的研究》,上海:上海科学院出版社,1991年,第30'48页.

74 《惜阴书院借书局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99页.

75 《文正书院藏书凡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303页.

76 《正义书院购置图书以备阅览谕》,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925页.

很多方面,如一些晚清书院所著录的藏书登记簿,会抄录一式多份,其中有一份需在地方政府备存,如《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规定:“院中所藏各书,应立书目印簿三本,一存本府,一存监院,一存两斋长,遇有购置书籍到院,随时分别登记。”<sup>77</sup>再有光绪十一年(1885)《辅文书院章程》,在“书院添置书籍,随时记账备查”条款下,有“以上各条,经本爵将军’副都统公同议定,不准率行更张。嗣后如有应添条款,须由掌院协领稟明将军酌妥续刻。”<sup>78</sup>按辅文书院于光绪四年(1878)由荆州驻防八旗将军希元会同总督李瀚章’副都统穆克德布恩来’知府倪文蔚等捐募兴建,条款中将军’副都统应该就是希元和穆克德布恩来等人,则可见晚清书院在章程条约的制定上,具有官府与士绅共同商议拟定的现象。

在晚清书院的许多事务上,除官府的主导和监督职责外,地方士绅也承担着较大的职责,他们通常扮演实际的监督和仲裁等角色。典型如《校经书院藏书楼章程》所规定的公绅权限,他们不但拥有开具看书凭条的权利,还要负责裁定书籍损失等事宜:“看书需由公绅给予看书凭单,至楼看书时,由管书人先在楼下验收,方准开橱付书。看毕交书后,将凭单交还。如有损失等情,即将凭单存留,稟明公绅办理。”<sup>79</sup>这个章程里的公绅权限是比较大的,甚至“院长’学长看书,亦由公绅先送凭单,以免冒领。”<sup>80</sup>地方士绅有的时候还有担保人的角色,如光绪十三年(1887)《冠山书院藏书规条》云:“借书士子如与司书人不认识,须寻取在城绅士讨保,写保条付院收存,俾有稽考。”<sup>81</sup>这些条款表明晚清地方士绅对书院具体事务的深度参与。

晚清书院在教育上的改革,尚未能摆脱传统“格致学”<sup>82</sup>的影响,而与此同时对于富国强兵的向往,使得地方官员士绅在知识结构和知识的获取上产生了根本性的新诉求。这种诉求呼唤新的书本和知识的习得与获得方式,书院的藏书制度只有同这种新的渴望和要求保

---

77 《新定岳阳慎修两藏书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187页。

78 《辅文书院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023页。

79 《校经书院藏书楼章程》,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二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1085页。

80 同上。

81 《冠山书院藏书规条》,见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第一卷,上海:中西书局,1999年,第77页。

82 晚清时期,西方“近代科学”的概念尚很模糊,有相当部分政府官员和士绅,将西方“近代科学”概念等同于“格致学”,“西人格致之学多来于中国诸子之说”的影响很是广泛,这种思想影响下的晚清书院教育,仍秉持“西学中源”的观念,也在情理之中。

持一致，才有存在和发展的价值，二者之间的一致，必然导致晚清书院藏书制度谋求官绅合作。晚清书院藏书制度因此呈现出一种和谐共赢的局面，这种局面的形成大概有赖于这二者面对西学冲击，大致拥有类似的认知和判断，诚如学者所言，“清代的文人和官员着迷于富强的目标，‘富强’在清王朝的最后几十年成了政治经济学的专用指称。”<sup>83</sup>事实上，富强不仅仅是中国官员士绅的愿望，彼时同处日本及西方列强强势入侵下的东亚国家，如韩国，也面临捍卫民族独立的艰巨任务，韩国遭受列强叩关和被迫开放的时间虽要比中国稍晚<sup>84</sup>，但它是晚清时期中‘日’‘俄’‘美’‘法’等各国势力激烈博弈的对象，因此其民族危机也甚为深重。考察大韩民国国会图书馆在20世纪60年代所编著《李朝书院文库目录》<sup>85</sup>，其所收集的十多家韩国书院藏书目录中，未见有相关西学新书的收藏，则晚清时期韩国书院的藏书建设状况是否迥异于其时的中国书院？在同样追求富强的强烈愿望下，韩国书院是否也曾开展教育改革？韩国的官员和士绅阶级在书院藏书方面是否也如同中国官绅一样致力于地方文化事业？这些问题都是东亚书院研究领域亟待开掘的重大课题，亟待对新的史料加以发现‘整理’与研究，从而展开进一步的研究。

## 五. 结论

晚清时期的中国，中西交融成为知识界不可逃避的话题，这股潮流反映到书院的藏书建设上，一方面体现为西学书籍的大量涌入，传统的知识分类体系不再能够适用于类分书籍。另一方面体现为传统书院教育体制下“士”阶层的逐渐变动、消融和解体，特别在书院改制学堂‘废除科举取士’之后，教育层面的改革给整个社会都带来了纵深的影 响，诚如罗志田所言：“教育改革引起近代中国社会结构的一大转变，是四民之首的‘士’这一旧的社会群体的逐渐消失，以及在社会上自由浮动的‘知识人’这一新的社会群体的出现。”<sup>86</sup>不过这场从士

---

83 （美）本杰明·A·埃尔曼：《从前近代中国的“格致学”到近代中国的“科学”》，见（德）朗宓榭，（德）费南山主编：《呈现意义：晚清中国新学领域》，上册，天津：天津人民出版社，2014年，第47页。

84 （日）伊原泽周：《近代朝鲜的开港——以中美日三国关系为中心》，北京：社会科学出版社，2008年，第11-60页。

85 （韩）李春熙：《李朝书院文库目录》，大韩民国国会图书馆，1969年，第3-184页。

86 罗志田：《道出于二：过渡时代的新旧之争》，北京：北京师范大学出版社，2014年，第17页。

大夫阶层到知识人阶层的变革，就晚清书院藏书制度的状况而言，其为时尚早，但就其所蕴含的教育变革的萌芽程度来说，晚清书院藏书制度已表现出一种新旧思想相互交融的特点，旧中有新，新中有旧，具有鲜明的时代特征，这是我们今天探讨晚清书院藏书制度时应该予以足够重视的。

# <중국 서원 장서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에 관한 토론문

토론 : 우진웅(한국국학진흥원)

鄧洪波·張曉新 선생님의 ‘중국 서원 장서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논고에서 다루어진 중국과 한국의 서원 장서 제도는 많이 비슷합니다. 한국의 서원, 특히 안동 도산서원 같은 경우, 엄격한 서원 내 규정을 만들어서 서적의 출납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책을 보관하는 서고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원에서는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고자 1년 단위로 야외에서 통풍과 포쇄작업을 하였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 장서 관리는 좀 더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원 장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서원 장서를 DB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며,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베트남 복강서원(福江書院)의 장서(藏書)와 그 의의

이 우 진(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I. 머리말
- II. 복강서원 목판본의 내용
- III. 결론

## I. 머리말

서원은 그 명칭의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의 성격을 지니는 기관이었다. ‘서원(書院)’이라는 명칭에 대한 기록은 당대(唐代) 건원원(乾元院)이 여정수서원(麗正脩書院)으로 바뀌면서 처음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서적의 편사(編寫)와 교감(校勘)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던 건원원’이 그 기구를 확대하고 도서(圖書)의 정리와 관련된 업무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한 결과 ‘서원(書院)’이라는 명칭이 출현하게 된 것이었다. 곧 ‘서원(書院)’이라는 명칭은 책을 편수하고 정리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수서원(脩書院)’을 간칭(簡稱)한 것이었다.<sup>1</sup> 이후 서원은 ‘개인의 학문과 덕업을 닦기 위한 장소’라는 성격을 거쳐 ‘선현제향(先賢祭享)과 사대부들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였지만, 그 본래의 기능인 도서관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서원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한·중·일·베트남의 모든 지역에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서원’라는 용어를 한중일과 달리 어떤 조직화된 교육적 기능이나 프로

---

1 류준형(2020),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존재 양태와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회』 제10호, 6~8쪽.

그럼이 없이 순수하게 책들과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서관(library)’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왔다.<sup>2</sup> 물론 베트남에서도 ‘서원’이라고 이름을 한 ‘사설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서원이 응우옌 후이 오안(阮輝瑩, 1713–1789) 가문의 복강서원(福江書院, Phuc Giang thư viện)이다.<sup>3</sup> 하지만 그 서원은 ‘서원’이라는 베트남의 용례에 맞게 ‘도서관’의 역할을 버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서원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복강서원은 동아시아의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서원본(書院本)’을 제작하였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sup>4</sup> 더불어 이 목판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한 문중門中에서 보관한 베트남 교육에 대한 가장 오래된 유일한 목판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목판들은 2016년 5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 및 인쇄본에 근거하여 볼 때 과거에 복강서원에는 ‘서원본(書院本)’ 제작을 위한 총 2000개 이상의 목판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sup> 현존하는 목판들은 모두 379개로 베트남의 한놈연구원(漢喃研究院)에 소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2 베트남에서는 한·중·일과 달리 ‘Library’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서관(圖書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3 복강서원(福江書院)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Nguyễn Tuấ-Cường(2020),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 Giang Academy, Vladimír Glomb et al.,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p.89~125; 이우진(2020),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154~158쪽.”

4 Nguyễn Tuấ-Cường, Ibid. p. 114

5 응우옌 후미 미(阮輝美) 외(2019), 「폭장서당 목판의 가치 보전 및 제고에 관한 정부기관과 응웬 후이 가문의 협력」,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 한국국학진흥원, 160쪽.





### <현존하는 북강서원 목판본>

이러한 북강서원의 목판들은 한·중·일·베트남의 서원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원본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베트남의 서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기때문에, 북강서원의 목판들에 대한 연구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조사를 진행하거나 베트남의 현지 연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sup>6</sup> 사실 이 글은 북강서원의 목판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2차 연구물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의 서원 연구 학계에서 북강서원의 목판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자 한다.

6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었던 ‘북강서원의 목판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단 3개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Nguyễn Tuấ-Cuong(2020), 앞의 논문”이고 다른 두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에서 기획한 2권의 책에 제시된 “전번궁 외(2018), 「베트남 목판 유산의 특별한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인식과 비교-』; 응우옌 후미 미(阮輝美) 외(2019), 앞의 논문”뿐이었다. 하지만 이 세 논문은 ‘북강서원에 대한 소개’하거나 ‘베트남 전체의 목판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북강서원의 목판본’을 소개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따라서 ‘북강서원의 목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조사를 진행하거나 베트남의 현지 연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서원과 베트남 서원 장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 서원 연구자들이 베트남의 한남연구원(漢喃研究院)에 방문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II. 복강서원 목판본의 내용

복강서원은 베트남 18세기 후반의 서원으로서, 베트남 중부의 응혜 틴(乂安鎮, Nghệ Tĩnh) 지역을 대표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었다.<sup>7</sup> 복강서원의 건립자인 응우옌 후이 오안(阮輝 瑯, Nguyễn Huy Oánh, 1713~1789)은 베이징에 사절단으로 파견되면서 악록서원(嶽麓書院)에 커다란 감명을 받은 뒤 베트남에 돌아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서원을 창설하였다. 물론 복강서원은 그의 아버지가 건립한 ‘석정학교(碩亭學校, Thạc Đình học hiệu)’ 혹은 ‘장류학교(長留學校, Trường Lưu học hiệu)’의 유산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응우옌 후이 오안은 복강서원에서 제자를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규를 제작하고, 학전을 마련하였으며, 유교 교재들을 편찬, 인쇄, 배포하였다. 응우옌 후이 오안은 생전에 한자(漢字)와 쯔놈(喃字)문자로 작성한 총 30부(部)의 책, 합계 37권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저술한 책과 목판본은 다음과 같다.

『사서오경촬요四書五經撮要』	(15卷)
『장류완씨長流阮氏』	(10卷)
『황화사정도皇華使程圖』	(2卷)
『북여집람北興集覽』	(1卷)
『봉사연대총가奉使燕臺總歌』 혹은 『봉사연경총가奉使燕京總歌』	(1卷)
『초학지남初學指南』	(1卷)
『소상백영瀟湘百詠』	(1卷)
『국사찬요國史纂要』	(1卷)
『침구촬요針灸撮要』	(1卷)
『석정유고碩亭遺稿』	(2卷)
『훈여자가訓女子歌』	(1卷)
『복강서원규례福江書院規例』	(1卷, 목판본)

7 지금부터 제시되는 복강서원의 설명과 목판 및 장서에 대한 내용은 “Nguyễn Tuấ-Cường(2020), 앞의 논문”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것만 각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현존現存하는 응우옌 후이 오안이 작성한 저작들과 목판본들은 10부 20권으로 이 다음과 같다.

- (1) 『북여집람北興集覽』(한눔연구원번호 : A.2009): 중국의 『명승전지名勝全志』를 간략하게 편집한 중국 15성省의 지리서地理書
- (2) 『황화사정도皇華使程圖』: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의 상세한 노정과 기록
- (3) 『봉사연대총가奉使燕臺總歌』(한눔연구원번호 : A.373, R.1375):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작성한 일기체 시가詩歌
- (4) 『초학지남初學指南』(한눔연구원번호 : A.1634)
- (5) 『국사찬요國史纂要』(한눔연구원번호 : A.1923)
- (6) 『훈여자가訓女子歌』(한눔연구원번호 : AB.85)
- (7) 『약성가관藥性歌括』: 육팔체시六八體詩, 약성藥性和 침구針灸방법方法
- (8) 『석정유고碩亭遺稿』(한눔연구원번호 : A.3133): 응우옌 후이 오안의 시문집詩文集
- (9) 『복강서원규례福江書院規例』, 목판:
- (10) 『오경찬요대전五經纂要大全』, 목판: 총9권

이외에도 응우옌 후이 오안은 자신의 아버지 응우옌 후이 뜨우(阮輝猷, Nguyễn Huy Túu, 1690~1750)가 지은 『성리찬요대전性理纂要大全』 2권을 목판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위의 목판들에 새겨진 문자들은 이름답고 유려하면서 예서(隸書), 초서(草書), 이서(異書), 속서(俗書), 고서(古書), 기휘(忌諱) 등 여러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sup>8</sup>

특히 이들 가운데 복강서원의 교육을 위해 편찬한 서적 이른바 ‘서원본書院本’으로 응우옌 후이 오안의 아버지가 지은 『성리찬요대전性理纂要大全』 2권을 비롯하여 10종류의 서원 교과서들을 사용하였다. 이 교과서들은 응우옌 후이 오안이 자신의 호인 ‘석정(碩亭, Thạch Đình)’을 붙여 ‘석정장판(碩亭藏板)’ 혹은 ‘석정정본(碩亭正本)’이라 명명하였다. 이 복강서원의 교과서들은 응우옌 후이 오안이 『오경찬요대전』을 완성한 뒤 1년 뒤, 1759년 국자감 사업(司業)으로 임명되고 다시 제주(祭酒)로 승진하게 되었을 때, 국자감의 강의자료로서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그 구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8 전번꿈 외(2018), 위의 논문, 164쪽.

순	자료명	저자	형식	내용
1	복강서원규례 福江書院規例	阮輝 1 瑩	5판 목판, 1767년 편찬	복강서원의 원규院規, 1767년 북경에서 편찬
2	초학지남 初學指南	阮輝 1 瑩	80쪽, 초본抄本, 1773년 편찬	아동이 학문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기준[儀式]
3	훈여자가 訓女子歌	阮輝 1 瑩	18쪽, 각본刻本	632구句의 육팔체六八體로 된 즙놈문자시, 여자가 갖추어야 전통적인 유가 덕행인 공용언행公容言行을 제시
4	국사찬요 國史纂要	阮輝 1 瑩	194쪽, 각본	베트남 전왕조(陳朝)의 역사를 기술한 것으로, 오세연吳世蓮의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를 20%로 축약.
5	시경찬요대전 詩經纂要大全	阮輝 1 瑩	2권, 63판 목판	이 책들의 표제는 『오경찬요대전五經纂要大全』으로 총 9권, 阮輝 1 瑩 이 편집하여 대략 10년에 걸쳐 1756년완성. 1758년에 널리 인쇄되어 전파됨. 명대 호광(胡廣, 1369-1418) 등이 지은 『오경대전五經大全』의 간략본, 원서내용의 6~7%정도로 축약
6	서경찬요대전 書經纂要大全	阮輝 1 瑩	2권, 81판 목판	
7	예경찬요대전 禮經纂要大全	阮輝 1 瑩	2권, 46판 목판	
8	역경찬요대전 易經纂要大全	阮輝 1 瑩	1권, 43판 목판	
9	춘추찬요대전 春秋纂要大全	阮輝 1 瑩	2권, 53판 목판	
10	성리찬요대전 性理纂要大全	阮輝 儼	2권, 81판 목판	명대 호광 등이 지은 『성리대전』의 간략본으로, 베트남의 역사를 보충함. 阮輝 1 瑩 이 사자寫字하였고, 응우옌 후이 뜨(阮輝似, Nguyễn Huy Tữ)가 교열. 『성리대전』 70권을 2권으로 압축

자료의 형식에서 보면, 온전히 새롭게 편찬한 『복강서원규례』, 『초학지남』, 『훈여자가』 등이 있고, 찬요류纂要類로서 『국사찬요』, 『오경찬요대전』, 『성리찬요대전』이 있다. 그 내용에서 볼 때, 서원의 규정, 학습예의學習禮儀, 부녀자의 가정교육, 베트남의 역사, 유가경전, 송명리학宋明理學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의禮儀, 사자

寫字, 의리義理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자들이 베트남의 현지문화와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복강서원규례』, 『초학지남』, 『훈여자가』, 『국사편찬』 등의 책은 베트남 현지를 중심주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리찬요대전』에서도 ‘베트남의 제왕帝王 부분’을 보충하여 현지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예를 들어 『춘추(春秋)』에서는 정백(鄭伯)이 국가보다 효도를 더 강조하였지만 응웬후이오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 높였다.<sup>9</sup>

그리고 동아시아 서원을 비교연구하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복강서원규례』이다. 현재 이 자료는 응우옌 후이(阮輝) 가족의 목판서고에 보존되고 있다. 그 『규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학예의入學禮儀 (뒷쪽의 2면이 일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 (2) 졸업자 및 모범생을 축하하는 예시문
- (3) 복강서원에서 매월 행하는 제사활동의 의식儀式과 제문祭文
- (4) 학생의 품행과 도덕적인 요청
- (5) 학습과 도리에 대한 중국 유자들의 격언

(1~3)부분은 시험과 학습의 예의로서 전체 80%에 해당하고, (4~5)부분은 학습자의 품행과 도덕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전체 20%에 해당한다. 전체 『규례』는 대략 2천 글자로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존하는 것은 2면이 분실되어 대략 1600자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 복강서원의 원규가 응우옌 후이 오안이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받은 ‘악록서원 학규’하고도 다르며, 한국과 일본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주희의 ‘백록동서원 학규’하고도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응후옌 후이 오안이 서원의 모델을 따르기는 했지만, 중국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베트남 현지에 맞는 독자적인 규칙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10</sup>

9 편번깡 외(2018), 위의 논문, 164쪽. 이는 『춘추찬요대전』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짐작된다.

10 Nguyễn Tuấ-Cườg, Ibid. p.114. 물론 한국의 많은 서원에서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차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자신이 양명학자임을 표방하였음지만 자신의 도주서원(藤樹書院)의 학규로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서원 학규는 후기로 갈수록 독자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일본의 경우 오시오 쥬사이(大塩中齋)의 세심동학당의 학규는 「백록동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 점에서 1767년 응우옌 후이

### III. 결론: 복강서원 장서의 현지조사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강서원의 장서는 베트남 서원문화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곧 이 자료들은 베트남 교육을 위해 유교경전 교과서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베트남과 중국 간의 문화교류 연구평가의 원본 자료이기도 하고, 게다가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문나라들의 유교 수용·유교 교육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sup>11</sup> 그러한 점에서 이에 대한 현지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서원연구자들이 베트남 현지에 가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때만이 그 베트남 서원문화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 서원문화의 보편성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오안이 쓴 「서원규례」의 초안은, 베트남의 복강서원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서원들이 「백록동규」를 탈피하여 독자성을 마련하고 있던 경향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11 찔번꿁 외(2018), 위의 논문, 166쪽.

## 【참고문헌】

- 류준형(2020),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존재 양태와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회』 제10호
- 응우옌 후미 미(阮輝美) 외(2019), 「폭장서당 목관의 가치 보전 및 제고에 관한 정부기관과 응웬 후이 가문의 협력」,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디지털시대의 목관 보존과 활용』, 한국국학진흥원, 160쪽.
- 이우진(2020),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한국서원학회』 제10호
- 전번궁 외(2018), 「베트남 목관 유산의 특별한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아시아 목관의 문화사-인식과 비교-』
- Nguyễn Tuấ-Cường(2020),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 Giang Academy, Vladimír Glomb et al.,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 “베트남 복강서원(福江書院)의 장서(藏書)와 그 의의”에 대한 토론문

이 남 옥(한국국학진흥원)

이우진 선생님(이후 발표자로 칭함)께서는 『왕양명 공부론의 교육학적 해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로 양명학, 공부론, 서원 등을 주제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저로는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스승담론 연구 -사설류(師說類) 분석을 통해-」(『한국교육사학』36, 2014), 「신유학의 아동교육(1)」(『양명학』41, 2015), 「왕양명의 『오경역설(五經臆說)』 연구」(『동양철학연구』86, 2016),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한국서원학보』10, 2020) 등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금일 “베트남 복강서원의 장서”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복강서원의 건립자인 응우옌 후이 오안이 저술한 책과 이때 판각한 목판을 중심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같은 한자문화권이지만 베트남의 전적 그리고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강서원과 응우옌 후이 오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적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주셨다는 점만으로도 이 발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토론자는 조선시대 전공자로 베트남 서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조선시대 서원과 관련해 비교하면서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베트남 서원의 역할

전통적 의미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이

외에도 강학 기능을 강화하고 제향 인물의 학문을 후대로 전승하는 차원에서 전적을 수집하고 목판을 만들어 장서각과 장판각에 보관하여 일종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도 수행해왔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에서 이미 일본과 베트남 서원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응우옌 투안 쿠옹의 연구를 인용해서 ‘베트남에서 서원은 주로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서원의 예로 제시한 난가서원, 승정서원, 복강서원은 설립 주체가 다르고 지역적으로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의미의 학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의미의 학적 전통의 계승과 확산이라는 강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베트남 각 서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구체적 연구보다는 현재 피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서 및 목판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서원의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해서 장서 그리고 도서관의 측면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 2. 복강서원 장서(목판)의 특징

발표자는 응우옌 후이 오안이 저술한 책과 목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연번	서명	현존여부	비고
1	『사서오경촬요四書五經撮要』	0	
2	『장류완씨長流阮氏』		
3	『황화사정도皇華使程圖』	0	
4	『북여집람北興集覽』	0	
5	『봉사연대총가奉使燕臺總歌』		
6	『초학지남初學指南』	0	
7	『소상백영瀟湘百詠』		
8	『국사찬요國史纂要』	0	

9	『침구촬요針灸撮要』	0	『약성가괄藥性歌括』로 개칭.
10	『석정유고碩亭遺稿』	0	
11	『훈여자가訓女子歌』	0	
12	『복강서원규례福江書院規例』	0	

또한 응우옌 후이 오안이 국자감 사업과 채주가 되었을 때 강의자료로 복강서원 교과서 가운데 『복강서원규례』, 『초학지남』, 『훈여자가』, 『국사찬요』, 『시경찬요대전』, 『서경찬요대전』, 『예경찬요대전』, 『역경찬요대전』, 『춘추찬요대전』, 『성리찬요대전』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서원의 규정, 학습예의, 부녀자의 가정교육, 베트남의 역사, 유가경전, 송명리학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서오경촬요』 가운데 사서 부분은 빼고 오경 부분만을 “○○찬요대전” 형태로 만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국자감의 교육 과정에서 사서는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서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국 역사서인 『국사찬요』와 실용 학문서인 『침구촬요』 등이 서원에 갖춰졌다는 것은 18세기 동아시아 학술사 흐름 속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발표문에서는 복강서원 장서(목판)을 응우옌 후이 오안의 저술·편찬본에 국한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응우옌 후이 오안 이후 수집된 장서(목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복강서원 이외에도 난가서원이나 송정서원의 장서(목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베트남 서원 장서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복강서원 장서 현지조사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베트남 각 서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복강서원 장서의 현지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지조사를 위한 구

체적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서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드린 질문으로 발표자께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서원의 장서구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야규 마코토

(柳生 真,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고의당 창립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 III. 덴리도서관(天理圖書館)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 I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고의당(古義堂)은 일본의 유학자이자 고학(古學) 진사이학과(仁齋學派, 또는 古義學派)의 창시자, 사상가인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가 1662(寬文2)년에 교토(京都) 호리카와(堀川)<sup>1</sup>의 자택에 개설한 민간학교인 사숙(私塾)으로 호리카와숙(堀川塾) 또는 호리카와학교(堀川學校)라고도 일컬어졌다. 고의당은 진사이 사후에도 에도시대에 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도가이(東涯; 2대, 진사이의 장남)-도쇼(東所; 3대, 도가이의 셋째 아들)-도리(東里; 4대, 도쇼의 아들)-도호우(東峯, 5대)-유사이(輿齋; 6대)에 이르는 이토 가문의 후손들이 학교장인 숙주(塾主)를 세습하고 고의당의 학문을 대대로 이어갔다.

헤이안 천도(平安遷都) 이래 오랜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교토는 에도시대 초기에는

---

1 현재 교토시(京都市) 가미교구(上京區) 히가시호리카와도리(東堀川通) 데미즈사가루(出水下ル)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초기 사숙으로는 마즈나가 세키고(松永尺五, 1592-1657)<sup>2</sup>가 개교한 춘추관(春秋館, 1628년 개교) 및 강습당(講習堂, 1637년 개교)이 있었다. 강습당은 고의당과 함께 교토를 대표하는 사숙으로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다.

또 호리카와를 사이에 둔 고의당 맞은편에는 암재숙(闇齋塾)이 있었다.<sup>3</sup> 이 사숙은 주자학 안사이 학파(闇齋學派)와 신도의 일파인 수이카 신도(垂加神道)의 개척자인 야마자키 암재(山崎闇齋, 1619-1682)가 1655(明暦1)년에 개교한 사숙이다. 고의당과 암재숙은 서로 대항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숙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표지에도 암재숙이 주홍색 표지를 사용한 반면, 고의당은 남색 표지를 써서 학과의식을 드러냈다. 학풍 역시 대조적이었으며 엄격한 학풍으로 유명했던 암재숙에 비해 고의당에서는 학우들이 서로 화합하고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회와 『논어』 『맹자』 『중용』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의당은 교토를 대표하는 사숙 중 하나로 도쿠가와 막부로부터도 존중되었으며 1736(享保21)년과 1842(天保13)년에는 관아(町奉行所)로부터 교육 연구 활동의 공로에 대해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문인의 신분도 황실·귀족부터 다이묘(大名)·번사(藩士)·학자·승려·신관·상공인(町人)·농민에 이르렀다. 고의당은 민간 학원으로 있으면서 궁중에서 자문을 받아서 개원(改元)이나 천황의 시호(諡號) 등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고, 귀족층에 대한 교육에도 힘썼다. 예를 들어 귀족 출신의 정치가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서도 활약하고 쇼와(昭和) 시대까지 생존한 ‘최후의 원로(元老)’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849-1940)는 제6대 숙주(塾主) 이토 유사이의 문인이었다. 유사이가 궁내청(宮内廳)에서 18년간 근무하는 동안 휴강하면서도 고의당은 20세기 초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근대적 교육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전통적인 사숙의 시대가 종언하고, 고의당 역시 1906(明治39)년에 약240년의 역사의 막을 내렸다.

지금 고의당 옛터에서 볼 수 있는 서재(書齋)는 1890(明治23)년에 재건된 것이지만 2층의 흙벽장고(土藏造) 양식의 서고(書庫)는 진사이 생존 당시 그대로 남아 있고 ‘이토

2 松永尺五는 마즈나가 세키고 또는 샤쿠고라고도 함. 1592-1657. 주자학자 후지와라 세야카(藤原惺窩)의 수제자이다.

3 현재 그 자리에는 야마자키 안사이 저택 터(山崎闇齋邸址)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진사이 저택(고의당) 터 및 서고(伊藤仁齋宅(古義堂)跡ならびに書庫)로 사적(史蹟)에 지정되고 있다.

에도시대의 교토에서는 1708(寶永5)년, 1788(天明8)년, 1864(元治1)년의 이른바 “교토에 3대 화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일어났으나 고의당의 장서는 기적적으로 소실을 모면하고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진사이 이래 고의당이 240여 년 동안 수집하고 소장해 온 장서·서화 등 5,500점, 약 10,000권은 1941(昭和16)년부터 텐리대학 부속도서관(天理大學付屬圖書館)에 일괄 이양되고 동 도서관 특별문고에 하나인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에 소장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고의당의 창시자 이토 진사이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현재 고의당의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는 텐리도서관(天理圖書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고의당 창립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 1. 진사이의 약력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1627(寬永4)년에 교토의 목재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겐시치(源七)이고 이름은 고레에다(維楨) 또는 이테이(維貞)이다. 자는 겐스케(源佐 또는 源助). 통칭을 츠루야 시치에몬(鶴屋七右衛門)이라고 한다. 호는 처음에는 게이사이(敬齋)라고 했다가 뒤에 진사이(仁齋)로 고쳤다.<sup>4</sup> 이토가(伊藤家)는 조상인 이토 도케이(伊藤道慶)가 천문(天文)년간(1532-1555)부터 센슈(泉州) 사카이(堺)<sup>5</sup>에서 살았다가 1586(天正14)년에 교토로 이사한 명문 상가이었다.

진사이 11세 때(1637/寬永14년) 비로소 『대학(大學)』의 치국평천하장(治國平天下章)을 읽고 “지금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을 아는 자가 있을까?”라고 무척 감동하면서 성현(聖賢)의 도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세(1645/正保2년) 때에는 주자 편 『이연평문답(李延平問答)』을 읽고 본격적으로 주자학에 열중하게 되었다.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어류

4 이 글에서는 ‘진사이’(仁齋)로 통일한다.

5 현재 오사카부(大阪府) 사카ishi(堺市).

(朱子語類)』 등을 숙독하고 ‘경재(敬齋)’라는 호를 쓰고 『경재기(敬齋記)』 『심학원론(心學原論)』 등의 글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그에 대해 생계를 위하여 의사가 되기를 권하고 유학자가 되기를 기뻐하지 않아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며 진사이가 만년에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사람일수록 나의 원수가 되었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진사이는 어느새 주자학의 ‘경(敬)’을 가지고서는 “단지 궁지(矜持)를 일로 삼고 외면을 갖추면서 내면에 성의가 없어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도 심해져서 여러 가지 폐단을” 낳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 28~9세 무렵에 그는 자주 발작이 일어나 숨이 막혔다고 전해지고 병 때문에 가업을 남동생에게 물려주었다. 이 병이 오늘날 말하는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하여튼 진사이는 29~37세까지 은거하고 양명학·노장·불교 등의 책에 탐닉하고 선(禪)의 백골관(白骨觀)까지 닦았다가 마침내 그는 도학(주자학)은 불교·노장 등의 사상을 뒤섞인 것이어서 공자·맹자 본래의 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사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1662(寬文2)년에 교토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진사이는 은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사숙(私塾)을 열어서 문인들을 모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이와 동시에 동지들과 함께 중국 서적을 연구·토론하는 모임인 ‘동지회(同志會)’를 결성하기도 했다.

40세를 지났을 때, 진사이는 오가타(尾形 또는 緒方) 가나(嘉那)와 결혼하고 장남 도가이(東涯; 源藏), 장녀 구스(具壽), 차녀 세이(淸)를 두었다. 진사이가 52세 때에 선처가나를 잃다가 몇 년 뒤에 세자키(瀬崎) 후사(總 또는 富佐)와 다시 결혼해서 차남 바이우(梅宇; 重藏), 3남 가이테이(介亭; 正藏), 3녀 도메(留), 4남 지쿠리(竹里; 平藏), 5남 란구우(蘭隅; 才藏)를 낳았다. 선후처 사이에 태어난 다섯 아들들은 모두 저명한 유학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름에 모두 ‘장(藏)’자가 들어가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토(伊藤)의 오장(五藏)”이라고 일컬었다.

가숙의 고의당은 문인 3,000여명이라 일컬어질 많은 문인들을 모으고 크게 융성했다. 집안이 원래 명문 상가였으므로 진사이는 귀족(公卿)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또 히고(肥後) 구마모토(熊本)의 다이묘 호소가와가(細川家)도 그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진사이는 귀현(貴顯)들의 초빙을 모두 사양하고, 평생 동안 재야학자로 40여년을 연구와 교육



에 전념하고 1705(寶永2)년 3월12일에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시대는 내려가 1910(明治43)년에는 이토 진사이가 정부에서 정4위(正四位)에 추증되고 1915(大正4)년에는 이토 도가이가 중 4위(從四位)에 추증되었다.

저서는 『동자문(童子問)』 『어맹자의(語孟字義)』 등 이외에 『논어고의(論語古義)』 『맹자고의(孟子古義)』 『중용발휘(中庸發揮)』 등의 주석서가 있다. 다만 진사이 생전에는 강의 및 저술의 정리와 퇴고에 전념하고 자기 저작을 간행하지 않았고 후손과 문인들의 손으로 간행되었다.

## 2. 진사리학의 사상사적 위상

일본사상사에서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古義學)’은 아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의 ‘성학(聖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고문사학(古文辭學)’과 함께 ‘고학파(古學派)’로 분류된다. 고학파는 도쿠가와막부의 관학이었던 주자학을 비판하고 각각 독자적이고 직접적으로 고전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풍을 확립한 학파들이다.

고의학의 특징으로 먼저 기일원론(氣一元論)을 들 수 있다. 진사이는 “무릇 천지간(天地間)은 하나의 원기(一元氣) 뿐”<sup>6</sup>이라고 말한다. 또 『주역(周易)』의 “천지(天地)의 대덕(大德)을 생(生)이라고 한다.”를 해석해서 “생생(生生)해서 그치지 아니한 것은 곧 천지의 도(道)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는 삶이 있고 죽음은 없고, 모임(聚)이 있고 흩어짐(散)은 없다. 죽음은 곧 생의 마지막이요, 흩어짐은 곧 모임이 다한 것이다. 생사의 도는 생 하나뿐인 까닭이다.”<sup>7</sup> 라고 하듯이 진사이의 기론(氣論)은 천지의 도가 생 하나뿐이라는 생명주의·생일원론(生一元論)이 보인다. 생사는 바로 기의 모이고 흩어짐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기철학적 생사관과 달리 진사이는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생이 있어도 죽음은 없고, 기가 흩어짐은 모임이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으나 흩어짐은 없다고 하는 특이한 해석을 했다. 바꿔 말하면 진사이는 죽음·기의 흩어짐도 낳고 도 낳는(生生) 천지의 도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生)’·‘활(活)’을 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진사이는 “학문은 모름지기 살아

6 『語孟字義』天道 1.

7 『語孟字義』天道 4.

있는 도리(活道理)를 봐야지 죽은 도리(死道理)를 굳게 지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와(瓦磚), 도야(陶冶), 마른 풀이나 묵은 뿌리(枯草陳根)을 사물(死物)이라고 한다. 그것들이 일정해서 증감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곧 그렇지 않으니 사물(死物)처럼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잘못이 없기를 귀하기 여기지 않고 능히 고칠 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sup>8</sup>라고 주장했다. 천지의 도가 “낳고 또 낳아서(生生) 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과 마음도 원래 살아 움직여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사이는 “도(道)는 행하는 바를 가지고 말한다. 삶의 글자(活字)이다. 이(理)는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죽음의 글자(死字)이다.”<sup>9</sup> 이처럼 진사이가 보기에 ‘이(理)’라는 일정한 격률·규범을 가지고 마음을 속박하려고 하면 마음의 쓰임을 죽이게 된다. 그보다는 차라리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밟지 않을 수 없는 ‘도(道)’를 걷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道)는 마치 길(路)과 같다. 사람의 왕래하고 통행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대개 천지가 통행하는 까닭에 모두 도라는 이름을 짓는다.”<sup>10</sup> 이라고 말했다. 그 도를 벗어난 것, 즉 천지 사이에서 불선(不善)을 차지한 자는 마치 산에 나는 풀을 물속에 심고 물속의 생물을 산 위로 올린 것과 같이 하루도 그 본성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진사이의 주장이었다.

다음의 특징으로는 진사이가 “무릇 부자(夫子)의 성스러움은 요순보다 훨씬 뛰어나다.”<sup>11</sup>라고 하듯이 공자를 선왕(先王)보다 높이 평가하는 점이다. 공자가 요순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진사이는, 당연히 『논어(論語)』를 다른 경전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나(愚)는 그래서 단호히 논어를 최상지극우주제일(最上至極宇宙第一)의 책으로 삼고 이 여덟 글자를 매권마다 제목 위에 쓴다.”<sup>12</sup> “논어 한 책은 만세동액(萬世同額)의 규구준칙(規矩準則)이다.”<sup>13</sup>

그 이유는 공자가 고금을 살펴서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특히 요(堯)·순(舜)을 조술(祖述)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을 헌장(憲章)하며, 이해도 실천도 어려운 설은 물리치고,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영원불변한 도를 세웠기 때문이다. “옛날

8 『童子問』 下.

9 『語孟字義』 理 2.

10 『語孟字義』 天道 2.

11 『論語古義』 述而 1.

12 『論語古義』 綱領 1.

13 『論語古義』 綱領 5.

공자께서 두루 고금을 살피시고, 군성(群聖)을 역선(歷選)해서, 특별히 요순(堯舜)을 조술(祖述)하고, 문무(文武)를 헌장(憲章)해서, 남김없이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 엿볼 수 없는 설을 물리지고,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도를 세워서 생민(生民)의 극으로 삼고, 그것을 문인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후세에 알렸다.”<sup>14</sup>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높은 정신적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진사이는 생각했다. 또 진사이는 맹자가 공자를 계승하여 길잡이가 된다고 말한다. “맹자의 말씀은 참으로 후세(後世)의 지남야촉(指南夜燭)이다.”<sup>15</sup>

경학에 대해서 진사이는 한당(漢唐) 훈고학(訓詁學)의 육경(六經) 중심, 주자학의 사서(四書) 중심의 경서 체계도 부정했다. 『논어』를 으뜸으로 삼고 『맹자』를 그 의소(義疏), 최고의 주석으로 자리 매겼다. 한편 『대학(大學)』은 『시경』 『서경』 두 경서를 익히 읽었으나 공문(孔門)의 본뜻을 모르는 자가 지은 책이라고 단정했다. 또 『중용』은 공자의 말씀을 부연한 것이지만 일부 다른 저작이 혼입된 것이 있고, 또 귀신(鬼神)이나 정상요열(禎祥妖孽)을 논한 구절도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sup>16</sup> 그리고 진사이는 공자의 도이 천하에 밝혀지지 않는 것은 『논어』 『맹자』 이외가 쓸모없는 책들을 높이 받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한당(漢唐) 이래 사람들은 모두 육경(六經)을 존중하는 것만 알고 『논어』가 가장 존귀하고 높이 육경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줄을 모르고, 혹은 『대학』·『중용』을 먼저 하고 『논어』·『맹자』를 뒤로 한다. 대개 『논어』·『맹자』의 두 책이 위아래를 꿰뚫고 다시 여운(餘蘊)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 부자(夫子)의 도가 결국 크게 천하에 밝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17</sup>

또 진사이는 무사(武士)가 지배한 에도시대에 숭문주의(崇文主義)를 강조했다. 진사이는 도쿠가와씨(德川氏)에 의해 천하가 평온을 되찾은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은 무사 지배자체를 긍정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쿠가와막부가 문예(文藝)를 부흥시킨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무국(武國)’ 일본을 강조한 아마가 소코(山鹿素行)과 대조적인 점이다. “국가가 장차 다스려질 때에는 반드시 문(文)을 오른쪽으로 하고 무(武)를 왼쪽으로 한다. 그것이 장차 어지러워지자 반드시 무를 귀히 여기고 문을 천히

14 『童子問』 上.

15 『孟子古義』 綱領 5.

16 『中庸發揮』 敍由 참조.

17 『論語古義』 綱領 1.

여긴다.”<sup>18</sup> “문이 무을 이길 때에는 국조(國祚)가 오래되고, 무가 문을 이길 때에는 국맥(國脈)이 짧아진다.”<sup>19</sup> 라고 하듯이 문이 우세할 때에는 나라도 번영하고, 무가 우세할 때에는 국운이 단축된다고 진사이는 생각했다.<sup>20</sup>

앞에서 보았듯이 고의당에서는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널리 문인들을 받아들였다. 그 중에서 특히 진사이의 기일원론과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정신은 고의방(古醫方)이라는 의학과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로부터 예를 만든다.”(自我作古)를 외치고 『상한론(傷寒論)』에의 회귀와 “유의일본론(儒醫一本論)”을 주장한 가가와 슈안(香川修庵 또는 香川修德, 1683-1755)이나 유학자이자 고의방 의사인 나미카와 텐민(並川天民, 1679-1718)은 모두 이토 진사이의 문인이었다. 또 이토 도가이(伊藤東涯)도 명물학(名物學) 및 본초학(本草學)에 조예가 깊었고 고의학과 의학은 매우 친한 관계에 있었다.<sup>21</sup>

진사이의 둘째아들 이토 바이우(伊藤梅宇)는 후쿠야마번(福山藩)<sup>22</sup>의 번유(藩儒)가 되면서 1719(享保4)년에 조선통신사를 응접했다. 바이우는 통신사 서기인 성몽량(成夢良)에게 아버지의 저작인 『동자문(童子問)』과 고의학과와 주요 텍스트인 『논어고의(論語古義)』 『중용발휘(中庸發揮)』 『대학정본(大學定本)』 『고학지요(古學指要)』 등을 선물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의학의 저술들은 통신사를 통해 조선에도 소개되었다. 다만 주자학이 주류를 이룬 조선 지식사회에서 고의학은 이단으로 치부될 경우가 많았으나 정약용(丁若鏞)과 같이 나름대로 그 학문을 인정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인물도 있다.

### III. 덴리도서관(天理圖書館)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 1. 덴리도서관의 연혁

고의당문고가 이관된 덴리도서관(天理圖書館)<sup>23</sup>은 천리교(天理教)가 1925(大正14)년 8

18 『古學先生文集』 1권 「山口勝隆を送る序」.

19 『童子問』 中.

20 木村純二, 「日本の 經學文獻 수용에 관하여 —古義堂資料・稽古館資料를 中心으로—」, 『한국문화』 제 73집, 72-73쪽 참조.

21 福田安典, 「古義堂と医学書」, 30-31쪽 참조.

22 후쿠야마번(福山藩)은 현재 히로시마현(廣島縣) 남부 및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일부분에 소재했다.

23 현재 명칭은 덴리대학부속덴리도서관(天理大學付屬天理圖書館, 영어: Tenri Central Library).

월에 개설한 도서관이다. 개설자는 천리교 제2대 관장(管長)<sup>24</sup> 나카야마 쇼젠(中山正善, 1905-1967)이다. 그는 천리교 교 나카야마 미끼(中山みき)의 손자로 종교 지도자이면서 희대(稀代)의 서적·고문서 수집가로도 알려지고 있다.

나카야마 쇼젠은 아버지이자 천리교 초대 관장인 나카야마 신노스케(中山眞之亮, 1866-1914)의 서거에 의해 1915년에 10세로 관장에게 취임했다. 연소로 인해 아마사와 다메조(山澤爲造)가 1925년까지 섭행자(攝行者)로 교단 업무를 대행했다. 쇼젠은 일찍부터 천리교의 해외 포교를 담당하는 인재는 단지 언어만 익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교하는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알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실물자료를 수집하여 참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카야마 쇼젠은 1925년에 성년이 됨으로써 정식으로 관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예전부터 가졌던 자신의 신념을 실행으로 옮겼다. 1925년 3월에 덴리외국어학교(天理外國語學校)<sup>25</sup>을 개교하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생활용품을 수집해서 1930(昭和5)년에 외국어학교 내에 해외사정참고품실(海外事情參考品室)<sup>26</sup>을 설치했다.

도서관의 전신은 1919(大正8)년에 천리교 도유사(道友社) 안에 설치된 도서실이다. 덴리외국어학교 개교와 더불어 도서실의 장서와 천리교교(天理敎校)·중학교·여학교의 장서뿐만 아니라 나카야마가(中山家)의 소장도서까지 모두 합쳐서 외국어학교 3층 서쪽 방에 모아서 ‘덴리 외국어학교 부속 덴리도서관(天理外國語學校付屬天理圖書館)’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리고 1926(大正15)년 11월부터 2만 6000권(그 중 서양서적이 약 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일반 열람을 시작했다. 즉 외국어학교(대학)·해외사정참고품실(참고관)·도서관은 쇼젠의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삼위일체인 셈이다.

24 관장(管長)은 일본에서 한 종교단체에서 최고위 종교지도자의 관직을 의미한다. 메이지정부는 1872(明治5)년 6월 8일에 각 종교에게 통괄자로 관장(管長)을 두도록 명령을 내렸다. 천리교 내부에서는 원래 교장(敎長)·본부장(本部長)·회장(會長) 등으로 불렸으나 1908(明治21)년에 독립된 교과신도 종단으로 정부의 공인을 받으면서 교규(敎規)로 교단 대표를 관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패전 후 1946(昭和21)년에 규정된 『천리교교규(天理敎敎規)』에서 교단 대표자의 칭호가 진주(眞柱, 일본어: 신바시라 しんばしら)로 변경되고 오늘에 이른다.

25 현재 덴리대학(天理大學, 영어: Tenri University).

26 현재 덴리대학부속덴리참고관(天理大學付屬天理參考館, 영어: Tenri Sankokan Museum)

장서는 2020(令和2)년 3월 말 단계에서 150만권에 달한다. 창설 취지에 따라 종교학·동양학·오리엔트(중동)학·고고학·민속학·지리학·언어학·국문학 등의 분야에서 귀중한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특히 동서 교류사 관련 자료, 가톨릭 동양 전도사 자료, 키리시탄 문헌, 일본-네덜란드 교류사 자료, 일본근세 및 근대문학자료,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시대 희구문헌(稀覯文獻),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마쓰오 바쇼(松尾芭蕉) 등 문학자의 개인 자료 등으로 유명하다.

1928(昭和3)년 10월의 쇼와천황(昭和天皇) 즉위대전(即位大典)이 거행되었을 때 천리교 교회본부에서는 그 기념사업으로 독립된 도서관 건설에 착수했다. 건물은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의 설계도를 참고하고 1929(昭和4)년 4월에 착공하며 1930(昭和5)년 10월에 완성되었다. 뒤에 약간 증축되었지만 대체로 건축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 2. 덴리도서관 특별문고 고의당문고

덴리도서관에서는 현재 ‘와타야문고(綿屋文庫)’ ‘요시다문고(吉田文庫)’ ‘근세문고(近世文庫)’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의 네 가지 수집 자료들을 특별문고로 지정하고 있다. 먼저 와타야문고는 1938(昭和13)년에 천리교 신바시라 나카야마가에서 기증된 렌가(連歌)·하이까이서(俳諧書)가 중심이 된 컬렉션이다.

요시다문고는 교토의 요시다신사(吉田神社) 가문에서 누대로 전해 내려온 서적들의 일부를 이관하고 그 이름을 남긴 것으로, 요시다가(吉田家) 여러 부서(部署)의 신전류(神典類)·일기·문서 등을 위주로 한 약 7,000점, 10,000권으로, 도서관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요시다가의 책을 수집하고 있다.

근세문고는 나라현(奈良縣) 오지초(王寺町)의 향토사가 옛 가와 수집가인 야스이 요시다로(保井芳太郎, 1881-1945)가 수집한 근세 야마토(大和)의 사찰, 신사, 지배(支配) 서민 관련 문서·기록·지도 등 약 60,000점이 기초가 된 것으로, 소장 점수는 그 뒤에 추가된 것도 포함해서 약 30여만 점에 달한다.

그리고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는 이토 진사이 가문의 고의당 관련 자료·장서가 1941(昭和16)년부터 1945(昭和20)년에 걸쳐 덴리도서관에 일괄 이양된 것이다. 그 내용

은 『논어고의』 『동자문』 명물육첩(名物六帖)』을 비롯한 원고류·일기·문인명단·유품·수택본 책 등 이토가와 직접 관련되는 것과 한문서적을 위주로 한 일반서적 및 서화 등을 모두 합쳐서 약5,500점, 10,000권에 달한다.

1956(昭和31)년에는 덴리도서관 편 『고의당문고목록(古義堂文庫目錄)』이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진사이 서지략(書誌略; 저술 및 편찬, 일기·서간, 수택본, 서화 및 초고, 유품), 도가이 서지략, 도쇼 소지략, 도리 이후 역대 서지략, 방계(傍系諸家) 서지략, 이토가 자료 목록 및 이토가 구장서(舊藏書) 서화의 부(部), 일본어서적 목록, 한문서적 목록, 서화 목록, 인쇄물·문서 목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토 진사이 자신이 애용한 서적으로는 강희신미(康熙辛未, 1691년) 신전(新鑄) 『감본사서(監本四書)』, 명대판(明代版) 『사서집주대전(四書集註大全)』(주희과 교정 사서대전 周會魁校正四書大全), 칸에이(寬永) 연간(1624-1645)에 일본에서 간행된 『주역경전(周易經傳)』가 있다. 또 고의당 제2대 숙주(塾主) 도가이가 소유한 것으로는 일본에서 간행된 『오경집주(五經集註)』 『사서집주(四書集註)』 『사서대전(四書大全)』 『태극도설(太極圖說)』 『회암선생어록류요(晦庵先生語錄類要)』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와 아울러 1498(明나라 弘治11)년에 출판된 『二程全書』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고의당과 한반도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이토 도가이(伊藤東涯)는 조선에 대해 폭넓은 연구 성과를 모여서 1704년에 『삼한기략(三韓紀略)』을 지었다. 도가이의 대표작인 『명물육첩(名物六帖)』에도 1527(中宗22)년에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비롯하여 『동문선(東文選)』 『조선사략(朝鮮史略)』 『삼국사기(三國史記)』 『경국대전(經國大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징비록(懲毖錄)』 『용재총화(慵齋叢話)』 『명물강해(明律講解)』 『고사촬요(攷事撮要)』 등의 한국 서적을 인용하고 있어 그의 관심의 폭을 보여준다.<sup>27</sup> 도가이는 한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조선언문자모(朝鮮諺文字母)』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 초고를 아들 이토 도쇼(伊藤東所)가 다시 손을 본 교정본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sup>28</sup>

그리고 고의당문고 중에는 도가이의 동생인 바이우(伊藤梅宇)가 1711(조선: 肅宗37/일본: 正德1)년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다른 유학자들과 함께 수송한 시가 수록된 『계림

27 宮川康子, 「伊藤東涯の朝鮮研究と『訓蒙字會』」, 171-176쪽 참조.

28 宮川康子, 「伊藤東涯の朝鮮研究と『訓蒙字會』」, 179-188쪽 참조.

창화집(鷄林唱和集)』(1712년 간행)이나 그가 일동(日東)의 유종(儒宗)인 이토 진사이가 성리학을 논변한 책을 드리고 싶다고 서기 성몽량과 필담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또 고의당문고 전체를 대표하는 보물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송대판(宋代版) 『구양문충공전집(歐陽文忠公全集)』이 있다. 2011년에 규슈대학(九州大學) 히가시 히데토시(東英壽) 교수가 밝힌 연구에 의하면 이 고의당문고본 『구양문충공전집』에는 중국의 국가 도서관에 소장된 명대판 『구양문충공전집』에도 수록되지 않는, 구양수(歐陽脩)가 왕안석(王安石) 등에게 보낸 편지 96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고의당문고본 『구양문충공전집』에는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의 인장이 찍혀 있다. 가나자와문고<sup>29</sup>는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중기인 1275년경에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집권(執權) 호조씨(北條氏)의 갈래인 가나자와 호조씨(金澤北條氏) 호조 사네토키(北條實時)가 자기 저택 안에 설립한 도서관으로 일본 최초의 무가문고(武家文庫)이다. 이 점에서 미루어 12세기 말에 남송(南宋) 때의 정치인·문인·각서가(刻書家)인 주필대(周必大)가 『구양문충공전집』을 편찬한 후에 간행된 증보판이 일본에 수입되면서 가나자와문고에 소장되었다가, 그것이 가마쿠라막부 멸망 후 어느 사이에 유출되고 알 수 없는 경위를 거쳐서 고의당의 수증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 IV. 맺음말

고의당은 일본유학의 고의학과(古義學派)의 창시자인 유학자·사상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가 1662(寬文2)년에 교토 호리카와(堀川)의 자택에 개설한 사숙(私塾; 사립학교)이다. 진사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자손들이 대대로 고의당 숙주(塾主)의 자리와 고의학의 학풍을 계승했다. 교토는 특히 에도시대(江戸時代) 초기 일본의 학문의 중심지여서 고의당 이외에도 강습관(講習館), 안사이숙(闇齋塾) 등의 사숙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고의당은 그 중에서도 오래 계속된 편이다. 6대 숙주 유사이(輿齋)가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궁내청(宮内廳)에서 근무하는 동안 18년 휴강한 기간을 사이에 두

29 현재 가나가와현립 가나자와문고(神奈川縣立金澤文庫).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시(横浜市) 가나자와구(金澤區) 가나자와조(金澤町) 142에 소재함.



고 1906(明治39)년까지 약240년 동안 존속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의당의 서재는 1890(明治23)년에 재건된 것이지만, 서고는 진사이 생전의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고의당 터는 ‘이토 진사이 택 (고의당) 터 및 서고’로서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다.

고의당은 한때 문인 3000명이라 일컬어지는 성황을 과시했다. 또 궁중의 자문을 받기도 하는 한편으로 일반 서민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으며 문인의 신분도 황실·귀족부터 다이묘·무사·학자·승려·신관(神官)·상공인·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유명한 문인으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도 참여하고 쇼와(昭和)시대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원로(元老)”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가 있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진사이학(仁齋學) 또는 고의학은 주자학에 반대한 고학파(古學派)에 분류된다. 고의학의 특징으로는 먼저 정주(程朱)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반대하고 생명주의적인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제창한 점을 들 수 있다. 진사이에 의하면 천지의 도는 “낳고 또 낳아서 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과 마음도 또한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道)는 행하는 바를 가지고 말한다. 삶의 글자(活字)이다. 이(理)는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죽음의 글자(死字)이다.” 고 하듯이 ‘리(理)’라는 일정한 격률·규범에 의해 마음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쓰임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道)는 마치 길(路)과 같다. 사람의 왕래하고 통행하는 까닭”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밟지 않을 수 없는 ‘도(道)’를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 진사이는 “무릇 부자(夫子)의 성스러움은 요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면서 공자를 요순 등 그전의 성인들보다 존중했다. 경학에서는 한당(漢唐) 훈고학(訓詁學)의 육경(六經) 중심, 주자학의 사서(四書) 중심의 체계를 물리쳤다. 진사이는 『논어』를 ‘최상 지극우주제일(最上至極宇宙第一)’의 책으로 자리 매겼다. 『맹자』를 그 의소(義疏)로 평가한 반면에 『대학』에 대해서는 공씨(孔氏)의 유서(遺書)가 아니라고 단정했고, 『중용』은 유가 이외의 책 내용이 뒤섞여 있다고 보았다. 또 진사이는 무사가 지배한 에도시대에 승문주의(崇文主義)를 강조하고, 문(文)이 우세할 때에는 번성하지만 무(武)가 우세할 때에는 국운이 짧아진다고 보았다.

고의당의 사상은 고의방(古醫方) 의학에도 영향을 주었고, 또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에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주자학이 우세한 조선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랜 역사에 걸맞게 고의당은 수많은 장서·문서·서화 등을 모았고, 그것들은 에도 시대의 이른바 ‘교토 3대 화재’에서도 기적적으로 소실을 모면할 수 있었다. 고의당이 240여년 동안 수집·소장해온 장서·서화 등 5,500점, 약 1만 권은 고의당의 역사에 막을 내린 뒤 1941(昭和16)년부터 1945(昭和20)년에 걸쳐 덴리도서관(天理圖書館)에 일괄 이양되었다. 덴리도서관은 천리교(天理敎) 제2대 관장 나카야마 쇼젠(中山正善)이 1925(大正14)년 8월에 개설한 도서관이다. 덴리도서관에 이관된 이토가의 고의당 관련 자료·장서는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로서 ‘와타야문고(綿屋文庫)’ ‘요시다문고(吉田文庫)’ ‘근세문고(近世文庫)’와 더불어 덴리도서관 특별문고에 지정되고 일반 장서와 별도로 분류·취급되고 있다.

덴리도서관 고의당문고의 내용은 『논어고의(論語古義)』 『동자문(童子問)』 『명물육첩(名物六帖)』을 비롯한 원고류·일기·문인명단·유품·수택본 등 이토가와 직접 관련되는 것 이외에 한문서적을 위주로 하는 일반 서적·서화 등이 포함된다. 1956(昭和31)년에는 그것을 망라한 덴리도서관 편 『고의당문고목록(古義堂文庫目錄)』도 간행되었다.

고의당문고 중에는 여러 가지 귀중한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고의당과 관련을 한반도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적지 않아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진사이의 아들 도가이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소개한 『조선언문자모(朝鮮諺文子母)』이나, 도가이의 동생인 바이우가 할아버지 진사이가 성리학을 논변한 책을 드리고 싶다고 통신사에게 서기인 성몽량과 필담한 글도 포함되고 있다.

일본의 국보에도 지정되고 있는 송대판(宋代版) 『구양문충공전집(歐陽文忠公全集)』이 있다. 남송(南宋)의 주필대(周必大)가 펴낸 구양수(歐陽脩)의 문집의 증보판인데 일본에도 수입되고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중기인 1275년경에 호조 사네토키(北條實時)가 설치한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에서 소장되었다가 훗날 어떠한 경위를 거쳐 고의당의 장서가 되었다는 연유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天理大学おやさと研究所 編,『天理教辞典』,天理/道友社,1977.
- 加藤仁平,「伊藤仁斎の堀川塾」,『伊藤仁斎の学問と教育 古義堂即ち堀川塾の教育史的研究』,東京/第一書房,1979.
- 源了圓 著,『徳川思想小史』,東京/中公新書,1995.
- 片岡龍・金泰昌 編,『公共する人間1 伊藤仁斎 一天下公共の道を講究した文人学者—』,東京/東京大学出版会,2011.
- 田尻祐一郎,「『四端』と『孝悌』 仁斎試論」,『日本漢文学研究』(1),2006.3.
- 遠山敦,「『中庸』 解釈から見られる伊藤仁斎の倫理思想に関する研究」,『中庸について』 三重哲学会平成18年度大会発表論文,三重大学,2006(平成18).7.2.
- 木村純二,「日本の 經學文獻 수용에 관하여 —古義堂資料・稽古館資料를 中心으로—」,『한국문화』 제73집,2016.3.
- 福田安典,「古義堂と医学書」,『国文目白』(57),2018.2.
- 澤井啓一,「儒教共栄圏の幻影—十八世紀東アジアの<ジャポニズム>」,『東北アジア研究』(別冊4),2018.9.
- 宮川康子,「伊藤東涯の朝鮮研究と『訓蒙字会』」,『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第24号,2019(平成31).3.

<https://www.planet.pref.kanagawa.jp/city/bunko/bunkogaiyou.html>

<https://www.tcl.gr.jp/about-us/>

<https://www.tcl.gr.jp/collection/special/>



# “일본서원의 장서구축 -이토 진사이 가문과 고의당문고-”에 대한 토론문

이 남 옥(한국국학진흥원)

야구 마코토(柳生 真) 선생님(이후 발표자로 칭함)께서는 『惠岡 崔漢綺의 推測論 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로 최한기, 공공철학, 일본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등을 주제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저로는 「崔漢綺氣學と心學」(『유학연구』19, 2009), 「일본에서의 退溪·栗谷·茶山 연구의 흐름」(『퇴계학논집』10, 2012), 「동서양 공공성 연구와 한국적 공공성 탐구」(『퇴계학논집』20, 2017), 「한국 근대 공공성의 전개와 연대\_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동학학보』47, 2018), 「최한기의 종교회통사상\_『신기통』의 ‘통교(通敎)’개념을 중심으로」(『종교연구』79, 2019) 등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금일 “일본서원의 장서구축”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이 발표문은 이토 진사이가 1662년에 교토 호리카와 자택에 개설한 사숙인 고의당(古義堂)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토 진사이의 약력과 함께 기일원론·공자와 『논어』를 중시하는 학문 태도·송문주의(崇文主義) 강조 등 학문적 특징에 대해서 당시 사상 지형에서 서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고의당문고가 이관된 덴리도서관의 연혁과 함께 고의당문고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토론자는 조선시대 전공자로 일본사상사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정치사상사연구』(통나무, 2005), 와타나베 히로시의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 2007) 등을 읽고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古義學)’의 사상적 특징

발표자께서는 “일본사상사에서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古義學)’은 아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의 ‘성학(聖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고문사학(古文辭學)’과 함께 ‘고학과(古學派)’로 분류된다.”라고 하였고,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의 사상적 특징으로 기일원론·공자와 『논어』를 중시하는 학문 태도·숭문주의(崇文主義) 강조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고학과 내에서 아마가 소코의 성학, 오규 소라이의 고문사학 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이 일본 고학과 내에서 가지는 사상적 차별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진사이학과 고의당문고의 관련성

학문의 성립과 학풍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토 진さい가 설립하고 그 후대에서 숙주(塾主)를 계승한 고의당의 장서(藏書)는 일정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오규 소라이가 1704년에 구입한 서책 가운데 이반룡의 『창명집(滄溟集)』 16권과 왕세정의 『엄주산인사부고(兪州山人四部稿)』 174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명대 고문사파(古文辭派)의 영향을 받아 고문사학을 제창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토 진さい가 애용한 서적으로 강희신미(康熙辛未, 1691년) 신전(新鐫) 『감본사서(監本四書)』, 명대판(明代版) 『사서집주대전(四書集註大全)』(주희괴 교정 사서대전周會魁校正四書大全), 칸에이(寬永) 연간(1624-1645)에 일본에서 간행된 『주역경전(周易經傳)』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책을 포함해 고의당문고와 진사이학과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해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토 진さい는 경전 해석에 있어 주자학의 논리를 버리고 텍스트를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가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간행된 『감본사서』와 『사서집주대전』 등을 애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고의당문고 가운데 진사이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당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양해를 바랍니다.